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4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2019

“이 학술지는 2015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AKS-2015-OLU-2250007)”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4

편집대표

박 넬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책임편집

장호중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편집위원

백태현 (키르기스 한국대)

이근중 (KIMEP 대)

한 넬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손영훈 (한국외국어대)

편집간사

카이르케노바 굴나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Research and Education vol. 4
Almaty: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KazUIR&WL, 2019, 270 p.

ISSN 2522-1434

발행일: 2019년 8월 30일

발행기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발행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주 소: Tole bi str. 84,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목차

(R은 러시아어, E는 영어. 논문은 필자의 러시아어 알파벳순.)

* 이하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김태호. 일본 간사이(関西) 지역의 한국학 현황	5
2. 악사날리에바 자밀라. 한국 문화의 공간 모델 (R)	23
3. 젯피소프 사켄.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어의 3 중 언어 (E)	39
4. 김 올라, 리보바 이리나, 옐킨 데니스. 한국어와 러시아어 구의 분류 (R)	64
5. 김소영. 불가리아의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동향 및 발전 방향 (E)	76
6. 김다민, 김이연.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	88
7. 김 울리야나. 대중 의료 담화의 의사소통 전략 및 전술 (R)	100
8. 쿠르만베코바 발렌티나. 예술 텍스트에서의 개념의 번역 특성 (R)	109
9. 쿠틀루코프 시르자트. 동북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제관계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R)	119
10. 이 올라. 한국어교육에서의 프로젝트 교수법 (R)	130
11. 명 드미트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형성, 현황 및 전망 (R)	142
12. 무하메자노바 메루예르트, 아망젤디 아크보타. 한국어 정치 담화에서의 영어 차용어 (R)	157
13. 오르모노바 아이자르킨. 역사적 전제 조건과 외교정책의 목표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관계 수립에 미치는 영향 (R)	172
14. 백태현, 세리쿨로바 미나라.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	184
15. 사프로노바 류드밀라, 세르무하메토바 바그잔. 한국의 현대 서사 (R)	198
16. 스타베코바 티나틴. 문화의 교차점에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R)	206
17. 전 엘레나. 한국의 대안교육 형태와 카자흐스탄에서의 도입의 어려움 (R)	215
18. 세인펠트 아셀.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종교관광 (R)	229
19. 장호중.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황	239

<참고> 한국어-러시아어 인명 지명의 상호표기	253
집필진 (R)	263
집필진	265
목차 (R)	267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의 한국학 현황

김태호(金泰虎)

일본 고난대학(日本 甲南大學)

개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대적 한국학 교육이 시작되고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다. 한국학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 전반, 즉 언어, 문화, 사회,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인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자녀들에 대해 언어,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야학과 서당이 있었다. 반면 간사이(關西) 지역에는 일본인이 설립한 한국학 교육기관은 오사카(大阪) 외국어학교, 텐리(天理) 외국어학교가 있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여 제일 한국인은 자녀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한국어, 역사, 문화 등의 교육을 시키려는 교육기관의 설립에 나서서 강습소, 강습회, 한국어 학원, 각종학교, 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제일 한국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을 폐쇄하라는 조선인학교 폐쇄령이 내려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에서 「한신(阪神)교육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간사이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교육을 하는 민족학급이 탄생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한국에 관한 교육을 했는데 이를 민족교육이라고 한다. 한편 오사카 외국어학교, 텐리 외국어학교는 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민족학급을 수강하는 학생수가 하강 국면을 맞이하자 한국 정부는 민족교육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1963년 오사카의 한국 교육원을 시발로 하여 일본 전국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원을 설립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일본도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제일 한국인의 민족학급과 일본의 한국학 교육기관이 함께 교육을 하게 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돌입하면 일본에서 한국 붐의 영향이 일어나 대부분의 일본의 대학은 한국어를 채택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전공학과가 개설되며 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학원, 심지어 기업에서까지도 한국학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간사이 지역에서는 제일 한국인의 민족학급과 일본인의 한국학 교육기관이 병존을 하고 있다.

주제어: 한국학, 간사이(關西)지역, 긴키(近畿)지방, 민족교육, 민족학급, 한국어, 교육기관

Abstract: In Japan, under the special situation that Korea i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modern Korean studies education began and an educational institution was established. Korean studies are general knowledge for Korea, that is, various fields such as language, culture, society, history, geography, politics, economy, etc. However, Koreans who lived in Japa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 occupation, there were evening schools and temple schools, which are educational institutes that can teach children their own language, history, culture, etc. On the other hand, in the Kansai region, there were Osaka Foreign Language School and Tenri Foreign Language School, which were established by Japanese.

With the liberation in 1945, Koreans in Japan started to establish educational institutions to educate children on Korean language, history, culture, etc. related to the identity of Korean people, training institutes, seminars, Korean language institutes, established various schools and schools. However, when the Korean school closure order to shut down the educa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Koreans in Japan was issued, the Hanshin education struggle occurred in the Kansai area around Osaka. As a result, ethnic classes were given after school at public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in the Kansai region, and various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conducted education about Korea, which is called ethnic education. Meanwhile, Osaka Foreign Language School and Tenri Foreign Language School have been reorganized into universities.

In the 1960's, when th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ethnographic classes falls, the Korean government will teach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throughout Japan, starting with the Korean Education Institute in Osaka in 1963 in the sense of complementing ethnic educ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1980s, Korean academic education was conducted mainly at Japanese universities, and it was decided that Korean ethnic classes in Japan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n will be conducted Korean studies together.

Since entering the global era, the Korean boom in Japan has caused many Japanese universities to adopt Korean language for education and to have majors established, and colleges, vocational schools, high schools, supplemental schools, and even companies also educates Korean studies. In particular, in the Kansai region of Japan, the ethnic classes of Koreans in Japan and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Japanese Korean studies coexist.

Keywords: Korean studies, Kansai region, Kinki region, Ethnic education, Ethnic class, Korean, Education Institute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입각하여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의 한국학 교육기관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그 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는 시대적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과 그 후유증이 맞물려 있고, 또 일본 내의 한국학의 상황이 복잡하며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사이(關西) 지역을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 한국학의 지역적 특징을 파악해 보는 것은 전체적인 일본 한국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본고에서 다루려는 간사이(關西) 지역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뒤에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간사이(關西)는 일본 국내의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는 2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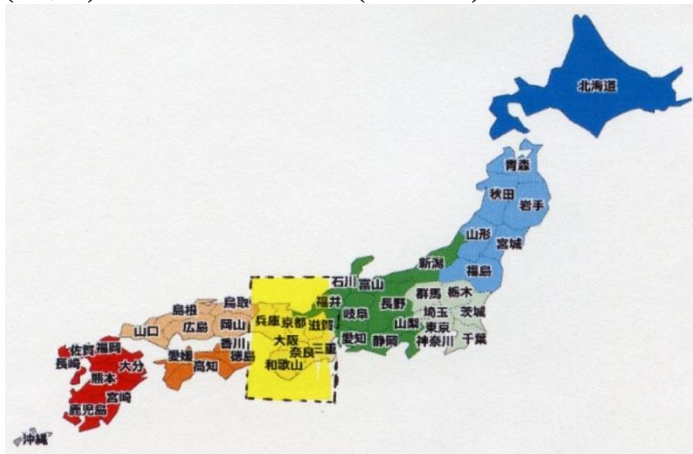
4 현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효고현：兵庫県, 시가현：滋賀県, 나라현：奈良県,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을 뜻한다.

아래 (그림 1)의 간사이(關西) 지역은 (그림 2)의 일본 열도의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보면 사각의 점선 부분에 해당된다.

(그림 1) 일본의 간사이(關西) 지역(2 부 4 현)



(그림 2) 일본 열도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이외에 2 부와 4 개의 현에 3 개의 현(후쿠이현：福井県, 돗토리현：鳥取県, 도쿠시마현：徳島県)을 넣어 2 부 7 개의 현을 간사이(關西)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음의 (그림 1)에서 제시한 2 부 4 현을 간사이(關西) 지역으로 간주한다.

참고로 간사이(關西) 지방은 5 기나이(畿内)(야마시로국：山城国, 셋츠국：摂津国, 가와치국：河内国, 야마토국：大和国, 이즈미국：和泉国)와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긴키(近畿) 지방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주요 백과 사전에는 긴키(近畿) 지방은 2 부 5 현(오사카부: 大阪府, 교토부: 京都府, 효고현: 兵庫県, 시가현: 滋賀県, 나라현: 奈良県, 와카야마현: 和歌山県, 미에현: 三重県) 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다¹. 현재 간사이(關西) 지방은 관동(關東) 지방과 대치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방송국의 기상정보에서는 긴키(近畿) 지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한국학(Korean Studies)의 영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 전반, 즉 언어, 문화, 사회,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한국학 내용은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와 사회의 영역을 상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사회의 영역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출발점과 관점의 중심은 외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학이라는 용어는 해방 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비슷한 의미로 한국에서는 국학이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국학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자민족에 기초하고 있어 국제사회와 외국인에게는 보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와 국수주의적인 색채도 짙다.

이러한 한국학은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는 연구,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학습, 네 번째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는 네 측면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는 한국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연구자, 두 번째는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육과 교육자, 세 번째는 배우는 학습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자가 한국학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다. 본고에서는 네 번째의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한국학에 관한 선행연구는 교육과 교육자, 그리고 학습과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테마(Thema)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². 한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학 연구는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간사이(關西) 지역은 해방 전부터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특징과 재일 한국인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격렬하게 투쟁을 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한국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재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기관인 「민족학급」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다³.

¹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広辞苑』(岩波書店), 『大辞泉』(小学館), 『大辞林』(三省堂), 『日本大百科全書』(小学館)을 의미한다.

² 金泰虎 『韓国語教育の理論と実際』(白帝社、2006 年)、李知垠 「語彙翻譯으로 인한 日本語圈 學習者 誤用 様相」(『韓国文化研究』第 8 号、韓国文化学会、2018 年) 등을 들 수 있다.

³ 中島智子 「在日朝鮮人教育における民族学級の位置と性格—京都を中心として—」(『京都大学教育学部紀要』第 27 号、京都大学教育学部、1981 年),

그러나 간사이(關西) 지역을 한정하여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설립한 한국학 교육기관까지 모두를 시야에 넣어 분석을 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기점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설립한 간사이(關西) 지역의 한국학 교육기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시대적 흐름과 각 교육기관이 갖는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단, 조총련⁴에 관련이 되는 한국학 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일본 한국학의 경위

1.1. 네이션(Nation)과 한국학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에 서양에서 전해진 네이션(Nation)이라는 개념에는 시민적(Civic)과 종족적(Ethnic)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네이션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종족적인 개념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표현 중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⁵.

한국에서는 네이션의 개념 중 민족적 함의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에는 한국인이라는 민족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당시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의 대표적인 예는 3·1 독립운동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억압 하에서는 민족의식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민족은 일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하여 스스로 살아 가야 한다는 민족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운동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독립운동의 이면에는 한민족이라는 혈통과 종족을 중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족의 개념은 한민족, 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성립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국의 언어, 역사, 문화의 교육은 빼놓을 수 없다. 식민지 지배기에 일본에 이주한 한국인

金徳龍「50年代前半期における在日朝鮮民族教育の一考察—公立分校・分校、民族学級を中心に—」(『朝鮮大学校学報』3号、1998年)、梁陽日「大阪市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課題と展望—民族学級の教育運動を手掛かりに—」(『Core ethics (コア・エジックス)』Vol. 9、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2013年) 등을 들 수 있다.

⁴ 해방(1945) 후 10월에 재일 한국인은「在日本朝鮮人連盟」을 설립하고, 다음 해 10월에는「在日本朝鮮居留民団」(현재의 日本大韓国民団：民団), 1955년에는「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総連)를 만들었다.

⁵ 金泰虎「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p.11.

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핵심적 내용으로 당시 한국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영역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자민족(한민족)=자국민에게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한국학이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민족이라고 해도 재일 한국인⁶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같이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 살며 현지에서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다⁷.

해방 후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과 교육기관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재일 한국인의 활동, 경과, 그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일본 한국학의 시초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스탈린에 의한 재소 한국인의 강제 이주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한일간의 교류와 지정학적 관계로 인해 전근대시기부터 불가분한 관계를 형성하며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의 근대적인 한국학의 본격적인 시초는 개항기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1910 년의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에서의 한국학을 다루고자 한다. 이같은 시대적 배경, 즉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된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학이 시작되었다. 식민지 지배 하 일본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한국인의 일본 이주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상호 맞물린 가운데 전개되었다.

한국인의 일본 이주 경향은 시기적으로 그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한국학 교육기관의 면모도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⁶ 별칭으로 재일 교포, 재일 동포라고도 하는데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은 2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즉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후에도 계속 일본에 거주해 온 한국인과 그 자녀들은 특별 영주자, 그리고 1965 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그 자녀들은 일반 영주자라고 한다.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전자는 올드 커머(Old Comer), 후자는 뉴 커머(New Com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 한국인이지만 일본인으로 국적을 바꾼 귀화인은 표면적으로는 재일 한국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⁷ 1978 년 한국에서는 한국학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 법률 제 3116 호, 1978 년 6 월 22 일)을 설립했으나, 2005 년에는 한국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 7350 호, 2005 년 1 월 27 일)으로 명칭으로 바꿨다. 이 기관에서 한국학이라는 명칭 하에서 한국인도 공부를 하고 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전의 일본 거주 한국인은 주로 유학생이나 정치 망명자가 일본에 건너왔고, 합방 후 1920년까지는 단신으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1920년 이후는 가족단위로 이주를 하여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⁸.

그런데 일본에 이주한 한국인은 일본인 사회에 섞여 살지 못하고 대체로 습지, 하천부지 등의 열악한 지역에 한국인만의 집단 부락을 형성하며 생활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자녀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고, 또 장래에 한국에 귀국하고자 하는 의도로 집단 부락에서 야학과 서당을 개설하여 한국어를 교육하기 시작하였다⁹. 물론 여기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일본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본어와 산수 등도 가르쳤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당국은 이러한 교육 활동을 금지시켰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같은 교육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더더욱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은 없었다. 유일하게 야학과 서당 같은 교육기관을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설립했으나 일본 당국은 폐쇄를 시켰던 것이다. 즉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자녀들에 대해 언어,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야학과 서당 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반면 간사이(關西) 지역에는 일본인이 설립한 한국학 교육기관이 2군데가 있었다. 1921년 전문학교에 해당하는 오사카(大阪) 외국어학교, 그리고 1927년 텐리(天理) 외국어학교를 설립하여 한국학을 가르쳤다. 전자는 국립학교로 국책사업에 충실하게 따르는 입장이며, 후자는 사립학교로 표면적으로는 한국어를 가르쳐 해외 포교에 종사할 사람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 지배를 하는데 협력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식민지 지배기 일본에서의 한국학은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이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교육과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일본인이 주체가 된 한국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즉 한일 간에는 식민지라는 지배와 피지배의 특별한 관계하에서 한국인과 일본 당국은 서로의 목적을 달리하는 한국학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도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 상반된 목적을 지닌 한국학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민족의식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감은 품고 있었으나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교육에 민족이라는 용어를 접목하지는 않았다.

⁸ 일본에 이주한 한국인의 가족형태는 外村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学的研究』(緑陰書房, 2007年) pp.91~98에 서술되어 있다.

⁹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岩波新書, 岩波書店, 2015年) pp.34~35.

2. 해방 후 간사이(關西) 지방의 한국학 교육기관

2.1. 민족교육 기관의 탄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기에 일본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한국인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형성에 관계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을 기회도 시킬 기관도 없었으며 그러한 교육 자체도 일본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재일 한국인은 자녀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한국어, 역사, 문화 등의 교육을 시키려는 교육기관의 설립에 스스로 나섰다. 이는 정체성 형성과 함께 귀국에 대비하여 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사회는 한국을 지지하는 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교육기관도 서로 독자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당시 일본의 간사이(關西) 지역에는 재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일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¹⁰. 오사카(大阪)는 간사이(關西)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재일 한국인의 수도라고 할 정도다. 특히 재일 한국인은 간사이(關西) 지역의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한국 관련 교육기관을 많이 설립했다.

재일 한국인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부터 강습소, 강습회, 한국어 학원, 그리고 각종학교¹¹를 설립하여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전개해 나갔다. 정규 학교로 1946년 3월 오사카(大阪)의 건국공업학교와 건국고등여자학교(현재의 건국소·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당시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GHQ(General Headquarters)는 일본 당국을 통해 재일 한국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을 폐쇄하라는 「조선인학교 폐쇄령」을 내렸다. 다행히 오사카(大阪)의 건국공업학교와 건국고등여자학교는 폐쇄를 면했다. 식민지 지배기와도 같은 한국학 교육의 금지와 교육기관의 폐쇄에 불복한 재일 한국인은 시위에 나섰다. 특히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關西) 지역의 투쟁이 격렬했는데 이를 「한신(阪神)교육투쟁」이라고 한다.

그 결과 GHQ와 일본 당국은 한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과 교육기관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간사이(關西)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¹⁰ 2018년 6월의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간사이(關西) 지역의 특별 영주자와 일반 영주자를 합한 숫자는 다음과 같다. 오사카부(大阪府) 101,554명, 교토부(京都府) 24,249명, 효고현(兵庫県) 39,946명, 시가현(滋賀県) 4,300명, 나라현(奈良県) 3,405명, 와카야마현(和歌山県) 2,055명이다. 참고로 도쿄(東京)는 94,327명이다.

¹¹ 일본의 「学校教育法」(第134号)의 1조에 규정하고 정규학교 이외의 학교를 지칭한다.

에 한국인이 한국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일 한국인은 이렇게 하여 탄생한 교육기관을 「민족학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민족」은 네이션에 내포된 개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민족학급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민족과목」이라고 했다¹³. 당시 일본의 국회에서도 교육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 재일 한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¹⁴.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에 일본에 이주해 살던 한국인은 민족의식을 마음대로 나타낼 수 없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많은 국가가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하면서 세계적으로는 네이션에 의거한 혈통적이고 종족적인 민족이라는 의식은 약화되는 추세였다. 그렇지만 역으로 재일 한국인은 오히려 민족이라는 의식을 강화해 갔다. 그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의 한민족에 대한 억압, 조선인학교 폐쇄령으로 인한 한신(阪神)교육투쟁이 민족의식을 자극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민족과목의 내용인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는 국제적인 추세로는 한국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즉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족학급에서의 민족과목과 한국학은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학급에서의 민족과목과 국제적인 한국학은 내용과 범주 자체에는 차가 없으나 어떤 의도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학」, 즉 「○○학」이라는 용어는 혈통적이고 종족적인 민족보다는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 단위의 「지역」과 「영역」의 의미가 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오늘날에는 한국어, 역사, 문화에 관한 학문을 한국학이라는 용어로 보편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민족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민족교육, 민족학급, 민족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각각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대체하면 「한국학 교육」, 「한국학 학급」, 「한국학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재일 한국인이 사용하는 민족교육, 민족학급, 민족교사라는 용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 재일 한국인의 교육 투쟁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¹² 前掲金泰虎「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p.8.

¹³ 朴正恵『この子らに民族の心を』(新幹社、2008年) pp.22~24.

¹⁴ 1949年10月31日、第6回国会参議院文部委員会会議(「第八部文部委員会會議録第一号昭和二十四年十月三十一日【参議院】」pp.1~4頁、1950年3月30日、第七回国会衆議院文部委員会會議(第七号文部委員会會議録第十四号昭和二十五年三月三十日) pp.5~6.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재일 한국인이 투쟁을 통해 얻은 교육을 민족교육이라고 하고 그 교육기관이 민족학급인 것이다. 부연하면 이 민족학급은 일본의 공립 초중학교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인이 행하는 교육형태를 취하고 있다.

2.2. 1945 년~1970 년까지의 한국학 교육기관

1948 년 재일 한국인의 한신(阪神)교육투쟁으로 재일 한국인은 자녀들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민족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와 재일 한국인 대표가 각서를 교환하고 오사카부(大阪府) 내의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방과 후의 민족학급을 설치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당시 33 개의 학교에서 36 명의 한국인 전임 교원이 교육을 담당했다¹⁵. 이미 언급한 1946 년 오사카(大阪)의 건국학교(현재의 건국 소·중·고등학교), 이외에도 재일 한국인은 1950 년에 민족학교로 일컬어지는 오사카(大阪)의 금강학원, 1958 년에는 교토(京都)에 교토(京都) 국제학교를 설립했다.

한편 해방 전 간사이(関西) 지역에 한국인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본인이 설립한 한국학 교육기관인 오사카(大阪) 외국어학교와 텐리(天理) 외국어학교는 1949 년에 각각 오사카(大阪) 외국어대학(2007 년 오사카대학에 합병)과 텐리(天理)대학으로 재편되었다. (표 3)의 ②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선 중의 화살표는 두 개의 학교가 1949 년에 대학으로 재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족학급은 1960 년대에 들어 수강을 하는 재일 한국인 자녀들의 학생수가 줄어 점차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¹⁶. 이에 한국정부는 1963 년 오사카(大阪)의 한국 교육원을 시발로 하여 일본 전국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원을 설립했다. 간사이(関西) 지역에 설립된 교육원은 (표 1)과 같다¹⁷.

¹⁵ 朴永奎 「日本各地の公立学校における民族学級の設置について」 (『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 年) 는 오사카 (大阪) 외의 간사이 (関西) 지역에서도 민족학급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¹⁶ 前掲金泰虎 「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 pp.24~25.

¹⁷ 『간사이 민족교육 70 년 발자취』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교육관실, 선명인쇄, 2017 년) pp. 114~115 를 참고로 작성했다.

(표 1) 간사이(関西) 지역의 교육원(2019년 현재)

번호	교육원 명	설치 년도	비고
1	오사카(大阪) 교육원	1963년	존속
2	교토(京都) 교육원	1963년	존속
3	고베(神戸) 교육원	1963년	존속
4	와카야마(和歌山) 교육원	1967년	2011년에 폐지
5	나라(奈良) 교육원	1977년	존속
6	시가(滋賀) 교육원	1978년	1988년에 통폐합

간사이(関西) 지역에 설립된 교육원은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과 그 교육기관의 쇠퇴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완을 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와카야마(和歌山) 교육원과 시가(滋賀) 교육원은 설립 후 통폐합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나머지의 교육원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

2.3. 1970년대~1980년대 한국학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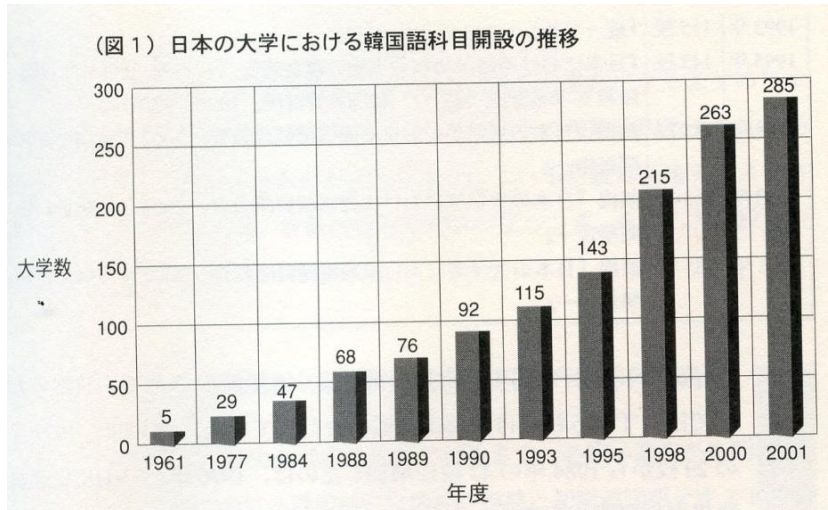
1970년대에 접어들어 오사카(大阪) 이외의 간사이(関西) 지역 대부분의 민족학급은 없어지고 오사카(大阪)의 민족학급도 10개교에 11명의 전임교원밖에 남지 않았다. 1980년에 일본 당국은 민족학급의 한국인 전임교원이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

한편 전임교원이 수업을 담당하는 민족학급은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한편 재일 한국인이 자율적으로 비상근 강사가 가르치는 민족학급은 늘어났다. 게다가 재일 한국인의 단체인 민단은 1977년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민족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1984년부터 NHK의 한글강좌(㉓)가 시작되어 일본인이 중심이 된 다른 하나의 한국학 교육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출범 당시 강좌의 명칭을 둘러 싸고 민단과 조총련이 서로 대립하는 일이 발생했다. 즉 강좌의 명칭을 한국어로 하려고 하면 조총련에서 반발을 하고, 반대로 조선어로 하려고 하면 민단이 항의를 했다. 따라서 양측의 항의를 회피하는 의미에서 NHK 측은 「한글강좌」로 정했다.

남북한의 분단과 대립은 일본에서의 재일 한국인의 단체를 민단과 조총련으로 양분시키고 더욱이 한국학 교육기관의 명칭에까지 대립을 가져오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한국어의 명칭에 대한 대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에서는 그 명칭으로 한국어, 조선어 외에 한글, 코리아(Korea)어, 우리말, 「한국·조선어」 등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도 이와 같은 상황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한국학 교육기관에 따라 그 호칭도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의 교육 및 그 교육기관도 상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6 년의 아시안 게임(Asian Game)과 1988 년의 서울 올림픽(Olympics)을 계기로 일본의 일부 대학에서 제 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여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圖 1)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¹⁸.



이전 시대와는 달리 1980 년대 중반부터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 교육이 대학을 중심으로 움트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제일 한국인에 의한 민족교육과는 별도로 일본인의 한국학 교육이 확대되어 점차 그 교육기관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 즉 한국학을 교육하고 있더라도 그 모두를 민족교육 내지 민족교육 기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¹⁹. 예를 들면, 일본의 대학에서 민족학급과 같은 내용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을 행하더라도 민족교육 내지 민족교육 기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6 개 항목의 조건을 채울 수 있어야 민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表 2)에서 실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민족교육의 제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이며 실선이 끊기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 조건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표 2)의 제 교육기관은 6 개 항

¹⁸ 이 (圖 1)은 金泰虎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諸問題」 (『韓国語教育の理論と実際』白帝社、2006 年) p.38 에서 인용했다.

¹⁹ 前掲金泰虎 「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광의의 민족학급은 (표 3)에서 보면 ③ ~ ⑪이며, 협의의 민족학급은 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목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나 설립 배경(역사성)이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 즉 민족교육과 관련이 있고, 또 그 연속선 상에 있으므로 민족교육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래 민족교육 기관은 재일 한국인의 교육투쟁(역사성)과 관련이 있으며 한국인 교원(교사)이 정체성에 관한 교육(교육내용)을 가지고 재일 한국인의 자녀(수강생)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수강료)을 실시하는 곳이다. 수강생의 수강 목적은 스스로의 뿌리를 알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表2) 民族教育の条件と実施機関

条件 機関	歴史性	教育内容	教師	受講生	受講目的	受講料
A 民族学校				①		②
B 民族学級				③		
C 各種学校						④
D 韓国語学院						⑤
E 教育院	⑥			⑦		⑧
F 民団学校	⑨					
G 世宗学堂	⑩			⑪		⑫
H バックル学校	⑬					

* 表の機関別の線が途切れているのは、その項目において満たしていない意味合いである。

(表2)의 A 민족학교는 오사카(大阪)의 건국학교, 금강학교, 그리고 교토(京都)의 교토 국제학교다²⁰. A 민족학교의 3개 항목에서 ①의 실선이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일본인 자녀들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강료의 ②에서 실선이 끊긴 것은 교사의 급료와 학교의 유지를 위해 수강료, 즉 수업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 B 민족학급에서 수강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최초 오사카부(大阪府)와의 협정에서 오사카부(大阪府)가 교육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③이 실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재정적 부담을 하는 오사카부(大阪府)가 국제화 시대에 재일 한국인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자녀들을 비롯한 외국인 아동도 수강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²⁰ 1954년 도쿄(東京)에서 「동경한국학교」를 개설하고, 2008년에는 간사이(関西) 지역인 오사카(大阪)에 재일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코리아 국제학원」을 설립하여 한국학 교육기관으로 출범했으나 민족교육 기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줄곧 C 각종학교와 D 한국어학원에서도 민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해오고 있다²¹. 역사성 항목을 시계열적으로 보면 E 교육원(⑥), F 민단학교(⑨), G 세종학당(⑩)은 1979년에는 도쿄(東京) 및 1999년에는 오사카(大阪)에, 그리고 1998년에는 H 한글학교(⑬)가 설립되었다. 각각 실선 길이에 차이를 보이는 민족학급이 쇠퇴하는 시기에 민족 정체성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G 세종학당은 2012년에 세종학당재단으로 개편하면서부터 본래의 제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교육과는 달리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목적(⑫)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민족교육 기관으로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일본인 수강생(⑪)을 받아 들이고, 수업료까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G 세종학당은 일반적인 한국학 교육 기관으로 변질된 것이다.

특히 H 한글학교는 탄생의 역사로 보면 글로벌(Global)시대이지만 제일 한국인 자녀들에게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면 민족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해외에 사는 한국인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학 교육기관 설립과 교육의 주체, 역사성, 그리고 교육목적은 일반적인 한국학과 민족교육의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3. 글로벌 시대의 한국학 교육기관

전임교원이 배치된 민족학급이 쇠퇴의 길을 걷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전임교원이 아닌 클래스(Class)는 늘어났다. 그 이유는 1980년 일본 당국은 민족학급의 한국인 전임교원이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전임교원이 아닌 클래스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1991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민족학급의 한국인 전임교원이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지 않기로 했던 일본 당국은 방침을 바꿔 1994년부터 1970년대 초 간사이(關西) 지역의 수준과 같이 11명의 전임교원은 유지하기로 했다²². 이로 인해 오사카(大阪)의 민족학급은 여전히 제일 한국인 자녀들의 민족교육 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다. 게다가 2010년부터 한국 정부는 민족학급에 대해 교재 개발비, 교사의 연수 명목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²³.

²¹ 간사이(關西) 지역의 각종학교는 학교법인 고베(神戸)한국학원, 교토(京都)신명학원, 한국어학원으로는 니시야마(西山) 한국학원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前掲『간사이 민족교육 70년 발자취』 pp.175~180를 참고.

²² 前掲金泰虎「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 pp.28~29.

²³ 朴永晙「民族学級と韓国政府」(『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

식민지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의 민족학급 및 한국학을 가르치는 제 교육기관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일본의 한국학 교육기관

시계열	식민지시대	해방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글로벌시대	현재
한국학 교육기관	① 서당·야학 ② 일본대학		③ 강습소 ④ 한국어학원 ⑤ 각종학교 ⑥ 민족학급 ⑦ 민족학교	⑧ 교육원	⑨ 민단	⑩ 세종학당 ⑪ 한글학교 ⑫ NHK 한글강좌 ⑬ 일본대학 ⑭ 학원 ⑮ 대학전공 ⑯ 고등학교 ⑰ 단기대학 ⑱ 전문학교 ⑲ 기업		

글로벌 시대의 일본에서는 한류 붐(Boom), 즉 한국 드라마(Drama), 영화, K-pop 이 일본인 사이에도 인기가 있어 한국문화에 대한 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까지도 붐이 일어나고 있다. (표 3)의 세종학당(⑩)의 경우는 실선에 화살표가 들어간 시기부터는 글로벌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한다는 교육목적으로 바꾼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도 제일 한국인의 민족교육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후에 시작했던 ④~⑦의 교육기관이 민족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⑧·⑨·⑪은 시기적으로 ④~⑦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나 ⑥이 쇠퇴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것이다.

이외의 ⑫~⑲는 교육기관과 그 교육의 주체가 일본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일본인이 주관하는 한국학 교육기관이 늘어난 특징이 있다. 즉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일본의 많은 대학(⑬)과 단기대학(⑰)은 글로벌 시대의 커리큘럼(Curriculum)으로 개편하여 한국어를 제 2 외국어 및 제 3 외국어로 채택했다. 특히 일부의 고등학교(⑯)에서까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참고로 일본의 고등학교는 한국과 같이 제 2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圖 1)에서 보는 것처럼 2001 년에 일본 전국의 대학 약 500 개교 중 거의 60%에 달하는 285 개교가 한국어를 제 2 외국어로 채택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 2 외국어 및 제 3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참고로 현재 간사이(關西) 지방에는 오사카부(大阪府) 58 개교, 교토부(京都府) 36 개교, 와카야마현(和歌山県) 4 개교, 시가현(滋賀県) 10 개교, 효고현(兵庫縣) 41 개교 나라현(奈良縣) 14 개교로 합계 163 개의 대학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17) 및 전문학교(18)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전공학과도 설립했다. 간사이(關西)지역에서 전공학과가 있는 대학은 해방 전부터의 교육을 해 온 오사카(大阪) 대학과 텐리(天理) 대학을 비롯한 긴키(近畿)대학, 전문학교로는 교토(京都)외국어 전문학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학원(14)으로는 ECC, 공민관, 대학의 사회인 강좌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름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개인학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대는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19)에서도 교사를 초빙하여 한국학을 교육하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지사에 파견할 사원 교육과 한국 기업에서 상담(商談) 차 일본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시대의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재일 한국인에 의한 특별한 한국학 교육기관인 민족학급과 일본인의 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즉 시대적 흐름의 변화와 한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학원, 심지어 기업까지 한국학을 교육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은 어디까지나 재일 한국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이외의 대부분의 교육기관과 교육의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시대는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의 교육과 교육기관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한국문화가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가며

한일 간 역사의 너울아래 재일 한국인은 해방 후 간사이(關西) 지역의 한신(阪神)교육투쟁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민족학급을 만들었다. 일본의 간사이(關西)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 민족학급이라는 명칭은 재일 한국인 사이에서는 고유명사가 되었고, 또 이와 관련된 민족교육, 민족교사, 나아가 민족학교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에서 정착되어 있다.

이 민족교육의 내용은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되는 언어, 역사 문화, 사회와 같은 과목이다. 이와 같은 과목과 교육 내용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한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교육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간사이(關西) 지역의 민족학급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1980 년대의 중반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 교육이 서서히 일어나게 된다. 즉 해방 이후부터 80 년대 중반까지는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이 우세를 점했다고 한다면, 80 년대 중반 이후는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과 일본인이 시작한 한국학 교육과의 경쟁을 하는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 교육 기관이 많이 생겨나 종래의 민족교육 기관보다 숫적으로 압도하게 되었다.

아무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과 일본인에 의한 한국학 교육은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일치하지만 실시 의도와 그 역사성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교육 내용과 과목에 국한시킨다면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도 일반적인 한국학의 교육 내에 포함시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 의도와 역사성, 그리고 실시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양자는 서로 독자적으로 병립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간사이(關西) 지역에서 나타나는 한국 관련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보편성은 앞으로도 상호 공존하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 金泰虎 『韓国語教育の理論と実際』 (白帝社、2006 年) pp.1~243.
2. 金泰虎 「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 (『韓国文化研究』別冊第 1 号、韓国文化学会、2018 年) pp.7~37.
3. 李知垠 「語彙翻譯으로 인한 日本語圈 學習者 誤用 様相」 (『韓国文化研究』第 8 号、韓国文化学会、2018 年) pp.51~69.
4. 中島智子 「在日朝鮮人教育における民族学級の位置と性格—京都を中心として—」 (『京都大学教育学部紀要』第 27 号、京都大学教育学部、1981 年)
5. 金徳龍 「50 年代前半期における在日朝鮮民族教育の一考察—公立分校・分校、民族学級を中心に—」 (『朝鮮大学校学報』3 号、1998 年) pp.115~131.
6. 梁陽日 「大阪市公立学校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教育の課題と展望—民族学級教育運動を手掛かりに—」 (『Core ethics (コア・エジックス)』Vol.9、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2013 年) pp.245~256.
7. 外村大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 (緑陰書房、2007 年) pp.1~503.
8.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岩波新書、岩波書店、2015 年) pp.1~239.
9. 朴正恵 『この子らに民族の心を』 (新幹社、2008 年) pp.1~235.
10. 朴永奎 「日本各地の公立学校における民族学級の設置について」 (『韓国文化研究』別冊第 1 号、韓国文化学会、2018 年) pp.39~69.
11. 朴永炅 「民族学級と韓国政府」 (『韓国文化研究』別冊第 1 号、韓国文化学会、2018 年) pp.71~84.
12. 『日本法務省統計』 (2018 年 6 月)
13. 『간사이 민족교육 70 년 발자취』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교육관실, 선명인쇄, 2017 년) pp.1~195.
14.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広辞苑』 (岩波書店), 『大辞泉』 (小学館), 『大辞林』 (三省堂),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Модели космоса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Аксаналиева Ж.Н.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развитых мифологиях космогоническим мифам соответствует развернутая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и структурно наглядная космическая модель. «Творение» означает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Сотворение мира», которое также называется Космогонией или Происхождением Вселенной (Космос). Космогония обычно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не только рассказ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мира, но и описание его физических качеств, заявляя, например, о том, есть ли свет или тьма в Космосе или из каких частей он сформирован. Точно так же Теогония (Происхождение Богов)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 себя описанием их появления, но также устанавливает их число и описывает их характер и функции.

Космогония и Теогония не могут быть полностью разделены, потому что мифы установили, что части Космоса являются богами, говоря, например, что Земля (Гайя) и Небо (Уран) являются в то же время физическими реальностями и божествами, наделенными видом силы и интеллект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ым атрибутом божественного.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Космос был создан богами, но не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боты конструкторов или демиургов, а через Любовь и общение.

Первобытный хаос, который некоторые называли пустотой, а другие равны с беспорядком, иногда появляется как существо, способное к общению и продолжению рода. Точно так же Тартар, описанный некоторыми как мрачное место в Подземном мире, «будучи далеким от земли, как земля с неба» (Гесиод, Теогония 720), породил несколько существ.

Космос - это не безжизненная сцена, на которой актеры выполняют свои роли, но вместо этого актеры, являются божествами. Ибо боги создают новые сегменты Космоса, объединяясь друг с другом, и эти новые сегменты, будучи самими богами, создаются и производятся. Поэтому мифические рассказы, хотя и различаются по своим деталям, рассматривают творение и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одно и то же. В этой точке зрения «создание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встречи, а генезис является продукт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дя снова в цепь Творения или Прообщества, нужно прийти к конечному предку, или, как говорили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к первопричине. Некоторые называли этого предка Хаосом, тогда как другие называли его иначе, или также указывали несколько одновременных предков. Тем не менее, некоторое начало часто встречается либо в Хаосе, либо в них.

Основным метафизическим вопросом, на который пытаются ответить мифы создания, является вопрос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или о том, откуда происходят вещи. Появление дня от ночи, рост растений из семян, происхождение погоды и времен года, рождение живых существ, все провоцируют вопросы относительно источника этих явлений. Мифы о создании служат в большинстве обществ, чтобы дать отчет о таком происхождении.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с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в большинстве записанных мифов о создании - это рождение человека. Это приводит к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антропоморфизации оригинальных принципов или способностей творения как первобытных родителей,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В классическом греческом мифе о Гесиоде Земля Мать, Гея, пропитана Небесным Отцом, Ураносом, и рождает Кроноса, который позже убивает своего отца и объединяется с его матерью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расы гигантов, первого смертного живого существа в мире. Полы земли и неба перевернуты в египетском мифе о творениях, в котором изображена богиня коровы с длинными волосами и свисающими грудями, надземная богиня Геб, ее супруга, как его защитник неба.

Мифы о создании во многих культурах приписывают разные части космоса различным частям тела божественного существа или дают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корни для полов. В вавилонском мифе Мардук убивает змея Тиамат и делает небо и землю из ее разделенного тела. Тело гигантского Пуруши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Вселенной в ведическом мифе.

Мифы о создании имеют двойственную связь с телом, поскольку они стремятся как имитировать, так и объяснять телесные процессы, такие как рождение и рост. Считается, что функции и качества человеческого тела, или микромира, отражают функции внешнего мира или макрокосма. Тело и земля становятся едиными в этих мифах, а человече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геологические образования, растительная жизнь и животная жизнь раскрыты с помощью метафор и изображ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размножением и развитием человека. Точно так же наблюдаемые оппозиции и дихотомии в мире учитываются как конкурирующие выражения двух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соперничество которых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нообразию творения.

Title: Space Models in Korean Culture

Author: Zhamilya Axanaliyeva,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In developed mythologies, the cosmogonic myths correspond to a space-unfolded and structurally visual space model. "Creation" means in this context the Creation of the World, also called Cosmogony or the Origin of the Universe (Cosmos). Cosmogony usually includes not only a story about the origin of the world, but also a description of its physical qualities, declaring, for example, whether there is light or darkness in Cosmos or from what parts it is formed. Similarly, Theogony (the Origin of the Gods) does not limit itself to

describe their appearance, but also establishes their number and describes their character and functions.

Cosmogony and Theogony cannot be completely separated, because myths have established that parts of Cosmos are gods, for example, that the Earth (Gaia) and Sky (Uranus) are at the same time physical realities and deities endowed with a kind of power and intelligence, which is the exclusive attribute of the divine. For this reason, we can say that the Cosmos was created by the gods, but not as a result of the work of designers or demiurges, but through Love and communication.

Primitive chaos, which some called emptiness, while others are equal with disorder, sometimes appears as a creature capable of communication and procreation. Similarly, Tartarus, described by some as a gloomy place in the Underworld, "being far from the earth, like earth from heaven" (Hesiod, Theogony 720), gave birth to several creatures.

Cosmos is not a lifeless scene in which actors play their roles, but instead actors are deities. For gods create new segments of the Cosmos, uniting with each other, and these new segments, being gods themselves, are created and produced. Therefore, mythical stories, although differing in their details, regard creation and creativity as one and the same. In this view, "creation is the result of a meeting, and genesis is a product of interaction."

Going back into the chain of Creation or Communion, one must come to the final ancestor, or, as some of them said, to the root cause. Some called this ancestor Chaos, while others called it differently, or also pointed out several simultaneous ancestors. However, some beginning is often found either in Chaos or in them.

The main metaphysical question that creation myths are trying to answer is the question of the origin or where things come from. The appearance of the day from the night, the growth of plants from seeds, the origin of the weather and the seasons, the birth of living beings, all provoke questions regarding the source of these phenomena. Creation myths serve in most societies to give an account of such an origin.

The central bodily image in most recorded creation myths is the birth of man. This leads to the widespread anthropomorphization of the original principles or abilities of creation as primitive parents, men and women. In the classical Greek myth of Hesiod, the Earth Mother, Gaea, is saturated with Heavenly Father, Uranos, and gives birth to Kronos, who later kills his father and unites with his mother to produce a race of giants, the first mortal living creatures in the world. The floors of the earth and sky are inverted in the Egyptian creation myth, which depicts the goddess of a cow with long hair and dangling breasts, the elevated goddess Hebe, her husband, as his protector of the sky.

Myths about creation in many cultures attribute different parts of the cosmos to different parts of the body of a divine being or give alternative roots to the sexes. In the Babylonian myth, Marduk kills the serpent Tiamat and makes

heaven and earth from her divided body. In the Scandinavian myth, the three creator deities kill the bisexual Gimir Ymir, making the Earth from his body, the sea from his blood and the sky from his skull. The body of the giant Purusha is the basis of the universe in the Vedic myth.

Myths about creation have a dual relationship with the body, as they seek to both imitate and explain bodily processes, such as birth and growth. It is believed that the functions and qualities of the human body, or the micro world, reflect the functions of the external world or the macrocosm. The body and the earth become one in these myths, and human origins, geological formations, plant life and animal life are revealed with the help of metaphors and images associated with human reproduction and development. Similarly, observable oppositions and dichotomies in the world are accounted for as the competing expressions of two brothers and sisters, whose rivalry contributes to the diversity of creation.

Мировая модель определяется как сокраще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бщей суммы мировоззрений в рамках данной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принятой в их системных и эксплуатационных аспектах. Модели мира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Земли схожи, но по-прежнему имеют разногласия из-за различных факторов -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и т. д.

По большей части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модель определяется тремя этапами, а именно: небо, земля и подземный мир. Верхний мир - это небо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абсолютное воплощение верха, член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смысловых оппозиций - Верхняя и Нижняя. В мифологии самая важная часть космоса [1, с. 161]. В мифе Тангун правитель спускается с неба.

Средний мир в основном связан с землей. Это второй уровень вертика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ромежуточное звено, середина между Верхним и Нижним, потому что он принадлежит к вертикальной модели, он является сакральным. Но его независимое значение раскрывается в том, что это среда обитания людей, ныне живущих поколений, поэтому она имеет более подробное развертывание, ее географию, в этом смысле земля более мирская.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мировоззрении подземный мир как воплощение Низа является своего рода противостоянием высшему миру. Нижний мир связан с такими понятиями, как «прошлое, предки». В мифологических концепциях, основанных на трехчастной картине мира, эти отношения естественны [2, с.233].

Все три мира были образно отражены в форме некоторых моделей.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мы находим такое проявление

моделей, как Мировая гора, Мировое дерево и мировая река, проявляющаяся через речных духов.

Гора мир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бъединение миров. Это середина между верхним и нижним мирами. Внутренность горы, пещера, расщелина в скале, т.е. каждый алломорф земной матки в мифологии, может стать местом рождения новой жизни [3, с. 311]. Пещера ограничена естественным дном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ождаемостью и рождением.

Во многих архаических мифах первая причина рождения героя находится на небе, но фактическое место рождения почти всегда локализовано в зем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нутри Кореи (в мифе о Тангуне - гора Тхэбэксан о Ким Суро - горе Пукквиджи, о Ким Альджи – девственный лес близ Кымсона). «Самгук саги» сообщают о повторных поездках «Ванов» Силлы на гору Тхэбэксан для поклонения ей и принесения жертвы [4]. Гора с тем же названием была расположена в районе древнего поселения Когуресцев. Возможно, в этом случае упоминается эта гора.

Так в сам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мифе о Тангуне роли Мировой горы выступает – Гора Тхэбаксан (священная гора).

В мифе о Тангуне на ней у алтаря под священным деревом (Синдансу) спустился с небес отец Тангуна - Хванун и создал священный град или обитель духов (Синси). Название Тхэбаксан лексически возносятся к «светлой горе» и связывают с культом солнца. Тхэбаксан почитается как самая высокая светлая гора, с которой идентифицируется современная гора Пэктусан. В «Самгук юса» Тхэбаксан связан с горами Мёхянсан, но он принадлежал к средневековому периоду, когда Пэктусан был занят племенами чжурчженей.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ифом о Тангуне перерождение от медведя к женщине было в пещере [5, с. 6].

А также Сан-силион, демоны гор. Эти духи считаются хранителями женьшеня и, как таковые, высоко ценятся; они также покровительствуют охотникам на оленей. Они изображают этих духов на алтарях в виде пожилого мужа с яростным взглядом, едущим на тигре. Вокруг него расположены алтари для его гарема, а женским демонам часто дают японский тип.

Тигр, найденный в изобили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является доверенным слугой этих горных духов. Когда он порождает опустошения, люди верят, что местный дух сердится и поэтому спешат умиловить его принося жертвы.

Демоны гор,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ся очень могущественными, очень боятся фермеры и жители горных деревень. Будучи на горе для резки леса или других целей, кореец,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латит духу этой горы ложку риса. Эти демоны очень капризны и требовательны, и за малейшее презрение к ним они мстят виновнику в семье или на скоте и посевах. Тем не менее, видя во сне, дух гор или 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тигра, считается хорошим предзнаменованием. Отшельники придают ему особое почтение в уединенных горных долинах омовениями и жертвами.

То-ди-чжи-синь и Цзон-синь считаются духами местностей; они живут на склонах гор. Им дают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я во время похорон. В частности, Цзон-синь являются главными духами отдельных округов. В честь их строятся небольшие кумирни, очень не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по внешнему виду; чаще всего это просто соломенная хижина, устроенная под деревом. В честь них праздник проводится каждые 3 года, и необходимая сумма взимается за расходы, вызванные последним от всех жителей этого района.

Женские персонаж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ифах часто являются с других племен, как мать легендарного Сок Тхархэ из королевства Ёгук, якобы, происходит из Индии, а также как жены трех основателей (Samylla) - японские принцессы. Сок Тхархэ действует в корейской мифологии как прави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а Силла. Согласно источнику Самгука Юса, его отец был Хамдальфа, правителем мифической страны Енсон, который в переводе означает «Крепость Драконов». Мать Тхархэ, упомянутая принцессой королевства Ёгук, после семи лет беременности родила большое яйцо, которое Хамдальфа приказала положить в ларец с слугами и семейными драгоценностями, положить ларец на лодку и отправить по морю (другой вариант, он бросил яйцо, но его жены нашла его, завернула в шелк, положила его в сундук и отправила по морю) [6, с.158]. Говорят, что Красный Дракон охранял ладью от невзгод. Во-первых, лодка была у берегов страны Карак (по другой версии, сундук, вымытый на берегу Кымгванской земли, но люди не хотели его брать), затем она была в бухте Аджинфо на востоке Керим. Старуха, которая жила на берегу, увидела, что что-то появилось в море, похожее на скалу, на которой стекались сороки. Подплывая ближе к лодке, она нашла лодку с ларцом и принесла ее на берег.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а прочитала заклинание, открылся сундук: в нем был мальчик, высотой 9 верст, окруженный слугами.

В течение семи дней старуха носила для них пищу, и в восьмой день мальчик поднялся на холм Тохам-сан, где он лежал в течение семи дней. Отсюда он увидел дом Пхогона («Принц-тыква») у горы Янсана, которую он освоил, прибегая к хитрости. Впоследствии это место стало «Лунным городом» - Уольсон. Услышав о гениальности Сок Тхархэ, государь дал ему старшую дочь и завещал ему трон. Согласно легенде, мудрость Сок-Тхархэ превосходила людей и обладала даром чудес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После службы в течение 23 лет он умер и стал духом горы Тонак («Восточный пик»). Позже его прах был перенесен на гору Тохамсана, в чьем духовном покровителе он считается [6, с.159].

В случае с именем этого мифолог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считается, что произошло олицетворение некоторы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символов: «Сок» происходит от слова «новый», а «Тархе» включает компонент «тахар» - «земляной», «бастион».

Мировое дерево расположено в центре мира. Три части Мирового Древа соответствуют трем зонам Вселенной. Нижний мир = корни, средний = туловище и верхний = корона. В ритуале воплощение Мирового Древа может быть одиноким деревом или деревом с выдающимся, отличающим его от обычных деревьев, качествами [7, с.389].

Многие мифи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посвящены духам больших старых деревьев. Эти деревья также являются обителью духов,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людям исцелять болезни и приносить счастье. Некоторые растения получили магический эффект (полынь, лавр, персик, женьшень). Большое дерево, на котором висели колокольчики и барабан, даже из древних ханьских племен, словно воплотившее тело духовного покровителя, служило жертвенником для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й и называлось сотто. По всей Корее обычно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ежегодно из дерева, а позже из каменных священных столбов - чансин у входа в деревню, монастырь, на обочине. Они выполняли, в частности, функции духовных хранителей.

Так, например, корейцы на некоторых деревьях видели духов предков. В случае, если ребенок поднялся на дерево и упал с него, мать говорила, что он был наказан духом дерева. Некоторые семьи «усыновляли» отдельные деревья в священной роще. Если ребенок заболел, мать срывала клочок одежды и вместе с подарками отвозила его к дереву, привязывая к ветке.

И там она просила духов болезни остаться в клочке и избавить своего ребенка. Со святыми деревьями были связаны и разные легенды. В одном из них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 ребенок поднялся на дерево, зажег огонь на руке и попросил дерево воскресить свою мертвую мать. Дерево выполнило просьбу мальчика, и его мать ожила [8, с. 154].

Корейцы также полагали, что на большом дереве, расположенном на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е горы Чхонак, какой-то символ мирового дерева, согласн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пустился вниз по Кук-Сасину, духовному покровителю государства. В это время шаманы были обязаны совершать ритуалы и жертвовать духом дерева.

Считалось, что дерево, дающее жизнь, передает магические свойства людям, связанным с ним.

Сосна, кипарис и ива занимают особое место в ритуальной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Особое уважение относилось к сосне и кипарису - «с ними были связаны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королевских предках». С древних времен в Корее принято выращивать сосны и кипарисы на могилах, «чтобы придать силу духу и тем самым спасти тело от распада». Гробы были сделаны из сосновых досок,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останки умершего, а мемориальные доски были сделаны из кипариса. «Персонал сосны в траурных церемониях символизировал материнскую землю» и «с его помощью предсказал шаман (мудан) во имя умершего. Сосна исполнялась не только как сосуд души, но также (в поэзии), как воплощение умершего» [9, с.164].

Согласно корейским идеям, ива была наделена чудесной магической силой, способной возродить природу и повысить плодородие почвы. В период высева в Корее повсюду были разбросаны качели, привязанные к ветвям ивы: ива «действовала как носитель женского продуктивного принципа, и этот обряд должен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хорошему урожаю». Кроме того, до конца XIX века, был священный ритуал получения огня во время летнего солнцестояния, протирая две ивы. Это была ива, которая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для безопасного перехода от жаркого сезона к холодному.

Миф о Чакчегоне, потомок предка Хогиона, рассказывает, как он ушел на запад, попал в подводный дворец короля драконов и по его просьбе убил старую лису. После совершения этого подвига Чакчегон достал свою жену дочери короля драконов, который

также дал ему свинью и иву. У корейцев образ двух переплетенных ветвей ивы служил символом неразрывной любви.

В корейском мифе о Чамуне (см. Чамунг, корейская мифология), законный сын героя признан, когда он может найти половину меча своего отца у основания сосны, растущей из семиугольника. Также в Корее считалось, что святое дерево соединяет три мира существования.

Образ дерева очень часто встречается в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оэтому писатель Пак Вансо,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одно из значительных явлений в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конца XX - начала XXI века, использовал образ дерева, чтобы передать характер его героев или подчеркнуть значение некоторых сюжетных линий, объяснение которых можно найти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понимании корейцев.

В работах извест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Пак Вансо образ дерева в различных проявлениях встречается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онят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старшего» и дерева универсальны, как и модель «дерево-общество» (в которой семья, пол, государство) понимается в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ах. Концепция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символических форм, связанных с деревом - мировым деревом, отражающим самую универс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с которой сталкиваются разные общества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этапе развития, была использована Пак Вансо, чтобы подчеркнуть значение определенных сюжетных линий, выразить его авторские положение или показать характер его персонажей.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ервый роман Пака Вансо, вышедший в 1970 году, называется «Голое дерево» - Намок [10]. В названии романа лежит глубокий смысл. Писатель выражает хаос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екогда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ореи через образ мертвого дерева в живописи художника. Но мирное послевоенное время символизируется другой картиной: не увядшее дерево, а голым деревом, которое падало листьями осенью, чтобы покрыть грядущими весенними зелеными листьями, расцвести и принести плоды. Это дерево символизирует стрем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к мирной творческой жизни.

Действие этой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ой работы происходит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1953).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роман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просто рассказом о незабываемой любви молодой девушки по имени Ли Ген и женатого

художника Ок Хидо. Они оба работают в мастерской на военной базе армии США, где героиня принимает заказы, а г-н Ок рисует портреты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 фотографий.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свою большую семью, талантливый художник вынужден рисовать портреты вместо картин. Он любит Ли Гён, но чувство долга перед его женой и детьми, большая разница в возрасте между ним и девушкой не позволяет ему сдаться своим чувствам. Художник рисует картину, идея которой уже давно возвращается, и героине, наконец, удастся увидеть его работу. Она производит удручающе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девушку. На холсте изображено «трагическое дерево, без листьев, без цветов, без фруктов», сжигаемых жаром [10, с. 250]. Это странное дерево, написанное грубыми черными и белыми штрихами, похоже, парит в густом тумане: под ним нет земли, над ней - небо. И нет солнца, хотя ясно, что без солнца не может быть засухи. Героиня думает, что художник изобразил в виде дерева самого себя, своего состояния, его стремления к невозможности быть со своей возлюбленной.

Во время войны отец Ли убивает двух братьев, мать умирает, она остается одна и выходит замуж за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постоянно следил за ней, пока она встречалась с художником. Проходят годы, героиня живет с нелюбимым мужем, у них растут дети. Однажды из газетной статьи она случайно узнала, что художник умер, и одна из галерей выставила его работы. Она приходит на выставку и находит знакомую картину в большом каркасе, но на холсте уже нет увядшего дерева, которое она видела в первый раз, а другое - голого дерева.

На картине изображена поздняя осень, время сбора корейской капусты кимчи на зиму. Прошлое дерева, из которого летят мимо листьев, есть две женщины: одна с ребенком, вторая - с некоторой нагрузкой на плечи. «У женщин зима впереди, а голое дерево живет верой в наступление весны, даже если она еще далеко» [10, с.277]. Эта работа художника называлась «Дерево и женщины».

В этой работе интересный сюжет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сюжетных линий - это только верхний слой, под которым находится более глубокий слой, закодированный в самом названии романа - «Голое дерево» Намок. Иероглиф означает «голый». Второй иероглиф мок - это дерево. Другой, первый образ дерева, встречающегося в романе, - это кусок, иероглиф ко означает «сухой», «иссохший», «мертвый».

Образ дерева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 почти во всех культурах с незапамятных времен и олицетворяет жизнь в ее различных аспектах и проявлениях.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символических форм, связанных с деревом, является мировое дерево,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мифопоэтическим образом ... В некотором смысле, мировое дерево является моделью культуры в целом». Российский филолог В. Н. Топоров в своей основной работе «Мировое дерево. Универсальные знаковые комплексы» отмечает, что «концепция мирового дерева отражает самую универс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с которой сталкиваются разные коллективы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этапе развития (выбор между жизнью и смертью, обеспечение необходимых гарантий стабильности и т. д.)» [8].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образ дерева так же распространен, как и в Китае.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М. И. Никитина, посвященных древне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Хэнга, были написаны песни родной стороны, созданные в период Объединенной Силлы (VII-X вв.). Мы находим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иведенных выше высказываний В. Н. Топорова и Т. Х. Томихай: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б идентичности «старшего» и дерева универсальны, поскольку модель «дерево-общество» (что означает семья, пол, состояние) является универсальной в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ах» [11, с. 37].

В романе «Голое дерево» автор выражает образ иссохшего, мертвого дерева в картине хаоса художника. Но война окончена, пришло время мира, и героиня в галерее увидит другую картину: не увядшее дерево, а голое дерево, приготовленная для зимнего сна. Однако зима пройдет, придет весна, и дерево проснется, прикроется зелеными листьями, расцветет и принесет плоды осенью. Это дерево символизирует новую жизнь, постоянство и гармонию в природе. Итак, в подтексте романа традиционно корейское понимание мира скрыто: хаос заменяется гармонией.

Обратимся к истокам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М. И. Никитина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древние поэт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хэнга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в связи с определенными ритуалами. Например, существовал ритуал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правильного появления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ого человека (старшего) и гармонии в обществе. Образ старца кажется «идентичным социуму и космосу», и одним из его воплощений является растительная ипостась - дерево.

М. И. Никитина также говорит об этом представлении о появлении старц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молодая женщина считалась «ногами» старшего. И с ее юности здоровье и красота в прямой зависимости были лицом старшего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бщества и космоса [11, с.66-67].

Вернемся к понятию «мировое дерево». Один из его эквивалентов, меньший экземпляр - сцепление - является общим символом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как и во многих других странах [12, с.23].

Если вспомнить упомянутое выше высказывание В. Н. Топорова о том, что «понятие мирового дерева отражает самую универс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с которой сталкиваются разные коллективы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этапе развития», судьба героин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универсальной», общей для многих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покинули свою маленькую родину и потеряли надежду вернуться назад.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автор использует образ дерева,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й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как модель устройства мира (общества) для выражения ее авторской позиции. осеннее обнаженное дерево в картине художника («Голое дерево»), которое отбрасывало старые листья, готовые выжить зимой, так что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весны, по закону природы, снова начинаются молодые побеги, символ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е надеется на мирную творческую жизнь.

Река - важный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имвол, элемент сакральной топографии. В ряде мифологий, особенно шаманского типа,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ядро» вселенной, мировой путь, пробивающий верхний, средний и нижний миры,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космической (или мировой) рекой. Обычно это общая (или шаманская) река. Иногда это часть символически переосмысленной реальной речной реки региона. Примером космической реки является эвенкийский мумонги хокто бира («водный путь-река»). В верхнем течении (в верхнем мире), в болотистом месте с обильными пастбищами, живут души оленей, а души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лужат источником продолжен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рода, живут поблизости; вдоль среднего хода реки (в среднем мире) живут живые люди и животные, в низовьях мир мертвых, где шаман сопровождает душу покойного [4].

Другой вариант изображения космической реки - это, вероятно, великое море или озеро,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центре Вселенной, из которых вытекают основные реки (иногда они

вытекают из центра, отмеченного мировым деревом) или одной реки. В калмыцкой космологии, с середины озера Марво, растет дерево жизни Замбу; от него в направлении сторон светового потока четыре большие реки, которые, сделав семь меандр, возвращаются к озеру. Озеро центра находится на высокой горе, и Реки сбрасываются по скалам, которые имеют вид головок слона, быка, лошади, ль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ая идея четырех стражей стран мира в этом случае сочетается с образом четырех рек, которые не только определяют структуру пространства, но и действуют как элементы мифопоэтическ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это также характерно, что реки несут в своих водах элементы, из которых есть камни: золотой песок, серебро, красный и синий) [13, с. 8].

Юн (龍) - корейский дракон, один из разновидностей мифологической змеи, которая связана с корейской мифологией. Корейский дракон имеет ряд особенностей, характерных для Кореи, которые отличают его от драконов других культур. Корейские драконы в мифах обычно действуют как позитивные существа, покровительствующие водным объектам и рисовым полям.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ни приносят дождь на землю. Драконы обычно живут в реках, озерах, океанах или глубоких горных прудах. Из всех монстров дракон - главное и самое страшное фантастическое животное, которое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способности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всех других животных. Дракон - воплощение всех водных сил атмосферы. У него есть способность, при желании, превратиться в шелкопряда и стать невидимым, затем до увеличения объема, который может занимать все пространство между небом и землей [14].

Существует несколько разновидностей драконов. Четыре главных дракона живут в роскошных дворцах в глубине моря; один царствует в северном море, другой - в южном, третий - в восточной и четвертой - в западной. Есть особый небесный дракон. Существует дракон, охраняющий сокровища, скрытые в недрах земли. Синий дракон охраняет восток. Желтый дракон считается самым почетным из всех драконов. Существует также дракон без рогов, никогда не поднимающийся на небеса, но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ящийся в самых глубоких пещерах.

Все ужасные явления природы, все небесные и земные потрясения объясняются, как следствие сражений драконов между

собой или с врагами, которые хотят завладеть небесными сокровищами. Мнимые битвы этих монстров вдохновляют корей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любимой темой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изображение боевых драконов. В Корее, как и в Китае и Японии, образ дракона являе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ым владением прави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а, поэтому этот образ встречается повсюду на вещах, принадлежащих последнему.

Одна из корейских легенд относится к великому Ван Мунму, который на смертном одре хотел стать «Драконом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целью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защита Кореи». Корейский дракон, в отличие от многих драконов других культур, не имеет крыльев, но имеет длинную бороду.

Ионь-синь, т.е. демоны-драконы, являются духами воды. Они не ставят алтари, но в честь них, с участием шаманов, на берегах моря и рек устроены дорогостоящие жертвы, чтобы успокоить души утонувших людей.

Енван, Енсин (Miri), в корейской мифологии дракон-король, который жил в подводном дворце; хозяин водного элемента, начальник мультикищина. Генетически связан с Лун-ваном. Енван живет не только в глубоких морях, но и в реках и прудах. Короли драконов четырех морей (восточный, западный, южный и северный), а также жен (юнгуин), дочерей (юньгун-агисси), воевод (юнчангун) и сановников (юньгун-теги и юнгун-цзин) составляют их собственный пантеон водных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ов. Подводные королевства Енвана управляются пятью цветами: зеленый дракон (Чоннеон, см. Сасин) - охранник Востока (весна), красный (Чоннион) и желтый (Хваннон) - охранники Юга (Лето и Конец лета), белый (Паннон) - охранник Западной Осени) и черный (Хиннен) - охранник Севера (Зима) [15, с.173].

Колесница, запряженная пятицветными драконами, является средством передвижения небесных. Дракон свободно перемещается в воде и в небе. Считалось, что, если дракон взлетит на небеса, династия изменится. В подводном царстве Енван Солнце и Луна находят убежище. Подводный дворец - это утопическое королевство, и Енван мог пригласить туда даже людей. Детеныши Енвана могут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людей и жить в земном мире, имея дело с подводным царством. Согласно народным убеждениям в Енвана превращаются большие змеи (имуги) после долгого пребывания в воде; найдя драгоценную жемчужину, они летят к небу. Суверенный после смерти мог по образу Енвана действовать

как дух - защитник страны. Считалось, что появление дракона во сне показало бы счастье человеку.

Культ Енвана был известен среди древних корейских племен периода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 (1 век до н.э. - 7 г. н.э.). Дракон, очевидно, под влиянием южной океан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был тотемом древних корейских племен. Мать одного из основа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а Силла родилась от левого края петушиного дракона (керен); мать правителя Пэкче Ву-вана (7 век) забеременела от дракона; Дух Чойона был сыном дракона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и т.д. Енван командовал облаками и осадками. На 15-й половине 6-й луны, в день мытья головы и расчесывания волос (Юнунал),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молитв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 Корее с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ями Енвану о приеме дождя и году сбора урожая. В ряде мест в Корее произошло гадание, называемое «вспышка дракона» (йони паткари).

Во время зимнего солнцестояния водоемы были покрыты льдом, но лед, который таял на солнце, выглядел как вспаханный плуг.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считали, что это трюки Юнванга. Если льды были построены с юга на север, то год обещал быть продуктивным; если с запада на восток, то неурожай; Если льдины разбросаны в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то средняя. В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ном календаре 5-й день 1-й луны называется «днем дракона» (йеннал); считалось, что если в тот день вытащить воду из колодца, в которой дракон кладет яйца накануне, то в течение года дом будет благополучно. Енван - общий характер в корейском фольклоре и средневековой литературе. Образ дракона - это атрибуты достоинства правителя, особенно в период Корё (начало X-XIV в.) [15, с.325].

Мулквицин, Сусин, в корейской мифологии - общее название водного духа. Считалось, что душа утопл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стала Мулквищином.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Кореи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я совершались духам четырех морей - Тонхасину (дух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в Яньаде, Соессне (дух западного моря) в Пхунчхрне, Намхасине в духе южного моря) «Наджу и Пукхасин (дух северного моря) в Кенсоне. Кроме того,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наводнений и мира в стране, жертвы были принесены духам семи водоемов (ххилдоксин) в форма пятицветных ритуальных денег, которые были брошены в реки и заливы.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Топоров В. Н. МОДЕЛЬ МИРА (мифопоэтическая) //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М., 1980. - Т. 2. - С.161-166.
2. Иванов Вяч.Вс. ВЕРХ И НИЗ //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М., 1980. - Т. 1. - С.233-234.
3. Топоров В.Н. ГОРА //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М., 1980. - Т. 1. - С.311-315.
4. Токарев С.А. //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М., 1980. – в двух томах, 1366 стр.
5. 민영현. 한국 정신문화의 기원과 단군, 그리고 仙의 사상- 「선(仙)」의 의식과 철학적 사유, 2004. С. 49
6. Ким Бу Сик Самгук саги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писи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2002г., 444 с.
7. Иванов Вяч.Вс. Топоров В.Н. Мировое древо //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М., 1980. - Т. 1. - С.389-406
8. Топоров В. И. Мировое древо. Универсальные знаковые комплексы. Т. 1. М., 2010. С. 267.
9. Ким Г.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раны Мира.» – Алматы: Дайк-Пресс, 2010. 584 с.
10. Пак Вансо. Намок. 1995 (Пак Вансо. Голое дерево). Сеул, 1995. С. 285.
11. Никитина М. И. Древняя корейская поэзия в связи с ритуалом и мифом. М., 1982. С. 327.
12. Киреева Л. И. Сибирь — Корея: некоторые культурные параллели (материалы к сообщению) //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ых чтений памяти д. ф. н. Марианны Ивановны Никитиной (1930-1999). СПб., 2011. С. 23-29.
13. Топоров В.Н. КОСМОГЕНИЧЕСКИЕ МИФЫ //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М., 1980. - Т. 2. - С.6-9.
14.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ские драконы.
<http://dragons-nest.ru/def/vietnam.php>
15. Ким Бу Сик/ Самгук саги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писи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2002г., 444 стр.

Korean-Russian-Kazakh Three-Language

Saken N. Zhetpisov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e article deals with issues of the Korean-Russian-Kazakh trilingualism from the 1937 since the moment of the forced relocation of Koreans from the Far East to Kazakhstan and Central Asia. The study examined the functioning of the Korean language for 80 years, Korean living in Kazakhstan.

1.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teraction of the Korean, Russian and Kazakh languages.

The emergence of the Korean-Russian-Kazakh trilingualism is due to a number of reasons, and, above all, extensive communication of Koreans with the Kazakhs, Russian and other peoples of Kazakhstan. The political factor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since the majority of the non-Kazakh population was resettled in Kazakhstan as a result of state policy. The geographical factor, compactness of the settlement, language contacts of Koreans and Kazakhs with other peoples, schooling, socio-professional differentiation of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nationalities, language skills, the presence of an intermediary language, the media, as well as language policy periods of the country's history. Consider these factors in more detail.

a) The political factor.

In the autumn of 1937, a mass resettlement of Koreans to the regions of Central Asia and Kazakhstan began. The reasons for this act of the government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foreign policy and domestic. The first group includes: 1) th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and declaring it a Japanese protectorate; 2) Japanese intervention in the Far East in 1918-22; 3) the Manchurian incident of 1931 and the formation of the Manchukuu; 4) the Japanese government adopted the Directive of National Defense of the Empire in 1936, in which the USSR was declared enemy No. 1; 5) the signing of the Japanese-German Anti-Comintern Pact in July 1936; 6) armed clashes on the border with China in 1937 Domestic political reasons are due to the socio-economic and national-cultural policy of the state during the period of the personality cult, characterized by mistrust of all national minorities, a great-power chauvinistic course to destroy the "nationalism of all deviations and

masses to her”(Ko Sonma.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in English). Helsinki. 1987.C.26.).

Therefore, the nature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ns - a fairly compact areas with a significant or predominant proportion of the Korean population, caused concern of the authorities, especially the Posiety district, whose population was 95% Korean, and which was in fact national. According to Western researchers, the formation of the Jewish Autonomous Region in 1934 could have led to the demand of the Korean population of the Far Eastern Territory to create their own national-state autonomy. The spyomania that engulfed the entire country had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population of the border areas; In 1937, the periodical press daily reported on hostile actions of foreign agents. Typical in this respect is the article by I. Volodin “Foreign espionage in the Soviet Far East”, which exposes the “corrupt elements of the Korean population” (I. Volodin “Foreign espionage in the Soviet Far East”, Pravda, February 24, 1937).

The relocation to Central Asia and Kazakhstan, the area of which exceeded the territory of the Far Eastern Territory tenfold, meant that the Korean population groups were scattered in new areas. The placement of immigrants in Kazakhstan had economic goals as well: the shortage of labor resources partially resulted from the famine of 1931–33, when about 2 million people died and more than 1 million people migrated. (Newspaper "Lenin's shift" .1968. October 19). In 1939 the total number of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republic was 97296 people, settled mainly in the southern regions.

The prevalence of the Russian language is due to the following factors: the predominance of the Russian population in the republic for almost 60 years, the high prestige of the Russian language, the large proportion of the non-indigenous population, and language policy that contribu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Russian language in all areas of society, finally, a long language tradition, existed for many decades.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lately, and this leads to a language reorientation of the population, primarily Kazakh, which less often uses Russian in communication with representatives of kindred peoples living in Kazakhstan: Uzbeks, Tatars, Kirghiz, Turks, etc. ; 9) the function of the state language, the Russian language, was performed from 1923 to 1989 until the adoption of the Law on Languages, according to which it is recognized as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t the same time, it is obvious that for a certain period it will continue to perform the function of the state language, since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functions between languages cannot occur immediately.

Thus, at present, the Russian language is the most common language of Kazakhstan, which ousted most other languages from many areas of operation; Most of the non-indigenous peoples of the republic are practically monolingual and use only Russian. At the same time, the demographic base of the Russian language is rapidly narrowing due to the decline in the share of Russians in the population of the country and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to schooling in national languages. This causes a decrease in the role of the Russian language, which is reflected in the Law on Languages, where Russian is assigned the role of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not the state language;

- Kazakh language; The period up to 1991 was very difficult for the Kazakh language, since all this time it was exposed to adverse factors: a double change of the alphabet, a policy of merging languages, the immense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the effect of unfavorable demographic factors. All this led to a narrowing of the areas of functioning of the Kazakh language. Currently, the Kazakh language performs the following functions: 1)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in all fields of activity; 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these spheres are much smaller than the spheres where they use the Russian language; The intensity of the use of the Kazakh language is lower than that of the Russian, since in a number of branches of science there is no developed Kazakh terminology, Russian is used in many fields, along with Kazakh, and the majority of Kazakh specialists received education in Russian; 2)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within the republic; This function is freely performed in the Kazakh language. At the same time, the long predominance of the Russian language led to the emergence of individual representatives of the Kazakh population, who speak little of their native language. There are only a few of them - only 2% of Kazakhs - however, the very fact of their appearance speaks of ousting the Kazakh language into Russian and the need for state support for the Kazakh language; 3) language function: teaching. In this area, the Kazakh language was significantly inferior to Russian; so, in 1989, Kazakhs had 1.5 million school-age children, and 931 thousand children (62.1%) attended Kazakh schools. In the 2005-2006 school year, the situation changed: out of 1,911,601 Kazakh children, 1,548,246 studied in Kazakh schools (81%). At the same time, we observe Russian language resistance: out of 426,819 Russian students, 42,4017 study in Russian schools (99.3%).

Children of other nationalities number 377502 people; of these, 2,54559 people study at Russian schools (67.4%), 21,000 people at Kazakh schools (5.6%), 1,01952 people at national schools (27%). In the 2015-2016 academic year, more than 2.6 million students are enrolled, of which 336 thousand are first-graders; If we consider that in 2016 393 thousand children were born, then by 2033 there will be at least 4 million schoolchildren.

The situation in the field of higher and secondary special education; in 1976, out of 47 universities and 208 secondary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Kazakh language, teaching of separate subjects was conducted in 23 universities and 18 teachers' schools; until 1989 there was not a single technical school with the Kazakh language of instruction. All this reduced the prestige of the Kazakh language and led to a further narrowing of this function of the language, because the functioning of universities mainly in Russian forced parents to send their children to Russian schools. The fact that this contradicted the desires of the Kazakhs is evidenced by the following fact: in 1989, when the Law on Languages was adopted, which guarantees, among other things, the continuity of the language of instruction, four times more children began to study in the first classes of Kazakh schools than in 1988. In the future, the role of the Kazakh language as a language of instruction is constantly enhanced, since it has the support of the state and the largest demographic base of the country; 4)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artistic and social-political literature; The development of this function fairly objectively shows the following data: in 1988, out of 2,530 titles of books and brochures in the Kazakh language, 680 titles were published in a circulation of 13 million copies. with a total circulation of 35 million copies. Thus, among the names of books and brochures, a little more than a quarter is given in literature in the Kazakh language, and almost 40% of the circulation consists of the circulation of Kazakh books and brochures, which is quite consistent with the diversity of interests and the proportion of different peoples in the republic's population. This means that the Kazakh language rather intensively performs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artistic and social-political literature. 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part of the urban Kazakh population prefers to use literature in Russian. This indicates a weakening of this function of the language and the need for state support for it; 5)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science; This function of the Kazakh language has not received proper development. Of the 31 scientific division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ly two

- the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the Institute of Literature and Art - part of the research work is conducted in the Kazakh language. In other institutes, as well as in universities of the republic, almost all research is conducted in Russian. This is especially true of technical branches of science where there are no works in the Kazakh language at all. At present, Kazakhstan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here the national languages are declared as state languages, but English and French are used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languages of these countries do not yet have developed scientific and technical terminology. Decades of a perverse national policy in the USSR have led to the fact that only Russian has more or less developed scientific and technical terminology, in all other languages it is not available or it is not sufficiently developed. This hinders the actual use of national languages as a state. At the same time, the presence of such terminology strengthens the position of the Russian language, and this despite the fact that, according to N. Nazarbayev, "we, together with the USSR, are 50 years behind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for all national languages, including and for Kazak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erminology is a priority task, without the fulfillment of which the language cannot become the language of science. Work in this direction is already underway. The Kazakh language is expanding its function of the language of school and university education; work is underway to create terminological dictionaries of various branches of science; The Law on Languages, having provided state support to the Kazakh language, for the first time created real conditions for its implementation in all spheres of society, including and in the field of science; 6) the function of the periodical press; The Kazakh language rather actively performs this function: in 1988 170 newspapers were published in one-time circulation of about 2 million copies. and 30 journals and other periodicals with an annual circulation of 38.1 million copies. Nevertheless, the Kazakh language is still inferior to Russian: the number of Kazakh newspapers is 1.5 times, and the circulation is 2.2 times less than that of Russian newspapers; the number of journals and other periodicals is half as much as in Russian (about 60), but their annual circulation is four times more (38.1 million out of 47.9 million copie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Kazakh magazines and their circulation has been particularly noticeable in recent decades: 6 magazines have increased, and circulation has more than doubled. This trend will continue in the future, since the number of students in Kazakh schools is growing, and the number of students in Russian schools is decreasing; 7)

the language function of various spheres of social and political life; Kazakh language freely performs this function; nevertheless, in this area its functioning is narrower than the functioning of the Russian language. At present, when holding public events, the Kazakh language is more and more widely used due to the numerical predominance of Kazakhs and the ever-wider introduction of the non-Kazakh population to the Kazakh language; 8)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his function is performed by the Kazakh language in a rather limited scope, mainly in rural areas with a large predominance of the Kazakh popul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most of the Kazakh language is used when Kazakhs communicate with non-Russian peoples; Russians speak Kazakh extremely rarely: the persistence of the imperial worldview and inertia of human psychology affects. Obviously, it will take a long period of time for the use of the Kazakh language as a language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to become the norm; 9) the function of the state language; egislatively giving the Kazakh language the status of a state language sharply increased its role in the life of the republic and had a beneficial effect on the expansion of its functioning, especially in the field of education, social and political life, science, etc. Nevertheless, it will take a long time to fully fulfill the function of the state language. A lot of work is being done for this: a terminology of all branche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being created, the functioning of the Kazakh language is ensured in all spheres of social life, conditions are being created for familiarizing all citizens of the republic to the Kazakh language. For 25 years of independence, fundamental changes have taken place in Kazakhstan. The Kazakhs became a truly state-forming people thanks to their size, which currently makes up two thirds of the country's population — 12 million people. This led to the fact that representatives of other nations, especially Russians, began to fear for their identity. The national policy pursued in the Soviet Union shaped the Russians' perception of the USSR as “Greater Russia” and the awareness of the position of “first among equals”. As a result, they have developed a protective attitude towards representatives of other nationalities, manifested, in particular, in their attitude to national languages. The habit of living in monolingual comfort often interferes with Russians in everyday life and is one of the sources of social tension in areas with a significant concentration of the Russian population. The continuing outflow of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 is, in fact, a rejection of the new social situation and a manifestation of the choice of its identity. The illusions that participation of Kazakhstan in integration

associations with Russia will allow the Russians living in it to preserve their ethnocultural peculiarities have practically disappeared. Kazakhstan is de facto escaping from a single educational and cultural space, which Russia tried to preserve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and this accordingly raises the question: leave, or stay? The teaching of the natural science cycle in English in Kazakhstan will push the Russian language to the curb, and this is a great shock for the Russian population, clearly showing that they are no longer the dominant nation of the subordinate union republic, but only one of the national diasporas of an independent country. This initiative in the field of education makes the Russians think about the future of their children, about keeping their ethnocultural image in conditions of isolation from the mother culture, and this concern is felt more and more every year. The emigration of recent years confirms that a significant part of the non-Kazakh population does not connect its prospects with Kazakhstan. This is confirmed by demographic data. In the 2015-2016 school year, over 2.6 million students are enrolled in schools, of which 336 thousand are first-graders, 1.3 times more than in higher grades. In 2016, 393 thousand children were born in the country; this means that after 17 years, by 2033, there will be at least 4 million schoolchildren. At the same time, if there were 426,819 Russian schoolchildren in the 2005-2006 school year, there were 340,000 in the 2015-2016 school year, that is . over 10 years their number has decreased by 86.8 thousand people. In the future, the sphere of functioning of the Russian language will continue to narrow, and the Kazakh language will increase, since the basic condi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language is the ethnic base and state policy. This is part of the overall process: since 1989,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who speak Russian has decreased by 100 million people, mainly due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older people in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where young people do not know Russian language. Which groups of the population of Kazakhstan will switch to the Kazakh language, and which ones will prefer emigration, time will tell. The Korean population is completely Russified, but racially it is closer to the Kazakhs than to the Russians. If we consider that language discomfort is easier to overcome than the xenophobia that is characteristic of Russia, then most likely, most Koreans will remain in Kazakhstan.

b) Intrastructural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The language of the Soviet Koreans bears the imprint of the strongest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as well as, although to a lesser extent, the influence of the Kazakh language. The stronger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is due to the long-standing Korean-Russian contacts, as well as the high prestige of the Russian language and the fact that almost all Koreans know Russian. The influence of the Russian and Kazakh languages practically did not affect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Only three facts of deviation from the grammar of the literary Korean language were found: the use of the particle *men* as a comparison, the imposition of a three-digit counting method, and the morphological construction of the adjective *serok-serone* / *new* / modeled on adjectives in the Türkic *Zhaphan* (*new-preen*) adjectives.

As for the vocabulary, it should be considered in more detail.

The language of the Koreans of the CIS is a rather interesting phenomenon. Most Koreans of this group come from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ir language is represented by a dialect of this region. Traditionally, Korean dialects are divided into six groups: the northeastern, northwestern, central, southeastern, southwestern, and dialect of the Jeju Island. Korean literary language is based on the Seoul central dialect. The language of the Koreans of the CIS is a dialect of the north-eastern group, which, in turn, is divided into two sub-dialects; one of them is common in the province of North Hamgön, the other in the South Hamgön. The basis of the language of the Soviet Koreans is the North Hamgön dialect. According to Kim Thaygun, the North Khamgyon dialect can be divided into three subgroups: Yujup, commo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order with the RSFSR and the DPRK, Saup (Könson, Mönchon, Kilju and Hakson provinces), and myans on the western border with China. The subgroup Ejup is of particular interest not only from a geographical, but also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since at first this region was inhabited by Jurchens, and from the 15th century AD began to be settled by immigrants from the south of the peninsula and political refugees from different provinces of Korea. Therefore, in the language of the Koreans of the CIS there can be found not only archaisms, which are no longer used in the languag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Jurchen words conserved in the language. All this is the result of a long development of the language in isolation from the literary Korean language. The Russian language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him, and after the resettlement to Kazakhstan, the Korean language was also affected by the Kazakh language. The influence of the Russian and Kazakh languages especially affected the vocabulary; at the same time, different layers of vocabulary react differently to contacts with other

languages and borrow Russian and Kazakh words with varying intensity. The areas of vocabulary that are the most impenetrable for foreign words are the terms of kinship, the names of body parts, natural phenomena, religion, etc.:

- terms of relationship; they may differ from the literary ones: adjebi (instead of: adzhossi) - uncle; ame (instead of: chalmoni) - grandmother; ankkan (instead of: ankhe) - wife; Kharabe (instead of: Kharabodzhi) - grandfather; namjon (instead of: namphyun) - husband; orbi (instead of: tonsen) - younger brother, etc. ; However, most of the terms in the language of the Soviet Koreans and the language of the Korean Peninsula coincide. The absence of foreign language borrowings is explained by the extraordinary diversity of kinship terminology, which, like Kazakh, is much richer than Russian and satisfies all needs: henge is the elder brother (in relation to the brother); oppa - older brother (in relation to the sister); Nui - younger sister, Nunim - older sister; samchon - maternal uncle; Khun Aboji - uncle (father's or mother's older brother); chagyn aboji - uncle (younger brother of father or mother); imo - aunt (from the mother); como — aunt (on the father's side); saunas - son-in-law (husband of daughter); mebu, mekhyon - son-in-law (husband of elder sister); meje - son-in-law (husband of younger sister); menuri - daughter-in-law (wife of son); heungu - daughter-in-law (brother's wife);

- names of body parts; they may also differ from the literary ones: agari (instead of: un) - mouth; santhon (instead of: olgul) - face; Kundi (instead of: nopchoktari) - hips; ime, imendegi (instead of: ima) -lob, etc. Most of them, however, coincide with literary terms: mori - head, sleep - hand, finger - leg, okke - shoulder, sonkarak - finger, pe - belly, tyn - back, etc. ;

- the names of natural phenomena; the lack of borrowing in this area i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is terminology, due to the centuries-old traditions of agriculture. The names of natural phenomena coincide with the terms of the literary language; they are rich, often have synonyms: nalci, nalsa, ilgi - weather; Kamil, hanchon, hanbal - drought; urve, sonak - thunder; pi - rain; kulgyn pi - large rain; karan pi - light rain; phokphunu - thunderstorm; honsu - flood; tephun, phokphun - typhoon;

- religious vocabulary; in this area of language functioning, the Korean language did not have any contacts with either Russian or Kazakh, therefore there are no borrowings from these languages, and all vocabulary is original or borrowed from Chinese: sonin - holy, tansik - fast, kido - prayer, chun - Buddhist monk, etc.

In other areas of vocabulary, there are borrowings, the number of which is unequal and depends on the subject:

- the sphere of everyday life;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Russian and Kazakh borrowings: car, sugar, bazaar, vacations, construction, carrots, teahouse, chinara, dumplings, burqa, noodles, aul, etc. The following fact should be noted: if words are borrowed from the Kazakh language, meaning new concepts for the Korean language, such as akyn, airan, kurt, saxaul, etc., then words can be borrowed from Russian that have equivalents in Korean: (cor.: illyungam); bucket (cor.: multhon, pakketsy) fork (cor.: hokhi), etc.; the use of Russian words speaks of the language assimilation of the majority of Koreans and of the strong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on the speech of Koreans when they use their native language; even Turkic words are partially borrowed through Russian: skullcap, yurt, chinara, koumiss, noodles, etc.;

- lexico folk spiritual culture; a significant number of borrowed words are found in this area, mainly from the Russian language: competition, interview, essay, button accordion, script, violin; The number of borrowings from the Kazakh language is constantly growing: dombra, hashar (collective assistance), doira (tambourine), syrmak, alasha (palace). Here, the situation is the same: from the Russian language words are often borrowed that have equivalents in Korean, from Kazakh - only denoting new concepts: tekemet (koshma), dastarkhan (tablecloth, laid table), aytys (akyns contest);

- written traditions; Soviet Koreans managed to preserve their writing, and this greatly weakened the Russification of the language, since the borrowed words were shifted to the Korean graphics and simultaneously underwent phonetic transform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norms of the Korean language. Therefore, the literary language of Soviet Koreans - the language of "Lenin Kichi" and collections of short stories and poems published in Almaty - is identical to the literary languag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exception of a small number of borrowings that distinguish them from each other and relate mainly to social and political vocabulary. The spelling of the language of the Soviet Koreans in general follows the spelling of the DPRK and has the following features:

- 1) the use of the letter l () in front of the iotated vowels I, e, u, and, e at the beginning of the word, before which it is not pronounced: yakto (written: several) is a diagram; Yoksa (spelled: Rex) - History; yori (ryori) - dish, food; yuchhu (ryuha) - analogy; Irek (Ryrek) - biography; esik (resik) - ceremonial; in the spelling of South Korea, l is not written;

2) the spelling of the letter l in front of the vowels a, o, u, e, ye, before which it is pronounced n: nakquan (spelled: raqquan) - optimism; nodonjka (spelled: rodondzha) - worker; noob (rub) - relapse; neil (reil) - tomorrow; nuemul (ruemul) - bribe; in south korean writing letter n is used;

3) the use of the letter перед before the vowel e at the beginning of a word, even in those cases if it is not pronounced: barely (spelled: нджджа) - a woman yongam, (nengam) - yearbook; in the spelling of South Korea, n is not written;

4) the distinction of the words of Wonssu is an enemy and Wonsu is a marshal; in South Korean language, wansu means "enemy", "marshal".

At the same tim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pelling of the DPRK and the Kazakh Koreans. They consist in the following: 1) in writing the names of cities, countries, peoples, etc.: Kkakahyssytan (in the DPRK Kkadzhakhyssytan) - Kazakhstan; Usybekhy (Ujybekhy) - Uzbek; Apssattyriya (Ossythyriya) -Austria; Collandia (Hwaran, Oranda) - Holland; Paris (Phari) -Paris.; 2) in the preservation of the letter b in the past tense forms of some verbs: nubotta (instead of: nuotta) - lay; chubotta (instead of chuotta) - gave; Tobotta (instead of: tauotta) - was hot, hot; tobatta (together: towatta) - helped;

- elementary education; There are no Korean-language schools in Kazakhstan. This gap is partially compensated for by teaching Korean in KazUIR & WL. Abylai Khan, at the Eastern Faculty of the Kazakh National University. Al-Farabi, in the Korean groups of the Almaty Theater and Art Institute and in the circles of the Korean Educational Center of Almaty, where anyone can learn the language. The language taught in Kazakhstan is Korean literary;

- fiction; the Korean section at the Union of Writers of Kazakhstan publishes one book per year; This is usually a collection containing the work of several writers and poets working in Central Asia and Kazakhstan.

In addition, Lenin Kichi publishes a literary page once a month, which publishes poems, short stories, literary lectures and book reviews. Despite the fact that Soviet Korean fiction has been developing in perfect isolation from Korean literature for several decades, it is created in a literary language similar to the languag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due to the excellent proficiency of the Korean writers. However, this purity is unlikely to persist for a long time: in the 70s. the activity of almost all writers of the Far Eastern generation ceased; former DPRK

citizens who became Soviet writers — these people also leave; Representatives of the third generation, born in Central Asia and Kazakhstan, write in another language, which does not always correspond to the language of the Korean Peninsula;

- socio-political and journalistic literature; thanks to the newspaper and the republican radio, there is a fairly well-developed social and political and journalistic terminology in the language of Soviet Koreans. However, there are many foreign language borrowings, mainly from the Russian language: sobetkhy - advice, parametry - parameters, June - June, Kasybyttorchercherkhy - Kazvtorchermet, etc. In the language of social, political and journalistic literature of many loan words that have equivalents in Korean: Party / tan, chondan / intervbyu / hvedam / plenum / chhonhve / block / chehyu, tonmen, Yonhap / intellectuals / chisikkechhyn, intherichhyn / , repertoire / jonchulmonok / plot / kedzhe, kusan / , script / kakpon / , style / munchhe /. The use of borrowed words instead of primordial ones is explained by a long tradition developed as a result of a half-century interaction of the Korean and Russian languages, as well as the policy of merging languages. It is obvious that in many languages, including and Korean, a lot of work is needed to streamline terminology. In this regard, the task of the Soviet Koreans is facilitated by the fact that the DPRK language can be taken as a model, a characteristic feature of which is the creation of terminology in any branch of science and technology mainly at the expense of the original fund; South Korea, despite higher industrial development, has a lot of foreign borrowing in the language, mostly from English.

- professional art; This area of language has not received proper development. Professional art is represented by the only in the CIS Almaty Republican Korean Theater. His repertoire includes a significant number of Russian plays, which means that there are many borrowings from the Russian language in professional vocabulary: script, tenor, act, plot, etude, pop, concert, competition, flute, style, etc. The reasons for this are largely explained by the lack of education in Korean, the lack of literature containing methods of teaching traditional Korean theater, music and dance, as well as the fact that contac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began to expand only recently.

Phonetic system. The language of the Soviet Koreans retained the phonetic structure of the North Hamgön dialect,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which are the presence of the following phonemes:

1) eight simple vowels: a, o, o, y, s, u, e, e;

- 2) six yotirovannye vowels: I, o, e, u, ye, ye;
- 3) seven diphthongs: ye, ui, yu, ya, yo, ye, ue;
- 4) eight simple consonants: k, n, tl, m, n, s, h;
- 5) five aspirating consonants: cho, kx, tx, ph, x;
- 6) five doubled consonants: kk, tt, pp, ss, hh;
- 7) one nasal consonant: нь; at the beginning of the word this sound is not transmitted.

In the pronunciation of some sounds there are deviations from the literary Korean language. These include:

- 1) the use of the vowel I instead of a or iotairovanny about: Kama instead of Kama - the boiler; poison, poison, yadal instead of elm - eight;
- 2) the use in the middle of the word consonant x instead of n: aah, ai instead of ani - no, no;
- 3) replacement of the consonant to on h: chil instead of the keel - the road chim-chhi instead of kimchi - "kimchi" (spicy dish of cabbage);
- 4) use in some words of the vowel about instead of a: mole instead of mal - horse, language; sometimes instead of steam - the wind; Phori instead of Phari - a fly;
- 5) the preservation of irregular consonants with and n in all grammatical forms: Kytta (spelled: Kysta) - draw a line; Kysymyon instead of literary Kyymen - if you draw a line; kysyn instead kyni - holds the line, therefore ...; kysoso instead of kyuoso - by drawing a line; stamped - hot, hot; Tobotta instead of literary tauotta - was hot, hot; Tobymyn instead Toumyon - if / will be / hot, hot ...;
- 6) the use of the consonant n in some words (between vowels b) instead of the vowel y; kabynde kaunda place - among;
- 7) the use of consonant k / g / instead of other phonemes: Kungi instead of Kumon - a hole, a hole; alguda instead of allid - inform, let know;

The phonetic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has a noticeable effect on the sound image of borrowed words, although this effect is much weaker than 80 years ago due to the language assimilation of Koreans. In the speech of Koreans who speak their native language, the following features of the pronunciation of Russian words can be found: 1) adding a vowel at the end of a word if the word ends in a consonant: cakes / pie /, state farms / state farm /, contests / competition /, pparykh / park / ; 2) Russian deaf consonants are pronounced by Korean strong phonemes written in writing by double consonants: poskkhy - a poster; pioneers - pioneer; farttukhy - apron; 3) the final consonants k_ and h_ are pronounced with aspiration: kyruzhky - circle; bylokhky - block;

Kkabine-tkhy - office; koncerty - concert; 4) the sound of u at the beginning of a word is pronounced as ts: tszhy - workshop; Tszari - the king, Centers - the center; 5) instead of the initial ch, they say chh: chkhaban - shepherd; tile - tile; Chemodan - a suitcase; 6) soft t is replaced by h or tt: parpies - party; puffiness - a dress; interview - interview; etudes - etude; 7) the soft sign is replaced with a soft vowel and: asphalt - asphalt; Kkoniki - skates; ssuhari - rusk; 8) instead of d, the following is also used: maikka - t-shirt; doira - doira; hockey - hockey; 9) the combination of two consonants is often divided by a vowel: pipyllakhaty - a poster; shahymathy - chess; brigade - team.

Over the past eight decad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phonetic processing of borrowed words. The tendency to preserve their sound form began to prevail. The following phonetic replacements disappeared: 1) replacement of ph by ph: instead of pharttukhi, phyllait, apron and flute began to speak; 2) sizzling w, s and w, which were previously replaced with c: buryzhua (it was purisua) - bourgeois, began to persist; collective farms (there were collective farms) - a collective farm; shashykhi - checkers; 3) the combination of J, which was formerly replaced by c, is preserved: jumpers - jumper (it was: cements); burqa; 4) soft n was saved: kkoniki (was: kkonkki) - skates; 5) at the beginning of the word, p and b remained, previously replaced by l and n: rubylli (it was: whine bearer) - ruble; rakkett (lakketta) - rocket; bylokhy (pullokhly) - block; byrigad (pyrigad) - team; 6) began to persist in, replaced by the letter p: buses (Aptobus) - bus; ssokhoz (ssophosy) - state farm; 7) the combination of consonants of the PC is preserved: bylazuka (pallusykha) - blouse.

Such changes indicate the continuing impact of the Russian language on Korean and the Russ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Stylistic differentiation.

The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on Korean is not limited to borrowing vocabulary and changes in phonetics. It also affects the ways of expression, in particular, in the fact that many expressions are derived from the Russian language. Different styles of language react differently to foreign influence.

Fiction style. The language of fiction is identical to the literary language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all traditions of the language are preserved in it, including and style. Thus, neither the style of the language of fiction, nor its vocabulary practically did not undergo any deformations.

The language of social and political literature. The language of the newspaper "Lenin Kichi" is also identical to the languag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exception of a small number of borrowed words. Their use is the result of the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which is limited to vocabulary, without affecting the grammar and style features of the language of social and political literature. Practically all borrowings have Korean equivalents: Kasakhysyttyan konsansan Chuan Ui-Wonhwe Bureau - In the Burea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Kazakhstan (bureau - cook, co); and Saobyn 19 Chajon Yongmen Ttan of the Conference Kelcheon Adjik Puhan-Tueji Annnidago Chijoktoweetta - It is indicated that this work does not yet correspond to the decisions of the 19th All-Union Party Conference (conference - Hwei, Tehwe).

The colloquial style is more influenced by the Russian language than others: Foreign influence is twofold: 1) the use of Russian words when speaking Korean; at the same time, the structure of the Korean sentence is retained: - Well, where is this pioneer? Ky kiniga Lenin Street - This street is Lenin Street; 2) in calculating expressions from Russian models; this is especially noticeable in the use of verbs: shahymatyryl nolda (instead of: chang'gi-snout there) - play chess; (.nold - play; there - put, play); Kodin 'miracle (instead of: Kɨdɨn Kōygyɭ Sikhida) - to give higher education (Chisik - knowledge; miracle - to give; kyogok - knowledge, education, Sikhida - to force).

Summarizing the structural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over the past 80 years, the following should be noted. The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has greatly affected the vocabulary, especially in the field of technical terminology, everyday life, social and political literature, and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art. The language of the Koreans retained the phonetic structure, however, there were also changes in the phonetic processing of borrowings: the tendency to preserve the sound form of the word began to prevail. The spoken style of the language, in which Russian grammar models are traced,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Russian language.

c) Use of languages by social groups of bilinguals. When distinguishing various groups of the Korean population in terms of their native language knowledge, it is necessary to focus only on the age criterion, since professional groups no longer differ in their knowledge of the language. Three age groups should be distinguished: 1) older than 75 years, 2) younger than 75, and 3) younger than 50 years. The basis for this separation is the closure of Korean schools in 1939 and the abolition

of the restriction on movement that existed before 1957. Thus, those who were about 10 years old and more in 1939 are now over 75; It is this category that is mostly fluent in Korean, in which it received an education. Those who were born in the late 1950s, now over 50; most of them grew up in places of compact settlement of Koreans and therefore, to one degree or another, speak Korean. Born after the beginning of the 60s. mainly grew up in the Russian-speaking environment and for the most part do not know Korean. The first group communicates with each other in their native language; the second and third are in Russian;

- mastering foreign language speech in everyday communication. Korean language assimilation has gone so far that the problem of mastering foreign language speech for them does not exist. On the contrary, the problem is the mastery of native speech in everyday communication, for the maj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middle generation do not speak Korean anymore. The rural population is characterized by more frequent use of the native language, urban residents speak exclusively Russian;

- language learning by children; children usually learn the language of the environment and the language of school education, so Korean children speak only Russian;

- features of the language of the city and village; these features do not exist in Korean, since the Korean language has very little functioning in the city, and the people who speak it are from rural areas;

- the scale of bilingualism and multilingualism; The following figures speak about them: according to the 1979 census, 92.1% of Koreans were fluent in Russian, according to the 1989 census, 62.7% of Kazakhs; at the same time, only 0.9% of Russians speak Kazakh, they do not speak Korean. Kazakh language is owned by 2% of Koreans; Korean - only a few representatives of the Kazakh population in the Kyzylorda region. This suggests a widespread Russian language. At the same time, there is a rapid increase in the role of the Kazakh language as the state language of the republic. During 1989 alone, the number of first graders in Kazakh schools increased fourfold. This makes it possible to teach all Kazakh children in Kazakh schools, since the Law on Languages guarantees continuity and continuity of education, which eliminates the reason for the education of a significant part of children in Russian schools. Introduction of the Kazakh language as a compulsory subject of study in all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compulsory knowledge of the state language for work in government, the service sector, education, culture, etc. provides familiarization of representatives

of all non-indigenous nationalities to the Kazakh language. The statutory opening of schools for national groups of people ensures their knowledge of their native language. All this significantly increases the scale of bilingualism and multilingualism, improves the knowledge of the Kazakh language and the languages of other national groups. At the same time, the sphere of functioning of the Russian language is narrowing due to a decrease in the share of the Russian population (in 2017 - 20%) and an increase in the role of the Kazakh language and languages of the Turkic-speaking peoples, whose proportion in the republic is growing rapidly and used in communication with Kazakhs are mostly Kazakh.

d) Language policy. The criterion for the correctness of language policy is its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life and the needs of society. The problem of bilingualism and multilingualism is closely related to other problems: historical, economic, social, demographic, political, etc., so any changes in society directly or indirectly lead to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functions between languages. This redistribution is due to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peoples and the ever-changing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The scientific management of language life is designed to bring it into line with the changed conditions of society, and only such a policy can be considered correct, because disruption of the normal process of language development will inevitably slow down the development of all other aspects of social life. From this point of view,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language policy of our country has undergone a significant evolution. Even befor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987, the Decrees of the Kazakh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and the Government of the Kazakh SSR "On Improving the Study of the Kazakh Language" and "On Improving the Study of the Russian Language" were issued. The mere fact of the release of just two resolutions speaks of the humiliating colonial dependence of Kazakhstan in all spheres of life. These resolutions did not bring results, as can be seen from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pupils of Kazakh schools in 1988. They could not help the development of the Kazakh language, since the main point of these resolutions is the voluntariness of learning the Kazakh language, which in fact means that it is not binding, and therefore uselessness. In early 1989, the issue of the state language began to be actively discussed in the republic. At the beginning, the position of supporters of giving the status of the state Kazakh and Russian languages prevailed; After many months of discussion, supporters of a single state language, Kazakh, prevailed. In September 1989, the Languages Act was passed; The Kazakh

language is recognized as the state language, Russian is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his step means that society understands the objectiv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creasing role of the Kazakh language: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Kazakhs in the population of the republic and the outflow of non-indigenous population. Adoption of the law also means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rns and anxieties of the Kazakh people for the fate of their language. Adopted in 1990 "Stat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Kazakh and other national languages in the Kazakh SSR for the period up to 2000" to some extent improved the language situation in the republic. This, however, concerns, above all, the Kazakh language and the languages of large, compactly living national groups: Uzbeks, Uighurs, etc. A much more difficult situation for Koreans living dispersed throughout the territory of Kazakhstan. The development of a language requires a compact living of its speakers, the organization of school education and the presence of cultural autonomy to solve all the issues of the life of a nation. Only when these conditions are met is it possible to solve this problem. In 1997, the Law "On the Languag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was passed, where it was said: "The state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s Kazakh"; "The Russian language is officially used in state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bodies along with Kazakh." As you can see, the scope of the use of the Russian language is narrowed by law, limited only by government agencies. However, even now, a quarter of a century after independence, the Russian language is more common than Kazakh, although the ethnic base of the Kazakh language is two-thirds of the country's population. This is due to two factors: the strong language assimilation of the Kazakhs and the fact that the country's leadership conducts language reforms carefully and gradually. Such a policy sh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5) Language contacts and their consequences. The path that has passe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Russian, Korean-Kazakh and Russian-Kazakh language contacts was determined by many factors: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these peoples, the geography of their settlement, the compactness of peoples living, the level of proficiency in languages at different stages of history, the social and professional the differentia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se nationalities, the presence of school education, the media, the language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language poli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contacts. Korean-Kazakh language contacts have existed for 80 years, Korean-Russian and Russian-Kazakh

have a longer history.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ir existence, they are under the strict control of the state. This was the cause of many deformations in this area, since the ideologization of linguistic relations often disfigured and disrupted the natural course of development and interaction of languages instead of actually assessing the course of events and contributing to their development. Thus, with respect to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Far East,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a policy of restricting immigration was pursued in order to increase Russian influence on the Pacific coast; this influenced the ratio of the Russian and Korean populations and created a language environment unfavorable for the functioning of the Korean language. The policy of tsarist Russia in the field of education had a missionary orientation and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the Russian language among the non-Russian population. At the same time, a number of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were published in the Far East, which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lives of Koreans. This suggests that the national policy was carried out flexibly, taking into account the real conditions, was designed for the future and was built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empire. Colonial policies were also carried out in Kazakhstan. It became particularly activ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the intensive settlement of Kazakhstan by the Russians began. The tsarist language policy did not provide for any training other than Russian, but the tsarist administration could not overcome the resistance of local nobility and clergy, and was forced to go to the opening of Russian-Kazakh schools, although the policy's goal was to Russify non-Russian peoples and merge them in faith and language, has not changed. In general, the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the Russian colonization of Kazakhstan in the 30s. our century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broad language contacts, since the majority of Russians lived in northern Kazakhstan. Russian schools covered only 1% of the Kazakh population, while for broad communication between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nations it was necessary to live together on the same territory and study a non-native language at school. Thus, for the Koreans and Kazakhs, the consequences of the language policy of Tsarist Russia turned out to be unequal. If Koreans already in the early years of immigration began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 multinational population of Primorye, and these contacts were made using the Russian language, it is quite natural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Koreans had a certain knowledge of a certain amount of Russian everyday vocabulary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it; part of the Korean population living in the northern regions of

Primorye and the Khabarovsk Territory, is already distinguished by a good knowledge of the Russian language. As for the Kazakhs, only 23% of them were fluent in Russian, while the speakers of Russian-Kazakh bilingualism were much more numerous, since there was a Kazakh-speaking environment. During the pre-revolutionary period, Korean-Russian bilingualism underwent a significant evolution: if in the first decades of immigration, Koreans had a minimum of Russian words necessary for everyday communication with Russians, then over time and as their area spreads, their knowledge of the Russian language improves. This is due to increased dispersion of the Korean population, language contacts and linguistic environment, the presence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language, language policy. In Kazakhstan, bilingualism has long been in its infancy, despite the fact that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ere a new channel for the spread of the Russian language appears - the language environment. This is explained by the high prestige of the Kazakh language as the language of the majority and as the language of the indigenous population. Despite the colonization policy, the spread of the Russian language did not develop as the Russian-Kazakh bilingualism began to predominate.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influence of the Russian language on the social functions of the Korean and Kazakh languages. Almost all the functions of Korean have been narrowed down; These include: a)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in all fields of activity; the reason for the narrowing of this function was the resettlement of Koreans over a vast area and an increase in types of economic activity; b)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ettlement; in regions remote from the Posyet area, Koreans constituted a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they often had a poor command of their native language and communicated among themselves in Russian; c)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instruction; this function of the Korean language since its inception has been significantly suppressed by the Russian language, since the educational policy was aimed at the spread of the Russian language; d)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science, which has not yet developed; e)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e) the function of the state language. For the language to perform the two latter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have state-territorial autonomy, compact residence of native speakers, their predominance in the population of a state-territorial entity, as well as legislative recognition of the status of the state language and the language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to the language. At the same time, the

Korean language actively carried out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artistic and socio-political literature,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various spheres of social and political life. This is due to the wide spread among the Korean population of the ideas of the struggl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se movements were encouraged by Tsarist Russia opposing Japan. Thus, the Korean language was very quickly affected by the activities undertaken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language policy. The Russian language had almost no influence on the functioning of the Kazakh language; only in the field of book publishing and periodicals did some of the products be published in two languages; however, due to the massive illiteracy of the population, this did little to facilitate the interaction of languages and the spread of the Russian language. In the area of intrastructural development of languages, Russian also had a much stronger influence on the Korean language; traces of this influence are observed even in grammar. The Russian language had a huge impact on the vocabulary of the Korean language, especially in the field of technical and socio-political terminology, in the sphere of everyday life, folk spiritual culture and primary education. The interaction of the Russian and Kazakh languages leads to mutual borrowing vocabulary; Kazakh language borrows terms related mainly to household, trade, industry, education, culture; Russian language - the terms of everyday life, animal husbandry, as well as vocabulary related to history, customs, traditions, etc. The policy of spreading the Russian language continued in the post-revolutionary period. Starting from the mid-20s. until the end of the 80s gg. a whole series of resolu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USSR and the Kazakh SSR, which systematically performed the task of ousting all the national languages in Russian, was issued. The translation of a number of languages into Latin, and then into Russian graphics, had a tremendous impact on languages, primarily on their vocabulary, influenced phonetics and morphology, with the result that these languages turned out to be largely Russified. For the modern language situ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The Korean language has lost most of the social functions: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in all areas of activity;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within the republic; language of instruction; language science. The remaining functions are extremely narrowed and cover a very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These include: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of family communication; the language of artistic and social-political literature; language of various spheres of public and political life. Thus, the situation with the Korean language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ompletion of the language assimilation of the Korean population.

Kazakh language also yields its position to the Russian language. A significant part of Kazakhs use the Russian language, although all areas of the functioning of the Kazakh language are preserved; These include: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in all fields of activity,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within the country; language of instruction; the language of artistic and social-political literature; language of science; language of periodicals; the language of various spheres of social and political life; languag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tate language.

The Russian language has not lost any social functions, but it has significantly narrowed its sphere of use, mainly due to the fact that graduates of Kazakh schools are already completely Kazakh-speaking, although Russian is almost always used in the field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is about the same situation. Obviously, the introduction of the Kazakh language into these areas of communication is a rather long process, although the demograph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he state policy will undoubtedly ensure its implementation. As for the intrastructural development of languages, the biggest changes occurred in the Korean language, bearing the imprint of the influence of not only Russian, but also Kazakh. This is especially noticeable in the field of vocabulary in such areas as scientific and technical terminology, the sphere of everyday life, the vocabulary of folk spiritual culture, as well as socio-political and journalistic literature and professional art. In grammar and phonetic structure, there are practically no deviations from the literary language, although when borrowing words, the tendency to preserve their sound form prevailed. In the Kazakh language there are also many borrowings from the Russian language; Mostly this scientific and technical and household terminology. The introduction of Cyrillic led to the fact that borrowing is used in the same form as in Russian; Thi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 of the phonetic structure of the Kazakh language and contributed to its Russification. In the vocabulary of the Kazakh language there is a small number of Korean borrowings, these are words denoting objects and phenomena that are not found in the Kazakh language. The Russian language also experienced the influence of the Kazakh and Korean languages. This is reflected in the borrowing of vocabulary from these languages; These are mainly everyday life terms that have no equivalents in Russian. The scale of bilingualism and multilingualism show the

widespread use of the Russian language: it is owned by almost 100% of Koreans and 92.7% of Kazakhs; Kazakh language is known to 2% of Koreans and about the same Russian; Korean - some representatives of the Kazakh population of the Kyzylorda region. Over the past quarter century of independence, some changes have occurred; at official events, Kazakhs and representatives of other nationalities who speak the Kazakh language began to speak Kazakh, earlier this was not accepted and was perceived as being impolite (!) towards people of other nationalities who do not know the Kazakh language. The number of people who passively speak Kazakh has increased, i.e. understand what is at stake, although not able to speak. Not knowing the Kazakh language began to experienc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hiring and in everyday life. At the same time,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Russians do not know the Kazakh language, although it is included in the school curriculum. In 2017, two subjects - the history of Kazakhstan and Kazakh literature - will be taught in Russian schools in the Kazakh language. This is a tough measure; It can have two results: it will force everyone to learn the Kazakh language or it will become a pushing factor. People will have a choice: to learn Kazakh or to leave. The situation is complicated by the upcoming transition of the Kazakh language to the Latin alphabet in 2025. Already in April 2017, the President of Kazakhstan ordered the government to adopt a single standard version of the Kazakh alphabet in the new schedule by the end of the year, and from 2018 to begin training for teaching the alphabet and preparing textbooks for high school. "In the next 2 years to carry out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and methodological work. By 2025, we start publishing office work, periodicals, textbooks and everything else in Latin," the President wrote. Most likely, the majority of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 will be set to emigrate. Several factors affect emigration. First, the economic factors. Secondly, Russia, Belarus, and Ukraine attract with a common language and culture. And finally, the fully justified goals of reviving the Kazakh language and strengthening the Kazakh nation are often interpreted to mean the construction of a Kazakh state, where all rights will be provided to everyone else, but the state will be Kazakh.

Thus, the current state of the languages of the peoples of our country is the result of a purposeful Russification policy pursued by the USSR for 70 years. The new policy gives hope for the elimination of its consequences. It provides real assistance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s, first of all large nations, since the national and linguistic environment is preserved to some extent in the regions of their residence.

As for the small peoples, the activity in relation to their languages is largely hampered due to the lack of social order for them. However, the opening of free courses, groups of Korean in universities,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cultural centers, an increase in the circulation of published literature, the opening of national theaters, etc. allows anyone who wants to learn a language and work with it in organizations where it is in demand. The processes occurring in the language life of the country, show the great importance of language problems when solving the national issue, so they should be treated with great attention and caution, as they affect the interests of millions of people. Kazakhstan understands that all people want to live in their descendants: children, grandchildren, great-grandchildren, in their culture and their civilization. Justice requires everyone to have the right to do so. Justice is the instinct of collective survival, projected onto the plane of social relations and moral ideas. An unfair state can not be strong and durable.

REFERENCES

1. R.Sh. Dzharylgasynova "Culture and life of Koreans farm" Raushan "Kungrad district of the Karakalpak ASSR." M., 1960.
2. R.Sh. Dzharylgasynova "To the question of the cultural rapprochement of the Koreans of the Uzbek SSR with the neighboring nations (Traditional and new in the economy and material culture)." Soviet ethnography. M., 1966, No. 5.S.3-14;
3. R.Sh. Dzharylgasynova "Traditional and new in the family rituals of Koreans in Central Asia." History, archeology and ethnography of Central Asia. M., 1968.C.343-349;
4. R.Sh. Dzharylgasynova "Anthroponymic processes in Koreans of Central Asia and Kazakhstan. Personal names in the past, present, future. " M., 1970. C.139-149;
5. R.Sh. Dzharylgasynova "New in the culture and life of Koreans of Central Asia and Kazakhstan (on the example of the rural population)". Soviet ethnography. M., 1977. № 6.S.59-70;
6. R.Sh. Dzharylgasynova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anthroponymic model of Koreans living in rural areas of the Uzbek SSR." Onomastics of Central Asia. M., 1978. P.203-205;
7. R.Sh. Dzharylgasynova "The main trends of ethnic processes among Koreans in Central Asia and Kazakhstan." Ethnic processes in the national groups of Central Asia and Kazakhstan. M., 1980.C.431.
8. Yu.V. Ionova "The Koreans of Central Asia" (Brief Communications by the Institute of Ethnography. XXXI 111. M., 1963. p. 23-34).
9. Ko Sonma,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Helsinki, 1987. (in English).
10. MGLevin "Field research of the Institute of Ethnography in 1946". Soviet ethnography. M., 1946.
11. M.A. Khagai "Lexical borrowing from the Russian language in Korean translations." Abstract of Ph.D. dissertation. M., 1963.

Классификац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Ким О.А.

Университет Инха в Ташкенте, Узбекистан

Львова И.С.

ТГПУ имени Низам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Елькин Д.Ю.

УзГУМ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же, как и в русск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образуется на основе способности знаменательных слов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различными словоформами и объединяться грамматически и по смыслу.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служит для выражения единого, но расчлененного понятия ил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члена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троятся на основе подчинительной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вязи, так как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всегда есть грамматически независимый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подчиненный ему компоненты.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мы рассмотрели специфику образован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и их классификацию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словосочетание/어구/구, синтаксис/문장론/통사론,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통사적 단위,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통사적 관계성, синтаксическая связь/통사적 연결성, классификация, *именн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глагольн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местоименн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наречн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Authors: Kim O.A., Inha University Tashkent, Uzbekistan; Lvova I.S.,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 Tashkent, Uzbekistan; Elkin, Y.D., Uzbek State World Languages University Tashkent, Uzbekistan

Abstract: In Korean, as well as in Russian, the phrase is formed on the basis of the ability of notional words to spread by different word forms and to unite grammatically according to the meaning. The word combination in Korean and Russian is used to express a single, but dissected concept or representation.

Syntactic relations between the members of the phrase are built on the basis of subordinate syntactic relations, as in the phrase there is always a grammatically independent and grammatically subordinate components. In this article we have considered the specifics of forming phrases and their classification in Korean and Russian.

Keywords: collocation/구, syntax/문장론/통사론, syntactical units/통사적 단위, syntactic relations/통사적 관계성, syntactic relations/통사적 연결성, classification, nominal phrase, verbal phrase, pronominal phrase, adverbial phrase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구 [ку] (СС)¹ как в корейском так и русском языкознании – единица, которая наряду с прост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단문 [данмун] (ПП)² и сложным 복문 [покмун] (СП)³ является предметом изучения синтаксиса. Также синтаксическими единицами считаются форма слова и сложное синтаксическое целое (ССЦ)⁴. В языкознании синтаксис⁵ (кор. 문장론 [мунджангон] или 통사론 [тхонгсарон]) – это ярус языка, единицами которого являются слова 단어 [дано],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구 [ку], предложения 문장 [мунджанг], фразы 문구 [мунгу], тексты 글 [кыль]. Синтаксисом также называют раздел языкознания, изучающий законы построен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предложений, текс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 строй связной речи. Изучению подлежит как форма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предложений и сочетаний предложений, так и содержание, выражаемое этими формами. «В синтаксисе изучается то общее, что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за всем этим многообразием конкретных отношений»⁶. Основными понятиями синтаксиса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являются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кор. 통사적 단위 [тхонгсаджок данви])⁷,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¹ Словосочетание(кор. 구/어구) – это соединение двух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знаменательных слов, связанных по смыслу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служащее для расчленённого обозначения единого понятия.

² **Простое предложение** (кор. 단문/다문장)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лово или сочетание слов, характеризующееся смысловой и интонационной законченностью и наличием одно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основы, например: 새가 날아간다. «Птица летит».

³ Слож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복문/복합문장 – предложение, имеющее две или более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основ.

⁴ Сложное синтаксическое целое или сверхфразовое единство – это сочетание несколь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в тексте, характеризующееся относительной завершенностью темы (микротемы), смысловой и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паянностью компонентов. Сложные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целые являются средством выражения смысловых и логических единств.

⁵ Синтаксис от греч. *sintaxis* – *соединение, сцепление*.

⁶ Ким Фил.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Алматы: КазГУ, 2000. – С. 25.

⁷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통사적 단위 – это конструкции, в которых их элементы (компоненты) объединены синтаксическими связями и отношениями. В составе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единиц изменяемые слова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одной из своих форм (словоформ), которые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образуют морфологическую парадигму слова.

отношения (кор. 통사적 관계성 [тхонгсаджок квангесонг])⁸ и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связи (кор. 통사적 연결성 [тхонгсаджок ёнгёльсонг])⁹».

Итак, целью на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изучение классификаций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связи с чем, нашей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становится выявление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связей слов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Изучение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сающихся вопроса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ало, что в целом корейские лингвисты (Ким Джеук 김재욱, Пак Кидок 박기덕, Со Джонгсу 서정수, Со Гвансу 성광수, И Иксоп 이익섭, Че Ван 채완 и др.¹⁰)¹¹ рассматривают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нутр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их мнению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предложении делятся на две большие группы: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зависимые слова соотносятся с подлежащим 주어 [джуо] 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зависимые слова соотносятся со сказуемым 서술어 [сосуро]¹².

Рассмотрим предложение: 그렇게 십년을 혼자 살았습니다¹³. [Кырохке сибнёньль хонджа сарассыбнида.] *Так прожил 10 лет один.* В данном предложении отсутствует подлежаще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интакс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в качестве условного подлежащего мы предлагаем включить слово «그는» [Кынын] он. С

⁸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ор. 통사적 관계성) –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омпонента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и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членами предложения.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такими являются отношения атрибутивные, объектные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енные, а в предложении, помимо них, – отношения предикативные, полупредикативные и аппозитивные.

⁹ Синтаксическая связь (кор. 통사적 연결성) – связь слов, служащая для выражения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элементов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и предложения. Различают подчинительную и сочинительную связь.

¹⁰ 허용, 강현화, 고명균, 김미옥, 김선정, 김재욱, 박동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2012. 472 쪽.

¹¹ 김재욱 외. 한국어문법론. 2003;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 문법론. 2003; 박기덕. 한국어 문법론. 2003; 서정수. 국어문법. 1996; 성광수. 한국어 표현 문법. 2005;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 2002; 이익섭. 한국어 문법. 2006.

¹² Независимые члены предложения 독립어 не соотносятся ни с главными, ни со второстепенными членами предложения.

¹³ 소중애. 아버지의 시계. –서울: 동아출판사, 1994. -63 쪽.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рейских лингвистов, в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м предложении выделяются следующие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1) основа предложения 어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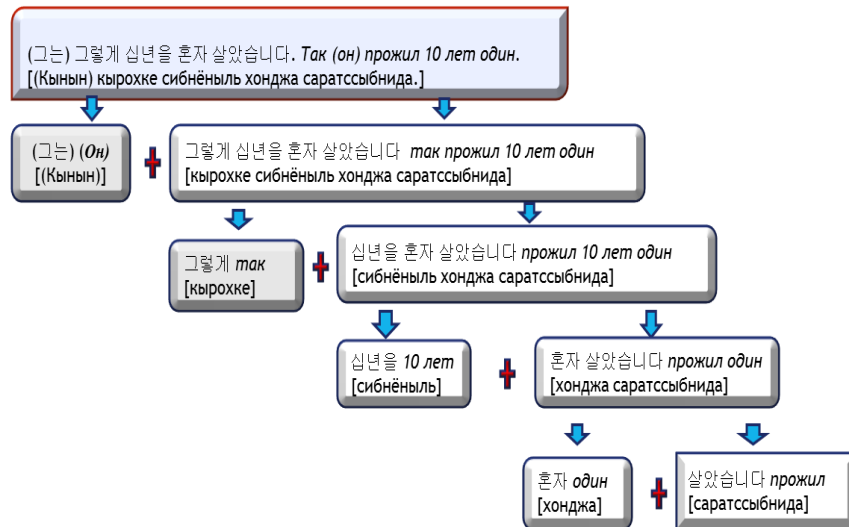
(그는) 살았습니다. [(Кынын) сарассыбнида.] (*Он*) *прожил*.

2)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главным словом является сказуемым 서술어구 [сосуругу]:

그렇게 살았습니다 [кырокке сарассыбнида] *так прожил*

십년을 살았습니다 [сибнёныль сарассыбнида] *10 лет прожил*

혼자 살았습니다 [хонджа сарассыбнида] *один прожил*



3)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главное/стержнев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наречием «혼자» [хонджа] *один*. Таки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относятся к 부사구, т.е. к наречным:

그렇게 십년 혼자 [кырокке сибнён хонджа] *так 10 лет один*;

그렇게 혼자 [кырокке хонджа] *так один*;

십년을 혼자 [сибнёныль хонджа] *10 лет один*.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члена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троятся на основе подчинительной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вязи, так как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всегда есть грамматически независимый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подчиненный ему компоненты. Для начала, рассмотрим специфику образован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Как мы уже знаем, в корейск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образуется на основе способности знаменательных слов¹⁴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различными словоформами и объединяться грамматически и по смыслу, тем самы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служит для выражения единого, но расчлененного понятия ил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пример,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얘기하는 사람 беседующий человек*» словоформами слова «*얘기하는 беседующий*» являются «*얘기하다 беседовать, 얘기한 беседовавший, 얘기하면 если беседовать, 얘기함 беседа, 얘기하고 побеседовав, 얘기하러 чтобы побеседовать, 얘기하길래 из-за того, что беседовал*» и др. Словоформами слова «*사람 человек*» – «*사람이 человек (в именительном падеже), 사람이라면 если человек, 사람하고 с человеком, 사람이길래 из-за того что человек, 사람들 люди, 사람이라서 будучи человеком, 사람이라도 хотя бы человек*» и др. Структуру данного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можно схематизировать как «зависимое слово + главное/стержневое слово», где стержневое слово, замыкающе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ыражено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частью речи –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В данн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часть речи главного слова «*사람 человек*» определяет грамматическую функцию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ознани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именной частью речи *체언*¹⁵ называют *체언구*¹⁶. Данная группа подразделяется на: 1)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 *명사구*, например: *큰 집 большой дом*; 2)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местоимением – *대명사구*, например: *착한 나 добрый я*; 3)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числительным – *수사구*, например: *만난 둘은 встретившиеся дв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глагольной формой называют *용언구*¹⁷.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 виду глагольной формы различ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1)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активным глаголом – *동사구*, например: *혼자 살았다* [хонджа сарассда] *один жил*; 2)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 котором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¹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частям речи относятся: *명사*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대명사* местоимение, *수사* числительное, *동사* глагол, *부사* наречие.

¹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 именным частям речи относятся: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명사*, местоимение *대명사*, числительное *수사*.

¹⁶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аналогом является *номинатив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¹⁷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аналогом является *глаголь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дескриптивным глаголом – 형용구, например: 아주 좋다 [аджу джохда] *очень хороший*; 3)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 котором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глагольной формой имени «체언 + -이다», например: 훌륭한 의사이다 [хуллунгхан ыйсаида] *великий доктор*.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наречием называют 부사구¹⁸ [пуса-ку], например: 너무 급히 [ному кыбхи] *очень срочно*.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лингвисты рассматривают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как внутри предложения так и отдельно. Классификац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разным принципам – по главному слову, по структуре, смысловым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компонента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связи слов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 русском – это сочетание двух и более знаменательных слов, связанных между собой подчинительной связью. Например, *каменная стена, дом отца, увлекаться музыкой, бежать быстро, приехать отдохнуть, сильный духом* и т.д.

В этих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слова *стена, дом, увлекаться, бежать, приехать, сильный* являются главными (подчиняющими, стержневыми), а слова *каменная, отца, музыкой, быстро, отдохнуть, духом* – зависимыми (подчиненными). От главного к зависимому слову можно поставить вопрос: *стена* (какая?) *каменная*; *дом* (чей?) *отца*; *увлекаться* (чем?) *музыкой*; *бежать* (как?) *быстро*; *приехать* (для чего? зачем?) *отдохнуть*; *сильный* (чем?) *духом* и т.д.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образуется путе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зависимыми (пояснительными) словами, например: *яблоко – вкусное яблоко; умный – очень умный; читать – читать книгу; дороже – дороже золота; трое – трое детей* и т.д.

Не являются словосочетаниями такие соединения слов, в которых ни одно из слов не подчинено другому, например: а) сочетание подлежащего со сказуемым, так как составляет грамматическую основу, состоящую из главных членов (*Зеленеет трава; Солнце село; Воздух посвежел* и т.д.¹⁹); б) сочетание слов, объединенные сочинительной связью, так как это равноправные однородные члены предложения (*ровно и ярко, надежды и муки*,

¹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аналогом является *нареч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¹⁹ Также и в корейском.

красный и желтый и т.п.)²⁰; в) сочетание знаменательного слова со служебным,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более удобный; менее удобный; самый красивый*²¹; *буду читать; пусть учит; учил бы*²²; *около леса; вокруг дома*²³ и т.д.) г)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так как они употребляются каждый раз как готовая единица, с той ж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ю компонентов (*стирать очки; выйти из себя; добрый молодец; засучив рукава* и т.д.)²⁴.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 какой части речи принадлежит главное слово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делятся на:

1) *именн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 именем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прилагательным²⁵ или числительным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интересный рассказ, известный людям, девятый с краю, два студента* и т.д.

2) *глагольн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 глаголом в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х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слова: *учиться прилежно, рассказать о себе, поглядывая по сторонам*²⁶, *освященный солнцем* и т.д.;

3) *местоименн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 местоимением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кто-нибудь из вас, что-то странное, каждый из участников* и т.д.;

²⁰ Ким Фил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2002. – С. 175) причисляет такие виды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например: 옥사나와 마리나가 *Оксана и Марина*) к именным словосочетаниям 명사구.

²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олее удобный* – 더 편한 [до пёнхан]; *менее удобный* – 덜 편한 [долъ пёнхан]; *самый красивый* – 제일 예쁜 [джэиль епын] относят к 형용구, где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ражено дескриптивным глаголом.

²²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уду читать* – 읽겠다 [ильккессда]; *учил бы* – 읽었을 걸 [ильгоссылъ коль] являются словоформами слова *читать* – 읽다 [ильккда].

²³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коло леса* – 숲 옆에 [суп ёпхе]; *вокруг дома* – 집 근처에 [джиб кынчоз] относятся к наречным словосочетаниям 부사구 [пуса-ку].

²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ие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являются словосочетаниями.

²⁵ Аналогом является группа слов 형용사, входящая в состав предикативных частей речи 용언.

²⁶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глядывая по сторонам*» – 양쪽을 보면서 [янгцогыль помёнсо] в составе предложения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придаточного глаголь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동사절 [донгса-джоль].

4) *наречн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 наречиями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очень красиво, чуть-чуть влево, особенно резко, недалеко от города* и т.д.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зависимые слова связываются с главным тремя способами подчинительной связи: *согласованием, управлением и примыканием*.

Согласование – это такая подчинительная связь, при которой зависимое слово ставится в том же числе, роде и падеже, что и главное слово: *высокое дерево* (в эт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зависим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высокое* согласуется с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дерево* в единственном числе, среднем роде, именительном падеже), *моим другом* (в эт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зависимое местоимение согласуется с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в единственном числе, мужском роде, творительном падеже) и т.д.²⁷

Согласование может быть *полным* и *неполным*. При *полном* согласовании зависимое слово полностью совпадает с формами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в роде, числе, падеже): *улыбающееся дитя* (зависимое причастие *улыбающееся* согласуется с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дитя* в единственном числе, среднем роде, именительном падеже) и т.д. При *неполном* согласовании зависимое слово совпадает с формами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в числе и падеже (*город Ташкент – города Ташкента – городом Ташкентом* и т.д.), рода и числа (*у человека под фамилией Лихачёв*), числа (*с человеком по прозвищу Рыба*), падежа (*пятью тетрадями*).

Управление – это такая подчинительная связь, при которой главное слово требует постановки зависимого слова в определенной падежной форме: *писать* (что?) *письмо* (глагол требует вини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увлекаться* (чем?) *музыкой* (глагол требует твори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и т.д.

Управление бывает *беспредложным* (*отрубить топором, поймать окуня, ножка стола*) и *предложным*²⁸ (*верить в будущее, похожий на отца, выехать из города, перепрыгнуть через ручей*).

Примыкание – это такая подчинительная связь, при которой зависимое слово связывается с главным лишь по смыслу. Примыкают обычно неизменяемые знаменательные слова: наречия, инфинитив, деепричастия (*приехать быстро* – наречие примыкает к глаголу; *выйти посмотреть* – инфинитив примыкает к глаголу,

²⁷ В корейских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такой вид связи отсутствует.

²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едлоги отсутствуют.

обозначающему движение, *идти прихрамывая* – деепричастие примыкает к глаголу и т.д.²⁹), а также сравнительная степень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дети постарше*³⁰), некоторые несклоняемые прилагательные³¹ (*пальто беж, костюм хаки, платье электрик*).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личества знаменательных слов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делятся на *простые* и *сложные*.

Прост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остоят из двух знаменательных слов: одного главного и одного зависимого: *파란 하늘* [пхаран ханыль] – *голубое небо*, *열정적으로 일하다* [ёльджонгджогыро ильхада] – *работать увлеченно*, *책을 읽다* [чхэгыль илькда] – *читать книгу* и т.д.

К простым относятся такж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которых зависимый компонент выражен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с предлогом³² (*прыгнуть через забор, мама с дочкой, гулять около дома* и т.д.),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м сочетанием (*бежать сломя голову, работать спустя рукава* и т.д.), цельны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м (*мальчик с голубыми глазами, человек высокого роста* и т.д.). Простыми являются 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составными) формами (*самая интересная книга, буду учиться хорошо, пусть расскажет сказку* и т.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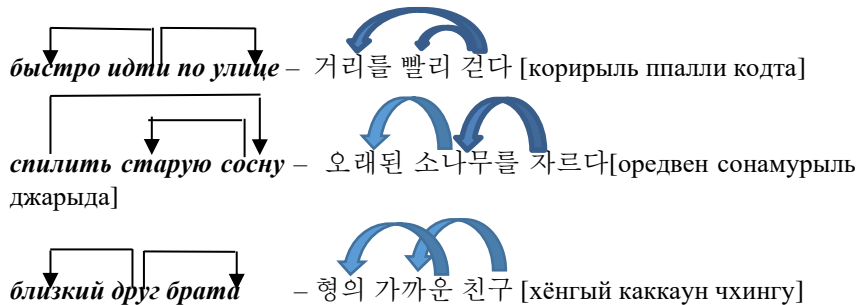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 более чем из двух знаменательных слов, в которых одно главное слово подчиняет себе два и более зависимых, называются *сложными*:

²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приехать быстро* – 빨리 오다 [ппалли ода] наречие примыкает к глаголу; *выйти посмотреть* – 나가서 보다 [нага пода] инфинитив примыкает к глаголу; *идти прихрамывая* – 짚뚝거리며 가다 [ццольттукгоримё када] глагол примыкает к глаголу.

³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равнительная степень выражается путем применения слов 더 [до] *более* и 덜 [дол] *менее* перед определениями. Например: *дети постарше* 더 큰 아이들 [до кчын аидыль].

³¹ В корейском отсутствует понятие «*несклоняем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³² В корейском отсутствуют предлоги. Однако, при перевод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адежные,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соединительные частицы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а также другие части речи, например: *прыгнуть через забор* – 울타리를 뛰어 넘다 [ультхарирыль твио номда], *мама с дочкой* – 엄마하고 딸 [ommaхаго тгаль], *гулять около дома* – 집 근처에서 산책하다 [джиб кынчоэ санчхэххад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часто в сложных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зависимые слова определяют главное слово с разных сторон: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двезти старого друга на машине* –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двезти, подвезти друга, подвезти на машине, старого друга*.

Между главными и зависимыми компонента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могут устанавливаться различные смысловые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три основных типа таких отношений: определительные 관형적 관계 [кванхёнгджок кванге], объектные 목적적 관계 [мокджокджок кванге]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енные 부사적 관계 [пусаджок кванге].

Определительные (атрибутив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блюдаются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главные слова которых обозначают предметы, а зависимые – признаки этих предметов. Например: 맛있는 딸기 [масисснын ттальги] *вкусная* (какая?) *ягода*, 나의 집 [наый джиб] *мой* (чей?) *дом*, 두번째 줄 [тупондже джуль] *второй* (который?) *ряд*, 터키식 커피 [тхокхисик кхопхи] *кофе по-турецки* (какой?) и т.д.

Объект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блюдаются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главные слова которых обозначают действия и состояния, а зависимые – предметы (объ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этими действиями и состояниями: 편지를 쓰다 [пхёнджирыль ссыда] – *написать* (что?) *письмо*; 칼로 자르다 [кхалло джирыда] – *резать* (чем?) *ножом* (действие и орудие действия); 집을 그리워하다 [джибыль кырёвохада] – *тосковать* (о чем?) *о доме* (состояние и объект, с которым связано это состояние) и т.д.

Обстоятель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блюдаются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главные слова которых обозначают действия, а зависимые – различ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этих действий (время,

направление действия, место, цель, качество и т.д.): 내일 떠나다 [неиль ттонада] – *уехать* (когда?) *завтра* (время), 오른쪽으로 가다 [орын ццокрыо када] – *пойти* (куда?) *вправо* (направление действия), 기뻐서 울다 [киппосо ульда] – *плакать* (по какой причине?) *от радости* (действие и его причина) и т.д.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как в корейском, так и в русском – это соедине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слов на основе подчинительной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вязи, имеющее следующие признаки: 1) слова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связаны по смыслу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2)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не являе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единицей; 3)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не передают законченную мысль, не являются единицей в коммуникаци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единицей в общении людей), это только материал,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единиц более высокого синтаксического уровня – предложений.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члена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обоих языках строятся на основе подчинительной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вязи, так как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всегда есть грамматически независимый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подчиненный ему компоненты.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по своему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ому оформлению может быть омонимично предложению. Однако предложениям свойствен целый ряд признаков. Не обладая и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предложением не является. У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нет цели высказывания, смысловой и интонационной завершенности,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основы.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не содержит законченной мысли и не является единицей общения. Оно, как и слово, выполняет номинативную роль, т.е. роль называния различ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предметов, действий, признаков, состояний и проч. Но при эт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ыполняет эту роль, выражая более детализирова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чем слово.

Слова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неравноправны: одно главное, другое – зависимое. В роли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могут выступать слова всех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частей речи. Тип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определяют по характеру главного слова. В обоих языках выделяются три типа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именные – 명사구 [мёнгса-ку], глагольные – 용언구 [ёнгон-ку], наречные – 부사구 [пуса-ку].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Ким Фил.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Алматы: КазГУ, 2000.
2. 김재옥 외. 한국어문법론. –서울: 동서출판사, 2003.
3.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동서출판사, 2003.
4. 박기덕. 한국어 문법론. –서울: 동서출판사, 2003.
5. 서정수.국어문법. –서울: 동서출판사, 1996.
6. 성광수. 한국어 표현 문법. –서울: 동서출판사, 2005.
7. 소중애. 아버지의 시계. –서울: 동아출판사, 1994.
8.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동서출판사, 2002.
9.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 동서출판사, 2006.
10. 허용, 강현화, 고명균, 김미옥, 김선정, 김재옥, 박동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2012.
11. Львова И.С., Шим Л.В.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Т.:ТГПУ, 2006.- 306 с.

Trends and Development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Korean Studies in Bulgaria

Soyoung Kim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Abstract: In 1992, the first courses in Korean language began at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October 1995 in the Faculty of Classical and Modern Philology. This was the first time Korean studies were promoted as a major in a Balkan country. In 2010, in accordance with Sofia University regulations,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was officially established, as the number of Koreans in permanent positions increased to seven. Presently, more than 50 students are studying for their bachelor's and doctor's degrees in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In April 2017, two students graduated from the master's course, and in September 2017, more new students enrolled in the master's program. In 2015, as a result of the previous five-year development project (research on the political, legal, cultural system and situation after the colonial period), Sofia University began the research project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e theme of the project involves the inception of a combined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for launching and spreading Korean studies in Eastern Europe. This project aims at blending the Bachelor's course, graduate programs, and research into one in order to combin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One of the important tasks is to collect archive materials concerning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Researchers of this project analyze and study these collected documents and translate them into the Korean language.

Keywords: Sofia University, Korean Studies, Core University Program, Eastern Europe, Cold War

1. Introduction

Twenty five years ago, Koreans were prohibited entry into Bulgaria. Korea was an unfamiliar country to Bulgarians, who knew much about Japan and China but very little about Korea. Furthermore, Bulgarians were not really interested in Korea. They associated this country only with the 1988 Olympics (held in Seoul, South Korea), the Korean Wa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or Korean unification. Nowadays, however, the classrooms of Sofia University are full of energetic young people and the image of Korea is significantly improving, which is highly gratify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Bulgaria were

established in November 1948.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Bulgarian Communist Party made the decision to support North Korea by way of a political campaign for the sake of North Korean relief. In 1952–56, the Bulgarian government organized special humanitarian medical missions to North Korea. Bulgaria also cared for more than 500 Korean orphan children. During the Cold War, Bulgarian material aid to North Korea increased,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commercial, scientific, and cultural cooperation.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in 1990, Bulgari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the same yea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lected a university state scholarship student who was scheduled (with two other students from South Korea) to visit Sofia, Bulgaria. Before they arrived in Sofia, however, the Embassy of North Korea in Sofia recalled their students (who had been residing and studying in Sofia) back to North Korea.

2. The Korean Wave and Present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Bulgaria

In the last 10 years, the popularity of Korean dramas, films, and music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number, thanks to mass media and the Internet. Many Bulgarians have become fans of Korean pop culture. K-pop and Korean online computer games have also been widely spread among teenagers. And several public and private schools have begun to offer Korean language courses. In 2012, PSY's *Gangnam Style* song and dance (which resembles the playful riding of a horse) enjoyed tremendous popularity. Men and women of all ages imitated PSY's dance. Bulgaria's media reported widely that PSY had gained popularity around the world. Consequently, almost all Bulgarians now know about Korea. And thanks to the Korean Wave (*Hallyu*)—the phenomenon of South Korean entertainment and pop culture, including TV dramas and movies—the number of Bulgarians willing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has considerably increased.

Besides Sofia University, there are eight public and private schools which teach the Korean language. In 2011, the first Korean language class was launched at the public school William Ewart Gladstone, where there are now 10 classes in grades 1–5 and 8–12. Some 250 students are studying now the Korean language at the school. The three language teachers are graduate students from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Sofia University. Regional universities are also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In 2014, the University of Plovdiv opened two majors

in the Department of Applied Linguistics, where students can study two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or Korean and Bulgarian. In October 2012, a Korean language course opened at Veliko Turnovo University, with 35 students enrolled, most of which were K-pop fans or Korean drama and movie fans. In October 2013, the same university designated the Korea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Consequently, more students are expected to learn Korean in the future.) Varna, a coastal city on the Black Sea, also has a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 the Varna Korean Center, founded in October 2010. The center opened to sprea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response to the Korean Wave in Varna. It was the first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to become operational in a provincial city, other than Sofia. The center is a catalyst of Korean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nd promotion of Korea in the future. The elite First Language School, in Varna, organized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as an elective during the 2016-17 academic year. Apart from public institutions, Korean is also taught in private centers in Sofia and beyond.

3.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In 1992, the first courses in the Korean language began at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The lecturer of these courses was Dr. Choi, who was a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 in the university's doctoral program. The four-hour per week, two-year Korean language course was optional for students whose majors were Japanese Studies or Turkish and Altaic Studie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Embassy, students could get textbooks directly from Korea. There were many students, including faculty members, who attended the classes. The most attractive aspect of the course was that students and professors not only studied another Eastern language but could also gain comprehensive knowledge about Korean history, literature, and culture. Two students from this course were instrumental in opening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later. Surprisingly, this was not that difficult, as Sofia University had already had a plan to open a Korean program several years earlier. According to former director, Prof. Emil Boev, Sofia University had the intention of opening a Korean Studies Department, requesting books and a guest lecturer from North Korea. But North Korea refused to send a lecturer and sent only some books related to communism, including a complete set about Kim Il-Sung.

The Korean course continued until the establishment of a section dedicated to Korean Studies in the Center of Oriental Languages and

Cultures at Sofia University. During the official visit of the president of Bulgaria (Dr. Zhelyu Zhelev) to the Republic of Korea in April 1995, it was agreed to promote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in Bulgaria and the Bulgarian Studies Department in Korea. Dr. Zhelev was also awarded the honorary title of ‘Doctor of Political Scienc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eoul. In addition, Sofia University Rector and Hankuk University President signed an agreement of mutual academic cooperation. (Undoubtedly, the first visit of the Bulgarian president to the Republic of Korea was of enormous importance for the opening of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Sofia University.)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October 1995 in the Faculty of Classical and Modern Philology. This was the first time Korean studies were established as a major in the Balkan region. Prof. Karteva (Bulgarian who specialized in the Mongolian language), Prof. Fedotoff (Russian who specialized in Tibetan and Mongolian literature), and Professors Gwon Jin Choi and Soyoung Kim were pioneers who laid the foundation of Korean Studies in Bulgaria. Prof. Choi was the first official guest lecturer to Sofia University sent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re were some Bulgarians who graduated from Kim Il-Sung University. Sofia University tried to invite them as lecturers for the Korean Studies program, but all declined because of the low salary offered. Fourteen young Bulgarians were enrolled in the program, seven of which graduated in five years with MA degrees in Korean Studies, including Ms Yanitsa Ivanova, who through a special selection received a permanent position in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In 1995, Korean Studies first belonged to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which also included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In 2005, thanks to the special efforts of Prof. Fedotoff (twice vice-rector), the staff of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increased by two new positions. After an official competition, two candidates (both graduates of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became new colleagues. In recent years, Dr. Mancheva and Dr. Beneva—thanks to a grant provided by the Korea Foundation—also became members of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In 2010, in accordance with Sofia University regulations,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was officially established, as the number of Koreans in permanent positions increased to seven.

Presently, eight majors are taught in five departments at Sofia

University, which include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Chinese and Japanese), Department of Classical Oriental Studies (Indian, Iranian, and Armenian), Department of Arab and Semitic Studies, and the Department of Turkish and Altaic Studies. In most Western European universities,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hold dominant positions in comparison to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however, Korean studies have equal importance as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and have actually developed quicker and more dynamically than the latter, which is attributed to the hard work and efforts of local staff, Korean lecturers, and the support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institutions. The first MA curriculum (old version) wa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academic requirements for foreign languages and cultures education. As of 1996, Bulgaria became an EU candidate country, and it was decided to accept the three-level higher education system, offering degrees at various levels, including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te's.

In 1996, two students majoring in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were invi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o a field trip to Korea. Since then, more than 20 Bulgarian students have had the chance to visit Korea and attend courses in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Presently, the Korea Found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offer full scholarships to foreign students, including Bulgarians. In the past, there were not many applicants for scholarships in th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l courses in Korea, but they have increased each year. This year (2019), there were over 25 applicants, six of which received full scholarship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addition, one student from the Korean Studies program in Sofia University (for the first time) won a scholarship to study in the master's course 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ently, more than 50 students are studying for their bachelor's and doctor's degrees in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In April 2017, two students graduated from the master's course, and in 2017 and 2018, more new students will enroll in the master's course. There are two majors in the master's course: History and Contemporary Development of the Countries of Eastern Asia (Japan, China, Korea) and The Society and Culture of Korea.

Some of the graduate students of Korean Studies proceed in the

master's or doctoral courses of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Students who study in Korea usually select such majors as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s, and sociology. Undergraduates and postgraduate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work at Sofia University, Korean companies, the Bulgar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Embassy of Korea in Sofia, the Bulgari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Bulgarian National Bank, Hyundai Heavy Industries in Sofia, an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Korea. And recently, the demand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has increased, due to the surge in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Some 10 postgraduates teach Korean and other subjects of Korean studies at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in Bulgaria.

4. Academic and Cultural Activitie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There have been significant events which play important and decis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Bulgaria. In July 1997, with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Embassy in Bulgaria and support of the KOICA at Sofia University, an exclusive five-story building was constructed for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which boasts lecture and seminar rooms, a language laboratory, a computer room, a professor's office, and a library (which comprises over 3,000 books). Some 50 textbooks, dictionaries, monographs, and manuals have been published and are available in the center, thanks to the moral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Foundation,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Sofia University, as well as Bulgarian publishing houses.

In 2003, Prof. Choi (Sofia University) and Prof.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zed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in Eastern Europe in Sofia, Bulgaria. Researchers of Korean studies from Poland, Hungary, Czech Republic, and Korea participated in this conference, whose theme include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Education in Eastern Europe'.

This year (2019), the 18th conference of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Society of Koreanology (CEESOK) will be held in Vilnius, Lithuania. (CEESOK has published 15 journals as a product of their conferences.) More than 50 researchers of Korean studies from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took part in the conference and present their work. In the beginning of CEESOK's conferences, only a few professors and lecturer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were interested in CEESOK.

But now many researchers and PhD students present their research papers in this venue. CEESOK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academic exchange, not only among researchers in Eastern Europe but also between Central Europe and Korea.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Sofia Universi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and developing CEESOK, as seen in the following time period:

- 2003–05: Prof. Gwon Jin Choi (Sofia University), president of CEESOK.
- 2008–12: Prof. Soyoung Kim (Sofia University), president of CEESOK.
- 2012–14: Prof. Rainer Domels (University of Vienna), president of CEESOK.
- 2012–17: Prof. Ekaterina Pokholkova (Moscow State Linguistic University), president of CEESOK.
- 2017-2019: Prof. Seo Insuk (University of Latvia), president of CEESOK

In October 2009, Sofia University established a Korean language course for laymen, where lecturers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teach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October 2013, the King Sejong Institute was established at Sofia University, and the aforementioned Korean language course was integrated into this institute. By virtue of the Korean Wave in Bulgaria, interest in Korean culture, tradition, and language has rapidly increased. (Consequently, students of the Korean language have also increased in number.) To date, the King Sejong Institute has enrolled more than 70 students in the eight classes of thei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program. The passion of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s also seen in students who travel to Sofia from distant provinces for Saturday classes, including those who work during the week as lawyers, journalists, businessmen, public officials, and company staff members, as well as university students.

From 1996 to 2010,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organized more than a dozen symposia on Korean studies. Not only did faculty members participate in these symposia, but many students shared their experiences and knowledge via presentations and speeches. To date, 14 volumes of Proceedings of National Symposia on Korean Studies have been published.

In 2011, Sofia University and Sungkyunkwan University began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calle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topic of the first two years wa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fe and Works of Writers in Bulgaria and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second three years included the subject of ‘Colonial Heritage and Political, Legal and Cultural Change in Society’ (comparative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as to build a foundation for academic communication through mutual interests of the researchers of two universities. Besides concentrating and intensifying collaborative research, the aim of the project was for Korean studies in Bulgaria to be localized and sprea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at Sofia University), not only researchers of Korean studies were invited but also many scholars with such various majors as history, Bulgarian language and literature, economics, politics, Japanese studies, and Chinese studies. Researchers of this project managed to collect, analyze, and translate historical Bulgarian documents into the Korean language. There are many examples of such documents connected with the Korean Peninsula which are invaluable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lgaria and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In 2010, a special Workshop for Social Educators and Publishers was held in Sofia, organized by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with a grant from the Korea Foundation. Some 30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headed by the director of the public school William Ewart Gladstone (the first school in Bulgaria where the Korean language was taught). To date, seven workshops have been organized. In 2017 Sofia University—in cooperation with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ulgaria—organized the seventh workshop, which was held in the Grand Hotel Sofia. Teachers of Bulgarian high schools of Sofia and its provinces were invited. History teachers were special guests because professors at Sofia University had previously examined history textbooks used by Bulgarian high schools. (Bulgarian history textbooks give little and wrong information about Korea, and it was necessary to give exact and specialized knowledge to history teachers.)

In 2011, Sofia University an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ulgaria organized the first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in the Center of Asian Culture and Languages. Each year now, some 90 to 100 Bulgarians (and others from the Balkan countries, such as North Macedonia) participate in the examination. Not only do students participate in the exams, but also anyone interested in Korea’s popular and traditional culture, economics, politics, cuisine, and Taekwondo can

partake.

Research Activities and Results of Sofia University (01.09.2015 – 30.06.2017):

Item	Times	Results
Publishing Paper	3	Published paper (article) in <i>Bulgarian Historical Review</i> (A&Hci Journal). Title of paper: <i>Bulgari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uring the 1960s and the Beginning of the 70s in the Xx Century—Between Beijing And Moscow</i> . Authors: Soyoung Kim, Evgeni Kandilarov.
		Published paper (article) in <i>Bulgarian Historical Review</i> (A&HCI Journal). Title of paper: <i>Bulgaria and the Rapprochement Between DPRK and the Soviet Bloc in the Face of the Geopolitical Shift in East Asia During the 70s in the Xx Century</i> . Authors: Soyoung Kim, Evgeni Kandilarov.
		Published paper (article) in <i>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i> (KCI Journal). Title of paper: <i>North Korean Society Depicted by a Bulgarian Writer During the Korean War—focused on the memoirs written by Georgi Karaslavov, Yanitsa Ivanova (Sofia University), Choi, Gwon-Jin (Inha University)</i> .
Master's Thesis	2	Two Korean Studies students who have pursued a master's degree with a core project scholarship presented their master's thesis. Two papers are articles on the relationship of North Korea and Bulgaria by analysing Cold War era data collected by core project. <i>DPRK Between USSR And PRC During the Years of the Cold War</i> —from the 1950s to the 70s of the Xx century, Bulgaria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beginning of the 1990s.
Research Series	2	<i>Korean Historical and Cultural Trends</i> (2016). <i>Korea and Eastern Europe—Exploring the Past</i> (2017).
Practical Korean Grammar	2	<i>Practical Korean Grammar I</i> (2016). <i>Practical Korean Grammar II</i>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Researcher Seminar	4	•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ofia University <u>Subject of Conference</u>: Korean Historical and Cultural Trends (2016), Modern Korea—Challenges and Outcomes (2017). <u>Participants</u>: Bulgarian scholars of Korean Studies and Japanese Studies, history, historical scholars from Romania, Serbia, Poland, Korea. • Joint Academic Seminar in Korea Holding joint academic seminars with researchers from major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in Korea and Bulgarian researchers. <u>Subject of Seminar</u>: Cold War System and Division Around Korean Peninsula (2016),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al Reappraisal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Korean War (2017).
Colloquium	2	• Hosted the Colloquium, inviting scholars from Korea for purpose of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Korean studies in depth. <u>Subjects</u> : Glasses and Culture at the Late Dynasty, Choson, Light and Shade of Sexual Nets in 18th and 19th centuries in literary spaces (2017).
International Student Seminar on Korean Studies	2	<u>Subjects</u> : Korean Tradition and Current (2016), Korea and World (2017). <u>Participants</u> :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of Sofia University, foreign students studying at Korean universities receiving scholarships from the Korean government,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Writing Contest	2	<u>Participants</u> : undergraduate students of Sofia University.
Collecting and Organising Data for North and South Korea		• Collecting and cataloging archival data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1948–75). • Creating catalog of archival documental films for Korean Peninsula, owned by Bulgarian National Film Archive. • Collection of documents and photographs secured by Bulgarian Military Archives and Bulgaria Press Center

Opening New Courses	7	• Opening two new cours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whose major is not Korean Studies: Hallyu and the World, Korean Modern Society. • Opening four cooperative lectures: Korean Culture, Korean Literature, Korean Politics, Korean Language Teaching. • Opening of customised courses for master's students: South and North Korea Modern History I, II (Centering on Bulgarian materials during the Cold War).
---------------------	---	---

Events for Students of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Events conducted:

- Korean Writing Contest
- Korean Speaking Contest
- Book Review Contest: There have been nine organized book review competitions in Bulgaria since 2006. In the beginning, only students of Korean studies took part. But recently, students who were not Koreanologists—as well as Bulgarian laymen—participated in them, with such varying backgrounds as teachers, professors, public officers, company workers, accountants, etc. Such targeted books from the competitions included *Madala*, *The Dwarf*, *Our Twisted Hero*, *Skate*, *Zen Poetry*, *Contradictions*, and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By virtue of interest in Korean pop culture, readers of Korean literature increase in numbers each year. In 2018, more than 50 Bulgarians took part in the 11th competition. Another Korean book review competition will be organized this year (2019).
- Korean Culture Day: Each year (starting from 2014) students organize Korean Culture Day, which consists of Korean dance, K-pop dance, fashion shows with traditional Korean clothes (*Hanbok*), and traditional Korean games. So far this year (2019), more than 300 Bulgarians have come to the Centre of Korean Studies and have enjoyed modern and traditional Korean culture.
- Korean Theatrical Performance based 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uch as *Chunhyangjeon*, *Heungbujeon*,

Shimchungjeon, and Honggildongjeon.

- *Samulnori performance*: *In 2017, traditional Korean music was an elective course for students of Korean Studies—students studied the theory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played traditional Korean drums. At the end of the semester, students performed Samulnori before a receptive audience.*
- *Student's Seminar*: Students of Korean Studies have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papers and join discussions. This year (2019), some 13 students from Bulgaria, Korea, and Turkey took part in the Student's Seminar.

5. Conclusion: Future Strategy and Plans for Developing Korean Studies in Bulgaria

In 2015, as a result of the previous five-year development project (research on political, legal, cultural system and situation after the colonial period), Sofia University began the research project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e subject of the project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a combined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for the planting and spreading of Korean studies in Eastern Europe. This project aims at binding the BA course, graduate cours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into one, in order to combine research and teaching activities. One of the important tasks is to collect archive materials concerning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Researchers of this project analyze and study these collected documents and translate them into the Korean language.

Kim Il-Sung (leader of North Korea, 1948–94) visited Bulgaria three times after 1950. High-ranking Bulgarian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ticians also visited North Korea during this time. There are many documents about Korea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 2016 the Centre of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made an agreement with the Bulgarian National Film Archive to archive documentary films about North Korea, which are invaluabl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Bulgaria, and other Eastern countries.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

김다민, 김이연
크질오르다 국립대

개요: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으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는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민족이 세운 원동고려사범대학의 후신이다. 1991년 동양어학부에 처음 한국어전공이 개설되었으나, 잦은 학과 명칭 변경,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지원 부족, 학생 수 변동 등의 문제로 폐과되었다가, 2013년 지금의 영어-한국어 전공으로 재개설되었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중앙아시아 전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교원, 교육과정, 교재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역사와 현황을 살펴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지 교원 없이 파견 교원으로만 구성되어 발생하는 교원과 교육과정의 문제는 파견 교원 간의 인수인계와 현지 교원 양성 과정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교원 양성 과정의 설립과 교재의 문제는 유관 기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지금의 긍정적인 양상으로 보아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한국어교육

Title: A Discussion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in Kazakhstan

Author: Kim Damin, Kim Yi Yeon,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Kyzylorda, Kazakhstan

Abstract: Kyzylorda in Kazakhstan is a region which is historically closely related to Korea.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is based on the Far Eastern Korean Pedagogical Institute which was founded by Korean people in Vladivostok in 1931. In 1991, the first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was opened in th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However, because the names of the course had been changed many times and there had been little support from the university and the related institutions, the number of students of the course was not consistent. Consequently, the first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in the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was finally closed. Fortunately, in 2013, Korean language major course reopened as the name of English-Korean language major cours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has three big problems: lack of teachers, inconsistent curriculum, insufficient textbooks. These problems can be emerged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ll over the Central Asia.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and figure out the problems in detail and discuss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roblems of teachers and curriculum occurred because there are only two Korean teachers dispatched from Korea for a short time and there is no teacher who lives in Kyzylorda. These problems could be solved, if there were enough communication among dispatched teachers and the advanced Korean language course were established for training teachers who live in Kyzylorda. These solutions require support from the related institutions. When these problems are solved, there will be a bright futur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yzylorda State University.

Keywords: Kazakhstan, Kyzylorda, Korean Education

1. 서론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위상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각 지역으로의 한국어 교원 파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또한 1991년 카자흐스탄 아바이 국립사범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학에 대한 논의 또한 증가하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은(한영균·김수경·김류보비 2009; 황 바채슬랍 2012; 한 넬리 2015; Nelly Park 2015)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주요 문제는 교육과정, 교원, 교재의 문제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심이 되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취업과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또한, 충분하지 못한 대학의 한국어 강의 시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 양성을 어렵게 한다. 이 문제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수 부족의 문제로 이어진다. 더불어 드물게 있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이들조차 적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 등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 환경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것을 꺼린다. 이와 같은 교원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은 적합한 교재의 사용인데, 이 또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에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만, 비용 및 거리 등의 문제로 이들 교재를 현지로 충분하게 조달하기 어렵다. 현지 특성들

고려한 교재 또한 개발되어 있지만, 인쇄 비용 문제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카자흐스탄 서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 크질오르다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당시 고려극장, 원동고려사범대학이 옮겨온 곳이자, 현재 ‘고려일보’가 명맥을 잇고 있는 한글 신문 ‘레닌기치’가 창간된 곳이다. 최근 카자흐스탄에 방문한 문재인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안장된 곳으로 특별히 언급한 지역이기도 하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정식 명칭은 코르키타타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로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민족이 세운 원동고려사범대학의 후신이다. 원동고려사범대학은 1937년 극동 지역 고려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와 함께 크질오르다로 옮겨졌고, 1938년 크질오르다 사범대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반 소련식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고려인 민족학교의 성격은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며, 1996년 크질오르다 인문대학교로, 1998년 현재의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로 변경되었다.

크질오르다는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고려인들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고려인뿐만 아니라 카자흐인들 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는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원을 파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인프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대학 수준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내의 영어-한국어 전공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앞서 언급한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주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파견 교원으로서 외부적인 시각으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역사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은 1991년 동양어학부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96년에 국제 경제 한국어과로 변경되었다가, 1998년에는 한국어 통역과로 변경되었고, 2008년 지역학과의 한국어 전공 분과로 개편되었다(조나야 2009: 56).

1991년 한국어 전공 개설 당시에는 신입생 수가 21명으로 적지 않았으나, 이듬해에는 신입생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이후 2년 동안은 신입생이 없었다. 이후 1997년부터 4년 간 10명 내외의 신입생이 꾸준히 입학하였으나, 이후 다시 2001년부터 2년 동안 신입생이 없었다. 2003년에 들어서야 다시 5명 내외의 학생이 입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6년

에는 행정상의 문제로 신입생이 한 명도 없게 되었고, 2007년에는 학과 신입생 최소 정원에 미치지 못하여, 한국어 통역과를 희망한 신입생이 다른 분과로 편입되었다. 이에 2년 동안 신입생이 없게 되어, 2008년 신입생 입학 여부에 따라 학과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위기에 놓였으나, 그 해 8명이 입학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관련학과 신입생 수의 변화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관련학과 신입생 수의 변화(1991년~2008년)¹⁾

연도	신입생 수	비고
1991년	21명(5명)	
1992년	12명	
1993년	-	신입생 없음
1994년	-	신입생 없음
1995년	-	자료 누락
1996년	-	자료 누락
1997년	8명	
1998년	10명	
1999년	4명	
2000년	7명(1명)	
2001년	-	신입생 없음
2002년	-	신입생 없음
2003년	7명	
2004년	5명	
2005년	5명(3명)	
2006년	-	신입생 없음
2007년	-	신입생 없음
2008년	8명(8명)	

위의 <표 1>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타민족의 학생 수를 나타낸다. 개설 초기 타민족의 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당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고려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신입생 수의 변동이 큰 것으로 보아 학교 내 한국어관련학과의 위상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된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관련학과는 이처럼 잦은 명칭 변경 등의 변화를 겪었지만,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꾸준히 KOICA 봉사

¹⁾ 조나야(2009, 59-60)

단원과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1990 년 대 말까지는 4~5 명의 교원 수가 유지되었으나, 2002 년 종교적인 문제로 한국인 교원의 대다수가 추방되어, 이후 2 명의 교원 수만이 유지되었다(조나야 2009: 61).

위의 <표 1>과 교원 수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1991 년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이래로, 학생 수에 비하여 교원 수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교원들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아닌 봉사단원과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학과의 잦은 명칭 변경과 신입생 수의 변동, 교원 수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어관련학과는 결국 폐과되었다.

3.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

현재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의 정식 소속 및 명칭은 ‘문헌, 역사, 법학부(Faculty of Philology, History and Law)’의 ‘외국어 및 통·번역학과(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s and Translation)’ 내 ‘영어-한국어 전공(Specialty in Foreign Languages: Two Foreign Languages: Korean)’이다. 이는 한국어관련학과가 폐과된 이후 2013 년 9 월에 재개설된 것이다.

외국어 및 통·번역 학과 내 외국어 관련 타 전공으로는 영어-아랍어 전공, 영어-중국어 전공이 있다. 영어-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주 전공은 제 1 외국어인 영어이고, 한국어는 제 2 외국어로 이중 전공에 해당한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영어, 교육학을 전공 수준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소속은 한국의 어문학부에 해당하나 한국의 사범대학과 같이 교생 실습을 하고, 졸업 시 교원 자격이 주어진다. 즉, 현재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학과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년 영어-한국어 전공 재개설 이후 신입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대중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한국의 여러 기관의 도움 덕분이다. 2017 년 제 1 회 졸업생 8 명을 배출하였고, 2018 년에는 11 명이 졸업하였다. 2019 년 현재 1 학년 31 명, 2 학년 18 명, 3 학년 18 명, 4 학년 7 명, 총 74 명이 재학 중이다. 다음 <표 2>는 2013 년 학과 재개설 이후 신입생, 재학생 및 졸업생의 연도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영어-한국어 전공 학생 수 연도별 현황 (2013 년~2019 년)

연도	신입생 수	졸업생 수	재학생 총합
2013 년	8	-	8
2014 년	11	-	19
2015 년	7	-	26
2016 년	18	-	44
2017 년	18	8	54
2018 년	23+8	11	74
2019 년	미정	7(예정)	미정

위의 <표 2>에 2018 년 신입생 수는 ‘23+8’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3 명은 일반 정규 과정 학생 수를 의미하고, 8 명은 2018 년부터 새로 열린 3 년제 특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수를 의미한다. 3 년제 특별 과정은 컬리지(전문 대학)를 마치고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영어-한국어 전공의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교원 수에는 변함이 없다. 2013 년 재개설된 초기 2 년은 1 명, 이후에는 2 명의 교원이 한국어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폐과 전 한국어관련학과 교원들은 봉사단원이나 선교사였던 반면, 현재 교원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 교원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의 문제는 교육과정의 문제로 이어진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2018 년 가을학기부터 2019 년 봄학기까지 영어-한국어 전공의 학년별, 학기별 강의명과 시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영어-한국어 전공 학년별 강의명 및 시수 (2018 년~2019 년)

학년	1 학기			2 학기		
	강의명	학점	시수	강의명	학점	시수
1 학년	제 2 외국어	3	60	실용제 2 외국어	2	40
				제 2 외국어	2	40
1 학년 특별	실용제 2 외국어	3	60	실용제 2 외국어	3	60
2 학년	실용한국어	2	40	제 2 외국어	4	80
3 학년	실용제 2 외국어	3	60	실용제 2 외국어	3	60
	비즈니스한국어	2	40			
4 학년	특수목적제 2 외국어	3	60	-	-	-
	지역학	2	40			

위의 <표 3>의 강의명에서 나타나듯이,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학이나 한국어문학을 다루지 않는다.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학당이나 국외 세종학당과 같이 한국어만을 교수·학습한다. 다만, 2018 년 가을 학기에는 4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 강의가 개설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강의 개설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강의 시수는 학년별·학기별 평균 70 시간, 4 년 총합 680 시간으로 한국어 교육 표준(200 시간) 모형보다는 세종학당 모형에 가깝다.² 일반적인 국내 대학과는 달리 이곳의 학습자들은 직접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표대로 강의를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영어-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4 학년 2 학기의 경우 교생 실습으로 인해 별도의 정규 한국어 강의는 없고, 10 주차부터 12 주차까지 3 주 동안 주당 4 시간의 특별 강의를 있다.

2015 년부터 각기 다른 두 개의 기관에서 한 명씩 교원이 파견되었는데, 이들 교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한국어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²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 단계(2011: 108)에 의하면 세종학당 정규 과정은 표준(200 시간) 모형과는 달리 S1 에서 S10 까지이며(표준 모형의 1 급에서 4 급), 각 단계는 60 시간을 기본 교육 시간 수로 상정한다.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실력의 척도를 측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2017년 가을 학기부터 파견된 두 교원은 파견 초기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교재를 ‘연세한국어’로 통일하였다. 당시 구비된 교재 중 수량이 가장 많았던 교재가 ‘연세한국어’이고, 또 러시아어 버전이 있는 교재였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구비된 교재 중 가장 수량이 많았다고 해도 한 질 당 5 권에 불과하였다. 이에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수·학습 지원비를 사용하여, 교재를 한 질 당 10 권씩 구비하였고, 활용연습 교재 또한 구매하여 활동지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조차도 급증하는 학생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의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영어-한국어 전공은 폐과 전 한국어관련학과와는 달리 신입생 수가 급증하고 있고, 교원이 전문적이며, 학교 내 학과의 위상이 높다. 그런데 급증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부족한 교원과 교재의 문제, 그리고 파견 교원으로만 이루어지는 학과의 특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각각의 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1년부터 한국어관련학과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관계 기관과 학교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였고, 결국에는 폐과되었다.

다행히 2013년 재개설된 이후 영어-한국어 전공은 한국의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토대로 한 전문적인 원어민 교원 파견으로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하여 현재에는 학교 내에서도 그 위상이 상당하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수의 문제, 특히 교원 수급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문제를 하나씩 살펴 보며,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원의 수급 문제이다. 2013년 재개설된 이래로 현지인 교원 없이 한국에서 온 한 명 혹은 두 명의 한국인 교원이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폐과 전에는 재학생 수가 평균 10명 내외였기 때문에, 최소 두 명의 교원 수가 적합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영어-한국어 전공의 학습자 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학생 수는 급증하는 반면, 교원은 충원될 방안이 없고, 특히 2019년 9월부터는 2명의 교원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영균·김수경·김류보비(2009)는 파견 교원의 경우 일정 임기를 마치면 귀국하게 되어 현지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지에 정착해 살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한 바 있다. 이처럼 파견 교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속적인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무리가 있어 현지인 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파견된 교원들 또한 일찍이 이 문제를 인식하여, 학교에 현지인 교원의 충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교원을 크질오르다 지역에서 찾기 힘들고, 다른 지역에서 해당 교원을 고용할 만큼의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파견 교원들 간의 정확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교원들은 2년 동안의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현지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는 현재 한국어학과 석사 과정이 없어, 한국어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여러 기관에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파견 교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석사 과정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 지원을 통해 스스로 현지인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석사 과정생들이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조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면, 자격과 경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적인 교원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에 정착해 살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교원이 없다는 문제는 지속적인 교육과정 부재의 문제로 이어진다. 2017년 봄학기까지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한 급 수준의 학습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그마저도 교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히 수행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새로 파견된 교원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현 교원들은 파견 초기 학생들의 수준과 수업 시수를 파악하고, 교재를 통일한 후 표준 모형과 세종학당 모형을 참고하여 교육과정을 정비하였다. 이를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매뉴얼화 하여 지속적인 교육과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년 간의 전체 한국어 강의 시수를 조사한 결과, 영어-한국어 전공에서 한국어는 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강의에서 한국어 강의의 비중이 적고, 시수 또한 전공 수준의 한국어를 학습하기에는 부족하다.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의 목표였던 학년별 한 급 수준의 학습과 최종적으로 4급의

수준을 갖추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3, 4 학년의 경우 교생 실습 시수가 많아 강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 가장 많이 구비되어 있던 ‘연세한국어’를 기준으로 1 학년과 2 학년 동안 ‘연세한국어’ 1 권과 2 권을 교수·학습하여 2 급 수준을 갖추고, TOPIK I 기출 문제 학습을 통해 숙달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3 학년과 4 학년 동안 ‘연세한국어’ 3 급을 공부하여 3 급 수준을 갖추고, TOPIK II 기출 문제 학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3 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영어-한국어 전공은 외국어 및 통·번역학과 내 소속되어 있고, 주 전공이 아닌 이중 전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어만을 교수·학습하는 위의 교육과정은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강의 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고급 한국어 실력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영어-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4 년 동안 교수법 등 교원이 되기 위한 강의를 수강하고, 교생 실습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급 한국어 실력만 갖춘다면 충분히 한국어 현직인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 한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수·학습의 중심이 되는 매체인 교재 또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전까지 파견교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던 교재를 2017 년에 ‘연세한국어’로 통일하였으나 그 수량은 현저히 부족하다. 학년별 학생 수는 20 명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교재의 수량은 한 질 당 10 권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2017 년 파견 기관의 교수·학습 지원비로 교재를 구매하여 현재는 한 질 당 10 권씩 구비해 두었으며, 활용연습 교재 또한 1 권씩 구매한 후 복사·제본하여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조차도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학생들 2 명 당 한 권의 교재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 년 9 월 신입생 수가 예상보다 현저히 많아지면서, 학생들 2 명 당 한 권의 교재를 이용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앞으로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재 또한 이에 맞추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에서 교재를 구매해 와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관계 기관들의 지원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크질오르다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으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는 1931 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민족이 세운 원동고려사범대학의 후신이다. 현재는 고려인 민족학교의 성격은 남아 있지

않고, 영어-한국어 전공 내에도 고려인 학생이 1 명뿐이다. 이와 같은 크질 오르다와 크질 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주된 문제는 교원의 부족, 미흡한 교육과정,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재의 문제로 나타난다. 크질 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크질 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2013 년 전과 그 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처음 한국어관련학과가 개설된 것은 1991 년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이나, 잦은 학과 명칭 변경,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지원 부족, 학생 수 변동 등의 문제로 2000 년대 후반 폐과되었다. 이후 2013 년에 현재의 영어-한국어 전공으로 재개설되었다.

2013 년에 재개설된 영어-한국어 전공은 이전에 폐과되었던 한국어 관련학과와는 다른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관련 기관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꾸준히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이 파견되고 있고, 학생 수 또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학교에서도 영어-한국어 전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질 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영어-한국어 전공 또한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크질 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원 수급, 교육과정, 교재의 문제이다. 교원은 현재 2 명의 한국인 파견 교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 교원은 전문적이지만 학생 수에 비해서 교원 수가 부족하고 현지 교원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지에 정착해 살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교원이 없다는 문제는 지속적인 교육과정 부재의 문제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의 문제가 있다. 더하여 파견 교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교재 사용의 문제와 교재 수량 자체의 부족, 그리고 학습에 도움을 줄 활동지의 부재 문제가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현지 실정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재 또한 ‘연세한국어’로 통일하였다. 이와 같이 정비된 정비된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후임 파견 교원에게 인수인계 할 예정이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일차원적인 노력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부 기관의 의존도가 높은 크질 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자생력을 기르고 안정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현지 교원이 필요하다. 현지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고급 교육 과정, 특히 한국어 석사 과정이 필요하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 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 이상이 필요하다.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어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영어-한국어 전공은 ‘연세한국어’를 주 교재로, ‘연세한국어 활용연습’을 활동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주교재는 한 질 당 10 권씩, 활동지는 한 질 당 1 권씩 구비되어 있다. 매년 신입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 2명 당 한 권의 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활동지는 교사의 재량으로 매 학기 복사 및 제본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인 교재 구매가 시급하나, 지금처럼 교원의 개인적인 부담으로 교재를 구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충분한 교재 구비를 위한 유관 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2013 년 영어-한국어 전공의 재개설 이후 신입생 수가 꾸준히,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점들은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문제이다.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Nelly Park,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현황과 문제점-, 국제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015, 141-160.
2.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 단계, 2011.
3. 조나야,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전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9.
4. 한넬리,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5, 278-284.
5. 한영균·김수경·김류보비, 중앙아시아 3 국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2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303-335.
6. 황 바채슬랍, 키르기즈스탄 지역 한국학과의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и тактик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дискурса

Ким У.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работе рассмотрены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и тактик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дискурса, к которому относятся статьи медицинской тематики, радио и телевизионные программы о здоровье, интервью с врачами 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х журналах, рассчитанные на широкую аудиторию. В качестве практ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использованы телепередачи российск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Жить здорово» с ведущей Еленой Малышевой, «О самом главном» с ее ведущим доктором Мясниковым и телепередачу корейского телеканала 조선 TV «닥터 콘서트» 홍혜걸 и его соведущей Ё Эстер. В статье рассмотрены основные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применяемые 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дискурс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речевая тактика,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й дискурс, медицинский дискурс, телепередача, ведущий телепередачи

Title: Communicative Strategies and Tactics of the Popular Science Medical Discourse

Author: Kim U.A.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e paper discusse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tactics of popular science medical discourse, which includes articles on medical topic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about health and interviews with doctors in popular science magazines. As practical material, we used television programs of the Russian television “Жить здорово” with the host Elena Malysheva, “О самом главном” with her host doctor Myasnikov and the TV show of the Korean television channel 조선 TV “닥터 콘서트” 홍혜걸 and its co-host 여에스터. The article considers the main and auxiliary communication strategies used in the popular science medical discourse.

Keywords: communication strategies, speech tactics, popular science discourse, medical discourse, telecast, TV show host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мы рассмотрим некоторые стратегии и реализующие их тактик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дискурса, актуальнос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торого обусловлена укреплением и расширен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 частности, в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ы, развитием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увеличением числа казахстанцев, желающих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Южной Кореи, мотивированное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медиц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К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дискурсу относятся статьи медицинской тематики, радио и телевизионные программы о здоровье, интервью с врачами 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х журналах, рассчитанные на широкую аудиторию. Участникам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дискурса являются авторы статей, ведущие теле- и радиопередач, выступающие в качестве адресанта, и читатели, слушатели, телевизионная аудитория, выступающие в качестве адресата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го дискурса. Тексты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дискурса не имеют строгой науч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и поэтому автор или ведущий телевиз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 здоровье доступным языком объясняют ту или и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тему или проблему. Так, ведущие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х программ о здоровье, говоря о различных процессах, происходящих в нашем организме, стараю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общеупотребительную лексику, понятную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Целью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дискурса является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и просвещ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связанных с профилактикой и лечением заболеваний, а также пропаганду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Для реш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используются определенные стратегии, которы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еализую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тактиками. Важную роль в успешности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м дискурсе играет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ция ведущего теле или радиопрограммы, который, как правило, является врачом. Адресант посредством выбранных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достигает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а от правильного выбора той или иной тактики зависи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аудиторию.

При описани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мы в своей работе воспользуемся классификацией стратегий и тактик, предложенной О.С. Иссерс. Так, под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тратегией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мы понимаем «комплекс реч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достижение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целей, включающих в себя планирование процесса рече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нкретных условий общения и личностей коммуникантов, а также реализацию этого план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ечевой тактикой следует считать одно или

несколько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способствуют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1, с. 104].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тактики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гибкостью, что позволяет участникам дискурса в каждой конкретной ситуации выбирать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ую тактику.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к числу наиболее существенных мотивов, управляющих речевым поведением, относится желание быть эффективным (т.е. реализовать интенцию)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способиться к ситуации. Эти мотивы являются первичными, к числу вторичных целей общения Дж. Дилларда и его соавторы [2, с. 58-59], относят цели, связанные с самовыражением, с эффективны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ем коммуникантов, со стремлением говорящего сохранить и приумножить значимые для него ценности, с желанием говорящего избежать отрицательных эмоций. Первичные цели общения лежат в основ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процесса, вторичные определяют выбор речевого материала и тип речевого поведения.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рассмотрены основные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применяемые, в частности, 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дискурсе. К основным стратегиям, с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относят стратегии, оказывающим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адресата, на его систему ценностей, на его восприятие мира. К таким стратегиям, например, можно отне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стратегию, стратегию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а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стратеги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оптима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адресата и эффектив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диалога. К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 стратегиям построения успеш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можно отнести получ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стратегию снятия запретов, стратегию созда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й тональности общения. Прежде чем перейт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пример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дискурсе, хотелось бы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телепередачах о здоровье, а также на ведущих этих передач. Ведущий является главной фигурой в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ния на телепередаче, 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общая и языковая культура, речевой этикет, уме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которой происходит речевое общение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передачи, определяют ее успех у телезрителей. Ведущий телевизионной передачи о здоровье должен хорошо знать реальную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проблемы и вопросы, актуальные для целевой аудитории. На подобные телепередачи приглашаются известные люди – врачи различ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выступающие экспертами и старающиеся разъяснить зр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в студии суть той или иной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й темы. В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й ситуации обще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стратегия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определяющей организацию речевого поведения коммуникан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целями говорящего и специфи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общения [3, с. 10].

Мы рассмотрим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телепередачи российск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Жить здорово» с ведущей Еленой Малышевой, «О самом главном» с ее ведущим доктором Мясниковым и телепередачу корейского телеканала *조선 TV «닥터 콘서트»* *홍혜걸* и его соведущей *Ё Эстер (여에스터)*. Малышев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речевой культуры, в её речи проявляется уважение к зрителю. Это проявляется в приветствии: *«Добрый вечер! С вами программа «Жить здорово»; «С вами снова программа «Здоровье»;* в постоян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лов благодарности и вежливости: *«Итак, я благодарю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Хорошо, спасибо...».*

Как отмечает в своей работе Акаева Э.В. «репертуар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Е. Малышевой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представлен кооперативными стратегиями, характерными для гармоничного речевого поведения. *Стратегия солидаризации* направлена на демонстрацию близости, общности, единомыслия с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м партнером. Репертуар стратегии составляют *тактики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мнению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партнера, выяснения, резюмирования, поддакивания»* [4, с. 8].

Е.М.: *Мы-сибиряки. Нас этому учили на втором курсе мединститута*

Тактика выясне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бращение к говорящему за уточнением.

Е.М.: *Почему его так называют доктора?*

Врач-невролог: *Здесь расположено очень много кровеносных сосудов: артериальных и венозных.*

Е.М.: *Если человек снизит холестерин, его прогноз улучшится?*

Врач-невролог: *Однозначно.*

Тактика резюмирования – подытоживание основных идей и чувств говорящего.

Е.М.: *Язва перестала быть хирургической болезнью: она прекрасно лечится антибиотиками.*

(12) *Тактика поддакивания предполагает поддержание собеседника в его высказывании.*

Профессор-кардиолог: Важнее всего в прямом, а не в переносном смысле встать на ноги.

Е.М.: Медицина научилась возвращать нас с того света!

Врач-невролог: Нельзя запрокидывать голову назад: это шаг к инсульту.

Е.М.: Мы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миллион раз!

Профессор-кардиолог: При правильном лечении 30% бляшек станут меньше в объеме, иногда могут совсем исчезнуть.

Е.М.: Есть за что бороться. Профессор прав на 100%.

Особое место в прагмат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е кооперативного общения занимает стратегия созда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й тональности общения (тактики выраже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шуток, позитивной констатации).

Е. М.: Великое счастье работать врачом в 21 веке: достигнуты революционные прорывы в лечении заболеваний! Таблетки для лечения рассеянного склероз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России.

Е.М.: Не бойтесь бронхиальной астмы: если диагноз ставится грамотными врачами, дети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и не имеют ограничений.

Профессор-кардиолог: При правильном лечении 30% бляшек станут меньше в объеме, иногда могут совсем исчезнуть.

Е.М.: Есть за что бороться.

В телепередаче «О самом главном» доктор Мясников не так часто использует стратегию солидаризации как Е. Малышева,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использует стратегию повышения статуса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партнера, и даже напротив, выражает некотор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не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коллег или системой образова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в вопросе специализации в медуниверситетах.

Зр.: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ктор. Меня зовут Светлана и у меня к вам вопрос.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 течение жизни человек может менять группу крови и резус-фактор?

М: Нет, не может, это Богом данная и генетически определенная. Неоднократно слышу эти вопросы. Ну вот такие у нас лаборатории.

М: у нас об этом, у нас вообщ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сей день очень узкоспециальное. У нас трудно найти врача широкого

профиля. Мне часто говорят, вот как же ты можешь говорить про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ию, про детство, про инфекции. Ты же кардиолог или еще кто-то. Вот это специфика образования за рубежом. Там готовят врача широкого профиля. Толь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ты достигаешь звание врача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как терапевт, ты уже можеш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ться. А у нас ты закончил институт и тут же идешь в ординатуру, становишься эндокринологом, кардиологом, пульмонологом, ну какой из тебя эндокринолог, если ты вообще медицины не знаешь, ты только-только вышел из института, потом ты научился лечить, да еще знаете как? Эндокринолог этот диабет лечит, этот щитовидную железу, этот надпочечник, и они друг друга тоже не понимают. Вот эти специализации, они конечно, достаточно вредны.

Доктор Мясников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использует юмор, шутки как элемент стратегии созда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й тональности общен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оторой используется, например, тактика поддержания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Зр.: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я хорошо высыпаюсь, у меня по утрам кружится голова. Я думаю, что...

М: (перебивает) Что бы мне такого съесть? (смеется сам и аудитория)

М: ... Нарисуйте мой портрет.

Зр.: Людей я никогда не рисовала.

М: Рисуйте, рисуйте. Только без рогов, пожалуйста.

Доктор Мясников использует рекомендуемые стратегии в вопросе профилактик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ичем часто показывает на личном примере какие-либо упражнения. Т.е. использует и вербальные и невербальные составляющие.

М: Ставим ноги на ширине плеч и пошли, руки назад, руки вперед, шею туда-сюда, вот и мы разрабатываем. Что мы делаем? Мы не качаем мышцы, мы не качаем гибкость, мы разрабатываем суставы.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плеча. (показывает) Плеча локтей, кисти. Вспомните, дети, мы писали, мы писали, наши пальчики устали, ну это же не только для снятия мышечного спазма, это профилактика остеоартроза. Вот вы даже делаете немножко, а уже нормально. То же самое для ног. Мы же привыкли ходить, мы же не делаем (показывает упры), а это надо постоянно делать, эти упражнения они занимают-то всего ничего, всего ничего, вперед-назад. Это очень простые упражнения, но они очень эффективные. Просто вот вы так разогрели суставы в течение 10

мин. У вас остеоартроз отойдет далеко назад... Человек в 60 лет может нагибаться, он должен не доставать сантиметр, в 40 - он должен касаться ладонями. Это же, вот у вас раз и не пошло, вот у меня вот дальше не идет, мне тяжело, я сделал, я все-таки буду это делать, вот вы думаете, вот тут мне тяжело, больно, но в принципе, это же все возможно. (наклоны делает). Это все нужно, это все можно,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вот я говорю тут с вами, дурака валяю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занимает 10 минут. И у вас все тело проработано, все суставы проработаны.

Приведем еще пример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стратегий доктором Мясниковым - это стратегия получ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используемая практикующими врачами в беседе с пациентами для, например, выявления возможных «проблемных участков». При этом используется тактика запроса конкретной ситуации.

Зр.: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я хорошо высыпаюсь, у меня по утрам кружится голова. Соседи посоветовали мне поменять подушку на ортопедическую с валиком.

М: А у вас что, голова кружится, вот вы проснулись, она у вас кружится? Комната плывет перед глазами? Или когда вы садитесь?

Зр.: Села.

М: А через сколько проходит?

Зр.: может быть часа через 2.

М: Ну вы спрашивали про ортопедическую подушку, вещь хорошая, косметологи очень рекомендуют, потому что морщины, что-то еще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ни сейчас есть и удобно для шеи и т.д., так что это одно. А головокружение – это то, что я часто упоминаю, это доброкачественное позиционное головокружение, это проблема среднего уха. Если это долго – это также может быть болезнь Меньера.

Далее рассмотрим примеры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й ведущими корейской телепередачи о здоровье «닥터 콘서트» 홍혜걸 и его соведущей Ё Эстер (여에스터).

В корейской телепередаче, кроме ведущих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 эксперты, в этой передаче их 4, это как правило известные актеры, шоумены, артисты. Они вместе с ведущими телепередачи, применяют стратегию созда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й тональности общения, используя юмор.

홍: 자, 저희가 첫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겁니다. «시작은 자세지만 완성은 운동이다» 라는 거야. 저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네 분들 다 앉아 계시는데 의자 등받이에 어디가 다 있습니까 지금?

EXP1: 꼭 얘기해야 됩니까?

홍: 어

EXP1: 엉덩이예요 (смущенно улыбается)

홍: 어, 허석씨가 바로 정답을 마추신 것 같아요.

EXP1: 그래요?

의사 2: 저는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홍: 문학 소년이세요?

В отличие от российских телепередач в корейских передачах почти н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зрители, аудитория в студии. Их представляют на передаче приглашенные эксперт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задавать любые вопросы по теме и участвуют вместо зрителей в беседе.

Еще одним отличительным моментом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й нами корейской передачи «닥터 컨서트» от российских является и то, что ведущие являясь супругами,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тактику вразумлен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друг к другу, используя пример из своей жизни и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больше шуток по отношению друг к другу, что не могут позволи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3-му лицу в силу влияния культуры, образа мышления и принятых правил этикета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여: 가장 중요한 거는 잠자는 자세죠. 우리가 하루 중 1/3 잠을 자는데 무조건 엎드려 주무시는 건 허리에 너무 나빠요. 이렇게 저세를 강조한 홍혜걸 씨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겠어요?

EXP: 왜요?

여: 20 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홍: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 예, 안 고쳐요.

EXP 1: 어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Последняя фраза в этом диалоге использована как средство тактики поддержания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Анализ скриптов телепередач о здоровь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зятых в качестве практ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и реализующие их тактики хотя и могут совпадать, но кажд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располагает своим набор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и экст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онен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оказание эффектив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адресат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Иссерс, О.С.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и тактики русской речи: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 д-ра филол. наук / О.С. Иссерс. – Екатеринбург, 1999.
2. Там же.
3. Ланских, А.В. Речевое поведение участников реалити-шоу: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и тактики: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 канд. филол. наук / А.В. Ланских. – Екатеринбург, 2008.
4. Акаева Э.В. Речевое поведение ведущих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программ в аспект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и тактик // Речев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материалы 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мск, 27-30 июня 2011 г.) / под ред. О. С. Иссерс. – В 2-х т. – Т.2. – Омск: Вариант-Омск, 2011. – 274 с.
5. <https://www.1tv.ru/shows/zhit-zdorovo/vypuski> (Дата просмотра 24.02.2019)
6. <https://www.youtube.com/watch?v=rbS5-Y7FuiU> (Дата просмотра 26.02.2019)
7. https://www.youtube.com/watch?v=PFQU_d-EzdM (Дата просмотра 14.04.2019)

Специфика перевода концептов в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текстах

Курманбекова В.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Когнитивное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возникло в недрах когнитив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и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и использует их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для анализа характеристик и результатов перевод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атья нацелена на анализ переводческих стратег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воссоздание концепта при передаче на другой язык, применяемых при переводе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В статье обосновывается модел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онцептуа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влияющих на выбор переводческих стратегий: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культуры оригинал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ая концептосфера текста оригинала;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культуры текста перевода.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гнитивистика,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концепт, переводческие стратегии, концептосфера,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Title: Specifics of the Transfer of Concepts in Art Texts

Author: Kurmanbekova V.A.,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e cognitive theory of translation arose in a subsoil of cognitive linguistics and literary criticism and uses their methods of a research for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translation activity. Article is aimed at the analysis of the translation strategy directed to reconstruction of a concept by transfer on other language, applied at the translation of works of art. The model of interaction of the conceptual elements influencing the choice of translation strategy is proved in article; language picture of the world of culture of the original; individual and author's sphere of concepts of the text of the original; language picture of the world of culture of the target text.

Keywords: cognitive science, theory of translation, concept, translation strategy, sphere of concepts, language picture of the world

Концепт всегда являлся объектом изучения многих наук,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се 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данному термину уделяет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Однако так как концепт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единиц когнитивистики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теории перевода и когнитив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Когнитив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как составляющая часть когнитивных наук, занимающихся исследованием когниц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сознания и разум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язык как общий когнитивный механизм, материализующий мыслительные

структуры 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процесс концептуализации [Демьянков 1995: 304].

В результат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человека с окружающ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складываются е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ней, формируется определен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которая именуется картиной мира (В.И. Постовалова).

В качестве единицы картины мира выступает концепт, под которым в когнитив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понимается сложное мент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отражающее содержание опыта и знания, то есть результатов всей челове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оцессов познания мира в виде "квантов" знания [Кубрякова 1996: 90].

Введение термина было вызвано в лингвистике прежде всего тем, что при анализе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текстов были выявлены смыслообразующие функции текста, которые потребовали пересмотреть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е постулаты лингвистики и повернуться к человеку как к носителю языка.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ивели к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означить функциональную мыслительную единицу в процессе понимания и абстрагировать ее от термина "понят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соотносительных со значением слов понятий в современ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рядом ученых используется термин "концепт" (Е.С. Кубрякова, А.П. Бабушкин, Ю.С. Степанов). По мнению Н.Н. Болдырева концепт предполагает содержание понятия, а также понятийную часть значения, смысл слова, в то время как у понятия в общенаучном смысле различают его объем (совокупность вещей, которые охватываются данным понятием) и содержание (совокупность объединенных в нем признаков одного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предметов).

В современ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анализ процесса понимания соотносится с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о концепте как о единице универсального предметного кода.

Существует ряд попыток объединить концепты в группы по близкому категориальному признаку. При этом считается, что лучший доступ к описанию и определению природы концептов обеспечивает язык.

Н.В. Багринцева указывает, что "известную компромиссную точку зрения разделяют те, которые полагают, что лишь часть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меет языковую "привязку", то есть способы их языкового выражения, но часть эт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 психике принципиально иным образом, то есть

ментальными репрезентантами иного типа - образами, картинками, схемами" [14].

Необходимо заметить, что в процессе понимания и интерпретац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не удастся выделить концепт какого-либо одного типа, не синкретизировавшегося с другими типами, поскольку один тип концепт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другие типы. Такой эффект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контекстуальными связями каждого отдельно взятого отрезка текста.

В связи с разработкой концептуального анализ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актуальна проблема концепта, обусловленная проблемой соотношения языка и мышления. "Концепт - ментальная сущность языка, выделяемая на когнитивном уровне организации языковой личности, характеризующаяся многомерностью, целостностью, универсальностью, константностью и диффузностью, отраженная в ключевых знаках текста с оценочными компонентами их репрезентантах. Ключевой знак соотносится с концептом как материальное и идеальное" [13].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концепт содержит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рода о мире,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что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о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 наци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онцепт отражает личностное, чувственное восприятие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и э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делять языковую картину мира отдельной личности.

Под индивидуально - авторским концептом понимается "единиц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сознания, авторской концептосферы, вербализованная в едином тексте творчества писателя" (И.А. Тарасова), или "единица сознания поэта или писателя, которая получает свою репрезентацию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произведении и выражает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ое осмысление сущности предметов или явлений" [Беспалова 2002: 6].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тексте концепт эстетически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становяс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концептом", позволяющим в силу своей доступности восприятию, выявить особенности мировоззрения,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ы мира автора, говорить о своеобразии его идеологии как эстетическ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системе словесных форм, воплощающих в тексте мировидение писателя.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пт зачастую понимают, как составную часть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цепта, представляющего собой условную ментальную единицу, используемую в комплексном изучении языка, созн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Карасик 2001: 76], и включающую в свое ядро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признаки, свойственные всем носителям языка. В лекс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е текст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пт предстает как сложная содержате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в которой сливаются воедин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ое понимание и тради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потребления данного концепта. При этом определяется специфика, отличие авторской картины мира и посредством этого углубляются наши знания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артине мира.

Являясь динамическим компонентом культуры,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ий концепт формируется в результате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уществующего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цепта с аналогичным имене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личным мироощущением писателя. Однако в рамках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возможно создание нового, индивидуально - авторского концепта, отсутствующего в данной концептосфере, и присвоение ему собственного имени [12].

Однако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ую группу составляют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ие концепты, создаваемые за счет трансформации концептов, уже функционирующих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лингвокультурной среде.

Для созда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ого концепта путем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уществующего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цепта писатель дополняет, варьирует, актуализирует те или и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концепта или наделяет его новы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иногда функционирующими только в рамках конкретного текс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им концепт становится за счет всегда уник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изнаков, выделяемых в том или ином произведении" [12].

В ряде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текстов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ставлены концепты,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яются константным инвариантным личност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выражающим зна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мнение автора о каких-либо реалиях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Такие компоненты можно считать смысловыми универсалиями определенной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системы. Наряду с ними возможно выделение доминантных смысло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15].

В произведении и в творчестве автора вообщ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пт может быть смыслообразующим центром содержания, его ассоциативной структуры, может становиться одним из элементов ассоциативного поля других концептов, а также воплощаться в ключевом слове как значимой композиционной

единиц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реализуемой в идей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и эмоционально-оценочном планах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ной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ой картины мира. Семан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онцепта может быть выявлен путем анализа ассоциативно-смыслового поля ключевого слова,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как ядерно-периферийная структура. В ядро, по мысли Чумак [см: Чумак 2004: 19], входит ключевое слово, родственные дериваты, синонимы и антонимы (эти ле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могут иметь различную коннотацию), периферию же составляют все остальные единицы ассоциативно-смыслового поля. Чем семантически ближе ассоциация, тем ближе ее расположенность к ядру. Сложная система слов-ключей, качественные и количествен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этих слов объективируют языковую картину мира автора и позволяют выявить наиболее важные для него концепты, поскольку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не только обладают высокой частотностью 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пецифику авторского понимания лексемы, но и связаны именно с основными,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и для автора понятиями. Авторская картина мир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еревернуты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общепринятой, закреплённой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истему ценностей, порядок вещей. Мир ирреален: растительный и животный мир- мир природы, а также вещный мир - очеловечены, а человек наоборот уподобляется им, становится одним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этого мира вещей, одушевленных автором.

Потенци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свернутая в тексте, и заданное автором направление мысли позволяют читателю самому достраивать цепь образов, опираясь на свой личный опыт и систему ценностей. Этим определяется неоднородная структу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онцепта: он включает как универсальную, общекульту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так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идеи, которые иногда могут не совпад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онцепта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тенциальных образов в сознании читателя и создание общего, цельного впечатления об идее произведения. Реализация идеи возможна благодаря репрезентации концепта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языка – фонетическом, морфологическом, лексическом и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Основным носителем концептуального смысла является слов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писать концепт, нужно определить таксономию средств его

вербального выражения, а при анализе каждого отдельного слова учесть всю амплитуду его возможных семантических колебаний, обратиться к лексическим парадигмам, в которые оно входит, погрузиться в контекс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пт – эффективный инструмент,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 описывае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ир писателя и через систему выявленных им концептов постигает особенности авторского восприятия и понимания мира. Это становится сложнее и ответственнее вдвойне, если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переводческая задач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еревод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собый вид творчества, в котором должны учиты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но и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кие аспекты описания текста.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подлинно эквивалентным можно назвать та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еревод, который передает замысел автора как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так и в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 аспектах, актуализируя все смысловые оттенки оригинала и обеспечивая полноценное формальное и стилистическое соответствие ему на всех структурных языковых уровнях. Существует несколько направлений в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и, которые исследуют языковые и другие уровни перевода концепта. Одним из та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является когнитивное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Когнитивное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 относительно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перевод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однако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этой области показывают значимые результаты. Когнитивное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позволяет сопоставить содержание концептов двух языков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перевода за счет углубле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базовых ценностях лингвокультур.

Перевод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и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текстов, анализируемый в логике когнитивного переводоведения, становился объектом изучения в статьях и монографиях Н.В. Александрович, И.Н. Фурсовой, А. Рохо и И. Ибаретс-Антуано, Е.С. Фернандес и Б. Перес-Кабельо де Альба, Л.Ю. Мирзоевой и А.А. Головшун [1–5].

Когнитив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исследующая нац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менталь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лингвокультур и когнитивное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нацеленное на изучение типолог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образов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траженной в систем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ментальности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ой принадлежит автор, создают теоретическую базу когнитивного переводоведения [6].

Когнитивное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опирается на категориальный аппарат когнитив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и на фактолог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опис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нцептосферы отдельных языковых картин мира, собранный в когнитивном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и. Так, например, описывая национальную концептосферу француз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ы мира, отраженной в литературе Франции, З.И. Кирнозе характеризует набор базовых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концептов,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дух критицизма, свободолюбие,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е ценности, любовь, чувство собствен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дух рыцарства, индивидуализм, элегантность, бережливость, вкус к комфорту, интеллигентность [7]. М.В. Цветкова, описывая «английское», рассматривает набор следующих концептов: дом, свобода, приватность, честная игра, сдержанность, джентльменство, наследие, юмор, здравый смысл [8]. Концептосферу английскости в сборнике рассказов Г. Свифта «Уроки плавания» Е.Г. Сатюкова моделирует с помощью концептов: вода, свобода, дом как крепость, эксцентричный англичанин, спорт [9]. О.А. Трофименко выделяет концепт страдание как один из концептов, формирующих концептосферу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1]

Перевод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аспекте когнитивного переводоведен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учетом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трех содержательных блоков: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освоенная автором оригинал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нцептосфера оригинал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принимающей культуры, в которой посредством перевода осваивается исходный текст. Писатель, создающи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в той или иной мере отражает ценности, закреплённые в культуре и языке, т.е. в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и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исходного языка преломляется и отражаетс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истеме писателя, а также в концептосфер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Та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сходной картины мира и концептосферы, сложившиеся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ткани произведения, является сложным, неоднозначным. Писатель нередко ставит под сомнение отдельные ценностные ориентиры,

информация о которых закреплена в значимых концептах лингвокультуры. Так, например, в культуре США одним из базовых концептов является концепт «деньги», который несет в себе информацию о достижении материаль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являющегося главным ценностным жизненным ориентиром. Но в ряде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 Генри, Т. Драйзера, Ф.С. Фитцджеральда концепт «деньги» переосмысливается, теряя свою положительную коннотацию, и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трагической силой, ведущей к гибели, несчастью.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нцепты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ы мира, определяющие базовые ценностные ориентации культуры, переосмысливаются писателем, который создает собственную концептосферу, выражая тем самым отношение к общепринятым суждениям.

Переводчик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всегда оказывается на границе культур и их языковых картин мира. Для воссоздания исходного текста в языке перевода переводчик осуществляет анализ текста оригинал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опоставления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ы мира с концептосферой произведения, вырабатывая при этом программу действий по перекодированию исходного текста в текст перевода. Сопоставление переводчиком двух языковых картин мира с целью оценивания универсальных и этноспециф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их «переноса» и языковой репрезентации в тексте перевода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ым этапом перевод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текста оригинала [10].

Переводчик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ыбор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для перевода, так как оно включается в другую литературу и может «продвигать» те или иные лингвокультурные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эстетические ценности. Исследование переводчиком совместимости двух языковых картин мира и концептосферы текста оригинала является сложным нелинейным процессом. Однако, чем более осознанным для переводчика оказывается концептуальный анализ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тем более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ановится вырабатываемая интерпретационная позиция переводчика, на основе которой создается программа по перекодированию исходного текста.

Переводчик интерпретирует содержа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с учетом результатов концептуального анализа, под которым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сопоставление и сравнение всех релевантных для да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нцептов. Благодаря

применению концептуального анализа происходит некоторое смещение границ перевод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 переводческой аналитик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еревод при всех его требованиях к развитию творческих компетенций переводчика приобретает все более явные черты аналитик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позволяя упростить, сделать более управляемым процесс принятия переводческих решений по перекодированию тех или иных репрезентантов концептитивном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еревод требует от переводчи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не только творческих, но и аналитических компетенций, предполагающих владение методами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гнитив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и когнитивного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а также моделирования концептосфер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переводе. В ходе концептуального анализа текста-оригинала у переводчика формир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воссоздания его концептосферы с целью формирования у переводчика отношения к ценностям иной лингвокультуры, которые воплощены в базовых концептах, и вырабатываются принципы отбора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в тексте перевода.

Когнитивное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позволяет расширить категориальный аппарат переводоведения, способствуя тем самым обнаружению н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переводческой обработки текстов, а также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дидактическом плане, намечая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векторы в подготовке переводчиков.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Бабенко Л.Г., Казарин Ю.В.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Учебник; Практикум. – М.: Флинта; Наука, 2005. – 496 с.
2. Аскольдов С.А. Концепт и слово // Русская словесность: Антология / под ред. В.П. Нерознака. – М.: Academia, 1997. – С. 267–279.
3. Александрович Н.В. Концептосфе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 средства ее объективации в переводе (на материале романа Ф.С. Фитцджеральда «Великий Гэтсби» и его переводов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М.: Флинта: Наука, 2009. 179 с.
4. Фурсова И.Н. Когнитивный подход в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и // *Lingua Mobilis*. 2013. N 45(6). С. 66–73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cyberleninka.ru/article/n/kognitivnyy-podhod-v-perevodovedenii>.

5. Rojo, A. Ibarretxe-Antuñano, I. "Cognitive Linguistics and Translation." *Applications of Cognitive Linguistics*. Berlin; Boston, 2013. 421 p.
6. Samaniego, F.E., Pérez Cabello de Alba, M.B. "What Cognitive Linguistics Has Contributed to Translation Studies." *Conference Paper*. 2011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7636846_What_Cognitive_Linguistics_has_contributed_to_Translation_Studies
7. Mirsoyeva, L.Yu., Golovshun, A.A. "Cognitive Procedures as an Instrument of Translation Process Analysis." *XLinguae Journal*, vol. 9, no. 4, 2016, pp. 9–24.
8. Медведева Т.С., Опарин М.В., Медведева Д.И. Ключевые концепты немецкой лингвокультуры: монография / под ред. Т.И. Зелениной. Ижевск: Изд-во Удм. гос. ун-та, 2011. 160 с.
9. Кирнозе З.И.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нцептосфера. Россия и Франция: Диалог культур // Статьи разных лет: сб. науч. тр. / сост. В.Г. Зусман, К.Ю. Кашлявик, С.М. Фомин. Н. Новгород: Изд-во Нижегород. гос. линг. ун-та им. Н.А. Добролюбова, 2002. С. 242–251.
10. Шутова Н.М. Перевод и лингвистика текста // Вестник Удмурт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История и филология. 2009. Вып. 1. С. 203–210
<https://cyberleninka.ru/article/n/perevod-i-lingvistika-teksta>
11. О.А. Трофименко ДВФУ, Уссурийск АКТУАЛИЗАЦИЯ КОНЦЕПТА «СТРАДАНИ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12. Клебанова Н.Г. Формирование и способы репрезентаци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их концептов в англоязычных прозаических текстах 2005, Тамбов
13. Немец 2002: 5
14. Багринцева, Н.В. Проблемы передачи содержания культурных концептов в процессе перевода Текст. / Н.В. Багринцева // Перевод и переводческая компетенция : коллективная монография. Курск : Изд-во РОСИ, 2003. С. 79-93.
15. Пищальникова, В.А. Основания динамической теории значения: когнитивный аспект Текст. / В.А. Пищальникова, Е.В. Лукашевич // Когнитивная семантика: эволюционно-прогнос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Монография. Москва; Барнаул: Изд-во Алт. ун-та, 2002. С. 3-37.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ая тео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 примере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утулуков Ш.П.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Современ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разнообразием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х подходов в рамках модернистских парадигм. В статье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анализа соврем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змерения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в контексте бохай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и. Основная цель работы заключается в определении места истории Бохая (Пархэ) в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этниче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групп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сследование может быть интересно специалистам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стории и бохаеведения. Методология работы фокусируется на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их парадигма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истории, разрабатываемых в рамках школы социолог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конструктивизма в теории этноса. Проблема Бохая (Пархэ) активно исследуе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кругов разных стран уж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Так или иначе, на наследие этого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етендуют пять стран региона (РФ, РК, КНР, КНДР и Япония), а различные науч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заданной теме проходят в атмосфере горячих академических споров 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опытках прийти к общему знаменателю. Данная статья может стать одной из опорных точек изуч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змерения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Политика памят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изм, Бохай, Пархэ

Title: Post-Modern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 the Example of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Author: Kutulukov Sh.P.,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are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within modernist paradigms.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memory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Bohai perspective is analysed in this article. The main goal of the work is to determine the place of the history of Bohai (Parhae) in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ethnic and political groups of the Far East. This research can be interesting to specialis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of Bohai studies. The methodology of the work focuses on the postmodern paradig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chool of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nstructivism in the theory of ethnos. The problem of Bohai (Parhae) has been actively investigated by representatives of

academic community from different countries for several decades. Anyway, five countries of the region (RF, RK, PRC, DPRK and Japan) claim the heritage of this medieval state, and various scientific conferences on a given topic take place in an atmosphere of heated academic disputes and numerous attempts to come to a common denominator. This article can become one of the pivot points of studying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memory policy in the Far East.

Keywords: politics of memory, international relations, constructivism, Bohai, Parhae

Материал и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ые науки в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развивались достаточно своеобразно. Марксистская теория настолько пронизывала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ституты, что альтернативным мнениям было сложно не только 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но и найти адептов в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реде. Конечно мы не говорим о косности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мысли 1990-х, а скорее некой ее замкнутости и неспособности быстро перестроиться на рыночные рельсы. В то время пока западная наука переживала эпоху постмодерна,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се глубже уходил в концептуализацию марксизма-ленинизма, а гласность и свобода слова в середине 1980-х была понята не как призыв к отходу от головной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парадигмы, а как команда к ее критике любыми доступ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 стремлении заново обрести «запрещенную» большевиками историю, интеллигенция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 запустила необратимый процесс, протекающий и в наши дни. Распавшись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тюрьма народов» высвободила их, и каждый в стремлении вознести свою исключительность в абсолют, продолжает долгий путь конструиров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Постмодернизм сегодня оформился в различные теории целого ряда социальных наук. В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ышли работы Джеймса Дер Дериана [1] Роба Уолкера [2] и Александра Вендта [3]. «Символический обмен и смерть» Жана Бодрийяра [4] и «Состояние постмодерна» Жана-Франсуа Лиотара [5] стали классикой постмодерна в философии. В истории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оформилось в конструктивизм в теории этноса трудами Б. Андерсона [6], Э. Геллнера [7], Э. Хобсбаума [8].

Именно конструированию истории и ее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измерению посвящена данная статья, в которой автор попытался

выстроить в некий порядок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сегодня категор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и выявить их применим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такого спорного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к Бохай (Пархэ).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их обсуждение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 истории не может быть ценностью в себе, ведь таких конструкций может быть столько, сколько и социальных групп и даже индивидов. Историческая конструкция обязательно направлена на определенную группу и отражает ее групповые ценности. В ином случае, если история противоречит общественным взглядам на свое прошлое, этот вариант несомненно будет отторгнут и может сохраниться лишь как реликвия в архивах «ненужных» воспоминан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 истории – это процесс,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такой версии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которая бы была воспринята большинством членов группы и могла бы сохраниться в ее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не только конструированию истории либо ее мифологизации, но и отражению истории в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Некотор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о праву считают национальную историю мифом. Ведь национальная история не всегда стремиться к научной истине, 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Политика эта может иметь обширный диапазон целей, от легитимации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то актуализац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притязан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оседу. Несомненно, в закрытых обществах манипуляции общественным мнением даются политтехнологам куда проще чем в либеральных. Достаточно вспомнить все тот же СССР, где идеологическая машина, не допуская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мнений, в зародыше убивала любую концепцию, ставящую под угрозу головную линию партии.

Начиная с 1980-х годов формируется новая научная дисциплина, которая изучает значение образов (в широком смысле слова) в процессе конструирования сообществ. Главной предпосылкой для смены парадигмы от критики идеологии к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является вовсе не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ий релятивизм, который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презумпции р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мор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Скорее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оказываются два фактора: вневременная сила воздействия визуальных образов или символов, а также их историческая сконструированность. Понимание того, что образы и символы конструировались раньше и продолжают конструироваться теперь, не становит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их «фиктивного», «поддельного», манипулятив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бо статус «сконструированности» (давней или недавней)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е культурные артефакты.

Культурные артефакты являются неотрывной частью культурной или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Исследователь памяти А.Ассман в своей работе «Длинная тень прошлого» [9], рассуждая о категориях памяти, выделяет три ее измерения: нейронное, социальное и культурное. Отвечая на критику концепции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она анализирует ее структуру, выделяя носителя памяти, среду ее существования и опору. Отделяя категорию коллективная память от социальной памяти, Ассман пишет: «Если социальная память является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й памятью отдельных индивидов, что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их совместным проживанием, рече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ей и дискурсами, то коллективн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память основываются на ресурсе опыта и знаний, который отделяется от живых носителей и переходит на материаль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носител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споминания сохраняются и за пределами отдельных поколений. Если социальная память оказывается вновь и вновь преходящей вместе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служат ее носителями, то культурные символы и знаки становятся долговременной опорой» [9, с.20]. Простран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памяти А.Ассман связывает с биологическими ритмами, поэтому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биологически ограничено. Культурная же память, базируется на таких внешних посредниках, как тексты, изображения, монументы и ритуалы. Важное ее отличие в том, что она не имеет 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 культурная память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широчайшим, потенциально многовековым временным горизонтом. «Коллективная память отличается от семейной и поколенческой памяти наличием опоры в виде символов, которые закрепляют воспоминания для будущего тем, что обеспечивают императивную общность воспоминаний для 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Монументы и памятники, годовщины и ритуалы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упрочивают коммеморацию за счет материальных знаков и периодичности повторений. Они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не имеющ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собственного опыта, причаститься к общему воспоминанию» [9, с.21].

Подходя к вопросу Бохая,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литическая обусловленность истории «спо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для Кореи существовала практически с самых истоков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также отмечают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Пархэ для Кореи в периоды широ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и неактуальность во времена какой-либ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и. Все же масштаб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ись несколько позже чем у осталь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наследие Пархэ.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нъюнктурой в регионе и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изолированность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 историче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Бохай.

Разрабатывая указанную тему, исследователь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конструктивистской методологии и различных теорий в изучении этноса как конструкта, включающего в себя такие категории как коллективная память, мифологизация истории, политика памяти, 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и др. Методолог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активно разрабатывалась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XX века такими учеными как М. Хальбвакс, Э. Хобсбаум, Я. Ассман, А. Ассман, Б. Андерсон и др.

Теория социальных рамок памяти группы М. Хальбвакса является универсальной и применима ка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дентичностям, так и этническим и особенно ирредентам [10].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важную роль тут играет социальная память, которая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группой, а с другой испытывает политическое воздействие государства. Воздействие государства в данном вопросе проявляется в интенсификации боха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НР. Еще в 2002-2007 гг. китайской академи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был иницииров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проект, активно финансировавший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итая [11, с. 355].

Аналогично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у проекту» Китая, у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есть инструмент реализац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истори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продвижением собственного видения истории региона, разрабатывая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Когурё, спорных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и предлагаемой темы исследования [12].

Актуальность современного бохаеведения следует также искать в активизац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мире – вытекающей из кризис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и выходом на передний план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етензий на доминирование в том или ином регионе, стремлении возвеличи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и сохране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ации. Указанные задачи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являются лишь частью масс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нструментария, которым пользуется как политическая, так и культурная элита.

Возвеличивание прошлого сегодня перестает быть лишь часть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деологии и переходит в категор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и, манипулирования общественным сознанием и нивелиро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орм и договоров. В условиях массовой историзации сознания и современной скоро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отоков, политические манипуляции прошлым становятся причиной не только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поров, но и кризиса идентичности, ведущего к иным уровням самосознания и формам социальной психологии.

Касаясь вопроса Бохая в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различных социальных групп, то сегодня она не стоит достаточно остро и пока лишь находится на стади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споров, рискуя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стать камнем преткновения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всего региона. Ввиду постоянног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как поли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так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методологии, разрабатываемая проблема имеет потенциал актуализации на достаточно длинный временной отрезок, а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 истории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ее нарративов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перманентным процессом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поколений.

Обращаясь к вопросу Бохая, автор отмечает его политическую составляющую. Создание правиль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истор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ее актуализация в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еств, является редким приме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за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событий столь далеких от сегодняшних дней. Основной сложностью здесь выступает отсутствие ссылки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на социальную и какой-либо связи двух памятей.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методикой, связывающей Бохай и сегодняшние общества, претендующие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связь с ним, выступает интерпретация истори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Встраивание истории Бохая в национальные версии

истории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исходит неодинаково. Так, если Южная Корея включает Пархэ в контекст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всех корейцев, рассматрива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данные сквозь призму культурного соответствия и этнического окраса, то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то вопро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Видный российский кореевед Курбанов С.О. отмечает, что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варианте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труды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расной нитью пронизаны идеей давней вражды между северным Когурё и южным Силла [13].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Пархэ, как наследник Когурё занимает особое место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и является принципиаль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Проблема Бохая (Пархэ)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является достаточно дискуссионной не только для исторической науки, но и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контексте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Данный вопрос активно разрабатывают исследователи не только КНР, Южной Кореи, КНДР и России, но и США. Причиной тако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конечно, является поли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затрагиваемой темы в рамках все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Позиция КНР в данном вопросе также политически мотивирована и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в контексте культурн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роли Кита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средние века. Основным принципом китайского бохаеведения является обоснование роли Бохая как одной из китайских провинций или, в крайнем случае, окраинного вассала, управляемого «поднебесной». Характерно и более вним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письменным источникам, которых у КНР достаточно. Несмотря на характерный для авторитар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мидж КНР,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методы, используемые китайски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не являются сплошь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ми. Доводы китайских ученых являются не менее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 обоснованными и апробируются на различ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Отличитель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вопроса Бохая в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ом дискурсе является первоочередн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изнания претенз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воочередной задачей для государств, претендующих на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эт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является признание правомерности претензий в глазах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онечно этот факт не исключ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легитимации прав на

наследие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версий истории, но в условиях открытого доступа к этим самым версиям, значительные противоречия между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ей и нейтральными версиями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ряд ли допустимы.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является регионом пересечения разных народов, языков, религий и хозяйственно-культурных типов.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можно уделить 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ому положен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обществ.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е время, являясь конечным восточным пунктом ойкумены, регион был своего рода феноме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очевой и оседл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овых трансформаций и особых путей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мысли Востока.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развития стран региона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различных внешних и внутри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цессов в разные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периоды.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зирующей легитимности, то есть стремления обосновать политические контуры и ценностные осн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общности ссылками на непрерывность исторической традиции, способствует тому, что политика памяти меняя свои социальные основания сохраняет свою действенность и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ирующегося социум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XX века существующие на уровне массового созна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двергались су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формациям, что во многом являлось своеобразным отражением в зеркал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тех изменений, которые были связаны с местом и роль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е и экономике, его статусом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Эт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безусловно, были также связаны с процессом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торому были подвергнуты традиционные структур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обществ, результатом чего стало превраще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началу XXI столетия в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регион, претендующего на то, чтобы играть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глобальных процессах.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наука и сегодня остается частью большого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рументария, она обладает больше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вободой ввиду множества объективных причин. Глобализац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й прогресс и развитие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степенно лиш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многовековой монополии на созда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рративов. Однако, поддержание образов

прошлого становится возможным если не прям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пагандой, то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политическими действиями, призванными обслужи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связи с этим, исследование истори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ее роли в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различных социальных групп (в том числе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идится задачей первостепенной, так как история, написанная историками и для историков, имеет ценность не столько общественную, сколько научную, а категор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находятся не только на стыке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других дисциплин, но и реализуются в практик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заимные претензии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иболее объектив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квозь призму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ой методологии. Постмодерн в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государств в условиях конструируемой ими окружающ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Конструировать эту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сегодня - дело достаточно затруднительное, так как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разов выступает одной из важнейших задач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посред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паганды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считать офиц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того или 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ез учета мнен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элиты и населения было бы неправильным. Однако, позиц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акторов, выражающих мн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безусловно разделяет либо влияет на мн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й части населения, а у другой части может вызвать негодовани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наук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развивается в условиях больше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вободы, нежели других стран региона. Однако, это факт вовсе н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беспристрастности вывод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ведь 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нъюнктура такова, что реализация научных проектов активно финансируются и РК, и КНР и переход в «стан врага» может расцени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как не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или предательство, но и как «продажнос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ученый порой сам оказывается заложником соб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вободы в условиях конкурентного рынка академ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Заключение

Постмодерн в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государств в условиях конструируемой ими окружающ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единственно верную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сегодня - дело достаточно затруднительное, так как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разов выступает одной из важнейших задач политики памяти посред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паганды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считать целостным феноменом офиц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того или 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вопросу Бохая без учета мнен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элиты и населения было бы неправильным. Однако, позиц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акторов, выражающих мн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безусловно разделяет либо влияет на мн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й части населения, а у другой части может вызвать негодовани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лояльность индивида либо социальной группы политическому режиму играет в указанном вопросе немаловажную роль. Группа, разделяющая ценности действующей власти, безусловно, будет более лояльной и к е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м действия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льзя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оппозиционные действующей власти акторы будут однозначно против признания Бохая корейским или китай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 процессе признания системы ценностей того либо 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ольшую роль играет этническ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ндивида. Человек включает себя в это «воображаемое сообщество» в условиях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либо неоднозначности обстоятельств [14]. Шнирельман отмечал, что индивид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ловиях может занимать конформистскую позицию и выступать как член общност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носа [15]. Корейцы Яньбянь-Корей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вполне могут не разделять офиц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КНР в проблеме Бохая.

Критики теории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подчеркивают важность личного опыта в основе памяти и отсутствии корпоративной памяти как таковой, а лишь коллективном конструкте, опирающимся на мемориальные медиаторы. Однако, если учесть, что национальная история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лишь идеологическим конструктом, памятью обретенной в процессе социализации либо навязанной системой образования «воспоминанием», то вопрос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авомерности коллективной или культурной природы истории Бохая в различных группах сам собой отпадает. Социальная памят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является не более чем механизмом передачи «ложных воспоминаний»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Der Derian J. International/intertextual relations: postmodern readings of world politics. Free Press, 1989.
2. Walker R. B. J. Inside/outside: international relations as political theor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 Alexander Wendt. Quantum Mind and Social Science. Unifying Physical and Social On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368 p.
4. Бодрийяр Ж. Символический обмен и смерть / Пер. с фр. и предисл. С. Н. Зенкина. М.: Добросвет, Издательство «КДУ», 2011. 392 с.
5. Лиотар, Ж.Ф. Состояние постмодерна = La condition postmoderne / Шмако Н.А. (пер.) с фр. СПб.: Алетейя, 1998. 160 с.
6. Андерсон Б. Воображаемые сообщества. Размышления об истоках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национализма / Пер. с англ. В. Николаева; Вступ. ст. С. Баньковской. М.: «КАНОН-пресс-Ц», «Кучково поле», 2001. 288 с.
7. Геллнер Э. Нации и национализм. М.: Прогресс, 1991. 320 с.
8. Eric Hobsbawm, Terence Ranger: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2
9. Курбанов С.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Пб.: Изд-во С.-Петербур. унта, 2009. 680 с.
10. Хальбвакс Морис. Социальные рамки памяти. М.: Нов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7. 348 с.
11. Асмолов К.В. 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традиции 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 Русский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образованию и науке, 2017 г. 704 с.
12. Дьякова О.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археология,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а/ Ин-т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М.: Наука — Вост. лит., 2014. 318 с.
13. Длинная тень прошлого: Мемо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и истор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 Пер. с нем. Бориса Хлебникова. М.: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14. 328 с.
14. Андерсон Б. Воображаемые сообщества. Размышления об истоках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национализма / Пер. с англ. В. Николаева; Вступ. ст. С. Баньковской. М.: «КАНОН-пресс-Ц», «Кучково поле», 2001. 288 с.
15. Шнирельман В. 2018 «Национализм и образы прошлого» [любительское видео]// Youtube. 1 октября
<https://www.youtube.com/watch?v=yeZSTVshhKs>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и О.Е.
ТарГПУ, Тараз,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моментов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являетс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в сфере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е искусство четко дикту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овых подходов к обуч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Старые методики уходят в прошлое, тогда как на их место приходят инновационные методы и приёмы преподавания. Все чаще широкое применение в учебном процессе получают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рмы обучения и контроля.

Современные условия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и обно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указывают на то,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научить человека на всю жизнь.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ходя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аложить в нем основы языковых знаний, пробудить интерес к их накоплению, а также к постоянному самообразованию. Важнейшая цель, которую ставит перед соб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 сформировать учащегося, как личность, способную к саморегуляции в условиях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 ж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человек на протяжении сво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алкивает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задачами и проблемами. Поэтому за время учебы перед студентом ставится цель,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овладении умениями правильно реагировать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ешать возникшие проблемы.

Преподаватель ж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олжен стара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мыслите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ащихся, подбирая правильные методы и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Исходя из всего вышеизложенного, мы утверждаем, что одним из современных метод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анны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является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Метод проектов это совокупность приёмов, действий учащихся в их определённ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ой задачи — решения определенной проблемы, значимой для учащихся и оформленной в виде некоего конечного продукта.

Основная цель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состоит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учащимся возможно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приобретения знаний в процессе реш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дач или проблем, требующего интеграции знаний из различных предметных областей.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методе проектов как 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технологии, то эта технология предполагает совокупность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оисковых, проблемных методов.

Кроме раскрытия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менения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его особенностей и преимуществ, мы так же рассмотрели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проектов.

Согласно основн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проекты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п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времени проведения проектов: краткосрочные, средне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долгосрочные;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арные, групповые; по уровню интеграции: монопроекты и межпредметные проекты; по способу преобладающ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гровые, творческие, практик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познаватель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Несмотря на основную цель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м овладении знаниями и применении их для реш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и ряд компетенций, которыми следует владе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ю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олжен владеть основны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и и поисковыми методами, умением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ащихся, умением направлять учащихся на поиск решения поставленной проблемы и т.д.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апробирова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проектов, а так же различные подходы к применению проектной методики, нами был выбран групповой, краткосроч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конечным продукт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мультимедийная презентация. Такой выбор обусловлен возможностью легкого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а так же облегчение усвоения и запоминания материала.

В статье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ется алгоритм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выделили шесть этапов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учителя и студентов: начальный,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поисково-аналитический, практический, презентационный и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ы.

Прежде чем приступи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учли разный уровень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 учащих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се студенты были максимально задействованы было решено назначить ответственных лиц на каждый этап проек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ждый из четырех членов группы был лидером по одному разу на своем этапе. Лидер должен был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ы согласно плану, следить за временем выполнения, а так же подготовить отчет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и составить вопросы, если имелись сложности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рефлексии студентов, а так же на анализе результатов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выделили основ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и недостатки применения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 част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Благодаря четкому распредел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каждый студент, несмотря на уровень знаний был задействован в работе.

Необходимо подчеркнуть повышение активности и мотивации к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роме того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над проектом студенты приобрели навыки самообразования, самоконтроля, групп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ных задач.

Справедливо будет отметить и ряд трудностей возникших в ходе работы. Студенты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знаний неохотно выполняли задания лидера, пока сами не оказались главными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этапе. Однако уже на финальных этапах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анных трудностей уже не возникал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я на подготовку и проведения данного метода во время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уходит много сил и времени.

Век непрерывного развития абсолютно всех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дел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готовку функционально грамот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моби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специалист способный решать п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д н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задачи и проблемы, специалист способный мыслить критически и применять нестандартные подходы в трудных ситуациях, специалист способный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о изложить свою точку зрения, а так же уметь слушать мнение других.

Все эти навыки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с помощью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Если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постоянно заниматься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о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он будет более приспособленным, сможет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в различных ситуациях, совместно работать с различными людьми 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окружающим условиям. Так же применение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характеризует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ак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 в своей работе современные,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рмы обучени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проект,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проект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лидер, компетенции, этапы проекта, классификация проектов

Title: Using the Project Method on the Korean Language Lessons

Author: Li Olga, Taraz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Taraz, Kazakhstan

Abstract: One of the main moments of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s the improve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education. Today, the teaching skills clearly dictate the need for new approaches in the foreign language teaching.

Old methods are a thing of the past, whereas innovative methods and teaching approaches are taking their place. Increasingly, non-traditional forms of teaching and control are widely used in the educational process.

Modern conditions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information update indicate the impossibility of teaching a person for life. The need to give the foundation of linguistic knowledge, to raise interest in their accumulation, as well as insights for continuous self-education, comes to the

fore. The most important goal that the teacher sets himself is to form the student as a person capable of self-regulation in the context of continuing education.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during his professional activity a person is faced with various tasks and problems. Therefore, during the study, the student is set an aim, which is to master the skills to respond correctly to the problems and independently solve it.

The teacher, in turn, should try to maximize the mental activity of students, selecting the right methods and technologies to achieve the goal. Based on the foregoing, we argue that one of the modern methods corresponding to these characteristics is the method of projects.

The method of projects is a set of techniques, actions of students in their specific sequence to achieve the task - solving a specific problem that is important for students and designed in the form of a certain final product.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ject method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acquire knowledge independently in the process of solving practical tasks or problems which require the integration of knowledge from different subject areas. If we talk about the project method as a pedagogical technology, it involves a combination of research, search, and problem methods.

In addition to disclosing the need to apply the project method on Korean language lessons, its features and advantages, we also considered various types of projects.

According to the main classification, projects can be divided by the duration of the project: short-term, medium-term, long-term; by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dividual, pair, group; by the level of integration: monoprosjects and interdisciplinary projects; by the method of prevailing activity: research, game, creative, practice-oriented,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Despite the main aim of the project method, which is to independently master knowledge and apply it to solve tasks, it should be noted a number of competencies that the teacher should have to organize project activities.

The teacher should possess the basic research and search methods, the ability to organize research activities of students, the ability to direct students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 etc.

In this article we consider the testing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method in Korean language lessons.

After analyzing different types of projects, as well as different approaches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ject methodology, we selected a group, short-term, informational project, the final product of which is a multimedia presentation. This choice is due to the possibility of easy structuring of information, as well as facilitating the acquiring and memorization of the material.

The article describes in detail the algorithm of the project activity. We have identified six stages of interaction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the initial, preparatory, search and analytical, practical, presentational and final stages.

Before embarking on project activities, we took into account the different levels of Korean language skills among students. In order for all students to be involved as much as possible, it was decided to appoint responsible persons for each stage of the project, thus each of the four members of the group was a leader once at a different stage. The leader had to organ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 according to the plan, monitor the time of implementation, as well as prepare a report on the work done and make the questions if there were difficulties at this stage.

Based on the students' reflection, as well as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project activities, we highlighted the mai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the project method in a foreign language lessons, especially on Korean. Due to the clear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each student, despite the level of knowledge was involved in the work.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increased activity and motivation to learn Korean. In addition, during the work on the project, students acquired the skills of self-education, self-control, group activities and problem solving.

It is fair to note a number of difficulties encountered during the work. Students with a low level of knowledge were reluctant to carry out the leader's assignments, until they themselves turned out to be the leader at a certain stage. However, at the final stages of the project activity, these difficulties did not ari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eacher,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prepare and conduct this method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The century of continuous development of all spheres of activity makes it necessary to prepare functionally competent, professionally mobile specialists. This is a specialist who is able to solve the professional tasks and problems assigned to him, a specialist who is able to think critically and apply non-standard approaches in difficult situations, a specialist who is able to articulate his point of view, as well as to be able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others.

All these skills can be acquired using the project method. If students constantly engage in project activities, during work they will be fit to navigate in different situations, work together with different people and adapt to the environment. Also, the use of the project method in lessons characterizes the teacher as a highly qualified specialist who uses modern, non-traditional forms of education in his work.

Keywords: project, project method, project activity, leader, competences, project stages, project classification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привели к существенным изменениям и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ый выпускник должен не только обладать специальными умениями и навыками, но и широким кругозором. Условия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и обно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дел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наличие умений выбирать из огромного потока информации нужную и применять ее.

Современному человеку необходимо умение успешн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постоянно меняющемуся миру, быть активным и коммуникабельным. Ясно, что в современных вызовах времени и содержание учебного предмета, и методика его преподавания должн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казывать свою многосторонню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Кажд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утем применения различных методов и приемов в у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ходит для себя и студентов наи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е, которые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именяются неоднократно.

Одним из таких методов является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апробацию которого мы хотим представить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считается Дж. Дьюи американский философ, психолог и педагог. Правда, он не употребляет слово “проект”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педагогическому методу. В Штатах его именовали как метод проблем, так как он был связан с идеями гуманизма в философии. С начала XX века метод проектов становится необыкновенно популярным в американской школе. На рубеже 1910-20 г.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входит в практику отеч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1].

Метод проектов – совокупность учебно-познавательных приемов,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решить ту или иную проблему в результат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учащихся с обязательной презентацией этих результатов[2].

Данный метод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ведущих методов обучения, отвечающий современным целям образования, одной из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ключевых компетенций обучающихся.

Проект – это специально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учителем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полняемый учащимися комплекс действий, завершающихся созданием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дукта.

Существуют определе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с методом проектов. Среди них можно отметить:

- наличи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ая в научном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смысле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а и требует наличия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знания для её решения;

- теоретическая, практическая, нравственная,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значимость результатов, полученных после применения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работа студентов;

-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ие основной части работы над проектом с указанием итогов;

- применение на практике метод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ссмотрим так же основную классификацию типов проектов. П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времени проведения проектов можно выделить:

- краткосрочные (4-6 академических часов);

- среднесрочные (от 14 дней до 6 месяцев);

- долгосрочные (от 6 месяцев до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 парные;

- групповые.

По уровню интеграции:

- монопроекты (узконаправленные проекты, охватывающие содержание только одной дисциплины);

- межпредметные (охватывающие содержание нескольких учебных дисциплин).

По способу преобладающ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екты бывают:

-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которые по структуре схожи с научны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Такие проекты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обоснование актуальности выбранной темы, постановку задачи исследования, обязательное выдвижение гипотезы с последующей ее проверкой, обсуждение и анализ получен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3].

- игровые, где учащиеся принимают на себя определенные роли, обусловленные характером и содержанием проекта. Это могут быть конкретные и выдуманные лица, имитирующие социальные, деловые отношения, осложняемые ситуациями, придуман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4].

- творческие, которые предполагают максимально свободный и нетрадиционный подход к выполнению и презентации результатов. Это могут быть альманахи, театрализации,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л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идеофильмы [5].

-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бор информации о каком-либо объекте или явлении с целью анализа, обобщения 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для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6].

- практик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конкретный практический результат. Такие проекты связаны с социальными ценностями учащихся: очистка водоёмов, созда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хроники свое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и т.д.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проектов, а так же различные подходы к применению проектной методики, нами был выбран групповой, краткосроч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конечным продукт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мультимедийная презентация [7]. Такой выбор обусловлен возможностью легкого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а так же облегчение усвоения и запоминания материала.

Для апробации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ми были выбраны студенты 3 курса группы ШТ 16-5, группа состоит из 12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3 группы по 4 человека. Прежде чем приступи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учли разный уровень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 учащих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се студенты были максимально задействованы было решено назначить ответственных лиц на каждый этап проек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ждый из четырех членов группы был лидером по одному разу на своем этапе. Лидер должен был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ы согласно плану, следить за временем выполнения, а так же подготовить отчет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и составить вопросы, если имелись сложности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Всего нами было выбрано шесть этапов: начальный,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поисково-аналитический, практический презентационный и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8].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реподаватель ознакомил студентов с методом проектов, объяснил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и алгоритм выполнения проектов. Раскрыл методы поиска и анализа информации. Так же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студентам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примерные темы такие как, Образование, Путешествия,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Традиции,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 как по итогам обсуждения большинство выбрали тематику путешествия, было решено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данной теме.

На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м этапе студенты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3 группы по 4 человека, где каждая группа выбрала себе подтему в

вид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города. Группа №1 выбрала Сеул, группа №2 Пусан, группа № 3 Кёнчжу. Помимо этого студенты распределили роли между собой на каждый этап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осуществили оптимальный выбор источников информации. Данный этап проходил в виде дискуссии, что создало рабочее и творческое настроение.

Задача лидера каждой группы данного этапа состояла в составлении списка поэтапных действий группы, четк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обязанностей каждого члена группы на последующих этапах, а так же

На поисково-аналитическом этапе каждая группа установила цели проекта, производила поиск и сбор информации. Производила анализ и синтез полученных данных. Поскольку конечный результат проекта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презентацию, на этом этапе происходил поиск необходимых иллюстраций.

Задача лидеров данного этапа заключалась в систематизации получ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целями проекта.

На практическом этапе каждая группа готовила презентацию о своем городе,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получ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Так же на этом этапе происходила подготовка речи для докладчика и сам выбор студент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презентацию группу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Задача лидеров состояла в текущем контроле качества проекта, сверка с изначальным планом проекта, а так же внесение поправок и изменений, если это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

На презентационном этапе докладчик каждой группы представлял свою презентацию. Так же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студенты каждой группы оценивали проекты других групп согласно критериям, проставляя баллы на листе оценивания.

Задача лидеров состояла в подготовке условий для презентации, раздаче листов оценивания, а так же подсчете баллов за свою презентацию.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выполнялся анализ результатов выполнения проектов, конечная оценка качества выполнения проектов, а так же финальное обсуждения трудностей, плюсов и минусов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анкетирование, состоящее из десяти вопросов. Анкетирование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на выявление отношения

студентов к методу проектов,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го были выделены главные его достоинства:

- актуальность. В центре технологии - студент, его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озволяющее применять приобретенные знания, умения и навыки, а также добывать эти знани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Степен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читель-студент, студент-студент становится фактором развития и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я личности;

-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ый подход. Тему проектов учащийся выбирает сам с учётом своих интересов и возможностей. Это позволит учащемуся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решаются и многие задачи личност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обучения;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работка информации и коммуникация всегда являлись и остаются основными видами у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формировани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умений;

- мотивирующий характер: право выбора, возможность самим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роцесс и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окурсниками - всё это повышает мотивацию обучения [9].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и результаты его применения на практике, мы пришли к следующим выводам:

Во первых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оздает условия, при которых студент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 охотно приобретают недостающие знания из разных источников; развивают умения поиска и обработки информации; развиваю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и личную уверенность; развивают умение слушать и уважать мнения других студентов; развивают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умения [10].

Во вторых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казывает себ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м,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 в своей работе современные,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рмы обучения. Так же преподаватель развивает и улучшает собствен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поисковые навыки; умение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ащихся; умение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и проводить дискуссии, не навязывая свою точку зрения.

В третьих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активизирует обучение в целом, так как делает его личностно -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позволяет учиться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опыте, приносит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ученикам, видящим результаты своего собственного труда.

Подводя итог всему вышеизложенному, мы можем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что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открывает перед каждым студентом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явить себя, выявить свои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Студенту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самому попробовать и испытать себя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выявить что-то близкое и интересное и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на этом свои желания, силы, способности. Это позволяет включить в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самое важное: активность, интерес и сознательную самореализацию главного участника – обучаемого. И, самое важное: вс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тудента ориентируется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его мышления, в основе которого лежит личный опыт.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Лазарев В.С. «Новое понимание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в образовании» //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2011. №6. С. 35-43.
2. Сергеев И.С. Как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оект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ащихся: Практ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М.: Аркти, 2014. 80 с.
3. Гузеев В.В. Планирова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технология, М., На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2000 г. 240 с.
4. Полат, Е. С. Новые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 Е.С. Полат. М.: Норма, 648 с.
5. Белогрудова В.П. Об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ащихся в условиях проектного метода //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в школе. 2005. №8
6. Кочетунова Н.А.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в обуч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Материалы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в системе «Школа— Вуз», Новосибирск, 20 июня 2003г.
7. Полат Е.С.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в школе. 2000. № 3. с.3–9.
8. Гордеев К.С., Жидков А.А., Пасечник А.С., Кокарева М.Е., Егорова М.И. Метод проектов как способ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будущего педагог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научный вестник. 2018. № 2.
9. Рылеева Ю.Н. Проект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е 21 века: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 10 изд., перераб. М.: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образовании и культуре», 2014.
10. Пахомова Н.Ю. Метод учебного проект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Пособие для учителей и студентов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вузов. М.: АРКТИ, 2009. 110с.

Корё сарам в Казахстане: формирование, тенденц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Мен Д.В.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автор размышляет о судьбе корё сарам, за прожитые ими более 80 лет на древней земле казахов, которая для многих стала Родиной. Они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ут, когда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сами живя впроголодь, перенесшие сталинский репрессий, голод, эмиграцию в чужие страны в поисках лучшей жизни и другие страдания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еслись к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м. Корейц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ли и не забудут этой благородной помощи братьев казахов.

Корё сарам выглядел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в Казахстан одной из самой униженной, бедной, неграмотной народом. 1937 год для корё сарам является самым страшным и бесчеловечным отношением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собственному народу. История знает немало жестокостей власти к народу, но такой, как вытворял сталинский режим, не было.

Автор подробно анализирует, что стало с корейцами уже за более 80 лет проживания на своей настоящей Родине, которая называется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Из статистики можно выявить, что для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цев характерна низкая рождаемость, в 1937 г.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еспублики было выслано около 93000,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считывается по последне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09 г. более сто тысяч.

Если 30-50-е годы прошлого века уделом их занятия было сельский труд, 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м по плечу все мировые цивилизованные профессии. Они стали за это время нацией сплош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заседают в парламен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уководят крупными научными и промышле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им присваивают воинское звание генерал, удосто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емией, среди них есть знаменитые ученые и спортсмены.

Сегодня корё сарам будучи активной частью,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жившей в иноэтнической окружении, заметно отличаются по менталитету от соплеменнико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чём не в худшую сторону. У них отмечается казахстность, которая существен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населения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К сожалению, эта тенденция медленно и уверенно проявляется между корейцами СНГ. Это отличие комплексное и проходит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разность в мировоззрении и ментальности.

Что касается дальнейшая судьба корё сарам, сценарии разные. Всё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как наша страна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насколько нац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будет успешной и насколько обстановка в

регионах, где они проживают, будет благоприятной. В этом вопросе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много факторов.

В целом, если исходить из да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три основные категории корё сарам в Казахстане. К первой относятся люди, которые связали свое будущее с Казахстаном (это большинство) и нашли методы социализации. Они учат своих детей казахскому языку и сами же следуют за ними. В целом они не видят для своей жизни другую страну, кроме Казахстана.

Вторая – те, кто решил уехать. Сегодня они в поисках форматов наи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в Корее, России ил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Третья категория – не определившиеся, если будет комфортно здесь, они останутся. Будут социальные и бытовые проблемы, уедем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Автор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корейцы отличаются своим миролюбием, в этнических столкновениях не участвуют. Отсутствие конфликтов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казахи и корейцы занимают раз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ниши. Кроме того корё сара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характерен смешанный брак с другими этносами, в частности с русскими и казахами. Они знают, их с другими этносами связывает одной целью, общей историей, общей судьбой и общей будущностью.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корё сарам лучше жить в Казахстане, нежели в Корее. Он сам побывал в местах их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которые не предвидено сталкиваются житей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Корё сарам и житель Кореи это два разных человека. У корё сарам уже казахский менталитет, он проявляется во всём казахском – последнее, что осталось – это выучить казахский язык. Молодые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осваив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 а взрослы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ложно усвоить, впрочем, никто этого не требует.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корейцы в Казахстане вполне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к местным условиям, чувствуют здесь вполне комфортно, добились многое за 80 лет проживания, выжили, стали достой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азахстан, корё сарам,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рейце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

Title: Koryo Saram in Kazakhstan: Formation, Trends and Prospects

Author: Men D.V., KazNU named after al-Frabi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flects on the fate of Koryo Saram, during the 80 years they have lived in the ancient land of the Kazakhs, which for many has become the Motherland. They will never forget when the local population themselves were starving, who had suffered Stalinist repression, famine, emigration to foreign countries in search of a better life, and other sufferings treated the deported with understanding. Koreans have never forgotten and will not forget this noble help of the Kazakh brothers.

After the deportation to Kazakhstan, Koryo Saram looked like one of the most humbled, poor, and illiterate people in Kazakhstan. 1937 for Koreya

Saram is the most terrible and inhuman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s its own people. History knows a lot of cruelties of the authorities towards the people, but there was no such one as the Stalinist regime did.

The author analyzes in detail what happened to the Koreans already for more than 80 years of living in their real homeland, which is called the Republic of Kazakhstan. From the statistics, it can be revealed that modern Koreans are characterized by a low birth rate, in 1937 about 93,000 were expelled to the republic, currently, according to the last census of 2009, more than a hundred thousand.

If the 30-50s of the last century, the lot of their occupation was rural work, then at the present time they are on the shoulder of all the world's civilized professions. During this time they became a nation of continuous literacy, they sit in parliament, the government, run large scientific and industrial enterprises, they are given the military rank of general, awarded the State Prize, among them are famous scientists and athletes.

Today, Korya Saram, being an active part of a long time living in a foreign ethnic environment, is noticeably different in mentality from the tribesme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t for the worse. They have noted the Kazakhness,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opu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Unfortunately, this trend is slowly and surely manifesting between the Koreans of the CIS. This difference is complex and takes place for various reasons - linguistic features, difference in worldview and mentality.

As for the fate of Korya Saram, the scenarios are different. It all depends on how our country will develop, how successful the national economy will be, and how favorable the situation in the regions where they live is.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in this matter.

In general, if we proceed from the research data, today we see three main categories of Korya Saram in Kazakhstan. The first is the people who have linked their future with Kazakhstan (this is the majority) and have found methods of socialization. They teach their children the Kazakh language and they themselves follow them. In general, they do not see another country for their life, except Kazakhstan.

The second - those who decided to leave. Today, they are in search of the most comfortable life formats in Korea, Russia or in other countries. The third category is undecided; if it is comfortable here, they remain. There will be social and domestic problems, we will go to other countries.

The author argues that Koreans are distinguished by their peacefulness; they do not participate in ethnic clashes. The absence of conflict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Kazakhs and Koreans occupy different economic and political niches. In addition, Korya Sarami is currently characterized by mixed marriage with other ethnic groups, in particular with Russians and Kazakhs. They know that they are connected with other ethnic groups by one goal, a common history, a common destiny and a common future.

According to the author, measles saram is better to live in Kazakhstan than in Korea. He himself visited their places of permanent residence, which are not foreseen to face everyday problems. Koryo Saram and a resident of Korea are two different people. KoryaSaram has a Kazakh mentality, it manifests itself in all Kazakh - the last thing that remains is to learn the Kazakh language. Young Koreans are actively learning the state language, and older adults are hard to master, however, no one requires it.

According to the author, Koreans in Kazakhstan have fully adapted to local conditions, they feel quite comfortable here, have achieved a lot in their 80 years of residence, survived, have become worthy citizens of the republic.

Keywords: Koryo Saram, Kazakhstan, Formation, Trend, Prospects

Автор данной работы обратился к этническим общностям казахстанским гражданам, которые называют себя корё сарам (далее корё сарам и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 синоним), родился в самой густо населенной корейцами в то время в городе Уш-тобе. Тема соплеменников всегда интересовала, особенно после приобретения республик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Мне отчасти «повезло» в жизни, в свое время приходилось проживать много лет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китайском Харбине три года и там встречаться с корейцами, также часто бываю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ажется, о корейцах знаю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и хорошо. Сейчас выяснил, что корё сарам такие многогранные, их надо изучать и исследовать, всё время находишь, что-то новое и неожиданно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ботаю профессором в Казах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где окончил философский факультет, затем аспирантуру. По воле судьбы занимаюсь проблем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историей корё сарам.

Данная тема исследования также интересна и актуальна, о нем много с различных позиции опубликованы монографии учеными корееведами Казахстана Кан Г.В., Ким Г.Н., Пак Н.С., Пак И.Т., Хан Г.Б., Хан Н.Ч. и др. Но автор задался целью мало изученных тем о жизни корё сарам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Философы говорят, ч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 мера всех вещей, время – мера всех событий, когда смыкаются горизонты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времени – начинается национальная история. В самом деле, если задуматься об истории корё сарам, то вполне справедливо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о значительных достижений этого этноса в ходе вековой истории. Конечно, прежняя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ая не одно и то же, но корё сарам заслуженно гордится

своими историческими корнями. И это правильный подход, позволяющий понять свои истоки, да и всю национальную историю во всей глубине и сложности.

Корейская общнос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личается определенным богатством своей историей от соплеменнико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этому история корё сарам также должна быть понята с высоты современной науч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а не по её отдельным фрагментам. А для этого есть убедительные аргументы.

Во-первых, история корё сара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кладе пойдёт ниже речь, образова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захстана, став одним из элементов этногенеза казахской нации.

Во-вторых, достижения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корё сарам, не были привнесены из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родились именно на казахской земле, лишь затем распространились на другие территории СНГ.

В-третьих, исторические связи со всеми этносами за врем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ё 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подтверждают по новому взглянуть на место истории Казахстана.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уже с 1937 года формируетс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захстана, вбирая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процессы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корё сарам на земле казахов. Сегодня нам корееведам необходим позитивный взгляд на собственную историю. Однако он не должен сводиться лишь к избирательному и конъюнктурному освещению того или иного события. Говорят, что тень – неразлучный спутник света. Вместе они образуют неповторимую цветовую гамму жизни, как отде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так и целого народа.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было немало драматических моментов и трагедии. Мы не вправе забывать о них.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сознать и принять свою историю во всей ее многогранности и многомерности. Это тем более делает проблему во всех отношениях интересной, требует знаний истории корё сарам, проживающих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республики, что делает её богаче и насыщеннее.

Главный вопрос не о том, чтобы показать свое отдельное величие за счёт забывания других, а объективно показать роль корё сарам в истории прожив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конечно, же опираясь на строгие научные факты. Казахстан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стал местом,

откуда происходят многие материальные и духовные культуры. Многое из того, без чего просто не мыслима жизнь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Корейцами было в свое время изобретено передовые методы рисосеяния, выращивание овощей и другие формы веде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оторые в стране ранее активно не применялись.

Все эти вопросы требуют серьёзного осмысления. Они касаются фундаиентальных основ наше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прошлого, настоящего и будущего корё сарам. За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изучению прошлого и настоящего корё сарам,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забытые фрагменты исторической хроники. К сожалению, многие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до сих пор не введены в научный оборот и ждут своего часа в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архивах.

Поэтому автор считает, что открыт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рё сарам»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Чонбук,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и своевременным.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бы серьёзные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истории корё сарам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ачиная с первых переселенцев 1864 г. д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В рамках ее реализации нужно сфокусировать поиск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специальных групп историков, политологов, филологов, философов и других наук на системном и долгосроч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и зарубежными учеными.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не только кропотливо собирать архивные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данные, но и активно конвертировать их в цифровой формат, делая доступными для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ученых востоковедов и широ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оспитание чувства гордости за свою историю должно дойти до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так как приобщённость к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формирует чувство единства своих истоков.

Известно, что истор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в массовом сознании носи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ерсонифицированный характер. Корейцы заслуженно гордятся именами своих соплеменников, ставших своевременными послами корё сарам. Корё сарам в Казахстане также породили целую плеяду выдающихся деятелей науки, политики,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которые принесли огромную пользу стране.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больше узнала об этом с выходом в 2017 году в честь 8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ниги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мечается опубликовать учеб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энциклопедию «Выдающиеся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в котором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памятные их достиж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о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ё сарам будут знать как в нашей стране, так и зарубежом. У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омнят, ценят и гордятся своей историей – великое будущее.

Где бы мы ни жили, как бы давно ни расставались, несмотря на время и границы, мы остаёмся одним народом,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громким именем – корё сарам. Мы родились в разное время, живём в разных государствах, но есть то, что объединяет всех нас. Гордость за прошлое, прагматичная оценка настоящего и позитивный взгляд в будущее – вот залог успеха корё сарам. Новые времена принесли новые проблемы. Часть из них была вполне наднациональной, ведь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ударил по всем жителям экс-советских республик.

Было время, когда корейцы в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ах СНГ столкнулись с резким усилением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изнаку.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они оказались в одинаковом положении со всем «русскоязычным населением» региона. Новые режимы зарезервировали мест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ппарате и армии з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титულიной» нации. Даже в относительно благополучном Казахстане в 1994 г. казахи, составляя около 45% населения, занимали 74% должностей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искриминация и обнищание региона привели к массовому выезду корейцев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екоторым удалось выбраться на Запад, но большинство направились в Россию.

Несмотря, на усилившийс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корейцы чувствуют себя в России комфортнее, чем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 них нет проблем с языком.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Москвы, которое в советские времена измерялось несколькими тысячам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ставило более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Корею корейцы из Казахстана эмигрировали в не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так как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в Сеуле их никто не ждёт. Вернуть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смогли только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из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е сохранили там старые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и владели хорошо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ерестройка и победа капитализма принесли корейцам немало возможностей. В Казахстане они были и остаются самым образов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ом,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которого, вдобавок, есть немалый капитал, а порою - и полезные связи с богатыми 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рейцев преуспели в бизнесе и заняли замет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деловой элите Казахстана.

В то же время, тот энтузиазм, с которым корейцы встретили «эпох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оказался недолговечным. Корейская молодежь быстро выяснила, чт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чень сложен, и что владение им не дает видимых житейских преимуществ. Начался отток от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которые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тились то ли в деловые клубы корейской элиты, то ли в фольклорные кружки.

Что же ждет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и СНГ? Ассимиляция, вряд л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этому мешает русскоязычие и отношение к исламу, в России - расовый тип и, отчасти, фамилии, там и там - резко усилившеес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чув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рдости.

Массовое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предков» (так сказать, еврейско-немецкий вариант)? Тоже едва ли: опыт последних лет показал, что «репатрианты» очень плохо приживают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да и сама она - не Израиль и не Германия, не трубит политику сбора всех корейцев. Сеул не проводит, и едва ли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в будущем. Культурное возрождение и возвращение к национальным традициям 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это верится с трудом, слишком уж сложен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слишком мало реальных преимуществ дает владение им рядовому казахскому корейцу. Возрождение в качестве новой особой этнической группы? Фактически «корейцы СНГ» давно являются такой группой, но едва ли они сами согласятся признать этот факт, слишком уж велико культурное давл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воей автор автор не ставит цель восхвалить граждан Казахстана корё сарам, художественно красиво описать, моя цель - довести каким я вижу соплеменников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истории корё сарам ещё много «белых пятен», которые ждут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Обретение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возвышает только корё сарам, а в истории нет иного выбора. Всё, что произошло с моим народом, принадлежит только мне. Знать об их судьбе, об их радостях и невзгодах, об их чаяниях надо, потому что в них моя судьба, в которой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неразрывно переплетаются.

Корё сарам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Казахстана занят во все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Достоинно выполняют свои обязанности. У нас за плечами более 80-летний опыт проживания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республике.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автор повествует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мировоззренческий социум корё 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после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суверенитета. Преодолевая трудности, они идут к успехам своей Родины, которая называется –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ц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составляют более 100 тысяч (1,7%). Несмотря на столь не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их численности, за исторически короткий отрезок времени проживания в стране – чуть более 80 лет, они оказывают заметное влияние на все стороны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а. Они, ка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этносов (их в республике около 130), корейцы в полной мере и на деле пользуются правами и свободами,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и им Конституцие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а. Корё сарам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 гражданский потенциал в экономике, наук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культурной и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ых сферах.

Благодаря взвеш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проводимой в республике, исключая дискриминацию по признакам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их или религиозных убеждений,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являют собой ярко выраженную этническую общность. Они сохранили и развивают свою своеобраз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истоки которой восходят в глубокой древ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дной из традиций, во многом предопределяющих жизнестойкость нации, являе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й не писанный культ добросовестного труда и сохранению культуры, он возвращался и утверждался веками, стал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чертой. Несмотря на неимов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выпавшие на долю насильственно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сталинским режим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енцы с первых дней пребывания на древней казахской земле старались упорно трудиться и благоустраивать новое место пребывания.

Сегодня в результате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и гласности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явились ре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отразить самые различ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тороны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История знает,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массово-насильственным переселением с обжитых мест, были резко изменены привычные

уклад и образ жизни, а также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В эти трудные годы, благодаря помощи братских народов, корейцы, присущим им трудолюбию сумели достойно перенести все тяготы и лишения, выстоять и обрести новую Родину в Казахстане.

Однако массовое переселение, репрессии лучш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граничения в свободе выбора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а и профессии тяжело сказались 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и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Корейцы за время прожив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явили замечатель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черту – неиссякаемую трудолюбие, присущую добросовестность в любом профессии.

В условиях перехода к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е, иннов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корейцы не могут остав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от прогресса. Он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рудятся во всех сф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ногие передовик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 Союзе были занесены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ую книгу Почет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Казахстана.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эти трудовые успехи являются достижениями тружениками корейцами в условиях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оторые своим неустанным кропотливым трудом приумножали достояние республики.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все трудовые решен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ещё в большей мере относятся к корейцам. Это и проблемы отчуждения работника от средств производства, крестьянина от земли и созданного его трудом продукта. Немаловажным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ускоренных процессов урб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его миграции в города.

Анализ социаль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характерных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целом выявляет положительные тенденции. Несмотря на закономерный процесс, более ускоренного старения возрастной структуры населения, в ней почти одна треть детей, сравнительно высокий процент лиц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мужчин (60%).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цев, особенно занятых в народном хозяйстве очень высокий.

Всё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накопленном значительном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м, трудовом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отенциале нации, что создает благоприятные предпосылки высокоэффективного труда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материаль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обнадеживающих перспектив.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носит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е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общественно активной этносом в Казахстане.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высокая квалификац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зволили ряду из них вырасти в круп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Многие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Ленинских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емий, более 150 получили в разные годы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других отраслей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68 казахстанским корейцам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1].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корейцы стали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сохранив при этом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Сегодня они трудятся в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носят заметную лепту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суверен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Всё это состоялось благодаря создания главных ценностей,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яют всех казахстанцев и составляет фундамент будущей Казахстана. Эти ценности – опыт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пути, выдержавший испытание временем.

Во-первых, национальное единство, мир и согласие в нашем обществе. Во-вторых, это светское общество и высокая духовность. В-третьих,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на основе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и инноваций. В-четвёртых, это общество всеобщего труда. В-пятых, общность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В-шестых, это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глобальное участие Казахстана в решении общемиров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блем [2]. Благодаря этим ценностям корейцы всегда побеждали, укрепляли страну, множили успехи.

Научность темы исследования являлось то, что с обретением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вступила в нов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этап развития,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йся глубоки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трансформациями на фон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обусловленного мультиэтничностью общностью. Казахстанскому обществу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открытых вооруженных противостояний и сохранить политическую стабиль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продуманной политики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Среди которых, внутривполитическая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консолидация общества является, как долгосрочные приоритеты.

Интерес комплекс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рё сарам обусловлено рядом причин. Во-первых,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а корё сарам, как одного из этноса Казахстана в условиях этниче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многообразия.

Во-вторых, недостаточным исследованием со стороны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рееведов к категориальному осмыслению корё сарам, его место и рол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азахстане.

В-третьих,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выявления места корё сарам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и этнической сфере Казахстана.

В-четвертых, близость характера и исторических судеб корё сарам с другими этносами.

В-пятых, качественный состав корё сарам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Для оценки степени разработанности следует принять во внимание некотор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о-первых, публикации, в которых разъясняются основные изложения ученых востоковедов СНГ о корё сарам;

во-вторых,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и корё сарам СНГ стали монографии и статьи Кан Г.В., Ким Г.Н., Хан Г.Б., Пак И.Т., Пак Н.С., Хан Н.Ч., Ем Н.Б., Хан В.С. Бугай Н.Ф., Сон Ж.Г., Бойко В.С. Фундамент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ли также ученые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н Бен Рюль, Ким Бохе, Юн Сан Вон, Хон Ун Хон, Чан Вон Чанг, Ким Бён Хак, Мен Сунок, Чан Бён Су, Ли Бён Чжу и д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ажнейшим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дл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тало уста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лаживан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тес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отношений. Эти события создали чрезвычайно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лице посольств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й оказывают неоценимую поддержку в возрожде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Вместе с тем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лужит своеобразным мостом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Тем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гда затрагивалась во время президентов казахстан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ов. При этом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е раз высказывал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ервому Президенту РК Н.А. Назарбаеву за заботу и чуткое отношение к казахста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 Ассамблее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сказал об этом следующее: «Недавно я встречался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Южной Кореи. 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он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меня за поддержку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Я ответил, что не нужно благодарить, потому что это не ваши корейцы, а наши кровные граждане».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Мы высоко ценим талант, трудолюбие и аккуратность наших со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Кореи и Казахстана они играют надежную роль своеобразного моста, укрепляющего нашу дружбу и доверие друг другу, способствуют расширению деловых связе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бывший посол Кореи в Казахстане Тхе Сок Вон сказал: «Мы стараем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с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Казахстана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У корейцев здесь особый характер, хотя они этнически близки нам, однако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Казахстана. Мы думаем,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лужит надежным мостом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С момен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стали принима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звит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жизни: экономике, культуре, образовании, науке. Корейцы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страны играют такую же роль, как и все равноправные граждане независимо от этниче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Хотя у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есть некие специфические функции, которые на них возлагают,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езиденты Казахстана и Кореи.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связующим мостом, канал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республиками. Безусловно,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будут и впредь прилагать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выполнять не только роль «живого моста»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но и выступать самим в качестве активных действующих лиц в гуманитарных, меж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ах и деловых связях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Казахстана вносит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за годы прожив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йцы не только не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пыль истории, не ассимилировались, но и, сохранив, во многом даже обогатив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обычаи и традиции, внесли и вносят достойн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уховн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азахстан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подъеме культуры, всей духовной жизни страны. Если за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азахстан окреп экономически, выбрал свой собственный путь развития, добился признания и авторитета в мировом сообществе, то в этом свою лепту внесли и вносят и корё сарам.

Сегодня корё сарам стал составной и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Назарбаев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сказал: «Дор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80-летием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Казахстане! Благодаря терпению и единству вы смогли вместе с казахским народом преодолеть непростые времена.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Казахстана, и 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несут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оциальную и научную сферы Казахстана.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тала эффективным институтом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лужащего единству нашей страны. Сохраняя связь со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корейцы наращивают потенциал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А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 Мун Чжэ Ин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80-летия проживания корё сарам в Казахстане сказал: «Вы приложили много усилий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йцев высоко ценят и даже называют «четвертым жузом».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результат депортаци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 и терпимости Казахстана. Их прошлое - это гордость, как Казахстана, так и Кореи, народы рука об руку преодолели трудности тех лет. В Казахстане живут потомки великих людей, боровшихс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т этого, вы являетесь живым свидетелем этой истории».

Много воды утекло с тех пор, когда наши первые предки перешли Думанган, переселились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активно боролись за советскую власть, дети их строили социализм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а внуки осваивают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 развалом СССР началась дробление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Теперь это уже прошлое, пришла эра корейцев СНГ уже со свои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историческими событиями, социальным развитием и культурой. Н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евратности

судеб, мы все являемся корейцами, где бы не жили будь это Корея, Китай, США, Япония, СНГ, Европа,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Африка и т.д. У нас внешнее биологическое сходство, в жилах течет одна кровь, нас объединяет один язык, одна культура, одни обычаи и традиции потому, что мы являемся корейцами.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Алма-Ата: 1992. 102 с.
2. Ким Г.Н., Мен Д.В.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1995
3. Кан Г.В.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ы: 2019
4. Корё сарам. К 15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ю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Москва: 2014
5.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2017
6. Мен Д.В. Корея 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2008
7. Кан Г.В., Ким Г.Н., Мен Д.В., Ан В.И.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лма-Ата: 1997

Английски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Мухамеджанова М.Е.

Амангелды А.М.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ечевой лингвистики, дискурс - это процесс реального и словесного общения,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йся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отклонениями от канонической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Политика всегда играла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ир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торгов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для решения мировых проблем странами организуются конференции, форумы, саммиты и заседания. От определе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позиции или ситуации зависит место стран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е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ее роль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рового общества.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является явлением, с которым общество сталкивается каждый день. Однако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точн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понятия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не существует. Анализируют широкую и узкую разновидность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Е.И. Шейгал одна из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рассматривших широ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Он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как «любые речевые образования, содержание которых относится к сфере политики». Согласно утверждению Е.И. Шейгал, 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включает не только официальный контроль явлений социальной жизни, но и разговоры о политике в самых разных ракурсах - бытов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ом и др.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ажной функцией является воздействующая. Именно на достижение воздействия в коммуникации ориентируется политик при выбор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может отличаться тем, что в нем:

- «политическая лексика» терминологична, а обычные, не чисто «политические» языковые знаки употребляются не всегда так же, как в обычном языке;

- специфичная структура дискурса – результат иногда очень своеобразных речевых приемов

- специфична и реализация дискурса – звуковое или письменное его оформление.

— Поскольку термины политический и моральный обладают оценочностью, в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всегда фигурируют соображения вне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Словарный состав языка постоянно пополняется, и если это пополнение не происходит внутренними путями, то оно происходит путями внешними, то есть через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й лексик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реди существующих на земле языков нет языков,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бы заимствованы в других языках. Доля заимствованной лексики может колебаться в очень широких пределах: примерно от 10% до 80-90%.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языком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ходе длитель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языков, а так же в результате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и глобализации тысячи языков адаптировали английские слова в своем языке, т.е. слова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Одним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 количеству говоря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анимает 13 место в мире. Сейчас на нем говорят около 86 млн. человек. Одна из особенност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лекс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80% представлена заимствованиями – 70% занимают китаизмы, остальные 10% – это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з других языков. Большую часть этих 10% занимают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е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арианта.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стречаются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основ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имствованной лексики выпадает на долю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маленький пример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Перевод звучит так: «мы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ем смелые регулировки и расширяем инвестиц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ки* в сферах н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данном отрывк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R&D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ки) является заимствованием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хот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ся эквивалент (연구 및 개발) спикеры используют вариацию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таких ситу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встречается немалое количество.

Title: English Borrowings in Korean Political Discourse

Author: Mukhamedzhanova M.E., Amangeldi A.M.,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speech linguistics, discourse – is a process of real-life and verbalized contact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deviations from the canonical written speech. Politics has always played a key role in society. Today, in order to strengthen regional and world security, to develop socio-political,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and to solve world issues, countries organize conferences, forums, summits and meetings. The country's place on the world stage, its relations with other states, its role in the activities of the world society depend on a certain political position or situation.

Political discourse is a phenomenon that society faces every day. However,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is no exact definition of the term “political discourse”. Scientists analyze a wide and narrow variety of political discourse. E.I. Sheigal is one of the researchers who considered a broad definition of political discourse. She described political discourse as “any speech formation, the content of which belongs to the sphere of politics”.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E.I. Sheigal, political communication includes not only the official control of social life phenomena, but also talks about politics from various perspectives — social, artistic, journalistic, and so on. In political communication, an important function of it is an influence. Choosing linguistic means a politician is oriented towards achieving influence on communication. Political discourse may differ in:

- “Political vocabulary” is terminological, and ordinary, not purely “political” language signs are not always used the same way as in ordinary language;
- specific structure of discourse is sometimes the result of very peculiar speech techniques;
- the implementation of discourse is also specific - its sound or written design.
- as political and moral terms have evaluations, extra-linguistic considerations always appear in linguistic research.

The vocabulary of the language is constantly replenished, and if this replenishment does not occur by internal paths, then it occurs by external paths, that is, through the borrowing of foreign vocabulary. It can be said that among the languages existing on the earth there are no languages that would not be borrowed in other languages. The share of borrowed vocabulary can vary widely: from about 10% to 80-90%. English is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During the long-term interaction of languages, as well as in result of historical processes and globalization, thousands of languages have adopted English words in their language, i.e. borrowed words. One of them is Korean. Korean is the 13th most widely language in the world. Now it is spoken by about 86 million people. One of the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is that the vocabulary of the Korean language is 80% represented by borrowings - 70% is occupied by Sinicism, other 10% is borrowed from other languages. Most of these 10% are loanwords from the English language and its American version.

Loanwords are found in many areas of Korean society. In the political sphere, the main amount of borrowed vocabulary is shared with the English language. We can give an example in Korean: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The translation sounds like this: “we are actively promoting bold adjustments and expanding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s in the areas of new industry and new technologies”. In this example, the phrase R & D (research and development) is a borrowing from the English language. And although in Korean there is an

equivalent (연구 및 개발) speakers use a variation of the English language. So, there is a fair amount of such situations in Korean political discourse.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двадцатого века и до наших дней лингвисты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зучению дискурса. Под дискурсом следует понимать связное послание в сочетании с экст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ми - прагматическими,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м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и факторами; дискурс - это речь, «погруженная в жизнь».[1, с. 136-137]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ечевой лингвистики, дискурс - это процесс реального и словесного общения,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йся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отклонениями от канонической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2, с. 477]

В.Е. Чернявская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под дискурсом следует понимать текст в неразрывной связи с ситуационным контекстом: в сочетании с социальными, культурными, историческими, идеологическим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и и другими факторами, с систем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прагматических и познавательных целей автора, которые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с адресатом, определяя - упорядочение языковых единиц разных уровней в воплощении в тексте.[3, с. 117]

В одном случае дискурс указывает на одно конкретно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событие, в другом - включает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событие как интегративный набор конкретных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действий, результат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содержательно-тематическая общность многих текстов.[3, с. 117]

Дискурс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выполнения различных функций, таких как передача идей и чувств,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других и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их к выполнению определ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частности:

1. Дискурс используетс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общения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с целью поддержания соци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4, с. 3]

2. Дискурс также транзакционный,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на сообщения [4, с. 4]; он используется как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инструмент для донес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до аудитории [5, с. 32]

3. Дискурс также используется, чтобы призвать получателей к действию и мотивировать их приня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идеи [6, с. 18-19]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искурсы формируют наше общение и типы текстов, которые мы посылаем, и то, как мы понимаем тексты и

сообщения, которые мы получаем - мы никогда не общаемся в вакууме, мы всегда переносим контекст, наши социальные нормы и наш предыдущий опыт.

Признавая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его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су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языка как средство убежд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По мнению Е.И. Шейгал, политический язык - «это язык, используемый в манипулятивных целях». [7, с. 21]

Понятие «дискурс»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политологии с середины прошлого века. Среди причин его приста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как минимум, следующие:

1) Внутренние потребност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теории, которая исследует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е област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языковой системы, зачастую «примат речи» становится главной темой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языка;

2) изуч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мысли и ее отношения к политическому поведению,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строения прогностических моделей в политологии, разработка методов анализа политических текс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СМИ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возникающих тенденций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сознании;

3) общественный строй - попытка освободить политическое общение от манипуляций и тем самым предотвратить обман людей [8, с. 254]

Как мы говорили выше, основной функцией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является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людей, формирование у них прави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общественным явлениям;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этого назнач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используются различные частотные языковые обороты, устойчивые языковые средства,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упрощают восприят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речи.

Благодар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информативной и воздействующей функций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происходят поиски новых, необычных вырази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которые нередко реализуются путём заимствований.

Вы когда-нибудь слышали слов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торые звучат так же, как и в английском? Такие слова мы можем встретить во всех сферах, где политическая сфера не является исключением.

Заимствование всегда являлось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вопросов теории языкового заимствования,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определений в языкознании к данному термину. Впервые в 1875 году в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И.А. Бодуэна де Куртенэ объяснил пробле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языков.[9, с. 35-44] Далее, XIX - начала XX в. ученые стали уделять знач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поискам подходящей терминологии для описания процесса перехода слов из одного языка в другой, Г. Шухард предложил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рмин «смешение языков»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данного периода заимствование рассматривалось как перемещение слов, или перемещение слов и отде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слова из одного языка в друг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ермин «заимствование» стало употребляться большинством ученых того времени [10, с. 208].

Также, в 20 веке был предложен ещё один термин – «взаимное слияние языков» [11, с.60-74]. Следуя этому,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термин «заимствование» многозначен.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заимствование трактовалось как перемещение слов из одного языка в другой, происходящее в неразделимой связи с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ью и разными культурными явлениями [12, с. 149]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некоторые лингвисты разделяют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е процессы, такие как заимствование и калькирование [13, с. 288]

В то же время, термин «заимствование» объясняется как иноязычное слово, не только перешедшее, но и полностью усвоенное заимствующим языком. Ю.С. Сорокин указывал, что процесс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слов является процессом двусторонним. Это не только обычная передача готовых элементов одним языком в словарный запас другого языка. Это к тому же процесс их освоения системой данного языка, их приспособления к его собственным потребностям, их модификации – формального и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 в условиях иной системы. Именно о процесс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 если это тольк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акт усвоения и приспособления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а не механического перенесения в иную речевую стихию некоей совокуп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х слов, –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процесс по преимуществу творческий, активный, предполагающий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самобытности усваивающего языка,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его развития» [14, с. 565] Л.П. Крысин определяет заимствование как «процесс перемещения различных элементов из одного языка в другой». Авторы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ого словаря»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такого же объяснения [15, с. 682]

Словарный соста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елится на три категории – это исконно-корейские слова (고유어), китайско-корейские слова (한자어) и заимствования (외래어). Слова из этих категорий разнятся не только по происхождению, но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формами, а также способами и правилами употребления [16, 253]

Количество слов,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из английского и широко употребляемых носителями языка, очень велико. По данным Большого Стандартного Словар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표준국어대사전), на 24,019 иностранны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приходится 21,492 англоязычны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после китайского, английский – язык, оказывающий на корейский самое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17, с. 715]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лия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величило число англо-американск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есные связи Южной Кореи с США, обязательное преподава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в школах и университетах Кореи, миллионн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Америке, возросший авторитет английского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языка – всё это по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этому.

Первое интенсивное знакомство с американ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языком произошло с прибытием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лдат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нглийские слова, такие как 'bar', 'restaurant' и 'tailor', стали знакомы для корейцев еще в то время, эти слова стали как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английск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ще одн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е двух языков произошло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г.), когд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вейшие во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а также слова для их описания – например, 'tank', 'rocket', и 'missile' [18].

Кроме того, 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был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ыстроразвивающихся в мире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и это, наряду с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темпом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торое произошло в результате массового проникновения Запа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основном из США.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причин относительно внезапного появления тысяч английск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ероятно, заключалась в том, что слова, введенные вместе с н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 идеями, «настолько тесно связаны с объектом или концепцией, что принятие вещи обозначало принятие так же и слова [19].

Несомненно, еще одной причиной заимств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сокий статус и престиж [20]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предметом в корейских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школах, а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популярным предметом изуч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и частных школах или институтах. Кроме того,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теперь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учиться за границей -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учатся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егло говорят по-английски. Наконец, Такаши [21, с. 327-341]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по которой английски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являются обычным явлением в японском языке,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они, «передают современность и изощренность обсуждаемого предмета» и, вероятно, данное высказыванием так 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и про английски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определенных областях и для определенных носителей. Англо-американизмы присутствуют в лексиконе любой сферы жизни корейцев: экономики, науки, культуры, политики, искусства и повседневного быта.

Среди основных причин мы так же должны отметить отсутств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онятия в когнитивной базе языка-рецептора.

Согласно высказыванию М.А. Брейтера, около 15% новейших англицизмов заимствуются в связи с отсутств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наименования в языке-рецепторе.

Англо-американизмы присутствуют в лексиконе любой сферы жизни корейцев: экономики, науки, культуры, политики, искусства и повседневного быта. Особенно много заимствований в терминологии, что, впрочем, применимо практически к любому языку. Например,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одежда и мода: dress (платье) – 드레스, necktie (галстук) – 넥타이, blouse (блузка) – 블라우즈, coat (пальто) – 코트 и т. д.;

еда: ice cream (мороженое) – 아이스크림, cake (торт) – 케이크, pizza (пицца) – 피자, spoon (ложка) – 스푼, fork (вилка) – 포크 и т.д.; электроника и бытовая техника: television (телевизор) – 텔레비전, computer (компьютер) – 컴퓨터, software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 소프트웨어, system (система) – 시스템 и т.д.;

автомобиль и комплектующие: taxi (такси) – 택시, tire (автошина) – 타이어, battery (аккумулятор) – 배터리 и т.д.;

спорт: strike (страйк) – 스트라이크, tennis (теннис) – 테니스, quarterback (квотербек) – 쿼터백, marathon (марафон) – 마라톤 и т.д.; социальная жизнь: news (новости) – 뉴스, report (репортаж, сообщение) – 리포트, symposium (симпозиум) – 심포지엄; красота: помада, крем, тушь и т.д. [22]

Если коротко говорить о причинах англо-американск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то в раз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периодах они различны.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исследованиях ученых, мы выделили несколько важных причин их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з самых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х причин являются языковые и не языковые причины. К языковым причинам можно отнести взаимосвязь с другими культурами, то есть народами. Одной из форм реализации влияния подобных связей является заимствование слова вместе с заимствованием предмета, явления, понятия, качества, действия и т.д. К языковым причинам относи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стремление носителей языка пополнить, углубить и расшир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предмете, детализировать понятия признака посредством разграничения смысловых и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оттенков. Так же причиной служит, как мы уже выше упоминали,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которые привели к неизбежным заимствованиям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е только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о и других языков мира.

Англицизмы в корей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встречаются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нглицизмы имеют альтернативу на переводящем языке, но в силу разных причин в речи используется английская версия.

В самом же корей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чаще встречаются аббревиатуры. Интересным языковым явлением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являются фонетически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аббревиатуры. Отсутствие понятия строчной-прописной, буквы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отсутствие побуквенной аббреви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ивело к тому, что английские аббревиатуры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виде графическ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или фонетически адаптированны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например:

브릭스 – (англ. *BRICS* — сокращение от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ICT –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англ.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에이디비 – ADB –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англ. *Asian Development Bank*); 지디피 – GDP – ВВП (англ. *Gross Domestic Product*). Среди аббревиатур различают:

1) буквенные – аббревиатуры,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х от каждого слова исходного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зято алфавитное название заглавной буквы (지피에스 – GPS, 아이티 – IT, 에스엠에스 – SMS, 피디에이 – PDA);

2) звуковые – аббревиатуры,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х от каждого слова исходного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зят начальный звук (왓 – WAP, 소호 – SOHO, 사스 – SARS);

3) буквенно-звуковые – аббревиатуры, которые содержат в себе как буквенные, так и звуковые аббревиатуры (시디롬 – CDROM, 디램 – DRAM) [23].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же, большая часть аббревиатур это наимен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и стран. На письме они обозначаются в основном корейскими буквами, что приводит к тому, что произношение изменяется. Для переводчика переводящего устно,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проблематичным. Причем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заимствованная аббревиатура чаще всег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полной формы: 유엔 (UN) – 국제연합, 피시 (PC) – 개인용컴퓨터.

Приведем примеры перевода таких аббревиатур.

Пример 1:

Исходный язык:

시 주석은 연설에서 브릭스가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한 목소리로 역량을 발휘해 세계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완비 및 국제 관계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량이자 국제 시스템의 적극적인 건설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4].

Перевод:

В своей реч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и отметил, что в основ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опросах БРИКС единодушно используя свои силы, прилагает усилия для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глоба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Такие усилия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БРИКС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и активным строител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ы.

브릭스 «БРИКС» это звуковая аббревиатура, которая фонетический адаптирован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отрывке так же используются и другие англинизмы как 글로벌 (Global) – мировой, глобальный и 거버넌스 (governance) – «управление», 시스템 (system) – «система». У этих слов так же существует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перевод в переводящем языке 글로벌 – 세계적인 (Глобальный),

지구의 (глобальный, земной), 거버넌스 – 관리 (управление, контроль, заведывание, курирование), 통치 (управление, господство). 시스템 – 체계 (система), 제도 (система, политика), 구조 (система, структура). И в исходящем языке и переводяще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세계 경제 = 글로벌 경제) встречается в одном и том же предложении под подряд два раза. Возможно, спикер не желал допустить тавтологии, и решил использовать другое слово, которое гармонично вписывается и сочетается со словом «экономика». Что касается заимствованного слово 거버넌스 (управление) мы считаем, что это слово относится к варваризм и спикер употреблял его в предложении для стилистического эффекта. Как понять стилистический (эмфатический) эффект? К примеру, название кружка «댄스동아리» привлечёт куда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подростков и молодёжи, чем «춤동아리». Мы так же считаем, что причиной выбора слово 거버넌스 (управление) является сложность семантических рядов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которых слова отличаются тончайшими и часто неуловимыми для говорящих смысловыми и стилистическими нюансам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лова 관리 и 통치 заменяются американским заимствованием 거버넌스, которое по-видимому, имеет более общую широкую семантику, позволяющая им заменять ряд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х синонимов или синонимов кита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ример 2: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전통적 지혜(conventional wisdom)와 새로운 아이디어(new idea)가 어우러져 창의적 대안을 발굴하는 멋진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5].

Перевод:

Сегодня и завтра в течении двух дней объединив традиционные мудрые переговоры и новые идей, я надеюсь, что мы проведем замечательные и креативные дебаты.

«아이디어» – «idea», использовано в значении «иде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с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слова, имеющие смысл «идея» – это и 생각 (идея, дума, мысль), и 의도 (идея, план, замысел), и 사상 (идея, мысль, мышление), и 이념 (идея, мысль). Как и в предыдущем примере мы считаем спикер решил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речи англинизм с целью обеспечения стилистического (эмфатического) эффекта.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еще один интересный пример. Заимствования, которые в силу некоторых причин (легче произносятся, короче, прозрачнее по своей этимологии, конкретнее

по семантике) вытеснили (частично или полностью) ранее освоенные или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е слова, например, 키 вместо 열쇠 – оба понятия обозначают «ключ», первое является широко употребляемым заимствованием, второе – исконно-корейским словом.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больш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слово 아이디어 (идея) нежели его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й вариант.

Пример 3:

다가올 4 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서 무선인터넷망 접근성 높이기, 사물인터넷망, 스마트 고속도로 등 새로운 ICT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시아가 더 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

Перевод:

В ответ на эпоху четве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построить новы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КТ, такие как доступность беспроводного Интернета, Интернета вещей и умного шосс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зия смож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еще больший рост.

В данном примере поднят идут сразу два заимствования это аббревиатура ICT -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англ.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и сокращенное заимствование 인프라 –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infrastructure). Так как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ного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английских аббревиатур, у переводчика (устного) не остается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заучивать их значение сразу на трех языках. Это и на исходящем, на переводящем и конечно же, 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Что касается слово 인프라 –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infrastructure), то оно то же имеет вариант на исходящем языке «기반시설». Мы считаем, что причин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заимствованное слово 인프라 похожи на предыдущие примеры. Это значит, что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й вариант этого слова «проиграл» в конкуренции с заимствованием. А так же силу некоторых причин (легче произносятся, короче, прозрачнее по своей этимологии, конкретнее по семантике) вытеснил (частично или полностью) корейскую версию этого значения. В нашем случае слово «기반시설».

В корей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аббревиатуры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меют аналог, однако, в свете разных причин используется именно английская версия. В основном причина кроется в том, что глобализация полностью коснулась и сферу технологии. Так что, имея аналог аббревиатуры ICT «정보통신기술»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литик предпочтет именно английскую

версию. Это кас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именно этой аббревиатуры, н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основную часть аббревиатур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Так что, переводчику не остается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знать на зубок английские аббревиатуры.

В корейском же языке слова сокращаются на уровне понятия. Если в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 других языках аббревиация происходит побуквенно, 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н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уровне понятия или можно еще сказать на слоговом уровне. То есть слова сокращаются на том этапе, где смысл слова может сохраниться, а само слово можно будет поделить по слогам. Так например возьмем так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как 국교 –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 관계)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Или названия стран или высше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한-일 – (한국 – 일본) – Корея и Япония, 한-미 – (한국 – 미국) – Америка и Корея, 한-노 – (한국 – 러시아) – Корея и Россия, 한국외국어대학교 – (외대) – Ханкук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ое-что сразу же заметно в списках выше, это то, что почти все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слова являются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и. Фактически,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английск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являются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и.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Языкознание. Большо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гл. ред. Ярцева В.Н. – 2-е изд. – Москв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8. 685 с (136-137)
2. Карасик В.И. Языковой круг: личность, концепты, дискурс. – Волгоград: Перемена, 2002. 477с
3. Чернявская В.Е. Лингвистика текста. Лингвистика дискурса. – 2-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Флинта, 2014 – 208
4. Brown, G. & Yule, G.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ess
5. Lyons, J. (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Макарова М.М. Основы теории дискурса. –М.: Гнозис, 2003, 280 стр.
7. Шейгал Е.И. Семиотик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 М.: ИТДКГ «Гнозис», 2004
8. Баранов А.Н. Введение в прикладную лингвистику: Ученое пособие. – М.: Эдиториал УРСС, 2001. 360с.
9.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И.А.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по общему языкознанию: В 2 т. [Текст]/ И. А.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 М.: Изд-во Акад. наук СССР, 1963. – Т.1. С.35-44.
10. Крысин Л.П. Иноязычные слов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екст] / Л.П. Крысин. – М., 1968. 208с.
11. Щерба Л.В. О понятии смешения языков [Текст]/ Щерба Л.В. Языковая система и рече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 Л., 1974. С. 60-74.
12. Лотте Д.С. Вопросы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 упорядочения иноязычных терминов и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х элементов. [Текст]/ Д.С. Лотте – М., 1982. 149 с.
13. Ефремов Л.П. Сущность лексического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 основные признаки освоения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Дисс.канд. филол. наук. [Текст]/ Л.П. Евфремов. – Алма-Ата, 1958. 288 с.
14. Сорокин Ю.С. Развитие словарного состава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в 30-90 гг. XIX века [Текст]/ Ю.С. Сорокин. – Л.: Наука, 1965. 565 с.
15.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Текст] / под.ред. В.Н. Ярцева. – М.: Сов.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682 с.
16. Куротченко, К.Б.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Текст] : учеб.пособие / К. Б. Куротченко, Н.В. Леонов, Ю. И. Швецов. – М., 2005. 253 с.].
17. 정호승.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 교육 교재 [본문] / 정호승. –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4. 715 p.
18. Park, C.K. (1983). A handbook for teaching Korean-speaking students. Los Angele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valuation, Dissemination and Assessment Center.)
19. Baugh, A. & Cable, T. (1978).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20. Allan, K. (1986). Linguistic meaning: Vol. one.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21. Takashi, K. (1991).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English borrowings in Japanese advertising texts. World Englishes, 9, 327-341.
22. <http://refleader.ru/jgepolmerrnaujg.html>
23. 정호승. 국외한국어교사초청교육교재 [본문] / 정호승. –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4. 715 p.
24. <http://kr.people.com.cn/n/2014/0717/c203278-8757036.html>
25. http://www.mofa.go.kr/www/brd/m_20142/view.do?seq=3025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6.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6>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лия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едпосылок и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рмонова А.Т.

БГУ им.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посылки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Поставленная задача поможет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интересы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повлияли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Определ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едпосылок и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ыргыз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позволит лучше понять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кыргыз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сле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1948 г. её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было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Это задача стала ос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или «Севе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конце 1980-х гг. Политик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другим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на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раздел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езультатам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еве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тали значимые результаты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Южной Кореи.

Дальнейшее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и поиск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в ре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повлияло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том числе, и с Кыргызстаном. Кроме этого, немаловажной причиной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тало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ыргызстан обрел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1991 г. и избрал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путь развития. Определились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основой которой стал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ценности.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начала проводить открыт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Задачи молод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такие как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разрешен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определили цели и задачи 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целей было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страну. В силу этих причин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Кыргызстан начал проводить многовекторн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и молод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ли как соседние, так и западные и восточные стран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восточ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дной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стран стал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влекала Кыргызстан схожестью культуры и менталитета, моделью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проживание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Кыргызстан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целью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о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тан же, в основном, был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Кыргызстане стал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ичин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и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в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В данное время предпосылки и интересы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ются одними из гла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х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существляет «Новую Северную политику», поэтому, Кыргызстан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будет вызывать больший интерес.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ыргызстан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акже играет приоритетную роль, и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расшир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меются предпосылк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что является стимулом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в улучшении и укреплении все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с Южной Кореей.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едпосылки,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Title: The Kyrgyz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Influence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Objectives in Foreign Policy i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Author: Ormonova A.T.,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named after K. Karasaev, Kyrgyz Republic

Abstract: In this article are discussed goal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Kyrgyz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for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pointed task will help to analyze the interests of two countries that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Defin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goals in the foreign policy of Kyrgyzstan and South Korea in establishing relations will allow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Kyrgyz-South Korean cooperation.

After the formation of South Korea in 1948, its main goal in foreign policy was to ensur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nite the two Korean states. This task was the basis of the «Northern Policy» (or «Northern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late 1980s. The policy was aimed at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other socialist countries, at settling the Korean issue, and ultimately, uniting two divided stat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ern diplomacy» was a significant result in the foreign policy of South Korea.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Northern policy» and the search for the like-minded country in solving the Korean issue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cluding Kyrgyzstan. In addition, a reason for establishing relations was the presence of the Korean diaspora in Kyrgyzstan.

In turn, Kyrgyzstan gained independence in 1991 and chose a democratic path of development. The goals and objectives of foreign policy were defined, the basis of which became democratic values. The Kyrgyz Republic has begun to pursue an open foreign policy. The tasks in the domestic policy that the young state had, such as strengthening the economy, resolving territorial issues with neighboring states, ensuring security in the region, defined goals and objectives in foreign policy. One of the main goals wa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to the country. For these reasons and geopolitical location, Kyrgyzstan began to pursue a multi-vector foreign policy.

The main directions of the international policy of the young state were neighboring also western and eastern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one of the priority countries in cooperation with the eastern countries. South Korea attracted Kyrgyzstan with some similarities in culture and mentality, economic development model and the Korean diaspora in Kyrgyzstan.

Thus, the goal of establishing relations from South Korea's side was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ern Policy. Kyrgyzstan, basically, was interested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diaspora in Kyrgyzstan has become an additional reason for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s also a connecting bridge in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At this time, the background and interests of the two states that were in establishing relations are still one of the main directions of their foreign poli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ing the «New Northern Policy», therefore, Kyrgyzstan will be of greater interest to South Korea. In the foreign policy of Kyrgyzstan, Korea also plays a priority role and the Kyrgyz Republic is interested in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re are prerequisit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which is an incentive for Kyrgyzstan to improve and strengthen comprehensive ties with South Korea.

Keywords: the Kyrgyz Republic, Republic of Korea, establishing relations, historical background, objectives in foreign policy, bilateral relations

Официальн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31 января 1992 г.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чают в сфере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к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восточ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тана.

Целью данной статьи является определение влияния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едпосылок и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ыргыз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пределение взаимных интересов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позволит лучше понять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и будущие перспектив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едпосылки с момента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аждой из стран и до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сделаны попытк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тода и сравнительных методов анализа. Исторический метод позволит понять возникнов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двух стран. Сравнительный метод позволит выявить схожести и отличия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едпосылок, интересы обеих сторон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целей, поставленных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сначала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Значение, осуществление, итоги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 глав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влияни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Кыргызстаном.

Затем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также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Кыргызстана после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основные цели, интере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Кыргызстане. Будут сравниваться интересы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Кыргыз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Северная полит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явились д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 разной идеологией и разны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истемами: КНДР с идеями социализм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 идеями демократии (Южная Корея). После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 1948 г. и до сегодняшних дней основная цель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это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Именно они позже стали ос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Политик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ачалось с 1948 г. во времена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Ли Синг Мана [1, p.32]. С началом 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Чонг Хи стало уделяться внимание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2, p.129]. А сам термин «Северная политика» был сформулирован во времена 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Чон Ду Хвана (1980-1988). Впервые термин «Северная политика» использовал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и Пом Сок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 страна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он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ССР и Китаем и также важна для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Южной Коре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2, p.130].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еверная полит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ремена президентства Чон Ду Хван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Китай и СССР.

Следующий президент Ро Дэ У в конце 1980-х гг. расширил значени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Он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также и на други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страны. Это политика стала также называться «Северной дипломатией» [3, p.197], и стала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о время президентства Ро Дэ У. С расширением охвата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её воздействие стало расширяться и в круг её интересов были вовлечены все страны 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было обозначено в Декларации от 7 июля 1988 г. В пяти пунктах Декларации говорилось о политик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в одном пункте были упомянуты меры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4, p.12].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еверная политика», или «Северная дипломатия» это поли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ыми странами 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Целью её было при помощи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установить мир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 также улучши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конечная цель -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акже одной немаловажной целью было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 стороны стран 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5].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раздел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али

официа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Южной Кореи в конце 80-х гг.

Южная Корея достигла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пехов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В ходе этой политики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начиная со стран Европы, а такж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определенные успех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с СССР и Китаем. Так, в 1989 г.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отношения с тремя европейскими странами: Венгрией, Польшей, Югославией. В 1990 г. установились связи с Болгарией, Чехословакией, Румынией, Монголией. 30 сентября 1990 г.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связи с СССР; 24 августа 1992 г. - с Китаем, и в этом же году установились связи с Вьетнамом [3, pp.198-199].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ходе проведения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ая Корея установила отношения с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Как итог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этими странами привело к огромным успехам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Южной Кореи. Установление связей с СССР и Китаем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йти в ООН. И в 1991 г. обе ст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шли в состав ООН [1, p.40].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средством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ышел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Также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установления связей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ах с Южной Кореей [6, p. 7].

Такие успехи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не случайно. Были две причины успешног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7, pp.150-152]:

1. **Внутренние причины.** Проведение в 1988 г.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Сеул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Южной Кореи. Участие стран 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в 24-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Сеуле,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е страны, стало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успешности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С ростом экономики Южной Коре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страны бы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Южной Кореей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2. **К внешнему фактору** относится то, чт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страны в то время проводили открытую политику.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это была политика М. Горбачева «перестройка» и «гласность». Также в Китае с 1978 г. проводилась открытая политика.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влияния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государств поддержала Южную Корею в разре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и в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становила отношения с бывшими странам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8], в том числе и с Кыргызстаном. Наличие здесь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тало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стало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Южная Корея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призн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Кыргызстана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установились в 1992 г. В это же время поч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установилис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с осталь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аблица 1.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Кыргызстан
Да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28 января, 1992 г.	29 января, 1992 г.	31 января, 1992 г.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уркменистан	Таджикистан	
Да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7 февраля, 1992 г.	27 апреля, 1992 г.	

В данное врем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водит «Новую Северную политик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разреш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и улучш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о странами Евразии. В регион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ходят страны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 также регионы вплоть до Северной Евразии, куда также входят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вая Северная политика» имеет две цели: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утвержд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ие новых стиму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закладывание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х осн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9]. «Новая Северная политик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лучш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о странами Евразии. Цель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Южной Кореи осталась такой же. Но, она более расширилась.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будет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е на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я с Кыргызстаном [10].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первые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едпосылки были у Кыргызстана. 31 августа 1991 г.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приняла Декларацию о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ыргызстан был провозглашен «независимой, сувере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и принцип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акже в Декларации Кыргызстан призвал признать его независимость [11]. Первы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изнали Турция (24 декабря 1991 г.), Австралия (26 декабря, 1991 г.), США (27 декабря 1991 г.), и с этими странами установилис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Такж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призн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зн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Кыргызстана в 1991 г. 30 декабря [12]. В 1992 г. Кыргызстан установил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59 странами. К их числу относятся как страны Запада, так и страны Востока: Швейцария,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Канада, Китай, Япония, Пакистан, Иран и т.д. [13, с.16]. С Южной Корее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31 января 1992 г.

В первые годы, а также в первые месяц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только обозначались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 то же время у Кыргызстана были две главные задачи [14, с.141]:

1. Выход на мировую арену,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в экономику;
2.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и укреп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оседними странами, разрешен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Эти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были связаны с проблемам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с внутренними причинами. После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в стране было тяжелым. Приостановилис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с союзными республиками, были закрыты более 50 % предприятий и в стране преобладали инфляция и безработица. Хотя принимались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для решения этих проблем, такие как

приватизация. Поэтому, как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так 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главной целью было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Решение, которой виделось через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связи с Всемирным Банком, МВФ, и через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страну [15, с.272].

Кром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целей одной из задач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ыргызстана было разрешен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Для решения этих проблем было обозначен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амках СНГ, ОЭС, ОБСЕ, ОИК, а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лос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о странами Востока,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Европы, Запада [15, с.272].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Кыргызстан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осуществления была многовекторной.

В восточ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иоритетным был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это были, прежде вс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нтересы. Кроме того, схожесть культур и менталитета, корейский путь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Кыргызстане также ста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причинами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Южной Кореей [16].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это страна остается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одной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ыргызстан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расширении отношени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частности, в улучшении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вит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туризма [10].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Кыргызстане

Появление корейцев в Кыргызстане связано с миграцие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и с их переселение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орейцы начали переселяться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 Самое большое пересел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тало трагическим. В преддвер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ью в 1937 г. вс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ыло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селено в Узбекистан и Казахстан.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корейцев стало переселяться в Кыргызстан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азахстана, начиная с 1953 г.

Возможность изучения корейцами свое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традиций 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вязей с Кореей появились в конце 80-х гг. Начал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приходится на конец 1980-х г. В 1989 г. была создана ассоциация «Чинсон», которая имела цели возро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установление связе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17]. После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е наблюдалось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з Кыргызстана. Наоборот, переезжали в Кыргызстан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Таджикистана [18, р.13]. Сейчас в Кыргызстан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17 000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ыргызст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в укреп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Кыргыз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Таблица 2.

Предпосылк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и интерес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Кыргыз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i>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i>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в экономику; Схожесть менталитета и культур; Корейская «модель успеха»;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i>Раздел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i>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У Кыргыз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и разные предпосылки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и разные интерес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это был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нтересы.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 политические.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для обеих стран стало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Заключе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Кыргызстан 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ошли разные пути стано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интересы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также были разными. Истор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дали толчок в становление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 случае с Южной Кореей, раздел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пределили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1948 г. главной целью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В ходе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еве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установилис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обеспечив тем самым безопасность с их стороны. Южная Корея вошла в ООН,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ышел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Для реш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для последующег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после разв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Южная Корея установил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бывшими советскими странами. Практически одновременно установились отношения со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с Кыргызстаном у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и прежде вс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тересы.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стало и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1991 г. после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ыргызстан избрал пу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ов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едпосылки и задач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обозначили ее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переходном период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вопросы и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означили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зарубеж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было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а осуществляла многовекторн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охватывая страны Запада, так и на страны Восток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восточными странами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одной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стран.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Южной Кореей было интересно с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влекали также сходство менталитета, культуры, получения опыта корейск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Кыргызстана был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нтересы, а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та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ичиной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Южной Кореей.

Эти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двух стран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не изменились. Южная Корея осуществляет «Новую Северную политик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Евраз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Южной Кореей до сих пор остается приоритетной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Имеются предпосылк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что является стимулом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в улучшении и укреплении все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с Южной Кореей.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임현진, 정영철. 21 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366 p.
2. Цит. по: Koh B.C. 1989. Seoul's "Northern Policy" and Korean Security //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 no. 1. (Summer).
3.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한국학술정보, 2008. 513 p.
4. Цит. по: International Cultural Society of Korea (ICSK). 1988.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November). P.12.
5. 북방외교(北方外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460>
6.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Working Paper. No.2010-11.
7. Tae Dong Chung. Korea's Nord Politic: Achievements and Prospects // Asian Perspective. Vol.15. No.2 (Fall-Winter 1991), pp.149-178.
8. Facts about Korea. Seoul, 2013. p.264.
9. Задачи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 Export.by.
https://export.by/programme_approach
10.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осла Динары Кемеловой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ом Ли Тэ Хо // МИД КР.
<https://mfa.gov.kg/ru/osnovnoe-menyu/press-sluzhba/novosti/sostoyalas-vstrecha-posla-dinary-kemelovoy-s-zamestitelem-ministra-inostrannyh-del-respubliki-koreya-gospodinom-li-te-ho>
11.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көз карандысыздыгы жөнүндө Декларация = Декларац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Кыргыз Туусу. – 1991. - 10 сент. – 1 б.
12. 키르기즈 개황. 외교통상부. 2009.12. P.46
13. Токтомушев К. А.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независимого Кыргызстана. – Б.: Сабыр, 2001. – 192 с.
14. Айдаркул, Каа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кыргызов и Кыргызстан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Бишкек, 2002. - 352 с.
15. Жумалы Р. Б. Геополитика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Алматы, 2006. - 515 с.
16. Кыргызстан -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орите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пределены // Слово Кыргызстана. - 1992. - 29 января. - С.1
17. По материалам ООККР
18.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실태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2012.12.20. 40 p.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

백태현

키르기즈 한국대
세리쿨로바 미나라
중앙아시아 한국대

개요: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학습자가 한국어나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선택 요인은 바로 학습자의 ‘현실적 필요성’이다. 다양한 부류의 학습자가 한국어나 한국학을 선택하기까지는 본인의 현실적 필요성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에 크게 일고 있는 한류의 영향 및 한국의 국가적 위상, 향후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뢰 등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상에 맞추어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현장에서 요청되고 있는 현실적 과제 중의 하나는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주요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관광분야와 한국학의 접목 방안이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장산업 중의 하나이다. 에너지산업, 방위산업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국가 발전 및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주민의 소득과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며, 고유한 문화유산 및 자연을 보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부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빼어난 자연환경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자원과 역사적 깊이를 간직한 무한한 유형, 무형의 노마드 문화관광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같은 생태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키르기스스탄의 현 상황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도로, 항공, 숙박 등 관광 인프라의 부족과 관광산업 종사자의 비전문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관광산업의 현실과 비슷하게 키르기스스탄의 전반적인 한국학 수준은 아직도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교육 및 연구 분야 모두 그렇다. 현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학의 발전적인 한국학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의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정착이라는 과제의 목표는 그 양적인 발전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에 과감히 그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본고는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분야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일 방안으로서뿐만 아니라 양 분야의 발전적인 융합 방안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연계한 키르기스스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관광자원과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갈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방향에서 요구되고 있는 의료관광, 산악트레킹, 노마드체험관광과 전문 통역, 관광 서비스분야 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육성해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분야이다.

Abstract: In Central Asia, including Kyrgyzstan, there are many reasons and purposes for learners to choose Korean or Korean Studies as major,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real need' of learner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types of learners will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choice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as well as their real necessity,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that has been widespread in the Central Asian region, the national status of Korea, and the trust of Korea in the future.

In keeping with these changes, one of the practical tasks that are being requested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is the integration of Korean Studies with the field of tourism that is growing into a major national industry in Kyrgyzstan.

Today, tourism is one of the largest growth industries in the world.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energy industry or the defense industry. These tourism industr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increase income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f residents, and contribute to preservation of unique cultural heritage and nature. Kyrgyzstan is located in the heart of Central Asia Silk Road. Kyrgyzstan is a report of infinite tangible and intangible Nomad cultural tourism resources that have a nature-friendly ecotourism resource and historical depth, which is called "Switzerland of Central Asia". The tourism industry in Kyrgyzstan, which possesses such Eco-culture tourism resources, is highly likely to develop.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tourism industry is not well established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lack of tourism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irplanes, and accommo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non-expertise of the tourism industry workers.

Similar to the reality of Kyrgyzstan's tourism industry, Kyrgyzstan's overall level of Korean Studies is still at a nascent stage. It is all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nd education. I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to prepare the Kyrgyz University's progressive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Nevertheless, the goal of the establishment of Kyrgyzstan's 'Korean studies as a regional science' has become a time to focus on qualitative development, not quantitative development.

This presentation is an attempt not only to provide practical limitations of Kyrgyzstan's Korean studies and tourism industry but also to develop a convergence plan in both fields. First, there is a need to rediscover the unique ecotourism resourc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resources that Kyrgyzstan has in connection with Kyrgyzstan's Korean studies. In addition, it is a realistic requirement to nurture specialists required for medical tourism, mountain trekking, Nomad experience tourism, professional interpreter, and tourism service, which are required both in Korea and Kyrgyzstan.

1. 머리말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실크로드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는 근대를 전후로 하여 구소련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한 이후에 더 굳게 닫혀 버렸다. 이 같은 단절의 시기에 실크로드는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역사적 질곡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실크로드는 다시 열렸다. 비로소 실크로드 본연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는 이제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¹

오늘날 관광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장산업 중의 하나이다. 에너지산업, 방위산업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국가 발전 및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주민의 소득과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며, 고유한 문화유산 및 자연을 보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부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빼어난 자연환경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자원과 역사적 깊이를 간직한 무한한 유형, 무형의 노마드 문화관광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생태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키르기스스탄의 현 상황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도로, 항공, 숙박 등 관광 인프라의 부족과 관광산업 종사자의 비전문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관광산업의 현실과 비슷하게 키르기스스탄의 전반적인 한국학 수준도 아직은 초보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교육 및 연구 분야 모두 그렇다. 현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구소련시기 이후 오랫동안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학의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한국학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의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정착이라는 과제의 목표는 등한히 할 수가 없다.

본 글은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분야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일 방안으로서뿐만 아니라 양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계 및 융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먼저 키르기스

¹ 백태현(2014), 「실크로드의 재발견: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스탄의 한국학과 연계한 키르기스스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관광 자원과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갈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방향에서 요구되고 있는 의료관광, 산악트레킹, 노마드체험관광 분야의 활성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 통역, 관광 서비스분야 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육성해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분야이다.

2. 키르기스스탄의 관광산업의 문제점과 과제²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앙에 위치한 작은 국가이다. 그렇지만 키르기스스탄은 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자원개발, 관광, 수력 발전, 농업, 유목, 금융 등의 산업이 유망 시 되는 나라이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의 발전 전망은 밝다. 2013년 USAID Local Development Program 으로 진행된 “Survey of tourism market in Kyrgyzstan” 보고서의 다양한 분석이 이를 말해준다³.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향후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 기존 인프라의 문제점을 개선한 관광 인프라의 확충 방안, 각종 관광서비스업에 대한 질적인 개선, 관광 홍보시스템의 구축, 관광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구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을 내어 놓은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그 중의 하나로 불편한 항공편과 고가의 항공료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근래 ‘키르기스스탄항공’이 터키의 저가항공사인 ‘페가수스항공’과 제휴하고, 키르기스스탄과 UAE 사이에 ‘오픈(sky)’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유럽과 터키, 중동 지역 관광객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광객의 경우, 아직까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인접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여 입국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키 양국의 관광교류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직항로 개설된다면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중요한 관광명소인 이식쿨 호수 인근에 있는 공항시설 확장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이 공항이 현대화 된다면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² 백태현(2018), 「키르기스스탄 고산지역 생태문화관광 발전방안」, 『국제학술회의: 전통의 자원화와 지역발전 IV, 발표논문집』, 안동대학교, 한국.

³ USAID Local Development Program (2013), “Survey of tourism market in Kyrgyzstan”.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시설 중의 하나는 교통, 도로망이다. 다행히 중국 주도로 수도인 비슈케크와 중국 서부 카슈 지역을 연결하는 옛 실크로드의 초원길이 2014년에 모두 포장되었다. 이 길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로서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 코치코르의 소금광산, 송쿨 호수, 나린의 자연보호 국립공원, 타쉬라밧 등의 관광지 개발에도 직간접의 영향을 주는 연결망이다.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뛰어난 생태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교통,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그 외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관광서비스업의 확충과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수도인 비슈케크의 숙박비는 그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이식쿨 호수 주변의 숙박시설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여름 시즌인 7월과 8월에는 숙박비가 대체로 2배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식쿨 호수 주변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관광자원 접근의 통로 역할을 하는 관광회사의 규모와 자질 향상도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수는 관광회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다. 따라서 관광회사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더불어 전문지식을 갖춘 관광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관광인력을 육성하고 있지만 그 전문성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다양한 관광분야 종사자의 자격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기관 공인의 자격인증제도는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특성상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시스템과 인턴십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 제도적 마련을 위한 절실함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는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관광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구소련의 강인한 구습의 잔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제는 키르기스스탄의 미래의 국운이 달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때이다. 그동안 획기적인 선례를 남긴 적도 있다. 2012년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CIS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 국민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매우 고무적인 시책이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연간 1인당 GDP가 미화 7,000불을 초과하는 44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키르기스스탄에 여행을 목적으로 온 관광객만 무비자로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물론 키르기스스탄에 여행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향후 장기체류를 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한 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무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 비자 면제 조치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으로 입국하는 CIS 지역 관광객의 수가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의 경우

도 키르기스스탄 입국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되었고, 최근 인접국인 카자흐스탄의 비자면제 조치와 러시아의 비자면제 조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비자면제 조치로 인해 최근 CIS 지역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관광객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로 CIS 지역 국민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2002 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CIS 지역 국민은 80,500 명 이었고, 그 외 지역 외국인 방문객은 59,100 명이였다. 방문한 CIS 국민은 카자흐스탄이 63%, 러시아가 18%, 우즈베키스탄이 11%, 기타 6%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 외국인 방문객은 미국 17%, 중국 13%, 독일 12%, 터키 10%, 프랑스 8%, 영국 5%, 한국·인도·스페인 각 3%, 일본·스위스 각 2%, 기타 22%였다.⁴

2012 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2,406,000 명, 2013 년에 3,076,000 명, 2014 년에 2,849,400 명, 2015 년에 3,050,600 명, 2016 년에 2,930,200 명이였다. 그리고 2016 년에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외국인 국적별 비율은 카자흐스탄 60%, 러시아 14.7%, 타지키스탄 5.8%, 우크라이나 4.8%, 터기 1.3%, 중국 1.2%였다. 한편 2012~2016 년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2012 년 5,700 명, 2013 년 3,700 명, 2014 년 10,500 명, 2015 년 7,000 명, 2016 년 10,300 명이였다.⁵

그런데 근래 키르기스스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럽과 미국, 중국, 터키,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관광 시즌은 6 월부터 9 월까지로 여름 휴양 시즌에 집중된다. 최근에는 이식쿨 호수 남쪽의 카라콜 스키장이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 등지에 알려지면서 겨울 시즌 관광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휴양지는 역시 이식쿨 호수와 그 주변이다. 이 같은 관광 형태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근래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천산산맥 주변의 에코관광, 실크로드 역사문화 탐방, 유목문화 체험, 치료 관광 등 그 형태가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래지향적인 에코관광 상품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⁴ Дудашили С.Д., Туристские ресурсы Кыргызстана - Бишкек: раритет Инфо, 2004, стр. 26~28.

⁵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6), ТУРИЗМ В КЫРГЫЗСТАНЕ(2012~2016), стр. 33~34.

3.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⁶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전개된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문 교육기관인 대학의 한국어(학)과와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행해지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이 아닌 일반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이다. 대학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의 주체는 현지의 해당 대학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주체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일반 한국어 교육기관으로는 한국정부에서 설립한 한국교육원과 세종학당, 한국센터가 있고, 그리고 현지의 쉬꼴라(초중고등학교)와 사설 한국어교육센터 등이 있다.

대학은 크게 한국어(학) 전공 대학과 비전공 대학으로 나누었고, 수도인 비쉬켅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및 한국학이 개설된 대학으로는 학제에 따라 종합대학교(University), 아카데미(Academy: 특성화 대학), 단과대학(Institute), 칼리지(College, 한국의 전문대학에 비견)로 구분이 된다.

⁶ 키르기스스탄의 전반적인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백태현(2017),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2017년도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중·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교육·연구 동향)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백태현(2018),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의 발전방안 발표논문집』,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대학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

번호	전공구분	대학명		개설 년도	학생수(명)			교원수(명)		
					전공	비전공	소계	한국인	현지인	계
1	한국어 (학)과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1991	100	30	130	2	4	6
2		키르기즈 국립대학교		1996	50	30	80	3	1	4
3		오슈 국립대학교 (지방소재)		1999	75	-	75	1	1	2
4		아라바예프 대학교	동양대학 (본교)	1999	90	-	90	6	1	7
5			언어문화대학 (Institute)	2010	25	20	45	2	0	2
6		나린주립대학교 (지방소재)		2006	10	20	30	1	1	2
7		키르기즈 한국대 (College)		2012	250	600	850	8	5	13
8		중앙아시아 한국 대학(Institute)		2017	48	9	57	2	5	7
9	비전공 (제 2 외국어)	아라바예프 경제경영대		1999	-	30	30	1	0	1
10		슬라비안스키 대학교		1999	-	32	32	-	2	2
11		법률아카데미		2006	-	30	30	2	-	2
12		오슈기술대 (지방소재)		2008	-	102	102	3	1	3
13		국제 슬라비안스키대		2012	-	10	10	1	1	2
14		농업대학교		2016	-	45	45	2	-	1
15		건축대학교		2016	-	25	25	1	-	1
16		이식쿨 국립대 (지방소재)		2016	-	22	22	2	-	2
17		케인대(지방소재)		2016	-	25	25	2		3
18		키르기즈 국제대		2016	-	40	40	2	1	3
합 계					653	1,070	1,723	41	23	64

위의 현황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9 년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8 개 대학에 한국어과나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10 개의 대학에서 제 2 외국어나 부전공, 기타 교양과목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전공

대학의 경우, 아직까지는 한국어 중심의 교과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구소련시기 이래 지역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육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올바른 한국학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고학년 때부터 다양한 한국학 강좌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부전공 혹은 제 2 외국어로 한국어 개설된 대학의 경우는 1999 년부터 2016 년에 이르기까지 수도권과 지방에 이르는 적정 수준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물론 각 대학별로 대학 당국의 의지나 기타 제반 교육여건에 따라 한국어 교육 수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수의 교수 요원으로 한국어 강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성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제 2 외국어나 부전공, 혹은 교양과목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경우 학점 취득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는 한국어 강좌가 대학의 정규 교과목으로 편제되어 반드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학점 취득과는 관계가 없는 한국어 수강 희망자를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개강 초기 수강생들의 열의와는 달리 시간이 흘러갈수록 출석률이 떨어져 강좌를 끝마칠 시점에는 그 이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사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그럴 필요성도 없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수도권 3~4 개 대학과 지방 거점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학)과를 전문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비록 전공학과는 아닐지라도 대학 당국의 의지나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면 대학 내에 한국어 강좌 개설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단순 한국어 강좌의 보급 및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향후 키르기스스탄 각 대학 내에 동아시아학의 중요 구성요소로서의 한국학이 자리 잡아 가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전문적 교수요원의 부족현상이다. 이 문제는 한국인 교수와 현지인 교수 모두가 해당된다. 특히 상기 현황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키르기즈 현지인 교수의 충원은 계속 담보상태에 놓여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지인 교수의 수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수의 질적인 하향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현지인 교수는 많지가 않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강좌를 담당할 수 있는 현지인 교수는 더더욱 미미한 편이다. 자생력이 허약한 키르기스스탄 현지 대학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우수한 키르기즈 현지인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시스템을 전문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제

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근래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바로 2012년에 개교한 ‘키르기즈 한국대학(Kyrgyz Korean College)’이 거두고 있는 교육성과이다. 키르기즈 한국대학은 중학교(9학년)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고등-전문대 통합과정(3년 과정)’과 고등학교(11학년)을 졸업하고 입학하는 ‘전문대 과정(2년 과정)’의 2트랙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2트랙 모두 한국어과와 한국어통역과가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어과와 한국어통역과를 제외한 타과(7개 학과)의 모든 학생들도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이수하고 있다. 근래 ‘고등-전문대 통합과정’의 한국어과와 한국어통번역과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고등-전문대 통합과정’이 한국의 ‘외국어고등학교’와 비견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한류 열풍’ 등과 맞물려 한국어를 좀 더 이른 시기에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키르기즈 한국대의 ‘고등-전문대 통합과정’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우수한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를 육성하는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키르기즈 한국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의 동일계 학과(한국어과, 한국학과, 관광과)에 상당수 편입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⁷

향후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 및 연구의 환경 내에서 개선해 가야 할 중점 과제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한국학 교육의 체계화 및 다양화: 각 대학의 강좌가 한국어에 치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다양한 한국학 분야에 대한 강좌 개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본 글에서 지향하는 바 한국학 교과과정 내에 한국학과 연계한 관광분야에 대한

나. 한국학교육 및 연구의 전문성 강화: 현 키르기스스탄 각 대학의 교수요원 중에는 한국학 전공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 대학원 과정의 체계적인 한국학교육을 통해 차세대 한국학전문가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다. 한국학 교류의 활성화: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교수협의회 및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학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 진흥에 앞장 설 것이다.

라.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의 진흥: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 및 연구를 선도할 대학 내의 중추적인 기관이 시급하다.

⁷ 키르기스스탄의 교육법제상 ‘컬리지(College)’는 정규 4년제 대학(단과대학 Institute 및 종합대학교 University) 동일계 학과 2학년에 편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과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 표준 한국학 강좌의 개설: 우수 한국학 교수요원의 확보, 연구 역량의 강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한국학 강좌를 개발하여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육성의 토대를 구축한다.

나. 다양한 한국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학교육 환경의 개선, 온라인강좌 개설, 한국학 교재 개발 등을 통해 한국학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다. 다양한 학술활동: 학술대회, 교수세미나, 학술지 발간, 한국학 올림피아드, 대학생/대학원생 학술발표회 등 한국학 학술행사를 통해 전반적인 한국학의 연구 역량을 제고 시킨다.

라. 한국학 교류의 활성화: 해외한국학계와의 교류,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연구자 D/B 구축,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연구자 간의 한국학 교류를 활성화한다.

마. 핵심대학 내의 한국학센터의 설립: 학과와 연계한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중심축 역할, 온라인강의실, 한국학자료실,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 진흥을 선도한다.

4. 맺음말: 한국학과 관광산업과의 연계 방안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은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진행된 대학교육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기타 일반교육기관에서 진행된 기초한국어교육 중심의 메카니즘은 현실적으로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의 질적인 발전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한국학을 진흥시키고 확산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부분은 대학의 한국학 표준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한국학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그동안 키르기스스탄 여러 대학에서 진행된 한국어 중심의 교육은 한국학의 토대 구축 및 정착에 많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1~2학년 때는 한국어 교육에 주력을 하고, 2학년 때부터 한국학 교과목을 전진 배치하고 3~4학년 때는 보다 심화과정의 한국학 교과목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질적인 한국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차세대 한국학전문가를 육성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지역 한국어 및 한국학 학습자들도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한국학의 여러 분야에 이르기까

지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학 및 한류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키르기스스탄 지역의 한류가 학생들의 한국어 및 한국학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촉진시키고 있다는 단순 사실을 뛰어 넘어, 보다 다양해지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한류의 성과를 ‘한국학’이라는 학문으로 체계화 해 갈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⁸

대학의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야 할 한국학 교과과정은 한국역사, 한국문화, 한국현대사, 한국사회제도, 한국의 정치, 한국의 대외관계 및 대외정책, 한국경제사, 한국문학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현실적으로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관광분야, 한류와 연계된 의료관광분야에 대한 학과목을 정규 한국학 분야에 편입을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학습자가 한국어나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선택 요인은 바로 학습자의 ‘현실적 필요성’이다. 다양한 부류의 학습자가 한국어나 한국학을 선택하기까지에는 본인의 현실적 필요성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에 크게 일고 있는 한류의 영향 및 한국의 국가적 위상, 향후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뢰 등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미래 산업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관광분야에 대한 한국학과 연계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편이다.

2019년 4월 22일 비슈케크 오리온호텔에서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과 키르기스스탄 문화관광부 및 키르기스스탄 여행사협회 공동주최로 ‘한-키르기스 관광분야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의 목적은 포럼 개최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관광분야 투자 가능성과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관광협력을 활성화 하며, 참석한 우리 기업과 키르기스 주요정부기관 및 여행 기업간의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참석자는 한국측에서는 주키르기스공화국 한국대사관 하태역 대사, 한국관광공사 알마티 사무소 성필상 소장, 하나투어, 키르기스스탄 내 한국여행사(루나 여행사, 가자투어, 실크투어, 천산투어, 실크웨이 투어 등) 등이고, 키르기스스탄 측에서는 문화관광부 차관, 투자진흥보호청, 여행사협회 회장이하 회원사 및 관련 학자들이 참석하였다.⁹

키르기스스탄 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키르기스스탄 측 발표자들은 공히 키르기스스탄의 뛰어난 천연자원과 앞으로의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을 역설하고 향후 한국의 투자 및 관심을 촉구하였다. 물론 현 키르기스스탄 관

⁸ 한국학과 한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백태현(2016), 「중앙아시아 한류와 한국학교육의 다양화 방안」,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스탄.

⁹ 주키르기스공화국 한국대사관 제공 자료(2019.04)에 의거.

광 인프라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었다. 한국 측 발표자인 한국관광공사 알마티 사무소 성필상 소장은 늘어나고 있는 의료관광 수요 등 향후 한국으로의 관광을 겨냥한 유명관광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발표에 참가한 키르기스스탄 내 한국여행사들은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참가한 하나투어의 산악트레킹 담당자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2018년 한 해 한국에서 키르기스스탄을 찾은 전체 한국인의 수는 15,000여명이라고 한다. 2019년에는 그 숫자가 더 늘어 날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양방향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직항 노선 개설이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이다. 현재 성수기인 하계 시즌에 한국인 방문객의 수가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항공사의 결정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행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키르기스스탄이 지니고 있는 자연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한국에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공히 지적한다. 이 문제는 일차 키르기스스탄 정부 측에 그 원인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학을 전파하려는 한국 측의 입장에서라도 제고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 즉 그동안 한국학을 전파해 가려는 상대국에 대한 지역연구가 너무 소략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작이 출간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12년에 『키르기스스탄 중동부 지역의 암각화』와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의 암각화』라는 역작을 출간하였다. 이 두 책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축이 되어 키르기즈 국립대학교 역사지역학부 및 박물관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출간한 역작이다. 『키르기스스탄 중동부 지역의 암각화』는 2010년에 키르기스스탄의 탈라스, 나린, 이식쿨 주에 분포하는 암각화를 조사하여 발간한 책이고,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의 암각화』는 2011년에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에 소재하는 바이체체케이, 카르 이르 아타, 수크 데베, 주레크 등의 암각화 유적지를 조사하여 출간한 책이다. 이 두 책은 키르기스스탄의 선사 및 고대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 속에는 한국의 선사 및 고대 문화와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흔적도 엿볼 수 있다고 한다.¹⁰

이와 같이 한국학과 연계한 키르기스스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 관광자원과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가는 조사와 연구는 앞으로 계속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신진 한국학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함을 물론이며, 한국에서도 키르기스스

¹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rrectasia&lodNo=50136909082>
(동북아역사재단 장석호 연구위원, 2012)

탄 지역을 연구하는 키르기스스탄 지역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에서 이같은 연구 및 교육 기반이 구축될 때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방향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또한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백태현(2018),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 6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의 발전방안 발표논문집』,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스탄.
2. 백태현(2018), 「키르기스스탄 고산지역 생태문화관광 발전방안」, 『국제학술회의: 전통의 자원화와 지역발전 IV, 발표논문집』, 안동대학교, 한국.
3. 백태현(2017),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2017년도 한국학국제학술회의(중·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교육·연구 동향)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4. 백태현(2016), 「중앙아시아 한류와 한국학교육의 다양화 방안」,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스탄.
5. 백태현(2014), 「실크로드의 재발견: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유라시아실크로드 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
6. USAID Local Development Program (2013), “Survey of tourism market in Kyrgyzstan”.
7. Дудашвили С.Д., Туристские ресурсы Кыргызстана – Бишкек: раритет Инфо, 2004.
8. 주키르기즈공화국 한국대사관 제공 자료(2019.04)
9.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rrectasia&lodNo=50136909082> (동북아역사재단 장석호 연구위원, 2012)

Поэтика корейских рассказов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Сафронова Л.В., Сермухаметова Б.Б.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Поэтика корейских рассказов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литературный период в Южной Корее с 1970-х по начало 2000-х годов. Это время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не только бур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одъемом, но и активизацией процессов глобализации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роникновением и адаптацией в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контекст западноевропейского феминизма,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и техники письма, неореализма и неофантастики, переоценки традицион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и социальных стереотипов. В этом аспекте особенно показатель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женской прозы» О Чонхи, в которых еще сквозит депрессия предыдущих лет, но уже поставлены многие болезненные социальные вопрос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так как уже назре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еред началом новой жизни надо освободиться от призраков прошлого. Чхве Ин Сок создал свой, независимый творческий мир, в котором обличает негативные аспекты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ключив иллюзии в критическое восприятие социальны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реалий и отходя от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реализма" и привнося фантазию в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Ким Пёль А, мастер историчкой прозы, описывает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е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но не ставит целью раскры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ты. Она пишет истории, прежде всего, о поиске удовольствий от жизни, об уходе 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остмодернизма О Су Е обращается к глубинам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го. В центре ее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оисков - индивидуализация, изображение человека как Личности и его желание развиваться как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и, а не в качестве безликого винтика социума. Друг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остмодернизма, автор многих гротеск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Чан Чонг Иль, представляет неофантастику в новейшей литературе Кореи, объединяя ее с элементами социальной сатир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овейш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реи,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в жанре рассказа, эволюционирует в общем контексте миров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роцесса, затрагивая самые актуальные темы и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времени и искусства. Это феминистская критика, магический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реализм, постмодернизм, с его вниманием к интертексту и «чужому слову», гротеску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 сатир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новейш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реи, поэтика, рассказ, феминистская критика, магический реализм, постмодернизм, гротеск

제목: 최신 시대의 한국 이야기의 시학

필자: 사프로노바 류드밀라, 세르무함메토바 바그잔, 카자흐 국립대, 알마티, 카자흐스탄

개요: 본고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의 한국의 문학적 기간을 연구한다. 이 시기는 급속한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세계화 과정의 강화, 서유럽 페미니즘의 침투와 적응,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과 글쓰기 기술, 신 사실주의와 신소설, 전통 국가 가치와 사회적 고정 관념을 한국 문화 맥락으로 재평가함으로써 특징 지워진다. 이 부분에서 오정희의 소위 "여성 산문"의 작품은 특히 과거의 불경기가 여전히 드러났지만, 근대성의 많은 사회적 문제는 이미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미 제기되었다. 최인숙은 한국의 삶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며 자신의 독창적인 창조 세계를 창조해 내며,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한 환상을 포함하여 "전통적 리얼리즘"에서 벗어나 판타지를 작품에 도입했다. 역사적인 산문의 주인인 김별아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에 대해 취해지는 행동을 기술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녀는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과 현실을 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쓴다.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자는 오수영은 무의식의 깊이를 말한다. 그녀의 예술적 탐구의 중심에는 개인화된 사람의 이미지, 개인으로서의, 발전하려는 그의 열망, 그리고 사회의 얼굴없는 나사가 아니다.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대표자 찬홍일의 많은 기괴한 작품의 저자, 한국의 최신 문학에서 신 과학 소설을 대표하며, 그것을 사회적 풍자의 요소들과 결합시킨다. 따라서 이야기의 장르에 나타난 한국의 현대 문학은 세계 문학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진화하고 있으며, 현대의 시간과 예술의 주제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 비판, 마술 (환상) 리얼리즘, 포스트 모더니즘, 상호텍스트성과 "외계어" (다른 언어, 단어), 그로테스크와 정치 사회적 풍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주제어: 현대 한국 문학, 시학, 이야기, 페미니스트 비평가, 마술적 리얼리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로테스크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70-х гг. XX века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ростом феминист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приверженностью к реалистическому стилю изложения и латентной, но все усиливающейся борьбой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ценностями. Типи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эт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иода — писательница О Чонхи [1], лауреат множества коре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ремий. Книги ее переведены на английский, немецкий, испанский, японский, русский и др. языки.

Писательница - автор коротких рассказов. Она изображает мир, который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кажется тихим и безмятежным,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жизнь оказывается хаотичной, часто ужасающей. Скрытая за ложной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умиротворенностью, которые придает ей повседневная рутина, жизнь персонажей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гружена во тьму их тяжелых мыслей и преступных страстей. О

Чонхи пишет о проблемах брака и семьи, углубляясь в психологию женщин из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Пространство семьи ограничивает личность женщины, даже если оно и обеспечивает безопасность. С помощью импрессионистических стилистических приемов писательница раскрывает бездну темных желаний, которые скрываются под покровом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спокойствия.

О Чонхи также известна портретами молодежи, которой было отказано в нормальном детстве: «Китайский квартал» (1979), «Сад молодежи» (1980) и «Птица» (1996). Бесплодное материнство и бесплодная женщина становятся предметом ее описания в «Ткачихе» (1970). Другие крупные ее произведения: «Жертва всеожжения» (1971), «Огненная река» (1977), «Пустые поля» (1979), «Слова прощания» (1981), «Скорпион» (1983) и «Старый колодец» (1994). В описываемой в ее текстах жизни доминирует инстинкт разрушения, окутанный образами смерти, так как жизнь всегда раскрывает свое принципиально трагическое качество. Писательница постоянно проблематизирует напряженность между разрушением и возвращением к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стремясь сделать видимым насилие и угнетение, 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под поверхностью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 рассказе «Огненная река» сочетается как бы несочетаемое: огонь и вода, разрушение и созидание, мужчина и женщина. Огонь, символ разрушения и очищения, переставляется персонажам как нечто спасительное, так как они хотят расстаться с травматическими событиями прошлого, которые символизирует электростанция. Период, описываемый в рассказе, это еще не время созидания. Однако перед началом новой жизни надо освободиться от призраков прошлого.

В рассказе «Магнолия» отражается традицио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орейцев о повторении потомками судьбы предков, о фатальной предзаданности судьбы, от которой никуда не скроешься. Дочь повторяет судьбу матери, и та же судьба предначертана и внучке. В реальную жизнь все время вмешиваются духи, сосуществующие с живыми людьми, тесно с ними связанные, от которых зависит судьба живых.

Корей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90-х годов XX века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как "возвращение к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ли "погружение в себя". Так, например, корейский писатель Чхве Ин Сок [2] создал свой, независимый творческий мир, в котором обличает негативные аспекты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ключив иллюзии в критическое восприятие социальны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реалий. Чхве принимает фактор "фантазии" как литературный атрибут, который может расширить его восприятие реальности и дать ему новую перспективу. Реальность, показанная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Чхве, - это безнадежный и пессимистичный мир. Постоянный поиск выхода из этих реальностей - это общая тема,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все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Важен не реализм, а сама реальность", - утверждает Чхве, отходя от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реализма" и привнося фантазию в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Однако на самом деле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О, песни», «В глубине моря», «Морское побережье»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где также используются элементы фантастики, автор, наоборот, раскрывает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90-х годов, такие как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мит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учрежденного 31 мая 1980 года, публичные дома, жертвы пыток. Ярким примером служит рассказ «Мой прекрасный призрак», в котором автор предпринял полномасштабную попытку "объединить реальность с фантазией", описав жизнь бедных людей, которым некуда уехать, на фоне разрушающейся деревни.

Главные герои рассказов Чхве часто изображаются как сироты, которые потеряли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или были брошены ими. В рассказе «Колодец моей души» 6-летнего Сим Енг Бэ бросает мать, оставив его на сеульской станции. Маленький Сим не двинулся с места до самой ночи, ожидая свою мать, которая под предлогом, что ей надо в туалет, оставила мальчика и больше не вернулась. У персонажей-сирот в рассказах Чхве формируется свое восприятие мира.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персонажи Чхве "разочарованы" и "выброшены в мир". Люди, которые потеряли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в этом мире, ищут свое в нем место. Они могут стать животными или монстрами, отрицая, что они дети родителей, дети людей.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в рассказе Чхве Ин Сока образ "сироты мира" необходим как предпосылка для "передачи идентичности" другому существу. Например, собаке, которая намного лучше человека. Мальчик Син в рассказе «Колодец моей души», брошенный своей матерью на станции, следует за незнакомым человеком и оказывается в центре по тренировке собак «Школа счастливых собак», где, так же, как и он, живут брошенные людьми собаки. Сим дает им имена 'Конджу', 'Пхатджу', 'Содон', 'Сонхва', 'Уронкаши', 'Намуккун' и живет вместе с ними. Однако «Школа счастливых собак» оказывается разрушена, так как собаки

попадают под отлов мародёра Пэк Сон Иля, и из них готовят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супы Кэсоджу и Посинтанг. Сим Енг Пэ убивает Пэк Сан Иля, жестоко убивших брошенных собак, и отправляется в тюрьму. Для Сим Енг Бэ наш мир - больше не считается "настоящим".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тем, котора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является во всех рассказах Чхве – это тема насилия. Это насили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вязанное с проблемой социаль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котором изображается насилие, чаще всего закрытое, как, например, тюрьма в рассказе «Колодец моей души». Этот рассказ Чхве критикует реальность угнетения и насилия через "критическое и яркое описание бесчеловечных и тираниче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Герои романа Чхве Ин Сок пытаются вытерпеть безнадежную реальность, в которой нет выхода, убеждая себя в том, что настоящая жизнь “не сейчас и здесь”, а “когда-нибудь, там”. "Школа счастливых собак"- это идеальный мир, о котором мечтает герой Сим. Это не мифическая фантазия о реальности, это символический мир, в котором формируются ценности и стандарты идеальной жизни, это утопия, то есть место, которое невозможно разрушить. В "Школе счастливых собак" никто не бросает своих детей, не убивает, не ненавидит, не насилует, не предаёт, не совершает самоубийство. Эта школа - отражение идеальной жизни для Енг Бэ. Но он является утопией.

Писательница начала 2000 гг. Ким Пёль [3] в 2005 году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первой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благодаря историческому роману "Мисиль". Ким Пёль А всегда проявляла глубокие познания в истории. Например, рассказ "Сакме и Чами" - ее первая проба в жанр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озы. Это не просто исторический, но и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рассказ. Действие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на границах древнего Китая. Сами события и временная эпоха далеки от ощущения реальности.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но рассказ не ставит целью раскры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ты.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история о поиске удовольствий от жизни, об уходе 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По сути, это рассказ о судьбе мужчины, о некой типичной модели мужской судьбы. Традиционный для литературы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долгом и любовью снимается в данном рассказе, поскольку жизнь сложнее однозначного выбора, в ней просто должно быть все абсолютно, и то, что правильно, и то, что запрещен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остмодернизма О Су Ён [4] известна как автор романа «Национальный день страны гномов» (1994). Один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ее рассказов, переведенный на множество языков, - рассказ «Насекомое». Мотив превращения, на котором построен сюжет рассказа «Насекомо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уже в древней мифологии,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их мифах и волшебных сказках, всегда имея свое обоснование в аспект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го. Однако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писательницы он получает новое толкование: О Су Ён стала первым автором-женщиной, которая затронула проблемы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женщины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патриархальном обществе.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ее рассказа на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сопроти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онной роли корейской женщины — быть только матерью и женой. В этой чисто биологической роли она чувствует себя самкой насекомого, производящей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яиц. Безусловно, О Су Ён написала рассказ «Насекомое» под влиянием творчества Ф. Кафки, в частности – его новеллы «Превращение».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имеют единый идейно-тема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описывая попытки герое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го (Кафка), и патриархального (О Су Ён) обществ, стараясь противостоять сложившейся системе принципов и убеждений. В фокусе рассказа О Су Ён - индивидуализация, изображение человека как личности и его желания развиваться как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и, а не в качестве безликого винтика социума. Мотив превращения в насекомое связан с внутренним ощущением мизерности, малозначимости, ничтожности человека под прессингом авторитарной власти / патриархальной семьи. Мотив превращения - это уход в миф,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е, погружение в инстинктивную сущность человека, которая выглядит негативно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уперэго (мужа, коллективистского социума). Рассказ «Насекомое» - феминистск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призванное разрушить патриархальн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Друг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остмодернизма, автор многих гротеск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 Чан Чонг Иль [5]. Рассказ Чан Чонг Иля «Пеликан»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очетание фантастики и сатиры. Это история, которая ведется от первого лица и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том, что главный герой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к смертной казни за жесток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пеликану. В рассказе много гротескных образов, например, это главный герой, которого признали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еступником и обвинили в оскорблении

Пеликана, Пеликан, это «проезжающий по городу на мерседесе и рассказывающий людям свою историю» персонаж, которого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ет и сочувствует вся страна. Эти моменты явно отвлекают читателей от реальности. Рассказ «Пеликан» требует аллегорической, а не букваль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Пеликан воплощает собой характер и судьбу героя-рассказчика. Ключ к раскрытию аллегор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произведен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цитате из рассказа: «Пеликан - это символ любви и ненависти, доброты, шести основных заповедей, символ народного движения и революции, движущих человеческим прогрессом».

Критики относят данный рассказ и к фантастическому реализму, и к нео- фантастике. Однако в отличие от нео-фантастики, где граница между естественным и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м стирается, в этом рассказе присутствует логика. Например, рассказчик говорит читателю о трудностях, которые он перенес из-за пеликана: «Возможно, вы читаете эти слова и неодобрительно покачиваете головой. Или,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испытываете такое желание. Это потому, что вам хочется узнать причину, по которой человек, высшее создание, мог попасть за решетку из-за этой смешной птицы – вы не можете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человек может быть приговорен к смерти из-за пеликана». Символическая природа Пеликана выраже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рассказа. Пеликан, которого яростно бьет ногами герой-рассказчик, отождествляется и с нищим мальчиком, и с одноклассником-пастырем и даже с матерью геро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раз Пеликана это своеобразная метафора, которая применяется к различным объектам, таким как публика, бог, рассказчик, читатель, человек и многие др. В рассказе «Пеликан» автор допускает практически любые его интерпретации. В рассказе выражается дихотомическ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включающее понятия любви и ненависти, красоты и безобразия, добра и зла, жизни и смерти, спасения и проклятия.

Определен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реалии Кореи и сатирический способ их описания делают рассказ принадлежностью фантастического реализма, который дает социаль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понимание реальности с помощью сатиры и приемов гротеска. Автор выносит приговор совреме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социуму, сформировавшего личность главного героя — жестокого, равнодушного, жадного и т.д.

Данный монолог, по-видимому, является своеобразн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стратегией, которую использует автор, чтобы вызвать

любопытство у читателей, но именно из-за этого рассказ отклоняется от общей формулы нео-фантас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оскольку «любопытство» или «сомнение» являются продуктами рационального мышления, нео-фантаст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даже не осознает и не предполагает различия между природой и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м порядком. Это только показывает смешение двух порядков, как будто они были естественны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овейш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реи,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в жанре рассказа, эволюционирует в общем контексте миров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роцесса, затрагивая самые актуальные темы и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времени и искусства. Это феминистская критика, магический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реализм, постмодернизм, с его вниманием к интертексту и «чужому слову», гротеску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 сатире.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О Чонхи. Огненная река. Пер с кор. Сын Чжуен, А. Гуделевой. Спб.,: Гиперион, 2012. 224 с.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EsDf&articleno=12386039&categoryId=348897®dt=20100624090931
2.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bvvvv&artSeqNo=8709332>
3.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oji82&logNo=7009809797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4. <https://studopedia.info/3-24967.html>
5. Чан Сокчу. 20 segi хангук мунхагый тхамхом (Обзор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X века) в 5-ти т. Сеул, 2000.

Кыргызстан и Корея на стыке культур

Стамбекова Т.Т.

Кыргыз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дж,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роводится анализ и сравнение традиций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оживающ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ыргызстана.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ходные и отличительные черты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азднований, и обрядов связанных с вступлением в новый возраст. В ходе исследования были выявлены ряд схожих черт. Такими являются: восточные ценности, дань уважения старшим и учителям, преданность семье, культ предков, любовь и помощь друзьям. Не смотря на культурное забвение в год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ыргызскому и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удалось сохран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живыми, привить к ним любовь и передать новому поколению.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в Кыргызстане, на 2018 год на долю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иходится 0,3%,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17 000 человек. Говоря о традициях корейцев необходимо кратко изложить историю формирования диаспор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Первая волна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а с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оизошла в 1861-1910гг. В 1937-1953 гг. – депортац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ассовые переселения повлекли за собой адаптацию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а именно язы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и традиций.

Многие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были утеряны, другие перетерпели серьезные изменения, третьи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под местный уклад. Причиной утери традиций стала советская идеология,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религиозные буддистские корни традиций являлись недопустимыми. Сохранить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фикацию удалось благодаря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помнят традиции и передают новому поколению.

Забвению во врем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двергся и народ Кыргызста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лувека местные традиции заменялись «советской культурой».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блюдается массовы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всех поколений к народным традициям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Обряды и праздники отмечаются с особой парадностью и размахом. Не смотря на массовую глобализацию во всем мире кыргыз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ы продолжают хранить и чтить свою этническую идентификацию.

Не смотря на вестернизацию, многие кыргызы и корейцы продолжают жить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канонам. Связанно это с тем, что древние традиции настолько глубоко находятся в сознании общества, что даже запад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не может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оникнуть в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кыргызов и корейцев. Скорее им удалось адаптировать запад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под восточные ценности.

К основным духовным ценностям можно отнести: почт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старшим, предан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у,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людям высшей должности, уважение к учителям, преданность и любовь к семье, верность супругов, культ предков. Данные ценности отмечаются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праздников и обычаев обоих народов. Это позволяет особенно ощутить схожесть традиций.

В статье подробно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праздники: 1) обряды, связанные с рождением ребенка –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пэкиль» - сто дней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асянди» первая годовщина ребенку, кыргызские праздники - «дже-энтэк той» - праздн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тушоо той» - церемония перерезания путев; 2) свадебные традиции: «согэтхин» - церемония сватовства в Кореи, «сойко салуу» - сватовство в Кыргызстане.

Все праздники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зном возрасте в разное время, однако многие из них имеют регламент по времени так как имеют четкую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Такой план гарантирует исключение спонтанности 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ажным моментом в обоих культурах является торжественность праздника – приглашени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гостей: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рузей, коллег.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глашающая сторона выражает уважение и признание гостям, приглашая их разделить их праздник. Выражение уважения проявляется и в поклонах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У кыргызов же молодой невестке необходимо кланяться родителям мужа, выражая этим жестом смиренность и уважение.

Долгое время кыргызы и корейцы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воих традиций. Однако после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ыргызстана интерес к традициям и культуре возрос.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се больш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е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тараются беречь традиции и следовать им, тем самым сохраня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ю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Title: Kyrgyzstan and Korea on the Edge of Cultures

Author: Stambekova T.T., Kyrgyz-Korean College, Bishkek, Kyrgyzstan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and compares the traditions of the Kyrgyz people and the Korean diaspora living in Kyrgyzstan. We consider similar and distinctive features of traditional celebrations and rites associated with the entry into a new age. The study revealed a number of similar features. These are: Eastern values, tributes to elders and teachers, loyalty to the family, the cult of ancestors, love and help to friends. Despite cultural oblivion in the years of the Soviet Union, the Kyrgyz and Korean people managed to keep their national traditions alive, instill love in them and pass them on to a new generation.

The Korean diaspora is one of the most numerous in Kyrgyzstan, in 2018 the Korean population accounts for 0.3%, which is approximately 17,000

people. Before speaking about Korean traditions, it is necessary briefly describe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of the diaspora in Kyrgyzstan. The first wave of the resettlement of people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Far East occurred in 1861-1910. In 1937-1953, there was the deportation of ethnic Koreans from the Far East to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Mass migrations entailed the adaptation of Korean culture, language, ethnic cuisine and traditions.

Many of the original Korean traditions were lost, others endured serious changes, and others adapted to the local way of life. The reason for traditions loss was the Soviet ideology, according to which the religious Buddhist roots of traditions were unacceptable. The possibility to preserve cultural identification was due to the older generation, who speak their native language, remember traditions and pass on to a new generation.

The people of Kyrgyzstan were also exposed to obviation during the Soviet Union. For half a century, local traditions were replaced by “Soviet culture”.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assive interest from all generations towards the folk traditions of the Kyrgyzstan. Rites and festivals are celebrated with great pomp and scope. Despite the massive globalization of the world, the Kyrgyz and Korean people continue to preserve and honor their ethnic identity.

Despite Westernization, many Kyrgyz and Koreans continue to live according to traditional canon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ancient traditions are so deep in the consciousness of society that even the Western way of life cannot fully penetrate the daily life of the Kyrgyz and Koreans. Rather, they managed to adapt the Western way of life to Eastern values.

The main spiritual values include: respect for elders, loyalty to the state, respect for people of higher positions, respect for teachers, loyalty and love for family, loyalty of spouses, cult of ancestors. These values are noted when considering the holidays of both cultures. This allows you to especially feel the similarity of traditions.

The article discusses in detail the following holidays in: 1) ceremonies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a child - Korean holiday “pekil” – celebration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birth of the child, “Asyandi” first anniversary of the child, Kyrgyz holidays - “je entek toi” - celebration of the birth child, “tushoo toy” - ceremony of cutting the fetters; 2) wedding traditions: “sogatkhin” - matchmaking ceremony in Korea, “soiko saluu” - matchmaking in Kyrgyzstan

All holidays are held at different ages at different times, but many of them have a time limit because they have a clear sequence of actions. Such a plan guarantees the exclusion of spontaneity and uncertainty. An important point in both cultures is the solemnity of the holiday - an invitation to a large number of guests: relatives, friends, colleagues. Thus, the inviting party expresses respect and recognition to the guests, inviting them to share their holiday. The expression of respect is manifested in the bows to the older generation. In Kyrgyzstan, the young daughter-in-law must bend to her husband's parents, expressing humility and respect.

For a long time, the Kyrgyz and Koreans were forced to abandon their traditions. However, after Kyrgyzstan gained independence, interest in traditions and culture increased. At the moment, more and more representatives of both nationalities are trying to keep traditions and follow them, thereby preserving and maintaining their cultural identity.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прожива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Кыргызстан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в Кыргызстане, на 2018 год на долю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иходится 0,3%,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17 000 человек. [5] Традиции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тличаются от традиций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ногие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были утеряны, другие перетерпели серьезные изменения, третьи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под местный уклад. Причиной стала советская идеология,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религиозные буддистские корни традиций являлись недопустимыми. Сохранить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фикацию удалось благодаря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сохранившему родной язык, традиции и передавшему их новому поколению. Забвению во врем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двергся и народ Кыргызста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лувека местные традиции заменялись «советской культурой».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блюдается массовы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всех поколений к народным традициям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Обряды и праздники отмечаются с особой торжественностью и размахом.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личия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и конфессий, традиции народов имеют множество схожих черт. Вопреки массовой глобализации во всем мире, кыргыз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ы продолжают хранить и чтить свою этническую идентификацию.

Говоря о традициях корейцев необходимо кратко изложить историю формирования диаспор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Первая волна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а с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оизошла в 1861-1910 гг, так как встала острая задача освоения приморских и приамурских земель. За переселение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й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оставлялось право выбора участка земли до 100 десятин на семью. [4] Они освобождались от подушных податей на всю жизнь, от воинской повинности на 10 лет, и от платы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земель на 20 лет. Вторая волна пришлась на 1937-1953 гг. – депортац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литики «Велик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ов» И.В. Сталина. 21 августа 1937 года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ССР и ЦК ВКП (б) приня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с преамбулой «В целях пресечения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3] Подобные массовые переселения повлекли за собой адаптацию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а именно язы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и традиций.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праздники: 1) обряды, связанные с рождением ребенка: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пэкиль» - сто дней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толь» - первая годовщина ребенку; кыргызские праздники - «бешик той» - праздн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тушоо той» - церемония перерезания пуповины; 2) свадебные традиции: «хонсе мар» - церемония сватовства в Корее, «сойко салуу» - сватовство в Кыргызстане.

Первая знаменательная дата в жизни ребенка – 100 дней. У корейцев издревле считалось, что если ребенок прожил до 100 дней, то его жизни уже ничто не угрожает и он будет жить дальше. Не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на сотый день жизни у ребёнка зарождается душа и формируется до года. [7]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экиль» принято отмечать громко и торжественно.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приглашаю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друзей. Ребенка гостям показывают в доме до полудня, так как считается в утреннее время силы духов добра и счастья имеют максимальную силу. Так же есть поверье что это поможет ему раньше обре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и обзавестись семьей. Гостей угощают блюдами как европейской кухни, так 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блюдами «чартоги», «кадюри», «чимпхени».

Перв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в честь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у кыргызов – «бешик той».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на каждое событие: появление ребенка, сватовство свадьба, похороны и т.д. принято делать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е – резать барана, лошадь или корову,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личества гостей. Отпраздновать появление ребенка приглашаются близк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и друзья семьи. Выбор имени новорожденному является целым ритуалом. По обычаю, это прав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родителям муж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ражается уважение и почтение родителям. [2]

Летоисчисление у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исходит по следующим правилам: года исчисляются циклами по 12 лет. В старину у кыргызов было не принято отмечать ежегодные дни

рождения, только полное завершение двенадцатилетнего цикла, однако приятно отмечать события: например, первые шаги ребенка – «тушоо той». Первые шаги ребенок совершает к году, поэтому современные кыргызы называют первый юбилей ребенка - «тушоо той». [2] Традиционным событием на празднике является обряд «тушоо кесуу». Для этого ноги ребенка перевязывают черной и белой шерстяными нитями. Они символизировали борьбу двух начал - света и тьмы, добра и зла. Жизнь человека,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ям кыргызов состояла как из светлых, радостных дней, так и горестных. Поэтому с детства надо быть готовым ко всем жизненным ситуациям. В честь «тушоо кесуу» устраивается забег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Победитель перерезает путы и получает приз. Цель забега -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ребёнок быстрее научил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ходить. Этот обряд функционирует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также придавал ма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предметам. Так на праздновании первого года жизни ребенка – «толь», одной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частей является столик именинника, на который выставляются разные продукты и предметы. Каждый предмет на столе имеет свое значение. На стол выставляют: «чар тоги» - отбитый рисовый хлеб; «кхо» - чашку красной фасоли; «саль» - рис; «чэг» - книгу; «йонпиль» - ручку и карандаш; «кася» - ножницы; «баныль» - иголку – для девочек; «силь» - нить; меч или стрелы – для мальчиков; «тон» деньги. [4] Корейцы издревле одухотворяли предметы и считали, что выбор ребенка предопределяет его судьбу. Так дети, выбравшие «чар тоги» будут жить очень хорошо и богато, в доме будет достаток, удача будет сопутствовать им по жизни, им удастся сделать успешную карьеру. Дети, выбравшие чашку красной фасоли будут вести честную жизнь, станут хорошим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будут обладать трудолюбивы, настойчивым и оптимистичным характером. Если выбор пал на чашку риса, то это пророчит ему богатую счастливую жизнь. Дети выбравшие книгу или ручку станут писателями или художниками. Они будут образованными людьми и будут зарабатывать на жизнь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трудом. В жизни такие люди будут скромными, тихие люди. Девочки, выбравшие ножницы, станут портнихами, швеями и на жизнь они будут зарабатывать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В жизни это будут люди, про которых будут говорить «золотые руки», мастера своего дела. Характер у этих людей будет острым и колючим, как ножницы, но

они будут такими же необходимыми и полезными другим людям. Считается, что ребенка, выбравшего нитку, ждет очень долгая жизнь. Он будет зарабатывать деньги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и лидерство не по нему,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отличным исполнителем. Если девочка выбрала иголку, то в жизни она будет лидером, острая на язык, как иголка. Вероятно, в будущем станет певицей. Кроме того, она будет прекрасно шить и вязать. Станет прекрасной матерью, женой и домохозяйкой. Считается, что ребенок, выбравший деньги в жизни будет деловым и предприимчивым человеком. Удача будет сопутствовать ему во всём.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в силу постоянных военн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корейцы клали на стол мальчику меч и стрел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тот предмет потерял актуальность.

Корейцы СНГ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ватовству - «хонсе мар» и свадьбе. В прошлом выбор родители сами выбирали достойную пару своему сыну или дочери. У корейцев строго запрещены браки с одинаковыми понами – родами, дабы избежать кровосмешения. [6] Сватать невесту обычно едет сам жених с отцом и несколько близк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и этом число сватов должно быть нечетным числом. Обычно на помолвку отмечают скромно, без пышных празднеств в узком кругу семьи. Воспитанные в духе конфуцианства у корейцев нет традиции сбегать с парнем или украсть невесту. Подобное поведение считается непозволительным и недопустимы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одителям.

Что напротив у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считается частым явлением. Невесту могли украсть если семья жениха бедна и не мола выплатить калым – денеж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невест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ража невест случается, однако не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законом и народом. В остальных благоприятных случаях сватовство и свадьба проходит по канонам традиций. У кыргызов, как и у корейцев зачастую родители выбирают подходящую пару сыну или дочери. Больш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татусу семьи. Стараются породниться со знатными богатыми семьями, да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спечную жизнь детям. Уделяется внимание происхождению рода жениха и невесты. Приветствуется породнение людей из разных родов. Кыргызы не поддерживают смешение крови,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приятно знать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о седьмого поколения – «жети ата» - «семь отцо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родители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и получают согласие, на

девочку надевают сережки, этот обряд называется – «сойко салуу».
[1] До свадьбы девушка становится невестой, а парень женихом.

Все праздники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зном возрасте в разное время, однако многие из них имеют регламент по времени так как имеют четкую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Такой план гарантирует исключение спонтанности 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ажным моментом в обеих культурах является торжественность праздника – приглашени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гостей: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рузей, коллег.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глашающая сторона выражает уважение и признание гостям, приглашая их разделить их праздник. Культ предков отмечается обоими народами чувство почтительности настолько сильно сидит в каждом человеке, что порой проявляется бессознательно.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очевидная схожесть духовных ценностей обеих народов. К ним относятся: почт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старшим, предан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у,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людям высшей должности, уважение к учителям, преданность и любовь к семье, верность супругов, культ предков. Выражение уважения проявляется и в поклонах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У кыргызов же молодой невестке необходимо клонятся родителям мужа, выражая этим жестом смиренность и уважение.

Долгое время кыргызы и корейцы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воих традиций. Однако после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ыргызстана интерес к традициям и культуре возрос.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се больш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е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тараются беречь традиции и следовать им, тем самым сохраняя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ю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Многие кыргызы и корейцы продолжают жить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канонам. Связанно это с тем, что древние традиции настолько глубоко находятся в сознании общества, что даже запад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не может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оникнуть в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кыргызов и корейцев. Скорее им удалось адаптировать запад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под восточные ценности.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Батма Кошбакова. Семейно-бытовые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2013.
<https://paruskg.info/glavnaya/84875-84875.html>
2. Ворожищева, О.М. Традиционные ценности корейцев СНГ в брядах перехода. / О.М. Ворожищева // История. – 2012.
3. Ким Г.Н.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Книга первая :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 – 1945 г. / Г.Н. Ким. – Алматы : Дайк-пресс, 1999. - 424с.
4. Ли. Г.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Роси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Обычаи и обряды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СНГ. - / Г. Родников. – Электронные данные. – Москва: РАЕН, 2003.
5.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http://www.stat.kg/ru/opendata/category/312/>
6. Обычаи и обряды кыргызов, связанные со сватовством, помолвкой и свадьбой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http://kant.kg/2012-01-12/svadebnyj-obryad-kyrgyzov-chast/>
7. Хан В. Какие традиции мы возрождаем в поисках свое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2001. - стр. 49-56

Формы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ее и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в Казахстане

Тен Е.В.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В 1990-х годах впервые в корейском образовании появляется термин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ичиной этого стали проблемы и недостатки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проблем – это единообразное содержа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и методов обучения, нацеленных на подготовку школьников к сдаче выпускных и вступительных экзаменов,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вело к росту числа учащихся,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школе (более 70 000 школьников в год).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зник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альтернатив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и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принимает первые попытки по внедрению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1997 г. в виде создания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школ». После этого были внесены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 среднем образовании (младшая, средняя, старшая школа)», а также был выдвинуто «Полож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однако вс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подпадают под упра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курирую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нает важность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вопросах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создаютс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Целью данной работы является рассмотр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она появле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ее, концепции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аботе проведен анализ текущего состоя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ее и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вития, а также состояни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и возможности его реализации.

1. Поняти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1) Фон появле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отличие от Запада, где истор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считывает долгие года, в Корее, только в середине 1970-х годов корейск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стала подвергаться

критике и стали появляться первые идеи о внедрении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В целом до 1980-х в Корее, где все образование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на успешную сдачу вступительных экзаменов, вопрос серьезности проблемы внутри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не поднимался,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 вставал вопрос развит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вые подвижки по внедрению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70-80-х годах проявлялись лишь в виде создания вечерних школ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ружков.

И только в конце 1980-х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Корее приобретает форму целого движени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е Кореи. В 1980-х годах первыми признаками кризис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е стали дети, которые уже являются поколением детей, выросших в благоприят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которые не выдерживая давл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школьной системы, стали оставлять стены школ, а также резко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самоубийств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В 80-х рост числа самоубийств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приобрел серьезный соци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в конце июня 1988 года, в 1986 году 117 человек, в 1987 году 100 человек, в 1988 году 51 школьник покончили жизнь самоубийством по причине плохой успеваемости и дав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сверстников и учителе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середине 1984 года были стали появляться различные движения («Другая культура», «Либеральная школа») з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реформу в среде учителей и профсоюзов, и нача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противоречий и проблем современного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поиски альтернатив.

В конце 1990-х годов количество сообщений о самоубийствах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илось. Тем не менее, количество школьников, бросающих школу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существующей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лохой адаптации, продолжает достигать критического уровня. Согласно газете Чунан ильбо от 7 сентября 2000 года, в 1999 году 13 905 школьников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школ не смогл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и бросили школу, в 2000 году, в сравнении с 1999 годом,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школьник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7000 человек и составило 21 589 человек. Учеников средних классов, бросивших школу в 1999 году составило 17 919 человек, 32 302 школьник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профильных школ также бросили учебу. То есть, среднее число

учащихся покидающих школу в год достигло 20 000 учеников средних классов, около 50 000 учеников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в общем, около 70 000 человек. Кроме того,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ообщества «Вместе» (1997), в среднем ежегодно фиксируется около 100 000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школьников, уличенных в каких-либ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1990-х годах появляется термин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начинается актив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недре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В 1990-х годах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ереживает поворотный момент. В 1995 году появляется группа людей, поддерживающих движение «Новая школа», а также открывается школа Ганди с краткосрочными курсами обучения для взрослых. После этого в 1996 году в школе Ганди запускают летнюю и зимнюю программу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и в 1997 году впервые официально открывается первая школа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детей «Детская школа Ганди». И в этот же период начинает внедряться система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10 декабря 1996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ло проект «Мер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отсева учащихся из школ», в ответ на обостряющуюся ситуацию в обществ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определило проблему кризиса в шко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как слабо разработанную учебную программу, которая не учитывает интересы, наклонности и уровень учащих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контрмеры и была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созда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Впервые были созданы профильные школы, где был сделан фокус на обучение музыке, мультфильмографии, киношколы, школы культуры, дизайна и моды и п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1998 году, как одна из мер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оттока учащихся из школ были создан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профильные школы, предоставляюще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учение.

2000-е годы являются периодом, ког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существовал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е и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резко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начального и среднего звена. Наряду с системой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ая развивается в рамках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же появляется система «домашней школы» (homeschooling), как одна из форм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ая ставит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у разрешить противоречия и проблемы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омашнее обучение – форм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ая разитель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существую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является своего рода одной из форм постшко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гда родители не отправляют своих детей в школу, а сами, играя роль учителя, обучают своих детей дома.

В июне 2003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челове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вынесли на обсуждение проект по «расширению и укреплению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 целью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обучения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которые не могл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2 марта 2005 года принимается Закон об альтернатив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Также после этого были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Закон о начальном среднем образовании, где были сделаны поправки и добавлено положение об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Корее представлено сейчас в виде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и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2) Концепц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нцепц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должает постоянно меняться и развиваться и в целом концепцию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ожно понять, исходя из тех особенностей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 которые несет в себ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то есть как новую систему и способы для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в существующей систем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 альтернатив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понимае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поиск и утверждение нов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в обществе, как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реодоление существующих проблем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е.

3)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школы и программы, реализующи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меют свои особенности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которые зависят от цели создания того или ино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Однако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тмечают общие особенности, присущие подоб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и программам.

Первое, в альтернатив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оявляется уважение к человеку и личности. Изначально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зарождается с критики унифицированного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дегуманиз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и ставит своей задачей восстановить уважение к каждому школьнику как к личности, уважение к различиям между детьми и воспитание полноценной личности через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торое, уважение свободы личности.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школах, где образование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роли учителя, ученики должны беспрекословно принимать знания и ценности, передаваемые учителями ученикам. В систем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чеников рассматривают к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свободную личность. Следовательно, у всех учащихся есть право выбирать, чему они должны научиться, а также право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управлен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и учебным процессом.

Третье,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уважение к жизни. Одной из особенностей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образование основано на привитии уважения и любви ко всему живому, природе, заботе об экологии.

Четвертое,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важность понимания и восприятия общины, общества. Как известно, современное общество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как общество, где идет резкий рост индивидуализма. В альтернатив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наряду с уважением к каждому как к личности, считается важным дать правильное понимание об обществе, привить прави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общине и совместной жизни в обществе. Поэтому делается упор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ооперацию, а не на конкуренцию, и зачастую учащиеся проживают совместно в одной общине.

Пятое, отдается предпочтение так называемым «маленьким» школам. То есть большинство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осторожно относятся к «большим школам»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учеников. В «маленьких» школах возможны более тесны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учащимися, между учениками и учителями. Как правило, в крупных школах учитель играет ведущую роль, что приводит к обучению по схеме «сверху вниз», и унификации обучения. Поэтому сторонники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читают, что через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маленькие школы» школьники могут сами играть ведущую роль и строить свое обучение.

Шестое,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риобретению «опыта». То есть наравне с приобретением знаний, важным считается приобретение практического опыта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То есть дети получают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применены на практике, школа не оторвана от реальности.

Восьмое, в альтернатив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тому, чтобы восстановить роль учителя, учащегося и родителей. Современное общество можно отметить как общество, где акцентируется внимание на узко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ледовательно в школах учитель, как тот, кто играет ведущую роль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цессе, является специалистом, задачей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только передача хороших знаний. Однако, сторонники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читают,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восстановить «настоящие» роль и функции,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выполнять ученики, родители и учителя.

2.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ализуется в Корее различ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фондами в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х, как в учеб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ях, так и в виде различных программ. В целом ж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относятся к альтернативным учебным заведениям с полной занятостью и подразделяются на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и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Во-первых, существуют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призна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ом, к которым относятся различны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школы,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различные школы),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интернаты, и учреждения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о-вторых, существуют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аттестаты которых не признаны государством, к которым относятся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различные формы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и домашние школы, а также учреждения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каждого типа школы следующие:

1)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Данные школы являются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ом учебными заведениями,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е школы, и входят в систему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К подобным учебным заведениям относятс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средние и старшие

школы, различны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школы, школы-интернаты,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старшие школы. Подоб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берут свое начало с создания шести школ в марте 1998 год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к 2016 году в стране функционирует 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21 част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1)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школы

В июне 1990-х с увеличением числа учащихся, покидающих стены школы из-за насилия в школах, слабой адаптации и пр., для разрешения подобных проблем создается новый тип школ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средние школы начинают свое начало со средней школы Сонак в Ёнгване в 2001 году, ежегодно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школ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 к январю 2018 году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насчитывалось 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10 частных школ. Данные школы насчитывают около 100 обучающихся в каждой школе, в классах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не превышает 20 человек.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средние и старшие школы в основном начинаю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после 2010 года.

(2) Различ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Данные школы также входят в систему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нтролирую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в отличие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школы, как правило, в подобных школах обучение строится с фокусом на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едметы и развитие определенных навыков и умений. По статистике 2018 года, подобных профильных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школ насчитывается 6, частных 19, всего функционирует 25 школ.

(3)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интернаты

Цель создания данных школ – оказание защиты и помощи в адаптации в обучении тем школьникам, кто по каким-либо причинам оставил обучение в традиционной школе. Впервые подобные школы были основаны Сеуль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вопросам образования в 2001 году в г.Сеуле, и в дальнейшем другим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управлениям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Кореи. По статистике в 2016 году из 47 070 школьников, прекративших обучение в школы,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школьников, кто не мог посещать школу по причине болезни, выезда за границу, более 24 959 человек – это были учащиеся, кто бросил школу по причине тяжелой адаптации, насилия, проблемы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и учителями.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интернаты ставят своей задачей адаптировать подобных детей.

2)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 это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которые не получают аккредитац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и не признаются как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ца. Впервые подобная школа была основана в 1997 году. В 2000 году наряду с увеличением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основанными Сеуль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вопросам образования, повсеместно создаются частные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Кроме подобных школ реализуются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внешкольных программ, сезонные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воскрес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домашние школ и учреждения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1)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интегрированную модель школы. Интегрированные школы предлагают гораздо более гибкую систему приема на обучение и окончания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и каждый школьник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вободно выбирать и строить свое обучени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способностей. Как правило, в подобных школах деление происходит не на классы или ступени по возрасту, а на групп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ослушанных кредитов, количества семестров. Существуют средние-сельски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старшие-городские, младши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апреля 2014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опубликовало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170 школ из 230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В 170 школ, в которых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опросы, обучалось 6762 ученика и было задействовано 2345 учителей. Из них 83 школы – для неадаптированных детей, 32 школы – предлагающи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формы обучения, 27 – религиозные и миссионерские школы, 17 – школы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6 – международные школы. Среднее количество школьников в подобных школах составляет 40 человек (62 школы –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20-49 человек, 13 школ – 5 человек, 14 школ – 6-9 человек, 44 школы – 10-19 человек, 21 школа 50-99 человек, и 16 школ –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е школы, как правило,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считают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своей философии образования, нежели признание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а и каждая подобная школа имеет свою систему и философию образования. Одним из минусов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является н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го состава. Здесь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различные причины: отсутств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что влияет на финансовое положение небольших школ; серьёзная нехватка учителей, незнание ценностей и философии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лабы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 разработ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содержания обучения, разработки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и пр.

(2) Программы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К категории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форм образования можно отнести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типы программ вне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езонные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воскресны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Однак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добных программ и категорий не позволяют практически определить конкретные масштабы данных программ.

(3) Домашние школы

Домашняя школа, как одна из форм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ого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влекает к себе внимание в 1999 году с публикации статьи «История домашней школы» в первом выпуске ежемесячного издания «Миндылле», где описывается история 20 семей, реализующих домашнее обучение. Домашняя школа в Корее, в отличие от Европы и Америки, где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система Домашних школ, зарождается в семьях не по религиозным причинам, а начинается с прагматических целей, которые преследовали обычные родители, с целью обеспечить своим детям надлежащий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и раз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Система Домашних школ начинается с не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родителей по причине единообразия содержания обучения,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бучения, бесчеловечного отношения учителей к ученикам, проблемы насилия и издевательства в школе и п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се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проходят обучение на дому. До 1999 г.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около 100 семей, чьи дети находились на домашнем обучении.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Хангук ильбо от 6 сентября 1999 год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299 семей, а в 2007 году, согласно Дона ильбо более 5000 семей. По оценка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 2008 году более 1000 семей отказались от традицио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ерешли на домашнее обучение.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домашнее обучение юридически не признано, нет точ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о количестве обучающихся по системе домашних школ.

3. Будуще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1) Будуще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еры для развит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Корее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число учащихся, которые бросают учебу.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днимает проблемные вопросы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едлагает альтернативы для разрешения данных проблем. Тем не менее,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вити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но не может заменить полностью традиционное шко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существуют ряд вопросов внутри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ешить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его развития.

Прежде всего, как было сказано выш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цели, принципы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учащихся различны, следовательно, содержание обучения и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в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ах должны разрабатываться для той или иной школы отдельно.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школ для учащихся,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обычных школах.

Далее, важен вопрос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кадров и их подготовки. Как уже упоминалось выше, зачастую в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ах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учителя, которые не прошл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менно для работы в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аж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квалификационная подготовка для учителей.

Примеры школ, предлагающих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ольших трудностей в управлении альтернативными школами является отсутств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ноги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существуют в виде «маленьких школ и маленьких классов», где на одного учителя приходится 7-8 учеников. Безусловн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бучения, подобные условия приближены к идеальным, однако на содержание школ с маленьким количеством учеников и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учителей,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редмет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философии и

концепции школы, требуются большие финансовые средства. И так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являются неаккредитованны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они не получают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вынуждены опираться только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за счет оплаты за обучение, производимую родителями, поэтом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школ испытывают финансовые трудности,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тормозит развити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в заключении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важность измен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знания. Несмотря на достаточно сильно развити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ее по-прежнему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обычно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для «проблемных» детей,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обычной школе. Конечно,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школы, выполняя подобную роль, защищая и проявляя заботу о таких детях, но основная иде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стоит, прежде всего, в том, чтобы предостав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когда будут учитывать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учащихся и развиваться их способности и таланты.

2)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Казахстане: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Как было отмечено выше основная иде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центром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цессе является ученик, а не сама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то есть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 детей ставится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обычной школе большинство педагогов не учитывают особенности каждого отдельного ученик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ученик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уществующие проблемы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приводят к постоянным дискуссиям по поводу внедре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форм обучения. Из проблем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е можно отметить несколько. Первое, это то, что традиционная классно-урочн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перестает справляться с вызовами времен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ногие дети просто отсиживают уроки, не получая полезных и необходимых знаний. Кроме этого, существует проблема отсутстви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кадров. И самое важное – это

отсутствие компетентного подхода, который был бы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 учени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се больше появляется людей, не согласных с методами преподав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ах и поднимающих вопро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Безусловно,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меет место в Казахстане и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уществует в виде экстерната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школ и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Экстернат – систем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которая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е аттестата зрелости после сдачи экзаменов. В системе экстерната школьник сам выбирает для себя темп обучения. Ученик и родители несу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качество обучения, школа выступает органом, который лишь принимает экзамены и выд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документ.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экстернат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в нескольких случаях: первый – если ученик не может освоить сред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или по каким-либо семей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И второй – когда экстернат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одаренным детям, которы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лучают право занимать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Такж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водятся эксперименты в единичных случаях, когда в школах внедряется систем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которое направлено на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занятых» детей. Так, например, в одной из казахстанских гимназий разработан и внедряется проек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когда ученики мог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полнять учебную программу и дистанционно сдавать экзамены. Однако учащийся должен пройти полный курс обучения, то есть все уро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чебной типовой программе за тот или иной класс. Таким образом, ученики также привязаны к учебной программе, единственное они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дистанционно, что, в сущности,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форм экстерната, но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добное обучени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се дети.

Существуют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школы, гимназии и лицеи, которые выбирают свой профиль и модель обучения. В основном это частные школы, частные школы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ой обучения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ттестацией, се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школ и пр. Как и было

отмечено, в различны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школах, где выбирается определенный профиль и модель обучения, внедряются и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методики, однако в целом, вс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должны выполнять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учебную программу. Здесь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вопрос «доступ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школах. Большинство част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школ недоступны для рядовых школьников из-за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и обу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школы, по сути, являются школами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ольшинство детей просто не имеют никакого выбора и права выбирать.

Говоря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внедре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 здесь существует ряд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ть решены.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явля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и внедрение механизмов реализации, в отличии, например от Кореи, где каждый школьник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давать аттестационный экзамен для получения аттестата зрелости, даже не посеща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школу и не придерживаясь в обучении типово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ак известно, в Казахстане дети обязаны получить сред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 с 1 по 9 классы – посеща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учаться на дому, то есть прибегнуть к альтернативным формам обучения может только ограниченный круг лиц, когда требуется специальной разрешение.

Как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выш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Казахстане – имеет место, но пока рано говорить об альтернатив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для «всех» – об альтернатив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которое дает всем школьни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выбирать для себя форму и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страивать свою учебную программу, регулировать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время обучения и пр.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김민환, 권동택(2000). 미국 홈스쿨링의 성장과 특징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10(1), 257-280.
2. 김재준(2016). 대안교육의 교육이념에 나타난 ‘대안교육’의 성격분석. 석사학위논문.
3. 박은숙(2016). 한국 홈스쿨링의 실제와 교육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4. 이명옥, 정일환(2008).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의제 설정 과정 비교. 비교교육연구, 18(2), 69-98.
5. 이병환(2017). 열린교육과 대안교육의 개념 비교. 교육철학, 제 62 집.
6. 주은희, 박선희(2009). 대안교육과 홈스쿨링. 아동학지 제 30 권 6 호, 237-348.
7. 최손환, 김병주(2001). 대안교육의 등장과 의미. 비장교육경영 제 6 권 제 1 호, 99-120.
8. 한병선(2006). 한국이 대안교육 성과와 과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 16 권 제 1 호.
9. 학교란 무엇인가 시리즈
<https://www.youtube.com/watch?v=jbJXZ7DSimg>
10. <https://www.youtube.com/watch?v=T-0rgwJp84U>
1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598205&memberNo=35018344&vType=VERTICAL>
12. <https://tv.naver.com/v/3314366>
13. <https://www.youtube.com/watch?v=p71CAL6jcpM>
14. <https://www.youtube.com/watch?v=bNc1EEjEmm8>
15. <https://www.youtube.com/watch?v=fD09Ysh2Oh4>
16. <https://www.youtube.com/watch?v=6EJ5eAye4fw>
17. <https://www.youtube.com/watch?v=p71CAL6jcpM>
18. <https://www.youtube.com/watch?v=Vri3fx1lY7Q>
19. <https://www.youtube.com/watch?v=GbuEa2ZkpXA>
20. <https://www.youtube.com/watch?v=2EOub3Z87Xg>

**Религиозный туризм как средство возвращения к своим
духовным истокам (тенгрианство,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Шейнфельд А.С.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особенности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и паломничества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на примере тенгрианств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интересны и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путешествий в качестве информации и практиче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 туру по религиозным и культовым местам страны с максимальной пользой для туристов 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Кыргызстан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тенгрианство, туризм,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религия, паломничество, Кыргызстан, охрана, наследие

Title: Religious Tourism as a Means of Returning to One's Spiritual Origins (Tengriism, Kyrgyz Republic)

Author: Sheinfeld A.S., Korean Institute of Central Asia, Bishkek, Kyrgyzstan

Abstr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features of religious tourism and pilgrimage in the Kyrgyz Republic, on the Tengriism example, which will be interesting and can be deployed by the organizers of travel as an information and practical guide to the tour of religious places of worship and the country with the maximum benefit for tourists and tourism development in Kyrgyzstan.

Keywords: Tengriism, tourism, history, culture, religion, pilgrimage, Kyrgyzstan, security, heritage

Кыргызстандагы туризмди өнүктүрүү жана туристерге пайда алып келүү менен мамлекеттин теңирчилик диний жана маданий жерлери боюнча турларга маалымат жана практикалык колдонмо катары кызыктуу болотурган жана саякат уюштуруучулар тарабынан ишке ашырыла турган диний туризмдин жана ажылык сапардын өзгөчөлүктөрү бул макалада каралат.

Негизги сөздөр: теңирчилик, туризм, тарых, маданият, дин, ажылык сапар, Кыргызстан, коргоо, мурас.

Душа – это энергия ума.

(Аристотель)

*К богу приходят не экскурсии с гидом, а одинокие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В. Набоков)

Туристские ресурсы, связанные с верованиями, на наш взгляд,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амыми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из всего многообрази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х ресурсов мира в целом и Кыргызстана в частности, так как в глубине души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верит во что-то свое.

Веротерпимость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ыла законом жизни. Какой бы сложной и драматичной не была судьба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вших на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но именно ими написаны лучшие страницы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ира и любви, культурной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и целостности. Кыргызстан, лежащий на перекрестке великих мировых путей с востока на запад и с юга на север, издревле служил местом обмена духовными ценностями [1]. Здесь встретились и мирно сосуществуют по сей день первобытная магия, тенгрианство, зороастризм, буддизм, христианство и ислам. Поэтому поклонники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которых из года в год становится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найдут в нашей стране то, что нужно именно им, от следов верований древнейших людей до современных духовных практик. Но несомненно одно, Кыргызста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ет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ен для туристов-тенгрианцев.

Истинной религией всех кочевников издревле считается тенгрианство, кыргызы всегда жили в гармонии с окружающей природой, поэтому наши предки сохранили для потомков чистые реки и озера, уникальную природу, нетронутые леса и величественные горы. Дерево почиталось как святыня, срубить дерево – означало принять тяжкий грех на душу. Не разрушая леса, пользовались кизяком. Если у собаки есть хозяин, то у волка есть Тенгри (Бог), – говорили издревле тенгрианцы. В силу кочевого уклада жизни, памятников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ы в КР много больше, нежели материальной. В легендах – социальной памяти кыргызского народа – зло всегда наказуемо природными катаклизмами. Как памятники людской алчности стоят по сей день безмолвные красные скалы, бывшие когда-то семью быками в легенде «Жети Огуз». Как памятник непримиримости двух воинов, ставших ветрами, разлилось горячее от слез девушки озеро Иссык-Куль. Как памятник людской жестокости возвышается гора «Разбитое сердце». Плач одинокого охотника Кожожаша на вершине скалы – наизидание всем потомкам о том, что нельзя брать у природы больше положенного.

Кыргызы всегда брали от природы ровно столько, сколько им нужно, зря не топтали пастбища, не уничтожали родную землю.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несмотря на небольшую территорию,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входит в число 200 приоритет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регионов планеты.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наибольше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видов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флоры и фауны. Так, здесь встречается около 2% видов мировой флоры и 3% видов мировой фауны [2, с. 13].

Работникам туриндустри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одить четкие грани отличия культурно-религиозных туристов от паломников [3]. Если паломник добровольно согласен терпеть тяготы и лишения в средствах транспорта, размещения и питания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путешествия к значимому для него объекту, то «культурник» в познавательном-религиозном туре будет нуждаться в хорошем сервисе, так как результаты многолетн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ультурного туризма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его поклонники наиболее чувствительны к комфортным условиям. Отсюда и начинаются проблемы в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ов религиозной тематики в Кыргызстане.

Как правило, поклонники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не афишируют свои цели и путешествую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 семьями, либо со своими гуру-наставниками, экстрасенсами или психологами. В связи с отсутствием офици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в Кыргызстане трудно проследить основные векторы его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токов, однако это не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у нас нет. Он есть, но для его развития необходима не тольк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мониторинг и охрана ресурсов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н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гиды-экскурсоводы. Потому как в Кыргызстане пока наблюдается дефицит гидов культурного и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вятые места» в Кыргызстане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иродными объектами. Поэтому проблема культурного ландшафта, признанная актуальной на уровне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собо актуальна в Кыргызстане [4].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охрану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культурного и природ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торые зачастую и являются ресурсами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Так, Н.Е. Кулешова [5] предложила функциональную типологию культурных и сакральных ландшафтов, которые

хотелось бы предложить читателям для лучшего понимания возможных ресурсов культурного и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в целом.

Конечно, если тенгрианец попросит религиозный тур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Тенгри в Кыргызстане, – его могут и не понять (Кыргызстан – с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6]. Поэтому очень важно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этом вопросе. Тенгрианц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падают в разряд экологических туристов. Мировое туристиче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неоднократно объявляло Кыргызстан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для экотуризм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аша страна автоматически входит в список стран, приоритетных для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для тенгрианцев.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арчовые и ореховые леса, рощи самых разных деревьев, родники, реки, водопады, горные озера, терма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пещеры и гроты изобилуют легендами и преданиями о своей сакральности, каждое место по-своему уникально. Жители любого уголка КР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расскажут вам чудесные истории, связанные со священными местами природ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близ их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Тенгрианцы почитают горы, а Кыргызстан признан на миров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арене еще и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горного туризма. Тенгрианц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падают не только в категорию горных туристов, но и в категорию паломников к основным святыням своей веры. Как Мекка для мусульман и Иерусалим для христиан, пик Хан-Тенгри (Кан-Тенгри, Кан Тенир) – для тенгрианцев. Горная вершина Хан-Тенгри, имеюща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известность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науке и являющаяся наибол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м объектом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изме, сложена из мрамора и мраморного известняка и имеет остроконечную пирамидальную форму заснеженной вершины. Высота которой достигает 6992 м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Считается, что именно отсюда простирается основной узел оледенения всего Тянь-Шаня (Тенир/Тенгри-Тоо). Так как пик Хан-Тенгри находится в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Центрального Тянь-Шаня, на стыке границ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итая (СУАР) и Кыргызстана (Иссык-К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 используют в туризме сразу три государства [7, с. 53–58.].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осещение приграничного района сопряжено с многими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ми проволочками, это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т поток туристов из дальнего и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Кыргызстан периодически объявляется мировы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еще и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для медицинског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Что же интересного в этом виде туризма переплетено с религиозным туризмом для тенгрианцев? Рассмотрим на примере озера Иссык-Куль. Всё побережье озера у кыргызов, также как и у всех тенгрианцев, почитавших культ предков, считалось священным. Наскальные рисунки сако-усуньского времени (Чырпыкты, Чок-Тал, Бостери, Корумду, Ак-Терек),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Иссык-К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между современными поселениями и подножием горных вершин, по сей день сохранились, вызывают восхищение туристов и считаются святыми местами Иссык-Куля, с которыми связа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амых невероятных историй. Люди с тонкой психикой говорят, что чувствуют здесь особую благотворную энергию и связь с предками [8].

На территории Иссык-К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но увидеть множество курганов.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невоскресены археологами и потому весьма привлекательны в плане эзотерики.

Современная научная мысль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кровь человека магнитоочувствительна, и это свойство в совокупности с другими физическими полями неизбежно влияет на организм человека. А сложные магнитно-аномальные курганные структуры при этом являю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м фактором, влияющим на психику человека. И эти особенности курганных объектов и священных мест были в давние времена не только известны, но 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 фольклорном творчестве, а также в ритуально-обрядовой системе.

В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нашли описание 120 святых мест Иссык-Куля,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их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е [9]. Благодаря встрече с кыргызом из племени «Буту», в Тюпском районе Иссык-К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об эпосе «Манас» узнал казахский ученый Чокан Валиханов – перв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знаменитого на весь мир сегодня кыргызского эпоса [10]. 70% чыныгы (истинных) манасчы (сказителей эпоса) из 100 родились в акватории озера Иссык-Куль. Остальные 30% как-то пересекались с Иссык-Кулем, провели здесь детство, проезжали мимо, но обязательно имели контакт с озером и его аурой.

В 2003 году ООН признала сказительское искусство, в том числе и сказительство эпоса «Манас» — «образцом уст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 духовного наслед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Потому турист-тенгрианец автоматически становится туристом, путешествующим

по очень модному сегодня в среде культурных туристов «Списку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Также он становится еще и литературным туристом. Вот какой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бонусов в своей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е тура религиозной тематики приобретает тенгрианец в КР.

Почему же вокруг озера появляет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много сказителей «Манаса»? На этот вопрос в свое время Саякбай Каралаев отвечал так: «Манас отправился в путь с Алтая, чтобы навестить своего брата Кошой. Минуя пастбище Каркыра, где в своё время состоялся знаменитый пир Кокетея, остановился он на перевале Кыз-Кыя, пораженный неописуемой красотой и величием Иссык-Куля. Спустился он на берег озера, омыл лицо и просил у Бога благодати для своего народа. Так Иссык-Куль вобрал в себя священную силу благословения, вымоленного самим Манасом».

Шаабай Азизов поведал другую историю: «Когда наш великодушный предок ехал с Алтая навестить духовного предводителя кыргызов Кошой, он увидел на пути кромку Иссык-Куля. Озеро так восхитило его, что он оставил на память тавро на огромном камне – след копыта своего коня Ак-кулы. Этот камень стал известным позж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Тулпар-Таш». Сегодня Тулпар-Таш на летнем пастбище Бель-Кара-Суу в Ак-Суйском районе Иссык-К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 место паломничества, люди верят, что здесь они ближе к Богу. Примерно такие же мысли высказывают старожилы озера: «Иссык-Куль – само по себе святое место, поэтому наши предки поклонялись ему, омывая лицо озерной водой. А люди, избранные высшей силой, стали сказителями «Манаса» благодаря исходящей от великого озера священной энергии». Природа и её величественные силы притягивают манасчы к себе [11]. Может быть,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духи великих предков уже сами стали частью природы. В определённые моменты сказитель оставляет все житейские хлопоты и отправляется на лоно природы. Место, куда направляется тот или другой манасчы, может быть мало известным другим людям, но оно всегда выбирается не случайно. Сказитель идёт туда, где может увидеть, услышать или ощутить присутствие своих учителей и покровителей. Манасчы также посещает известные в народе святы места. Сказители эпоса редко с кем делятся той информацией, которую получают там. Великий Сагымбай каждый год не менее двух-трех раз навещал мазар Арчалуу,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двадцати километрах от его родного

аила Ак-Олен, и священный родник Айчурек вблизи реки Жыргалан на северной стороне Иссык-Куля. Этот ряд фактов убедительно показывает фундаментальную роль природных мест в получении и раскрытии сказительского дара [12].

Сегодня связь слов благословения Иссык-Куля, произнесенных главным героем народного эпоса, с рождением в этих местах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сказителей эпоса, мистерией и тайнами самого озера, можно объяснить вполне научно – свойствами воды и законами физики. Издревле существовало очень много способов лечения так сказать «заряженной» водой, когда целители шептали молитвы на воду, посылали ей свои мысли о выздоровлении больного и т.д.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их пациенты, умывшись или выпив воду с заложенной в ней информацией, чудесным образом исцелялись от своих недугов. Колдуны и шаманы видели будущее, всматриваясь в чашу с водой и т.д.

И сегодня существуют различные метод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ды всевозможными целителями и ясновидящими в плане передачи своей энергии, либо получении информации о ком-либо, чем-либо. С самого детства всем нам знакомы сказки о «живой» и «мертвой» воде, о родниках, испив воду из которых, слабые становились сильнее, глупые – умнее и т.д. И, наоборот, существовали в сказках родники с водой, испив из которых можно было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козленка. С глубокой древности люди знали, что можно загрязнять воду не только физически, но и духовно. А как же объяснить мистирию соленого озера Иссык-Куль, вода которого не пригодна ни для питья, ни для полива?

Вода из озера никуда не вытекает, наоборот, в него только впадают небольшие ручьи и реки, берущие начало от тысячелетних горных ледников. Он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есут в себе информацию с тех мест, через которые протекают. Иссык-Куль – это «универсальный компьютер», ежесекундно пополняющий, обновляющий и передающий в окружающе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вою базу данны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зеро Иссык-Куль является местом накоп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б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культуры и природных явлениях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намного удаленных от самого озера. Если учесть, что мозг человека состоит на 85% из воды, то Иссык-Куль, несомненно, оказывает влияние на людей, так или иначе соприкасающихся с озером. Ученые только констатируют известный факт о самоочищении воды нашего уникального озера и одинаковом процентном соотношении соли в ней,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озеро впадают и пресные ручьи. На сегодня нет конкретного ответа насчет этого явления природы «к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исходит самоочищение и 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олености воды и почему?».

Об удивительных свойствах воды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ывает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й фильм «Вода» проекта BBC о природе, где известные ученые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делают выводы, что у воды есть память. Она вбирает вибрацию почвы, человеческих мыслей и эмоций, самой жизни. Запечатлевая получ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ода принимает новые свойства, но её химический состав остается тот же H_2O . Подчеркнем, что структура воды намного важнее, чем химический состав, она словно нервная система реагирует на малейшие раздраже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и могут ответить только на вопрос «как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вопрос «почему?» ответа в науке пока нет. Вполне очевидно сегодня и то, что водная структура человека идентична со структурой воды в том месте, где он родился. Понятие «родина» имеет конкретное физическое содержание. Не случайно сильнейшие манасчы Кыргызста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своей жизни чувствуют прямую зависимость их дара и душевного состояния с местом рождения. Как правило, оно было рядом с рекой, на побережье которой будущие сказители часто засыпали в детстве (происходил контакт с землей — дети пасли овец и после обеда спали на траве, питающейс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одой горных ручьев). Либо это место на родине было связано с родником, где пили воду и где, как они думали, получали информацию «свыше». На самом деле информация шла «снизу», то есть от земли, растений и воды.

Вспоминаются старинные детские сказки, в которых герои разговаривали с землей, лесом, камнями, с говорящими яблонями, реками и озерами. Были сказки, где герои говорили с ветром, получается, с воздухом, и это тоже можно объяснить официальной наукой — законами физики. Вода —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роводник звуковых волн, и обратившись к разделу физики, посвященной им, мы узнаем, что любая информация передается через волны. Причем волны имеют свои частоты, и если частота волны совпадает с частотой передатчика, то мы её воспринимаем. Если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волны, излучаемые человеком, совпадут с волнами, излучаемыми водой, то возможно восприятие человеком заложенной в воде информации, так сказать, по воздуху.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прикасаясь с самого рождения с озером Иссык-Куль, люди с особо чувствительной психикой и повышенной эмоциональностью очень чутко реагируют на информацию,

энергию, некие воздушные колебания, звуковые волны, идущи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от озера. В основном,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и местами Прииссыккуля, где меньше шума и присутствия цивилизации. Иссык-Куль не только хранит нашу историю, но и передает её людям с неординар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про каких говорят, что у них есть «Божий дар». Видимо с этими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ми свойствами озера и связан феномен рождения знаменитых сказителей эпоса «Манас» на побережье Иссык-Куля.

К великому сожалению, проблемы экологи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ановятся острее. Но человечество продолжает спокойно жить, несмотря на заявления экспертов о грядуще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катастрофе, если мы будем также хищнически относиться к природе. Возрождение и нравственное очищение не только Кыргызстана, но и всего мира возможно при одном условии – прекращени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наплевательс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ироде, к окружающей нас среде обитания. Тенгрианцы знали, что у всего в этом мире есть своя душа и над всеми нами (миром людей, животных, растений, над водой, землей...) есть Тенгри (Верховный Бог) или как его еще называли Көк Тәңірі (Небесный Бог). Все реформы начинаются в уме. А душа – это энергия ума. Оттого какая энергия души питает наш ум – зависит будущее человечества. И это тенгрианцы знали и чувствовали очень хорошо. Поэтому тур религиоз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для тенгрианцев поможет не только последователям этой веры, но и всему прогрессивному человечеству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своим духовным истокам.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Табышалиева, А.С.* Вера в Туркестане. – Бишкек, 1993.
2. Туризм в Кыргызстане 2013–2017. Сборник Нацстаткома. – Бишкек, 2018.
3.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для религиозного туризма в системе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М., 2012.
4. *Бегалиева, А.С.* Культурный туризм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истор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 Бишкек, 2013.
5. *Кулешова, М.Е.* Всемирное наследие и место в нем культурных ландшафтов. Наследие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сборник. – Вып. 15. – М., 2007.
6. Конституция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ведена в действие Законом КР от 27 июня 2010 года).
7. *Калдыбеков, Б.Н.* Священные горы Казахстана как объект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Труды II Межд. научно-практ. конф. «Сохранени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и смешанного наследия современно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Алматы, 2005.
8. *Бегалиева, А.С.*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в туризм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9. *Бегалиева, А.С., Брусиловский, Д.А.* Религиозный туризм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учеб. пособие. – Бишкек, 2011.
10. *Кадырбаева, Р.* Сказительная традиция манасчы Иссык-Ку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Сан-Таш 140. Мат. Междун. научно-практ. конф., посв. первой записи эпоса «Манас» Ч. Валихановым. – Бишкек, 1996. – С. 50.
11. *Бакчиев Т.* Манасида. Путь сказителя. – Бишкек, 2003; *его же:* 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 А.Жакыпбекова – Бишкек, 2006; Священный зов. – Бишкек, 2005; Манасчы Шаабай Азизов. – Бишкек, 2006; Манас и политика. – Бишкек, 2013; Кыргызский эпические сказители – Бишкек, 2015; Код кыргызов (в соавторстве). – Бишкек, 2011; Введение в манасоведение.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обучающихся по нефилологически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и направлениям. – Бишкек, 2008; Манасоведение. Учебник для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обучающихся по нефилологически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и направлениям – Бишкек, 2013.
12. Святые места Иссык-Куля: паломничество, дар, мастерство. – Бишкек, 2009.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황

장호중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1. 서론

중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국을 일컫는다. 면적이 한반도의 약 18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약 6,600만 명에 불과해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슈켄트와 알마티, 비슈케크 등 인구밀집도시는 남동부에 몰려 있다.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의 독립 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과 목표가 달라 단일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 국가별 협력과 공존에서도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언어와 민족 측면에서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기스, 투르크멘은 알타이어 계통의 투르크계인 데 반해, 타지크는 페르시아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란계에 속한다. 경제력과 국토면적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월등하며, 인구수와 농업생산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압도적이다. 정치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민주적인 체제를 정립해 장기집권이 지속되고 있는 4개국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반세기 넘게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와 관습이 일정 정도 남아 있고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단일체로 접근할 수 있다.¹

이 지역의 한국학 역사는 소련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소련의 한국학은 1970년대에 이미 양적, 질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 설화, 언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냉전 시기 정치적인 목적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가 진행된 측면이 강하여 관련 기관과 학자들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에 집중되었고,² 중앙아시아에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없이 개별적인 연구자들이 존재할 뿐이었다. 연방이 해체되기 직전인 1980년대 중반부터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과 한국의 지원에 힘입어 일부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시작하면

¹ “중앙아시아 한류: 문화-경제 한류의 선순환”(장호중, <2015 대한민국 한류백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pp.381-383) 참조.

² 소련 한국학의 특징과 성과는 “러시아 한국학의 역사와 현황”(콘체비치, <해외 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38-465), “러시아 한국학의 전개 및 발전 양상”(장호중, <민족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이중성>, 박문사, 2009, pp.227-2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 디아스포라로서의 고려인의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한국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방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에는 타슈켄트, 알마티, 비슈케크를 중심으로 외형적인 측면에서 한국학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의 목적으로 수강생이 크게 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류로 대변되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한국어교육이 양적인 면에서 급속히 성장한 것이다.³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교원의 양성, 교재 및 교수법의 개발, 강좌의 다양화 등 내적인 기반을 다지기보다는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에 한국어교육의 양적인 성장이 한국학의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한국학의 동기와 목적, 주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체제와 방법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현지 대학의 처우가 다른 직업에 비해 열악하여 전문성을 갖춘 젊고 우수한 교원의 양성에 어려움이 많다.
- (3) 중앙아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적인 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한 단계별 교재 또한 전무하다.
- (4) 한국학 대학의 재정이 빈약하고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외부적인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결하기 힘들며, 내적인 기반을 충실히 다지는 과정에서 차차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앙아시아 주요 대학의 한국학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지역의 한국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 주요 대학의 한국학 현황

2.1. 카자흐 국립대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이하 카자흐 국립대)는 1988년 언론학부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면서 한국학 강좌가 시작되어, 1994년 한국학과 설립 후 카자흐스탄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 크게 부상하였다. 카자흐스탄 최고 대학이라는 상징성을 기반으로 초기부터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편찬, 온라인

³ 독립 후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흐름은 “중앙아시아의 한국학”(김 게르만,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66-483)(장호중,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18, pp.173-1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의실 설치 등 꾸준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내외의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3,000권 이상의 한국 관련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중앙아시아 타 대학에 비해 멀티미디어 교육설비도 제법 갖추 수 있었다. 교수진은 20명 내외로 카자흐인, 고려인, 한국인이 역사, 문학, 언어, 정치, 인류학 등 분야별로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원 급여가 대부분 100-200달러 수준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카자흐스탄은 최근 현지화 폭락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400-500달러에 달하여 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학 강좌는 동양학, 어문학, 통번역의 3개 전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양학전공은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어문학전공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통번역전공은 한국어-러시아어와 한국어-카자흐어 통번역을 중심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2016년 8월 현재 학부 전공생이 105명에 달하며, 대학원에도 석사 5명, 박사 2명이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 산학협동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으로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해마다 20-30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표1>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 수강생(2015-2016학년도)⁴

	세부전공			계
	동양학	어문학	통번역	
1학년	14	6	6	26
2학년	14	9	10	33
3학년	9	6	8	23
4학년	12	10	1	23
석사	2	2	1	5
박사	2	0	0	2
합	53명	33명	26명	112명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과 카자흐스탄 최고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편찬이나 교수법 개발 등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 학과의 교원이 개발에 참여한 <카자흐

⁴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편람”(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알마티, 2016, pp.218-220) 참조.

스탄인을 위한 한국어>(전6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를 한국어표준교재로 활용하는 외에 두드러진 성과가 없다. 초기부터 국내외 유관기관들로부터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양한 연구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이 특정 교원에게 집중된 결과, 학과의 학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최한 학술대회나 포럼도 일회적인 전시성 행사에 그쳐서 교원들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인 이주의 역사>(박영사, 2005), <해외한인사>(한국학술정보, 2010), <CIS 고려인 문학과사와 문>(한국문화사, 2016) 등의 단행본을 발간하고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교원의 개인적인 성취에 그칠 뿐 학과의 연구 성과는 지닌 역량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또한 대학 내 학과조정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일본학과와 통합되어 극동학과 내 한국학전공으로 축소되는 등 최근에는 대내외적인 위상 면에서 부침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17년 6월부터 “카자흐스탄 한국문학(고려인문학 포함) 통합 교재 제작 및 문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를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는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2.2. 비슈케크 인문대

카라사예프 비슈케크 인문대(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named after K. Karasaev. 이하 비슈케크 인문대)의 한국학 강좌는 1991년 동양학과에 과목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내 한국학과가 개설되면서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의 중심대학으로 자리잡았다. 키르기스스탄은 여러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강의를 개설하다 보니, 대학과 수강생이 현지의 한국학 수요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다.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수협의회”의 창립(2001)을 주도하여 한국어교육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수진은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로 인해 교원의 양성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학과는 아시아·아프리카학, 언어, 국제관계, 경제의 4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역사, 문화, 통번역 등과 관련한 강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과과정상 지역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전공별로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한국 대학들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도 거의 중단되었다. 2016년 8월 현재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0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2016-2017학년도부터 4년제로 학제가 변경되었다. 대학원에는 석사 2명, 박사 3명이 재학 중이다.

<표2>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 수강생(2015-2016학년도)⁵

	세부전공				계
	아시아, 아프리카학	언어	국제관계	경제	
1학년	-	10	11	9	30
2학년	7	7	6	5	25
3학년	9	7	7	-	23
4학년	2	9	3	4	18
5학년	-	2	-	7	9
합	18명	35명	27명	25명	105명

현지에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파견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교재 개발이나 논문 발표 등 학술적인 활동도 일부 교원에 집중되어 있다. 교원들은 교재 개발이나 논문 발표 등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할 여력 없이 주당 40시간 내외의 강의를 소화하기에 급급하다. 과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100달러 남짓에 불과해, 국립국제교육원이나 재외동포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한 우수한 재원들이 학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30대 전후의 현지인 교원들도 자주 교체되다 보니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 교원 양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교원의 이직으로 그간 보여준 학과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도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2.3. 타슈켄트 동방대

타슈켄트 국립동방대(Tashkent Stat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이하 타슈켄트 동방대)의 한국학 강좌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며, 1993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학부로 존재하다가 2004년에 극동 및 남아시아 언어학부 내에 한국학과로 편입되었다. 2015년부터는 동양어학부 내 한국학과로 변경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타슈켄트가 중앙아시아의 중심도시였기 때문에 타슈켄트 동방대의 한국학은 한국 유관기관들의 지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니자미 사범대, 카자흐 국립대, 비슈케크 인문대 등 초기 중앙

⁵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편람”(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알마티, 2016, pp.211-217) 참조.

아시아 한국학을 주도하던 대학들이 최근 정체되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중에도 타슈켄트 동방대는 꾸준히 교육과 연구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표3> 타슈켄트 동방대 한국학 수강생(2015-2016학년도)⁶

	세부전공					제2 외국어	계
	어문학	경제	국제 관계	역사	통번역		
학생수	110	72	30	32	30	60	334명

한국학과는 어문학, 경제, 국제관계, 역사, 통번역의 5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학부전공생이 274명, 석사과정생이 15명(언어학 6명, 문학 4명, 통번역 1명, 경제 4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 어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교수진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파견교원 2명을 포함해도 13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어, 문학, 통번역, 역사,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원이 되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동일한 문제이므로, 유능하고 젊은 교원을 양성할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교원 양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문학과 통번역 분야에서 꾸준히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문학 대표선 번역 및 ‘한국문학의 이해’ 출판”을 연구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대표적인 한국 문학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시: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의 소설: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의 현대시: 1950년대까지>, <한국의 현대소설: 1950년대까지>, <한국문학의 이해> 등 결과물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에서 의혹의 시선이 거두지 않고 있으며, 성과들이 중앙아시아는커녕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공유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씨앗형사업에 재선정되어 “우즈베키스탄 한국학 진흥사업”을 주제로 온라인강의환경 구축, 교재 개발,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의 한국학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교재 개발,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터넷 강

⁶ “타슈켄트 동방대 한국학편람”(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편,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알마티, 2016, pp.249-253)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학 연구 현황 및 발전 전망”(〈한국학진흥사업단 온라인소식지〉 55, http://ksps.aks.ac.kr:18080/news_view.jsp?ncd=72) 참조.

좌 개설,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통한 한국학 연구 역량 강화, 현지 한국학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연구성과의 공유를 목표로 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2018년 9월 한국어교육의 높은 열기와 많은 수강생을 기반으로 한국학 단과대학을 개설한 만큼, 내부 노력과 외부 지원이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만한 저력이 있다.

2.4.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과는 어문학, 통번역, 동양학의 3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와 문학 중심의 과목이 집중된 어문학전공에는 136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며, 한국어-러시아어 통번역과 한국어-카자흐어 통번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통번역전공에는 84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다. 지역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역사, 정치, 경제 등의 과목을 강의하는 동양학전공은 88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다. 한국의 대학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여 해마다 40-50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수학 중이다. 한국어 강의의 표준교재로는 학과의 교원이 개발에 참여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전6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를 활용하고 있다. 대학원에는 석사 10명, 박사 5명이 재학 중인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학사업을 통해 박사과정의 인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표4>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 수강생(2018-2019학년도)

	세부전공			제2외국어	계
	어문학	통번역	동양학		
1학년	58	31	35	0	124
2학년	26	18	25	18	86
3학년	33	18	16	24	91
4학년	19	17	12	8	56
석사	4	3	3	5	15
박사	1	2	2	0	5
합	140명	89명	94명	55명	378명

카자흐 세계언어대는 1993년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 개설을 시작으로 1998년 동양어학과 내 한국어전공 설치 이후 서서히 한국학의 기반을 닦아 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학생이나 교원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한 타슈켄트 동방대, 니자미 사범대, 사마르칸트 국립외대(이상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국립대, 알마티 사범대(이상 카자흐스탄), 비슈케크 인문대(키르기스스탄) 등에 비해 국내외 한국학계에서 인지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한국학과 개편 이후 학생과 교원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경시대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와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주요 한국학기관으로 자리잡았다.

<표5> 카자흐 세계언어대 전공생 변천(최근 10년)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학부	79	93	122	146	182	209	203	227	237	308
석사	0	1	2	2	4	9	12	10	6	10
박사	0	0	0	1	1	1	0	1	5	5
합	79명	94명	124명	149명	187명	219명	215명	238명	248명	323명

<표6>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 교원 변천(최근 10년)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교원수	12명	13명	12명	12명	15명	15명	18명	18명	18명	20명

한국학과로 재편되기 전인 2011년까지 100명도 안 되던 학부전공생의 수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어문학전공, 동양학전공 외에 통번역전공이 신설된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9년 현재 308명에 달하며, 1-2명에 불과하던 대학원생도 10명 내외로 증가하였다. 교원은 2012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3명을 포함해도 12명에 불과했으나, 현지에서 꾸준히 교원을 확보하여 20명까지 증원하였다.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철수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각 대학들이 한국학 교원을 수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카자흐 세계언어대는 비교적 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언어, 역사, 문학, 정치 등을 전공한 교원이 고루 분포한 카자흐 국립대와 달리 카자흐 세계언어대는 언어전공자를 중심으로 교수진이 구성된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역사와 문화를 전공한 교원이 충원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형식적인 기관에 머물지 않고 전임인력을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앙아시아 한국

학이 지닌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체계 확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확산”을 주제로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중앙아시아 최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박 벨리(사업단장), 장호종, 한 벨리, 쿠틀루코프 시르자트, 김 울리아나, 전 엘레나, 쿠르만베크바 발렌티나, 보란타예바 파리자, 카이르케노바 굴나즈, 오스파노바 마르잔 등이 참여하여 “공존과 소통의 한국학: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3.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한계와 중앙아 한교협 의 역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교육원, 문화원, 세종학당을 찾거나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현지에서 양성되는 교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4개 도시(타슈켄트, 알마티, 누르술탄, 비슈케크)에 교육원과 문화원이 주재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7개 도시(타슈켄트, 알마티, 누르술탄, 심켄트, 비슈케크, 오슈, 두산베)에 세종학당 9개소가 설치되어 연간 한국어 수강생이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좋은 재원들이 교원이 되기를 기피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현지 교원을 양성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이다.

대학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지 공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이 허술하고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게 된다. 2019년 대한민국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들만 59명(우즈베키스탄 5+12명, 카자흐스탄 5+11명, 키르기스스탄 6+6명, 타지키스탄 4+3명, 투르크메니스탄 5+2명)에 달하며, 학부 장학생이나 고려인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인원도 상당하다. 더욱이 국내 대학들이 좋은 조건으로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어 한국에서 수학하는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의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와 한국학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표7> 기타 대학 한국어 수강생(2016-2017학년도)

국가명	대학명	학생수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	60명
	우즈베크 세계언어대	213명
	세계경제외교대	129명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200명
	부하라 국립대	40명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국립대	31명
	크질오르다 국립대	45명
	제티수 국립대	40명
	타라즈 사범대	75명
	동카자흐 국립대	27명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국립대	50명
	아라바예프대	110명
	키르기스 법률대	28명
	오슈 국립대	24명
	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	26명
타지키스탄	타지크 국립외대	60명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 세계언어대	50명

앞서 소개한 4개 대학 외에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현 누르술탄) 내 한국학 보급 사업”을 주제로 2018년부터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자르바예프대나 비교적 체계적인 한국학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100-200명에 달하는 학생 수와 10-20명으로 구성된 교수진 등을 갖춘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 한국대학,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등은 한국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편이지만, 그 외의 대학에서는 한국학 강좌가 동양학과 내 전공이나 제2외국어로 운영되어 한국학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한국학 강좌를 개설했던 알마티 사범대는 교원 충원과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한국학 강좌를 폐쇄하였으며, 다양한 교수법과 교재 개발을 선도하던 우즈베키스탄의 니자미 사범대 한국어교육과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2016-2017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도 하였다. 2017-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재개하였으나, 여전히 학과의 입지가 불안하다.

이제 교원 확보나 교과과정 정비와 같은 교육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졸업생의 진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한국에서 무한한 인적, 물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대학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라시아 국립대, 크질오르다 국립대, 키르기스 국립대, 타지크 국립외대, 투르크멘 세계언어대 등은 동양학과 내 한국학전공이 개설되거나 복수전공으로 한국어가 개설되어 2-4명의 교원이 30-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세계경제외과대, 동카자흐 국립대, 아라바예프대, 키르기스 법률대 등은 1-2명의 교원에 의존하여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진행되기에 교과과정 정비, 교재 발간, 교수법 개발 등 한국학의 기반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개발된 교재가 거의 없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원, 문화원, 대사관 등 유관기관의 인적, 물적 지원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형적 성장이 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각 대학들은 학술적인 교류와 협력에 매우 취약하다. 지역 간의 거리가 멀고 대부분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별, 대학별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가 공유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술 교류가 적다 보니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제약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의 한국학은 대외적인 기여도가 낮고 교육 성과로의 파급력 또한 미약한 편이다. 연구 및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 한국학의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또한 한국학 교원의 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한국에서 파견된 교원이나 현지에 정착한 한국인을 제외하면 현지인 교원의 수는 더욱 적어진다. 특히 젊은 교원들이 양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학 교육 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타슈켄트 동방대, 니자미 사범대, 사마르칸트 국립외대(이상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이상 카자흐스탄),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 국립대, 오슈 공대(이상 키르기스스탄), 타지크 국립외대(타지키스탄), 투르크멘 세계언어대(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교원들이 뜻을 모아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를 결성하였다.

제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비슈케크, 2013)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계의 내적인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중앙아 한교협은 1년간의 준비를 통해 2014년 6월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학술대회와 창립총회를 가졌다. 2015년 타슈켄트에서 “공존의 역사, 상생의 문화: 21세기 실크로드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알마티에서 “중앙아시아 한류와 한국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학술대회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비슈케크에서 개최하였다. 2018년에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의 발전과 확산”을 주제로 알마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학술대회는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과 “중앙아시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을 주제로 비슈케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아 한교협은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발간,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canks.asia>) 운영 등 한국학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2013.06. 제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개최(비슈케크)
- 2014.04.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4.06. 제2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비슈케크)
- 2015.06.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창간호 발간
- 2015.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5.06. 제3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타슈켄트)
- 2016.0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6.06.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호 발간
- 2016.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6.06. 제4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알마티)
- 2017.0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7.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7.06. 제5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비슈케크)
- 2018.0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8.06.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3호 발간
- 2018.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8.06. 제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알마티)
- 2018.1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9.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예정
- 2019.06. 제7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비슈케크)
- 2019.08.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4호 발간 예정

4. 결론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의 한국어교육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성과가 학문적인 차원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한국학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한국어교육의 수요 증가도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다. 결국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차원의 협력과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학계의 내적 기반과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내부적으로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는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관련 기관들의 외적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현지의 내적 활동이 어우러진다면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다만,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기여하고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립할 시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이 긍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한국학의 주체, 대상, 방법 등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학문적인 기초 작업 없이 발생하여 그 대상이 남한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세계 한국학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남북한을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내적인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하여 재정적인 자립 방안이나 신진 교원의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젊은 인재들이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거나 학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나 장기적인 연구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인 열정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우수한 인재들을 대학으로 끌어들이려는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내부적인 교류 및 학술적 공유를 추진하고, 해외 한국학과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단순히 결과물을 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해외 한국학, 특히 한국의 한국학계와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방법론이나 교수법 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 계르만.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66-483.
2. 장호중. <민족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이중성: 러시아의 한국어교육>. 박문사, 2009. 385p.
3. 장호중. “중앙아시아 한류: 문화-경제 한류의 선순환”. <2015 대한민국 한류백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pp.381-400.
4. 장호중.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18. pp.173-192.
5. 장호중.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제27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회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재검토>. 알마티: 고려대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2018. pp.1-8.
6.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1. 알마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15. 248p.
7.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알마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16. 290p.
8.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3. 알마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18. 262p.
9. 콘체비치(L. Kontsevich). “러시아 한국학의 역사와 현황”.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38-465.

<참고> 한국어-러시아어 인명 지명의 상호표기

1. 한국 인명 지명의 러시아어 표기

자음	홀로도비치 -콘체비치(1966)	모음	홀로도비치 -콘체비치(1966)
ㄱ	К-, -г-, -к	아	А
ㅋ	КХ-, -к	어	О [ӧ, ɔ]
ㆁ	КК	오	О
ㄷ	Т-, -д-, -т	우	У
ㅌ	ТХ	으	Ы
ㄸ	ТТ	이	И
ㅂ	П-, -б-, -п	애	Э
ㅃ	ПХ	에	Е
ㅍ	ПП	외	ВЕ
ㅅ	С-, -т	위	ВИ
ㅆ	СС-, -т	야	Я
ㅈ	Ч-, -дж-, -т	여	Ё/ЙО [йӧ, йо]
ㅊ	ЧХ-, -т	요	Ё/ЙО
ㅌ	ЧЧ	유	Ю
ㅎ	Х	얘	Йя
ㄴ	Н	예	ЙЕ/-Е
ㄷ	-р-, -ль	와	ВА
ㅁ	М	워	ВО
ㅇ	-н [-нъ]	왜	ВЭ
		웨	ВЕ
		의	ЫЙ

- 1) 한국 인명과 지명의 러시아어 표기는 홀로도비치-콘체비치(1966)의 간략전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병기한다.
- 3)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각각의 독립된 단위로 표기한다.
예) 장정진 Чан Джонджин (콘체비치 체계) → Чан Чонджин

2. CIS (구 소련)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키릴 문자	한글			키릴 문자	한글		
	모음앞	자음앞	어말		모음앞	자음앞	어말
А	아			Р	ㄹ	르	
Б	ㅂ	ㅂ, 브	프	С	ㅅ	스	
В	ㅅ	ㅅ, 브	프	Т	ㅌ	ㅅ, 트	트
Г	ㄱ	ㄱ, 그	크	У	우		
Д	ㄷ	ㅅ, 드	트	Ф	표	ㅂ, 프	프
Е	예, 예			Х	ㅎ	흐	
Ё	요			Ц	츠	츠	
Ж	ㅈ	즈, 시	시	Ч	츠	치	
З	ㅈ	즈, 스	스	Ш	시	시	
И	이			Щ	시	시	
Й	이			Ъ	-		
К	ㅋ	ㄱ, 크	크	Ы	이		
Л	ㄹ, ㄹㄹ	ㄹ		Ь	(이)		
М	ㅁ	ㅁ, 므	ㅁ	Э	에, 예		
Н	ㄴ	ㄴ		Ю	유		
О	오			Я	야		
П	표	ㅂ, 프	프				

- 1) 러시아의 인명, 지명은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 2)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인명과 지명은 자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우선으로 하여 한글로 옮긴다.
-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인명과 지명은 러시아어 표기를 우선으로 하되, 자국어에서 유래한 인명과 지명은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르기도 한다.

3.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예

3.1. 중앙아시아 인명

이하의 용례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korean.go.kr>)에서 공개한 외래어 표기 용례 자료 파일에서 인용하였다.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로 한다.

각 용례는 “러시아어 표기 #1: 로마자 표기 #2: 한글 표기 #3: 뜻풀이 #4: 결정 회의 등”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Акаев Аскар #1Akayev, Askar A. #2아카예프, 아스카르 #3키르기스스탄의 정치가·대통령(1990. 10.~2005. 8.). (1944~). #4회의 17차

Акилов Акил #1Akilov, Akil #2아킬로프, 아킬 #3타지키스탄의 정치가 (1944~). 총리(1999. 12.~). #4회의 42차

Атамбаев 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евич #1Atambaev, Almazbek (Sharshenovich) 키르기스 어명: 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евич Атамбаев #2아탐바예프, 알마즈 베크 (샤르세노비치) #3키르기스 정치가(1956~). 남성. 총리 대행(2007.3.~2007.11.). 총리(2010.12.~). 사회민주당 당수(1999.7.~). Atambaev 대신 Atambayev라는 로마자 표기형이 자주 사용됨. #4회의 75차

Бакиев Курманбек #1Bakiyev, Kurmanbek #2바키예프, 쿠르만베크 #3(1949~)키르기스스탄 정치가·대통령(2005.8.~). #4회의 42, 63차

Балгимбаев Нурлан #1Balgimbayev, Nurlan U. #2발김바예프, 누를란 #3카자흐스탄의 정치가. #4회의 19차

Бату (Батый) #1Batu #2바투 #3킵차크 한국(汗國)의 시조(1207~1255). #4편 수인명, 용인, 표준

Бердымухамедов Гурбангулы (Мяликгулыевич) #1Berdymukhammedov, Gurbanguly (Myalikgulyyevich) #2베르디무함메도프, 구르반굴리 (말리크굴리에비치) #3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1957~). 부총리 겸 보건·의료 산업 장관(2001. 12.~2006. 12.). 니야조프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 대행(2006. 12.~2007. 2.). 2007년 2월 14일 제2대 대통령에 취임. 전 치과의. #4회의 74차

Ермак Тимофеевич #1Ermak, Timofeevich #2예르마크, 티모페예비치 #3제정 러시아 카자흐의 수령(?~1585). #4표준

Жукеев Тулеген Т. #1Zhukeyev, Tulegen T. #2주케예프, 툴레겐 #3카자흐스탄의 외교관. #4회의 15차

Исабеков Азим #1Azim Isabekov #2이사베코프, 아짐 #3키르기스스탄 총

- 리(1960~). 전 농업 수자원.가공 산업 장관 대행. 키르기스스탄 의회에서 2007년 1월 29일 총리 취임을 승인. 펠릭스 쿨로프(Feliks Kulov) 전 총리(2005. 8.~2006. 12)의 후임. #4회의 74차
- Камилов Абдулазиз К. #1Kamilov, Abdulaziz K. #2카밀로프, 압둘라지즈 #3우즈베키스탄의 정치가(1946~). #4회의 31차
- Кануни Юнис #1Qanuni, Yunis #2카누니, 유니스 #3타지크 출신의 아프가니스탄 정치가. #4회의 46차
- Каримов Ислам А. #1Karimov, Islam A. #2카리모프, 이슬람 #3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1938~). #4회의 30차
- Назарбаев Нурсултан А. #1Nazarbayev, Nursultan A. #2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3카자흐스탄의 대통령(1940~). #4회의 42차
- Ниязов Сапармурат А. #1Niyazov, Saparmurat A. #2니야조프, 사파르무라트 #3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1940~2006). #4회의 32차
- Отунбаева Роза (Исаковна) #1Otunbayeva, Roza (Isakovna) 키르기스 어명: Роза Исаковна Отунбаева #2오투바예바, 로자 (이사코브나) #3키르기스스탄 정치가. 외교관(1950~). 임시 정부 대표(2010. 4.~). 외무장관(1993~1997). #4회의 89차
- Разм Мохаммад Алем #1Razm, Mohammad Alim #2라즘, 모하마드 알림 #3우즈베크 출신의 아프가니스탄 정치가. #4회의 46차
- Рахманов Амангельды #1Rakhmanov, Amangeldy #2라흐마노프, 아만겔디 #3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교관. #4회의 12, 16차
- Рахмон Эмомали #1Rahmon, Emomalii #2라흐몬, 에모말리 #3이전 이름 에모말리 라흐모노프(Emomali Rakhmonov). 타지키스탄 대통령(1952~). 1994년 11월 대통령 취임. 1999년 11월 재선. 2006년 11월 18일 세 번째 취임. 러시아풍의 성(姓)에서 어미를 삭제, 개명 발표(2007. 4. 13.). #4회의 75차
- Рахмонов Эмомали III. #1Rakhmonov, Emomali S. #2라흐모노프, 에모말리 #3타지키스탄의 대통령(1952~). #4회의 31차
- Султанов Уткир Т. #1Sultanov, Utkir T. #2술타노프, 윗키르 #3우즈베키스탄의 총리(1939~). #4회의 42차
- Тасмагамбетов Имангали #1Tasmagambetov, Imangali #2타스마감베토프, 이망갈리 #3카자흐스탄의 정치가(1956~). #4회의 44차
- Текебаев Омурбек #1Tekebayev, Omurbek 러시아 어명: Омурбек Текебаев #2테케바예프, 오무르베크 #3키르기스 정치가. #4실무소위(100719)
- Темучин #1Temuchin #2테무친 #3칭기즈 칸(Chingiz Khan)의 본명. #4편수 인명, 용인, 표준
- Токаев Касымжомарт К. #1Tokayev, Kasymzhomart K. #2토카예프, 카심조마르트 #3카자흐스탄의 정치가. #4회의 30차
- Фен Виталий #1Fen, Vitaly #2펜, 비탈리 #3우즈베키스탄의 외교관. #4회

의 18차

Чагатай #1Chaghatai #2차가타이 #3察合台. 13-14세기 중앙 아시아의 차가타이 한국(汗國)의 시조(?~1242). 칭기즈 칸의 둘째 아들. #4편수인명, 용인, 표준

Чингисхан #1Chingiz Khan #2칭기즈 칸 #3몽고국을 창건한 원나라의 태조(1162~1227). #4편수인명, 용인, 표준

Чудинов Игорь Витальевич #1Igor' Vitalyevich Chudinov Игорь Витальевич Чудинов #2추디노프, 이고리 비탈리에비치 #3키르기스 총리(1961~). 전 산업·에너지 장관. 2007년 12월 24일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S. Bakiyev) 대통령이 임명. #4회의 80차

3.2. 중앙아시아 지명

이하의 용례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korean.go.kr>)에서 공개한 외래어 표기 용례 자료 파일에서 인용하였다.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로 한다.

각 용례는 “러시아어 표기 #1: 로마자 표기 #2: 한글 표기 #3: 뜻풀이 #4: 결정 회의 등”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Ақмола #1Akmola #2아크몰라 #3‘아스타나(Astana)’의 전 이름.

Ақмолинск #1Akmolinsk #2아크몰린스크 #3‘아스타나(Astana)’의 전 이름.

Ақтоғай #1Aktogai #2악토가이 #3소련 #4보유2

Ақтүбінск #1Aktubinsk #2악튜빈스크 #3카자흐스탄 서북부에 있는 공업도시. #4표준, 보유2

Алма-ата #1Alma Ata #2알마아타 #3‘알마티(Almaty)’의 구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이름.

Алматы #1Almaty #2알마티 #3카자흐스탄 텐산 산맥 북쪽 기슭의 오아시스 도시. #4회의 16차

Алтай #1Altai 산맥 #2알타이 산맥 #3서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걸쳐 있는 산맥. #4편수지명, 용지, 표준

Аму #1Amu 강 #2아무 강 #3=아무다리야(Amu Darya) 강. #4표준

Аму-Дарья #1Amu Darya 강 #2아무다리야 강 #3중앙아시아에 있는 강. 아프가니스탄의 힌두쿠시 산맥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랄 해로 흘러든다. #4표준, 보유1

Андижан #1Andizhan #2안디잔 #3우즈베키스탄의 도시. #4편수지명, 용지, 표준

Арал #1Aral 해 #2아랄 해 #3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염호(鹽湖).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Астана #1Astana #2아스타나 #3①카자흐스탄의 주. ②카자흐스탄의 수도 및 아스타나 주의 주도. #4표준
- Ашхабад #1Ashkhabad #2아슈하바트 #3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4표준
- Ашхабат #1Ashgabat Ашгабат #2아시가바트 #3투르크메니스탄 수도. 구 칭 아슈하바트 Ashkhabad (1927~1992), 폴토라츠크 Poltoratsk (1919~1927). #4회의 84차
- Байконур #1Baikonur #2바이코누르 #3카자흐스탄 카라간다(Karaganda) 주 서부의 우주 기지. #4표준, 보유2
- Бактра #1Bactra #2박트라 #3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고대 도시.
- Балхаш #1Balkhash 호 #2발하슈 호 #3카자흐스탄의 동남부에 있는 큰 호수.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Белуха #1Belukha 산 #2벨루하 산 #3러시아 고르노알타이(Gorno-Altai)와 카자흐스탄(Kazakhstan) 사이에 있는 산 #4표준
- Бишкек #1Bishkek #2비슈케크 #3키르기스스탄의 수도. #4표준
- Бухара #1Bukhara #2부하라 #3우즈베키스탄의 제라프산(Zeravshan)강 하류에 있는 도시. #4표준, 보유1
- Бухара #1Bukhara 한국 #2부하라 한국 #3서투르크িস탄의 중남부를 지배한 우즈베크 족이 16세기 초부터 부하라를 수도로 하여 세운 나라.
- Гиндукуш #1Hindu Kush 산맥 #2힌두쿠시 산맥 #3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의 남쪽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이란으로 뻗은 산맥. #4표준, 보유1
- Джамбул #1Dzhambul #2잠불 #3①카자흐스탄의 주. ②잠불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 Джаннат #1Jannah #2잔나 #3[종교] 이슬람교에서 알라가 신자를 위하여 사후(死後)에 심판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영원한 낙원. #4표준
- Душамбе #1Dyushambe #2듀샴베 #3‘두샴베(Dushanbe)’의 옛 이름. #4용지 (Dushanbe와 비교)
- Душанбе #1Dushanbe #2두샴베 #3타지키스탄의 수도. #4편수지명 (Dyushambe와 비교), 표준
- Зайсан #1Zaisan 호 #2자이산 호 #3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동부, 중국 국경 가까이 있는 호수. #4표준
- Иртыш #1Irtysh 강 #2이르티시 강 #러시아 서부 옴스크(Omsk) 주 카자흐스탄(Kazakhstan) 동북부에 있는 강. #4표준
- Ишим #1Ishim 강 #2이심 강 #3러시아 서부 튜멘(Tyumen') 주와 옴스크(Omsk) 주 및 카자흐스탄 (Kazakhstan) 중북부를 흐르는 강 #4편수지명, 용지
- Казакк #1Cossack #2코사크 #3‘카자흐스탄(Kazakhstan)’의 영어 이름. #4표준
- Казак #1Kazakh #2카자흐 #3=카자흐스탄(Kazakhstan).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Казахстан #1Kazakhstan #2카자흐스탄 #3카스피 해 동북쪽,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대에 있는 공화국. #4표준, 용례집
- Кара-Богаз-гол #1Kara-Bogaz-Gol 만 #2카라보가스골 만 #3투르크메니스탄의 서쪽, 카스피 해 동쪽에 있는 만. #4표준, 보유2
- Караганда #1Karaganda #2카라간다 #3카자흐스탄의 도시.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Каракалпак #1Karakalpak #2카라칼파크 #우즈베키스탄에 속하는 자치 공화국의 하나. 수도는 누쿠스(Nukus). #4표준
- Каракорум #1Karakoram 고개 #2카라코람 고개 #3중앙아시아 남쪽의 카라코람 산맥을 가로지르는 고개. #4표준
- Каракорум #1Karakoram 산맥 #2카라코람 산맥 #3중앙아시아에 있는 산맥. #4편수지명, 용지, 표준, 보유2
- Каракум #1Kara Kum 운하 #2카라쿰 운하 #3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 남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 #4표준
- Каракумы #1Kara Kum 사막 #2카라쿰 사막 #3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사막. #4표준
- Караханийы #1Karakhan #2카라한 (왕조) #3중앙아시아의 옛 왕조 #4보유1
- Каспийское море #1Caspian 해 #2→카스피 해 #3중앙아시아 서부에 있는 세계 최대의 호수.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Кзыл-Орда #1Kzyl-Orda #2크질오르다 #3카자흐스탄에 있는 도시. #4편수지명, 용지
- Кипчаки #1Kipchak #2킵차크(한국) #3중국 원나라 태조의 아들 주치와 손자 바투가 세운 나라. #4편수지명(Kipchakkhan 비교)
- Кипчакхан #1Kipchakkhan #2킵차크한 #3몽골 제국의 사한국의 하나. #4용지(Kipchak 비교)
- Киргиз #1Kirgiz #2키르기스 #3=키르기스스탄(Kirgizstan).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Киргизия #1Kirgiziya #2키르기지아 #3=키르기스스탄(Kirgizstan). #4표준
- Коканд #1Kokand #2코칸트 #3우즈베키스탄의 동부에 있는 도시.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Красноводск #1Krasnovodsk #2크라스노봇스크 #3투르크메니스탄의 도시.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Кушка #1Kushka #2쿠슈카 #3투르크메니스탄 동남부의 군사 도시. #4편수지명, 용지
- Кызылкум #1Kyzyl Kum 사막 #2키질쿰 사막 #3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사막. #4표준, 보유2
- Кыргызстан #1Kirgizstan #2키르기스스탄 #3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 #4표준

- Мараканда #1Maracanda #2마라칸다 #3사마르칸트(Samarkand)의 옛 이름.
#4편수지명, 보유2
- Мараканда #1Marakanda #2마라칸다 #3우즈베키스탄의 옛 도시. #4용지
- Мерв (Мары) #1Merv #2메르프 #3투르크메니스탄의 오아시스 도시. #4편수지명, 용지
- Наманган #1Namangan #2나망간 #3우즈베키스탄 동부에 있는 공업 도시.
#4표준, 보유2
- Новоказалинск #1Novokazalinsk# 2노보카잘린스크 #3카자흐스탄 남부 아
랄 해 동북쪽에 있는 도시. #4편수지명, 용지
- Нукус #1Nukus #2누쿠스 #3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의 수도. #4표준, 보
유2
- Павлодар #1Pavlodar #2파블로다르 #3①카자흐스탄의 주. ②파블로다르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 Памир #1Pamir #2파미르 #3중앙아시아 동남쪽에 있는 대산계와 고원으로
이루어진 지방. #4편수지명, 용지
- Памир #1Pamir 고원 #2파미르 고원 #3중앙아시아 동남쪽에 있는 고원. #4
표준
- Перовск #1Perovsk #2페로프스크 #3크질오르다(Kzyl-Orda)의 옛 이름. #4
편수지명, 용지
- Самарканд #1Samarkand #2사마르칸트 #3우즈베키스탄 동부의 도시 #4편
수지명, 용지, 표준
- Семёнов-баши #1Semenov 산 #2세메노프 산 #3키르기스탄 북부 키르기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4용례집
- Семипалатинск #1Semipalatinsk #2세미팔라틴스크 #3카자흐스탄 동북부
에 있는 항구 도시.
- СНГ #1CIS #2독립국가연합 #3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번역
#4회의 3차
- Согдиана #1Sogdiana #2소그디아나 #3중앙아시아의 고대 국가. #4표준, 보
유1
-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1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2소련 #3국명. #4편수지명, 용지
- ССР #1SSR #2에스에스아르 #3소련을 구성하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
국. [Soviet Socialist Republic] #4표준
- СССР #1USSR #2유에스에스아르 #3=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4표준
- Сырдарья #1Syr Dar'ya 강 #2시르다리아 강 #3중앙아시아의 텐산 산맥(天
山山脈) 서쪽에서 시작하여 아랄 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4표준, 보유1
- Таджик #1Tadzhik #2타지크 #3아시아 중부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 #4편수
지명, 용지, 표준, 2005노어

- Таджикистан #1Tadzhikistan #2타지키스탄 #3 ⇒Tadzhik(타지크). #4표준, 2005노어
- Такла-Макан #1Taklamakan 사막 #2타클라마칸 사막 #3중국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 자치구 남부의 타림 분지 가운데에 있는 사막. #4표준, 보유1
- Талды-Курган #1Taldy-Kurgan #2탈디쿠르간 #3소련 #4보유2
- Ташкент #1Tashkent #2타슈켄트 #3우즈베키스탄의 수도.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Термез #1Termez #2테르메스 #3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 Тобол #1Tobol 강 #2토볼 강 #3카자흐스탄(Kazakhstan)과 러시아 서부에 위치한 강. #4용례집
- Туркистан #1Turkistan #2투르키스탄 #3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4표준, 보유1
- Туркмен #1Turkmen #2투르크멘 #3카스피 해(Caspian Sea)에 면한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Туркменистан #1Turkmenistan #2투르크메니스탄 #3중앙아시아 서남부, 카스피 해에 면하여 있는 공화국. 수도는 아슈하바트(Ashkhabad). #4회의 3차
- Ўзбек #1Uzbek #2우즈베크 #3=우즈베키스탄(Uzbekistan). #4표준, 보유1
- Ўзбекистан #1Uzbekistan #2우즈베키스탄 #3중앙아시아의 공화국. 수도는 타슈켄트(Tashkent) #4표준
- Урал #1Ural'나 #2우랄스크 #3①카자흐스탄 서부의 주. ②우랄스크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Ургенч #1Urgench #2우르겐치 #3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Федченко #1Fedchenko 빙하 #2페드첸코 빙하 #3타지키스탄의 파미르 고원 동북부에 있는 빙하. #4표준
- Фергана #1Fergana #2페르가나 #3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 서북부, 시르다리아 강 중 상류에 있는 지방. #4표준, 보유1
- Фергана #1Fergana 분지 #2페르가나 분지 #3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 서북부, 시르다리아 강 중류에 있는 분지. #4표준
- Фрунзе #1Frunze #2프룬제 #3'비슈케크(Bishkek)'의 전 이름. #4표준, 보유1
- Хан-Тенгри #1Khan-Tengri #2한텡그리 (산) #3중국~소련. 중국어명은 한텡거리(汗騰格里) 산 #4보유2
- Хива #1Khiva #2히바 #3우즈베키스탄 서북부의 도시. #4편수지명, 용지
- Ходжент (Худжанд) #1Zhozhent #2호젠트 #3타지키스탄에 있는 도시. #4표준

Хорезм #1Khorazm #2호라즘 #3중앙아시아, 아무다리야 강 하류 지역. #4
표준

Хорезм #1Khorazm #2호라즘 (왕국) #3중앙아시아 옛 왕국. #4보유1

Хорог #1Khorog #2호로크 #3타지키스탄에 있는 도시. #4편수지명, 용지

Целиноград #1Tselinograd #2첼리노그라드 #3①카자흐(Kazakh) 공화국 북
부의 주. ②첼리노그라드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표준

Чагатай #1Chaghatai 한국 #2차가타이 한국 #3몽골 제국의 사대(四大) 한국
가운데 1227년에 차가타이가 알말리크(Almalik)를 수도로 하여 세운 나
라.

Чимкент (Шымкент) #1Chimkent #2침켄트 #3카자흐스탄 남부의 도시. #4
편수지명, 용지, 표준

Чу #1Chu 강 #2추 강 #3카자흐스탄 중앙을 흐르는 강. #4편수지명, 용지,
표준

Шелковый путь #1Silk Road #2실크로드 #3 #4보유1

Ширамурен #1Shira Müren #2시라무렌 (강) #3중앙아시아 #4보유1

СВЕДЕНИЯ ОБ АВТОРАХ

* Корейские имена записаны по принципу русской транскрипции Холодовича-Концевича (1954-1966).

1. **Ким Тхэхо**, Ph.D.,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ан, Кобе, Япония; e-mail: kimtaeho@konan-u.ac.jp
2. **Аксаналиева Жамиля Нурлановна**,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zhami_95@mail.ru
3. **Жетписов Сакен Николаевич**, к.ф.н., ст.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arnika_ltd@mail.ru
4. **Ким Ольга Анатольевна**, к.ф.н., Университет Инха в Ташкенте,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e-mail: tideson@mail.ru
Львова Ирина Семеновна, доцент ТГПУ имени Низам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e-mail: irlis@inbox.ru
Елькин Денис Ю., аспирант УзГУМ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e-mail: dionisi1@yandex.ru
5. **Ким Соён**, Ph.D., профессор Соф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фия, Болгария; e-mail: soyoungbulgaria@hanmail.net
6. **Ким Тамин**,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ГУ им. Коркыт ата, Кызылорда, Казахстан; e-mail: 12345kdm@naver.com
Ким Иён,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ГУ им. Коркыт ата, Кызылорда, Казахстан; e-mail: withyiyeon88@gmail.com
7. **Ким Ульяна Андреевна**,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almatykim@gmail.com
8. **Курманбекова Валентина А.**,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aliluika91@gmail.com
9. **Кутулуков Ширзат Пархатович**,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kshirzat@gmail.com
10. **Ли Ольга Е.**,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ТарГПУ, Тараз, Казахстан; e-mail: li.olya.1995@mail.ru

11. **Мен Дмитрий Вольбонович**, д.и.н.,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mendima@gmail.com
12. **Мухамеджанова Меруерт Ержановна**,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mika_9307@mail.ru
Амангельды Акбота Манасовна,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ak_bota93@mail.ru
13. **Ормонова Айжаркын Токтосуновна**, аспирант, БГУ им.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e-mail: moonlight888@bk.ru
14. **Пэк Тхэхён**, к.и.н., профессор Кыргыз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дж,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e-mail: backt@hanmail.net
Шерикулова Минара А., Ph.D., профессор КИЦ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e-mail: contactkkc12@gmail.com
15. **Сафронова Людмила В.**,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dinass2002@mail.ru
Сермухаметова Б.Б.,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16. **Стамбекова Тинатин Т.**, Кыргыз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дж,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e-mail: stambekova.tinatin@gmail.com
17. **Тен Елена В.**,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tenlena@mail.ru
18. **Шейнфельд Асель У.**, д.и.н., профессор КИЦ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e-mail:
19. **Чан Ходжон**, Ph.D.,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hoshi782@hanmail.net

집필진

- 필자, 학위, 소속 및 직위, 국적, 전자우편. 이름은 “성 - 명 - (부칭)” 순.
-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кандидат наук 은 Ph.D.로, доктор наук 은 Doctor 로 표기.
-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은 ‘강사’로, доцент, профессор 는 ‘교수’로 표기.

1. 김태호, Ph.D., 일본 고난대 한국학과 교수, 대한민국, e-mail: kimtaeho@konan-u.ac.jp
2. 악사날리에바 자밀라, 석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카자흐스탄, e-mail: zhami_95@mail.ru
3. 젯피소프 사켄, Ph.D.,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카자흐스탄, e-mail: arnika_ltd@mail.ru
4. 김 올라, Ph.D., 타슈켄트 인하대, 우즈베키스탄, e-mail: tideson@mail.ru
리보바 이리나, 니자미 사범대 교수, 우즈베키스탄, e-mail: irlis@inbox.ru
엘킨 데니스, 우즈베크 국립세계언어대 박사과정, 우즈베키스탄, e-mail: dionisi1@yandex.ru
5. 김소영, Ph.D., 불가리아 소피아대 교수, 대한민국, e-mail: soyoungbulgaria@hanmail.net
6. 김다민, 박사수료, 크질오르다 국립대 강사, 대한민국, e-mail: 12345kdm@naver.com
김이연, 석사, 크질오르다 국립대 파견교원, 대한민국, e-mail: withyiyeon88@gmail.com
7. 김 울리아나, 박사수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카자흐스탄, e-mail: almatykim@gmail.com
8. 쿠르만베코바 발렌티나, 박사과정,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카자흐스탄, e-mail: aliluika_kr@mail.ru
9. 쿠틀르코프 시르자트, 박사과정,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카자흐스탄, e-mail: kshirzat@gmail.com
10. 이 올라, 석사, 타라즈 사범대 강사, 카자흐스탄, e-mail: li.olya.1995@mail.ru

11. 명 드미트리, Doctor,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교수, 카자흐스탄, e-mail: mendima@gmail.com
12. 무하메자노바 메루예르트, 석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강사, e-mail: mika_9307@mail.ru
아망젤디 아크보타, 석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e-mail: ak_bota@mail.ru
13. 오르모노바 아이자르킨,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키르기스스탄, e-mail: ormonovaaizharkyn@gmail.com
14. 백태현, Ph.D., 키르기스 한국대 교수, 대한민국, e-mail: backt@hanmail.net
세리쿨로바 미나라, Ph.D., 중앙아시아 한국대 교수, 키르기스스탄, e-mail: contactkkc12@gmail.com
15. 사프로노바 류드밀라, Doctor,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교수, 카자흐스탄, e-mail: dinass2002@mail.ru
세르무하메토바 바그잔,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스탄, e-mail:
16. 스타메코바 티나틴, 키르기스 한국대, 키르기스스탄, e-mail: stambekova.tinatin@gmail.com
17. 전 엘레나, 석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카자흐스탄, e-mail: tenlena@mail.ru
18. 셰인펠트 아셀, Doctor, 중앙아시아 한국대 교수, 키르기스스탄, e-mail:
19. 장호중, Ph.D.,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교수, 대한민국, e-mail: hoshi782@hanmail.net

СОДЕРЖАНИЕ

* Статьи и информация об университетах в справочнике дана в алфавитном порядке

1. 김태호. 일본 간사이(関西) 지역의 한국학 현황	5
2. АКСАНАЛИЕВА Ж.Н. Модели космоса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23
3. ZHETPISOV S.N. Korean-Russian-Kazakh Three-Language	39
4. КИМ О.А., ЛЬВОВА И.С., ЕЛЬКИН Д.Ю. Классификаци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64
5. KIM SOYOUNG. Trends and Development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Korean Studies in Bulgaria	76
6. 김다민, 김이연.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	88
7. КИМ У.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и тактик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дискурса	100
8. КУРМАНБЕКОВА В.А. Специфика перевода концептов в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текстах	109
9. КУТУЛУКОВ Ш.П. Постмодернистская тео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 примере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119
10. ЛИ 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тода проект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30
11. МЕН Д.В. Корё сарам в Казахстане: формирование, тенденц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142
12. МУХАМЕДЖАНОВА М.Е., АМАНГЕЛДЫ А.М. Английски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157
13. ОРМОНОВА А.Т.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лия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едпосылок и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172
14. 백태현, 세리쿨로바 미나라.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	184
15. САФРОНОВА Л.В., СЕРМУХАМЕТОВА Б.Б. Поэтика корейских рассказов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198
16. СТАМБЕКОВА Т.Т. Кыргызстан и Корея на стыке культур	206
17. ТЕН Е.В. Формы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ее и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в Казахстане	215
18. ШЕЙНФЕЛЬД А.С. Религиозный туризм как средство возвращения к своим духовным истокам (тенгрианство,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229
19. 장호종.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황	239

<참고> 한국어-러시아어 인명 지명의 상호표기	253
СВЕДЕНИЯ ОБ АВТОРАХ	263
집필진	265
СОДЕРЖАНИЕ	267

УДК 001 (519.5)
ББК 72 (5Кор)
К 66

Редакционная коллегия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ыпуск 4)»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Пак Н.С., д.ф.н., профессор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Ответственный редактор: Чан Ходжон, Ph.D., профессор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Члены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Пек Тхехён, к.и.н., профессор Кыргызско-корейского колледжа, Кыргызстан
Ли Кынджун, Ph.D., профессор КИМЭП, Казахстан
Хан Н.Ч., Ph.D., ассоц.профессор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Сон Ёнхун, Ph.D.,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ставители:

Каиркенова Г.О.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К66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ып. 4. Алматы: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Казахстан.
2019. 270 с.

В настоящем сборни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учные работы, посвящённой теме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данный сборник также вошли краткие сведения об основ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где ведё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корееведения.

Издание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широкого круга читателей, которые интересуются проблемами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ДК 001 (519.5)
ББК 72 (5Кор)

ISSN 2522-1434

©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2019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 ХАНА**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ЫПУСК 4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КОРЕЕВЕДОВ**

Алматы, 2019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Overseas Leading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15-OLU-2250007).”